

# 제56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고대국어 문법의 총체적 접근

일시: 2019년 2월 13일(수)

장소: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정보문화관P P401호

주최: 구결학회, 한국연구재단



■ 제56회 구결학회 겨울 학술 대회 일정표 ■

2019년 2월 13일(수)

| 시 간                         | 발표 및 내용                                                       | 사회자               |
|-----------------------------|---------------------------------------------------------------|-------------------|
| 09:30-10:00                 | 등 록                                                           |                   |
| 10:00-10:10                 | 개회사: 권인한(구결학회 회장)                                             | 이용<br>(서울시립대학교)   |
| 10:10-10:20                 | 휴 식                                                           |                   |
| 개인 연구 발표                    |                                                               |                   |
| 10:20-10:50                 | 16세기 노비결송 입안 이두의 특징<br>발표자: 조남곤(고려대학교)                        | 장경준<br>(고려대학교)    |
| 10:50-11:20                 |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br>발표자: 성우철(고려대학교)  |                   |
| 11:20-11:50                 |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 - 명명 구문, 관형 구성을 중심으로 -<br>발표자: 최준호(서울대학교) |                   |
| 11:50-12:20                 | 연결어미 ‘-ㅓㅓㅓ’의 의미 변화: 대동사 구문을 중심으로<br>발표자: 이강혁(서울대학교)           |                   |
| 12:20-13:20                 | 점심 식사                                                         |                   |
| 기획 주제 발표 1: 고대국어 문법의 총체적 접근 |                                                               |                   |
| 13:20-14:00                 | 고대국어 종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br>발표자: 최성규(서울시립대학교)                     | 장윤희<br>(인하대학교)    |
| 13:20-13:40                 |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br>발표자: 김지오(동국대학교)                       |                   |
| 14:40-15:20                 | 고대국어 동명사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br>발표자: 이병기(한림대학교)                      |                   |
| 15:20-15:30                 | 휴식                                                            |                   |
| 기획 주제 발표 2: 고대국어 문법의 총체적 접근 |                                                               |                   |
| 15:30-16:10                 | 고대국어 경어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br>발표자: 박부자(성신여자대학교)                | 장윤희<br>(인하대학교)    |
| 16:10-16:50                 |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br>발표자: 하정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16:50-17:00                 | 휴식                                                            |                   |
| 17:00-18:00                 | [종합 토론]<br>토론자: 안대현(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현수(숭실대학교),<br>허인영(고려대학교)     | 좌장:<br>김성주(동국대학교) |
| 교육 및 행사                     |                                                               |                   |
| 18:00-18:10                 | 연구 윤리 교육                                                      | 이용<br>(서울시립대학교)   |
| 18:10-18:20                 | 구결학회 학술논문상 시상                                                 |                   |
| 폐회 및 총회                     |                                                               |                   |
| 18:20-18:30                 | 폐회사: 권인한(구결학회 회장)                                             | 이용<br>(서울시립대학교)   |
| 18:30-18:40                 | 정기 총회                                                         |                   |



## ■ 목 차 ■

### <개인 연구 발표>

|                                                   |     |   |     |
|---------------------------------------------------|-----|---|-----|
|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이두의 특징 .....                          | 조남곤 | ◆ | 001 |
| 국어 차지표기 교육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성우철 | ◆ | 033 |
|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br>- 명명 구문, 관형 구성을 중심으로 ..... | 최준호 | ◆ | 051 |
| 연결어미 ‘-ㅓㅓㅓ’의 의미 변화: 대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 이강혁 | ◆ | 075 |

### <기획 주제 발표 제1부>

|                            |     |   |     |
|----------------------------|-----|---|-----|
| 고대국어 종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최성규 | ◆ | 089 |
|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김지오 | ◆ | 113 |
| 고대국어 동명사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이병기 | ◆ | 133 |

### <기획 주제 발표 제2부>

|                                 |     |   |     |
|---------------------------------|-----|---|-----|
| 고대국어 경어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박부자 | ◆ | 157 |
|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하정수 | ◆ | 175 |



# <개인 연구 발표>



#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이두의 특징<sup>1)</sup>

조남곤(고려대)

- |                    |                       |
|--------------------|-----------------------|
| 1. 머리말             | 4.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이두의 특징 |
| 2. 결송입안의 정의와 형식    | 4.1. 표기적 특징           |
| 2.1. 결송입안의 정의      | 4.2. 문체적 특징           |
| 2.2. 결송입안의 형식      | 5. 맺음말                |
| 3.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현황 |                       |

##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이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데에 있다. 고려시대 이두와 조선 초기의 이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졌지만 고려시대 및 조선 초기의 이두와 조선 후기 이두의 중간 지점인 16세기 이두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진하다. 특히 16세기 고문서 관련 이두에 대해서는 오창명(1995<sup>1)</sup>) 이후 연구 작업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16세기 고문서 이두에 대해서는 연구물이 매우 적다. 간혹 16세기 고문서 이두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연구 논문들도 탈초(脫草)·정서(正書)된 적은 분량의 자료들을 단편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이처럼 16세기 고문서의 이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결송입안의 이두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16세기 이두는 전대와 후대 이두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이두일 가능성이 크지만 16세기 이두만의 독자성이나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최근 필자가 고찰한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은 이러한 16세기 이두의 특성과 과도기적 양상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필자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이두를 연구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첫째, 새로운 이두자들이 출현한다. 等內, 前等, 後等, 更亦, 導亦, 並亦, 右亦 등이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 처음 나타난다.

둘째,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는 계사 -是-의 생략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아울러 (-)爲-나 (-)爲- 뒤에서의 -良, -遣, -齊의 생략 현상도 종종 나타난다.

셋째, 존칭의 주격조사에 평칭의 주격조사가 결합된 특이한 주격조사 결합형 敎是亦이 나타난다.

넷째, 단체 명사에 결합해 쓰이는 주격조사 ‘에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이두자 以의 용례가 여럿 보인다. 16세기에는 주격조사 以의 쓰임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

1) 이 발표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으나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다.

1) 최근에 출간된 박성중 선생님의 「朝鮮前期 吏讀 研究」는 1996년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했던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의 증보판으로서 대상 자료를 16세기의 전적류 이두 자료와 고문서 이두 자료로 확장하여 국어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16세기 고문서 이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후학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문서 중에서 양이 매우 많고 비중이 큰 입안류의 이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는데 이러한 추세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도 보인다.  
다섯째, 分이 처격조사가 아니라 형식명사 ‘즈음’이나 ‘무렵’의 뜻으로 쓰인 이두자임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爲有臥乎則이라는 새로운 이두 활용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부사형 연결어미 ‘-느즉’을 나타내는 이두자 -則의 선구적인 활용 형태로 볼 수 있다.  
일곱째, 명사문 종결의 원칙이 약화되고 있다.  
여덟째, 노비결송입안은 다양한 연결어미 이두의 사용으로 한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이 글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이두의 표기적(형태적), 문체적 특징을 밝혀 16세기 이두의 특징과 그 과도기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 2. 결송입안의 정의와 형식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나타난 이두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결송입안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송입안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송입안에 나타난 이두자와 이두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구와 구,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여 통사적, 의미적 기능을 실현시키는 이두토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결송입안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 2.1. 결송입안의 정의

입안(立案)은 관(官)에서 발급하는 문서로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매매·양도·결송·입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인증(公증)해 주는 문서이다.<sup>2)</sup> 즉, 입안은 관문서 중, 준호구(準戶口)<sup>3)</sup>, 자문[尺文]<sup>4)</sup> 등과 함께 증빙류에 속하는 것으로 조정이나 지방관아에서 어떠한 사실을 공증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예전(禮典)> 용문자식조(用文字式條)에는 “官府文字 並置立案 以憑後考(관아의 문서는 모두 입안을 두어 뒷날의 증거로 삼게 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입안이 관아에서 신청자에게 발급한 문서에 대하여 뒷날의 증거를 목적으로 관에 보관해 두는 문서임을 알 수 있다. 입안은 일반적으로 관(官)에서 2부를 만들어 1부는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관에 보관해 두어 뒷날의 증거로 삼은 공문서(公文書)인 것이다.

결송입안은 사송(詞訟)<sup>5)</sup>에서 승리한 사람이 관아에 발급을 신청함으로써 받는 증빙서이다. 곧 결송입안은 노비, 전답, 가옥, 묘지, 봉사(奉祀)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원고와 피고 간의 민사상의 분쟁에서 승소한 자가 관에 요청하여 받는 판결문인 것이다. 결송입안은 원고가 처음 제출한 소지(所志)<sup>6)</sup>와 이후 원척(元隻)<sup>7)</sup>이 제출한 소지 및 이에 대한 제사(題辭)<sup>8)</sup>,

2) 최승희(1989: 267) 참조.

3) 관에서 보관하던 호적대장에서 해당 호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오늘날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하다.

4) 각종의 영수증을 말한다.

5) 민사 소송을 말한다.

6)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청원서·진정서를 말한다. 이두로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초사(招辭)<sup>9)</sup>, 그리고 분재기, 화회 문기, 입안 등의 증거 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날짜순으로 기입하며 문서의 끝부분에 판결 내용을 기록하고 결급 내역을 후록(後錄)한다. 따라서 결송입안은 대부분 분량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결송입안은 승소자(勝訴者)의 발급 신청을 받은 관(官)이 원고와 피고 간에 벌어진 민사 소송의 전 과정의 내용과 판결 요지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승소자에게 발급해 준 판결서(判決書)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2. 결송입안의 형식

다음은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예전(禮典)>에 나오는 입안식(立案式)이다.

<표 1> 「경국대전」의 입안식

### 立案式

決訟立案則堂上官堂下官僉  
押當該堂下官押上直書姓名  
某年月日某司立案  
右立案爲某事云云合行立案者  
堂上官押 堂下官押

### 입안식

결송입안이면 당상관과 당하관이 모두  
서압<sup>10)</sup>하며 당해 당하관이 서압하고 직접 성명을 적는다.  
×년 월 일 ×사의 입안  
이 입안은 ×하는 일이다. ...이므로 마땅히 입안을 발급하는 것이다.  
당상관 서압 당하관 서압

입안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행에 발급 일자와 발급 관청, ‘立案’이라는 용어를 기입한다. 이것은 제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면(始面)’이라고도 부른다. 둘째 행에는 발급 목적을 기입한다. 이것을 ‘기두어(起頭語)’라고 한다. 이어서 소송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입안의 마지막에는 당상관과 당하관이 서압(署押)한다.<sup>11)</sup> 결송입안이 아닌 경우에는 당상관과 당하관이 각각 서압하면 되었으나 결송입안인 경우에는 둘 다 서압을 하되 해당 당하관은 착명(着名)<sup>12)</sup>한 다음에 서압하였다. 위 입안식에서 ‘某年月日某司’는 발급 일자와

7) 원고와 피고를 가리킨다.

8) 관(官)에서 백성의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내리던 글발로 이두로는 데김[題音]이라고 한다.

9) 고음(倭音)을 말하는데 고음은 고유어 ‘다담’ 또는 ‘다짐’을 차자(借字)로 표기한 것이다.

10) 서압(署押): 수결(手決)을 둠. 수결(手決)은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 자필로 직접 글자를 쓰는 것, 또는 그 글자를 말한다.

11) 최연숙(2005)는 입안의 기본 구성을 ① 입안 발급일 ② 발급처 ③ 기두어 ④ 본문 ⑤ 근거 법 조항 ⑥ 결어(結語) ⑦ 담당자의 서압 ⑧ 관인 등 8가지로 나누고 있다.

12) 문서의 끝에 성명을 적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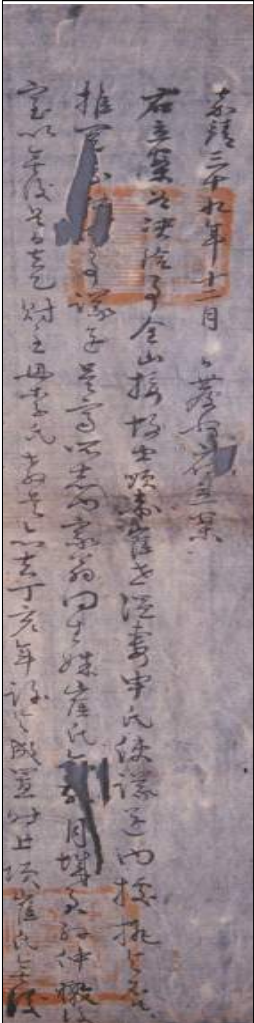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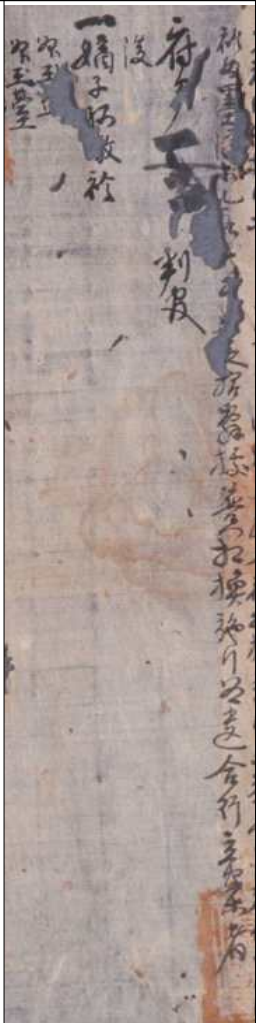
발급 관청을 가리키고, ‘右立案爲某事’는 기두어로 발급 목적을 밝힌 부분이다. 또 ‘云云’ 부분은 소송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이며 ‘合行立案者’는 결어이다. 입안의 마지막에 있는 ‘堂上官押 堂下官押’은 담당관의 서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경국대전」의 입안 형식은 입안의 여러 유형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입안 형식으로 조선 후기까지 변함없이 적용되었다. 다만 당상관과 당하관의 서압은 후기로 가면서 당하관의 작명과 서압을 생략하고 당상관만 서압하는 것으로 간략화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결송입안의 형식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결송입안의 형식은 「이문잡례(吏文雜例)」와 「유서필지(儒胥必知)」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결송입안식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필자가 교감한 바에 의하면 「이문잡례」가 「유서필지」에 비하여 내용이 정확하고 상세하며 오류가 적다.<sup>13)</sup> 그러므로 「유서필지」의 결송입안식은 「이문잡례」의 결송입안식을 전재(轉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문잡례」와 「유서필지」의 결송입안식은 현존하는 결송입안의 형식과 매우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실제 결송입안의 이미지를 통하여 「경국대전」에 실린 입안식과 「이문잡례」·「유서필지」에 실린 결송입안식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다음의 그림은 <1560년 최득충 입안>의 처음 부분(왼쪽 그림)과 마지막 부분(오른쪽 그림)이다.

---

13) 이에 대해서는 조남곤(2019: 16-19)를 참조할 것.

|                                                                                    |                                                                                                                              |                                                                                    |                                                                    |
|------------------------------------------------------------------------------------|------------------------------------------------------------------------------------------------------------------------------|------------------------------------------------------------------------------------|--------------------------------------------------------------------|
|  | <p>嘉靖三十九年十二月接日慶州府立案溫妻申氏使議訟內據執與否<br/>右立案爲決給事金山齊故忠順衛崔世生妹崔氏亦故月城君孫仲暉氏無後<br/>推闕分揀向事議訟是主所志內家翁同去丁亥年許與成置時上項崔<br/>室以無後是白去乙財母李氏教是亦</p> |  | <p>衿 奴 墨 濟 未 乙 良 置<br/>府尹 判官<br/>一 後 嫡子孫暉衿<br/>婢 玉 盃<br/>婢 玉 臺</p> |
| 제목, 기두어, 본문                                                                        | 결어, 서압, 후록                                                                                                                   |                                                                                    |                                                                    |

<그림 1> 1560년 최득충·손광현 경주부노비결송입안의 형식

<1560년 최득충 입안>은 대표적인 결송입안으로 소송의 모든 과정이 결락 없이 잘 보존되어 있어 결송입안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위 탈초문에서 진한 글자들은 이두에 해당한다. 왼쪽 그림 1행은 <1560년 최득충 입안>의 제목(시면)이다. ‘嘉靖三十九年’은 1560년(조선 명종 15)이다. 연호 뒤에는 대개 간지(干支)로 해[年]를 기입하는데 이 입안에서는 기입하지 않았다. ‘慶州府’는 이 입안의 발급처이다. 2행의 ‘右立案爲決給事’(이 입안은 결급하는 일이다.)는 기두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하여 이 입안의 발급 목적이 결급(決給)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두어 다음부터는 본문이다. 일반적으로 본문은 의송(議訟)<sup>14)</sup>이나 원고

14) 의송(議訟)은 15세기에는 관찰사가 장자(狀者)의 소지(所志)를 받고 해당 지방 관아의 수령에게 내리는 처분, 곧 소지(所志)에 기재된 관찰사의 데김[題辭]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16세기에는 ‘관찰사의 데김’과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지’라는 두 가지 뜻이 혼용되다가 조선 후기에는 그 뜻이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지’로 변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숙(2004), “16세기 고문서의 기초 연구: 16세기 청원서의 처리절차와 의송(議訟)의 의미.” 「고문서연구」 24. 73-106 참조.

(元告)의 소지(所志)로부터 시작된다. 이 입안도 거집(據執)<sup>15)</sup> 여부를 추문하여 분간하라는 의송으로부터 시작되며(2-3행), 이어서 고 최세온의 아내 신씨의 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3-13행). 그다음에는 의송데깁, 소지, 소지에 대한 데깁, 허여문기(許與文記), 매득사출문기(買得斜出文記), 소지, 다집 등이 날짜순으로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판결문인 결송입안은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 있다.

위 오른쪽 그림은 <1560년 최득충 입안>의 마지막 부분인 ‘경주부 결송입안’의 끝 행과 원척(元隻)에게 물명(物名)을 발급한 내역을 기재한 후록의 첫 부분이다. 이 입안 역시 끝을 “合行立案者”(마땅히 입안을 발급하는 것이다.)로 맺고 있다. 그다음에는 당사관인 경주 부윤의 서압이 나오고 그 아래에 당하관의 관직인 관관이 한자로 쓰여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사관과 당하관의 서압은 후기로 가면서 당사관만 서압하는 것으로 간략화된다. 위 입안의 원문을 보면 도장이 많이 찍혀 있는데 이는 결송입안과 같은 점련문기(粘連文記)의 특징으로 관인(官印)을 찍어 위조문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 3.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현황

권이선(2017)에 따르면 현전하는 16세기 결송입안은 모두 16건이다. 이 중에서 계쟁물이 노비인 결송입안은 13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조사한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권이선(2017: 9)에 소개된 조선시대 결송입안의 현황표에는 부정확한 기술이 있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1583년 나주목에서 발급한 고맹필 결송입안은 계쟁물이 노비(奴婢)가 아니라 전답(田畓)이다. 또한 흔히 노비결송입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1584년 손한·정천희 나주목결송입안>은 판결문에 발급 대상으로 전답만 명시되어 있고 노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노비결송입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1577년 제주목에서 발급된 결송입안으로 소개된 <제주목판관입안(濟州牧判官立案)>은 입안 첫 행의 여섯 자가 결락되어 그 발급 시기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권이선(2017: 9)에서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으로 취급하였다.<sup>16)</sup> 그러므로 이상의 3건의 결송입안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존하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은 모두 10건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86년 장예원노비결송입안>은 원자료가 아니라 「패림(稗林)」에 전사되어 전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물로 확인된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은 현재 9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장서각을 비롯한 각 소장 기관에서 발굴·보관해 놓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노비결송입안 자료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아직 필자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9건의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을 대상으로 이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은 필자가 조사하고 탐문하여 정리한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대한 현황표이다.<sup>17)</sup>

15) 거짓으로 꾸민 문서로 남의 것을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16) 이에 대하여 필자는 권이선 선생님에게 <제주목판관입안>을 1577년으로 명기한 근거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권이선 선생님에게서 장서각에서 나온 도록(圖錄)의 추정 시기를 따라 발급 시기를 1577년으로 논문에 기입하였는데 나중에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17) 고문서와 관련하여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안승준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lt;표 2&gt; 16세기 노비결송입안 현황표

| 번호 | 명칭(약칭)                                         | 발급 시기        | 원고/피고                       | 발급기관 | 형태 사항<br>(단위:cm)         | 출처                                                                                     |
|----|------------------------------------------------|--------------|-----------------------------|------|--------------------------|----------------------------------------------------------------------------------------|
| 1  | 정승윤 장예원<br>노비결송입안<br>(1511년 정승<br>윤 입안)        | 1511년<br>4월  | 정승윤/원주관                     | 장예원  | 크기:39×222/점<br>런/67행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br>서각 마이크로필름<br>원소장처: 홍해배씨<br>문중                                            |
| 2  | 김효로·남처곤<br>안동부노비결송<br>입안<br>(1517년 김효<br>로 입안) | 1517년<br>1월  | 김효로/남처곤                     | 안동부  | 크기:24.4×93/<br>점런/101행   | 「집성」 1,<br>128-131면<br>「경고」 506-508면                                                   |
| 3  | 5자녀 청하관노<br>비결송입안<br>(1535년 5자녀<br>입안)         | 1535년<br>12월 | 신숙,<br>장세륜/김극강,<br>유응현, 정세호 | 청하관  | 크기:44×320/점<br>런/114행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br>서각 마이크로필름<br>원소장처: 홍해배씨<br>문중                                            |
| 4  | 이전인 경주부<br>노비결송입안<br>(1560년 이전<br>인 입안)        | 1560년<br>7월  | 이전인/반춘                      | 경주부  | 크기:39×100/점<br>런/14행+9행  | 「집성」 65, 385면                                                                          |
| 5  | 최득충·손광현<br>경주부노비결송<br>입안<br>(1560년 최득<br>충 입안) | 1560년<br>12월 | 최득충/손광현                     | 경주부  | 크기:62×650/점<br>런/368행    | 「집성」 32,<br>279-293면<br>「경고」 529-542면                                                  |
| 6  | 이준 형제 홍해<br>군노비결송입안<br>(1578년 이준<br>형제 입안)     | 1578년<br>6월  | 이춘수/이준,<br>이순               | 홍해군  | 크기: 40×3230/<br>점런/1553행 | 「집성」 65,<br>400-441면<br>「영고」 (Ⅱ)<br>272-274면                                           |
| 7  | 이함·김사원 의<br>성현노비결송입<br>안<br>(1583년 이함<br>입안)   | 1583년<br>4월  | 이함/김사원.<br>김사형              | 의성현  | 크기:80×503/점<br>런/156행    | 「집성」 33,<br>189-198면<br>「경고」 550-556면<br>원소장처: 영해 인<br>량 제령이씨 충효당<br>현재 한국국학진흥<br>원 소장 |
| 8  | 임경수 나주목<br>노비결송입안<br>(1583년 임경<br>수 입안)        | 1583년<br>10월 | 문윤원/임경수                     | 나주목  | 크기:46×500/점<br>런/237행    | 「집성」 6,<br>11-14면                                                                      |
| 9  | 이지도 나주목<br>노비결송입안<br>(1586년 이지<br>도 입안)        | 1586년<br>4월  | 이지도/다물사리                    | 나주목  | 크기:47×798/점<br>런/353행    | 「집성」 6,<br>23-29면<br>원소장처: 안동 금<br>계 의성김씨 학봉<br>종가                                     |

※ 「집성」: 고문서집성, 「경고」: 경북지방고문서집성, 「영고」: 영남고문서집성

### 1) 1511년 정승윤(鄭承胤) 장예원노비결송입안

현재까지 발견된 노비결송입안 중에서 최초의 자료는 <1511년 정승윤 입안>이다. 이 입안은 1511년(중종 6) 장예원에서 경상도 예천에 사는 충찬위(忠贊衛)<sup>18)</sup> 정승윤(鄭承胤)이 올린 상언을 검토한 뒤 임금에게 계문(啓聞)<sup>19)</sup>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아 발급한 점련 문기이다. 최승희(1989)에 따르면 상언은 사인(私人)이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로 대부분 효자, 충신, 열녀의 정려나 효자, 충신, 학행(學行)의 증직(贈職)을 위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인데 이 경우는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임금에게 상언한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이득과 관계된 상언의 경우에는 실록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1511년 정승윤 입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현재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원문서의 소장처는 흥해배씨 문중이다. <1511년 정승윤 입안>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이두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문서 이두 자료이다. 이 입안에 나오는 ‘前等’은 ‘전임관’을 가리키는데 지금까지 학계에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는 것이다.

### 2) 1517년 김효로(金孝廬)·남처곤(南處崐) 안동부노비결송입안

<1517년 김효로 입안>은 1517년(중종 12) 안동대도호부에서 김효로(金孝廬)와 남처곤(南處崐)에게 발급해 준 노비결송입안이다. 이 입안은 고 김효지의 계후자(繼後子)인 김효로가 계후모인 황씨가 분급하면서 유루(遺漏)된 여종 금음덕(今音德)과 그 소생(所生)들을 고 김효지의 수양딸인 김씨의 남편 남처곤이 독차지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소송하자 이에 대해 관(官)에서 원고 김효로와 피고 남처곤에게 제비뽑기로 분급(分給)하고 발급한 입안이다. 「경북지방고문서집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 1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입안의 39행부터 63행까지는 1429년(세종 11)에 작성된 「김무노비도허여문기(金務奴婢都許與文記)」가 기재되어 있다. 세종 때 전의소감(典醫少監)을 지낸 김무(金務)는 김효로의 증조부이자 찬성사(贊成事) 김사원(金士元)의 증손자이다. 「김무노비도허여문기」는 재주인 김무가 자손들에게 32구의 노비들을 평균 분급하는 내용의 분재기인데 이 문서의 끝에는 김무의 증조부 김사원의 유서(遺書) 내용도 나온다. 김사원의 유서는 손외여타(孫外與他), 즉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자에게 나의 재산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 3) 1535년 5자녀 청하관노비결송입안

<1535년 5자녀 입안>은 1535년(중종 30) 청하관에서 고 현감 조맹문의 5자녀에게 내려준 노비결송입안이다. <1535년 5자녀 입안>은 5명의 동서가 장인 3년상을 마친 뒤, 두 편으로 갈려 처부모의 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다가 형제들 간의 재산 다툼이 온당치 못함을 깨닫고 평균 분깃[分給]하여 화회문기(和會文記)<sup>20)</sup>를 만들고 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안이다.

18) 조선(朝鮮) 시대(時代)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딸린 군대(軍隊).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자제(子弟)로 편성(編成)되었다.

19) 신하가 구두나 글로 임금에게 여쭙어 아뢰는 것. 계달(啓達), 계품(啓稟)이라고도 한다.

20) 화회문기는 분재기의 일종으로서 재주(財主)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온 가족이 입회(立會)하여 합의로 재산을 분깃(分執)하거나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 부모의 재산을 합의에 의해 분깃하는 문서이다. 화회문기는 재주(財主)인 부모가 돌아가신 뒤, 3년상을 다 마치고 나서 작성되었다. 전통 시대에는 부모가 죽자마자 분재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 입안 문서도 <1511년 정승윤 입안>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현재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다. 원문서의 소장처는 흥해배씨 문중이다. <1535년 5자녀 입안>에는 ‘以’가 관아 또는 행정단위 명사 뒤에 결합되어 단체의 주격조사 ‘에서’로 쓰인 예가 3회 나타난다.

#### 4) 1560년 이전인(李全仁) 경주부노비결송입안

<1560년 이전인 입안>은 1560년(명종 15) 경주부에서 잠계 이전인(李全仁)<sup>21)</sup>에게 발급한 노비결송입안이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이 입안은 원본 점련형 결송입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등출 연서형인 다른 결송입안에 비해 길이가 짧다. 점련된 문서의 오른쪽 문서에는 비(婢) 반춘(班春)의 초사가 수록되어 있고, 왼쪽 문서에는 경주부입안이 기재되어 있다.

#### 5) 1560년 최득충(崔得忠)·손광현(孫光晔) 경주부노비결송입안

<1560년 최득충 입안>은 조선시대 결송입안을 대표하는 문서로 「고문서집성」과 「경북 지방고문서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1560년 최득충 입안>은 제목(시면), 기두어, 의송데김, 소지, 소지를 허락하는 제사(題辭), 시송다짐, 진술(畵等), 근거로 제출된 허여문기, 매득 사출문기, 허여사급입안, 결송다짐, 발괄(소지), 결송입안, 후록 등이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기입되어 있어 결송입안의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서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혼인으로 엮힌 두 집안의 관계가 복잡하여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결송입안이기에 때문에 최연숙(2005)에는 번역문도 실렸다. 또 오창명(1995), 박성중(2016)도 이 문서의 이두를 용례로 국어학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가 원문을 상세히 검토한 바로는 기존의 탈초·정서본과 최연숙(2005)의 정서본은 잘못 판독된 부분이 많고, 또 최연숙(2005)의 번역문의 경우에는 이두가 번역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일례로 위 두 정서본 12행에는 ‘爲白良尔’(爲畵아곰)가 ‘爲白良果’(爲畵아과)로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이두문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 6) 1578년 이준(李浚) 형제 흥해군노비결송입안

<1578년 이준 형제 입안>은 1578년(선조 11) 경주에 사는 이준(李浚), 이순(李淳) 형제가 지금의 경북 포항시에 있던 흥해군에서 발급받은 노비결송입안이다. 이 문서는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방대한 고문서이다. 이 문서 안에 있는 입안 7은 앞에서 살펴본 <1560년 이전인 입안>이다. 또한 입안 13은 이 노비 소송의 과정을 모두 등서한 전준(前准) 문서이다. 전준은 입안이나 입지(立旨)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실을 관아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로 원문서의 부분(副本)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1578년 이준 형제 입안>은 문서의 처음 부분이 결락되어

21) 이전인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아들이다.

22) 孫光曙 後室 金氏 及 孫仲暉 前室 子枝亦 他矣 衿付 許多 奴婢乙 不干人以 累年 使用 加于 曖昧 閱望爲白良果 <한국학자료센터 원문텍스트 12행>, 최연숙(2005: 72)

(손광서의 후처 김씨와 손중돈의 전처 자식들이 남의 몫으로 준 많은 노비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니 더욱 억울하고 민망하옵기에)

23) 전준에 대해서는 김현영(1996)을 참조할 것.

소송의 발생 배경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준 형제 입안>은 「경국대전」 권5 <형전> 사천조(私賤條)에 있는 친착결절법(親着決折法)<sup>24)</sup>이 적용된 결송입안이다. 이 입안에는 전 시대에 보이지 않았던 ‘前等’, ‘後等’, ‘等內’, ‘右亦’과 같은 이두들이 나타난다. ‘前等’, ‘後等’, ‘等內’는 각각 ‘전임관’, ‘후임관’, ‘전임관의 임기’를 뜻하며, ‘右亦’은 ‘右良’의 이표기이다.

#### 7) 1583년 이함(李涵)·김사원(金士元) 의성현노비결송입안

<1583년 이함 입안>은 1583년(선조 16) 경상도 영해에 사는 이함(李涵)이 경상도 의성현에 사는 그의 외사촌 김사원(金士元), 김사형(金士亨)과 벌인 소송에 대하여 내린 판결문이다. 이 소송은 무자녀망녀(無子女亡女), 즉 자식이 없이 죽은 딸의 재산(신노비와 봉사전민)의 귀속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었는데, 소송 당사자들이 인척 간의 소송의 불미함을 깨닫고 화해하자 의성현에서 이를 확인하고 원적 간에 화해·조정한 내용을 입안에 담아 결급하였다. 「고문서집성」 33권과 「경북지방고문서집성」에 수록되어 있고, 원소장처는 영해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인데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1583년 이함 입안>에는 導良과 같은 기능을 하는 導亦이 나타난다. 이 이두자는 1523년 김숙보 분재기에서 처음 보이는데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중에서는 <이함 입안>에서만 볼 수 있다.

#### 8) 1583년 임경수(林慶秀) 나주목노비결송입안

<1583년 임경수 입안>은 「고문서집성」 6권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로 1583년 김성일이 나주목사로 있으면서 판결한 것이다. <임경수 입안>은 원고 문윤원(文允元)이 임경수(林慶秀)의 사노로 있는 아들 윤손(允孫)을 임경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압량위천(壓良爲賤)<sup>25)</sup>의 한 유형인 암록(暗錄)<sup>26)</sup>을 거론하면서 소를 제기한 것이 특징이다. <임경수 입안>에서는 부사어 이두 至亦(니르리)의 ‘亦’이 생략된 채 쓰인 예가 나타난다. 또한 이 입안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이는 ‘戈只’가 2회 나타난다. 16세기의 다른 노비결송입안에서는 ‘戈只’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 9) 1586년 이지도(李止道) 나주목노비결송입안

<1586년 이지도 입안>은 「고문서집성」 6권에 영인되어 있다. 원소장처는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 종가이다. <1586년 이지도 입안>은 원고 이지도가 피고 다물사리(多勿沙里)의 딸과 그 자녀 6명이 자기 집안의 노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문이다. 소송의 쟁점은 다물사리의 신분이 良女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문제였다. 이 입안에는 爲有臥乎則이라는 새로운 활용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부사형 연결어미 ‘-느즉’을 나타내는 이두자 -

24) 노비 소송하는 원고와 피고가 다툼 중에 스스로 이치에 어그러져 바르지 못함을 알고 오랫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송정에 나와 직접 서명한 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제도이다. 이 규정은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자가 일부러 송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을 계속 지연시키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25) 강제적인 방법으로 양민을 약탈하여 자기의 노비로 삼는 것을 말한다.

26) 자신의 노비로 삼기 위하여 남의 노비나 양인을 몰래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으로 압량위천의 한 유형이다. 세조 때의 규정인 호패사목(號牌事目)에는 남의 노비나 양인을 암록(暗錄)하여 자신의 노비를 삼은 경우에는 장(杖) 100에 전가사변(全家徙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則의 선구적인 활용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입안에도 <1535년 5자녀 입안>과 마찬가지로 ‘이’가 관아 또는 행정단위 명사 뒤에 결합되어 단체의 주격조사 ‘에서’로 쓰인 예가 3회 나타난다.

## 4.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이두의 특징

이 장에서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나타난 이두의 특징을 표기적(형태적) 특징과 문체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4.1. 표기적 특징

첫째, 새로운 이두자들이 출현한다. 等內, 前等, 後等, 更亦, 導亦, 並亦, 右亦 등이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 처음 나타난다.

#### 1) 等內(등내)

等內는 명사류 이두이다. 等內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 처음 발견되는 이두자로 ‘수령의 임기’를 뜻하는 말이다. 홍기문(1957: 102)에서는 等內를 ‘등내’로 음독된 명사류 이두어로 기술하였다. 또한 等內는 본래 ‘행정 책임자의 재직 기한 내’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런 뜻이 변하여 ‘그 기한 내에 재직한 그 인물’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 용어 해설에 따르면 等內라는 말은 춘등(春等), 하등(夏等), 추등(秋等), 동등(冬等)의 등(等)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조선 초기에 조정에서 관리들에게 주는 녹봉은 일 년에 네 번, 즉 춘등, 하등, 추등, 동등에 지급되었는데, 세조 이후 현직에 있는 관리들에게만 녹봉이 지급되었으므로 등내 즉 ‘등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은 곧 현직에 있는 관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받아들여지다가 조선 후기에는 수령의 의미로 정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처음에 분기(分期)의 뜻으로 쓰이던 等이 후에 ‘관리’나 ‘수령’을 가리키는 이두자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內는 ‘임기’나 ‘재직 기한 내’의 뜻으로 쓰인 이두자로 추정된다. 等內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중, <1578년 이준 형제 입안>에만 2회 나타난다.



<그림 2>  
이두자 等內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101행)

- (1) ㄱ. 韓府尹 等內 官署文記 現納 比對施行教 事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101> (한 부윤 임기 때의 관서 문기를 제출하니 비교해 대조하여 시행하실 일)
- ㄴ. 年月不知 星州 權府尹主 等內 婢矣身乙 其妻父過 逃婢 李今 所生 班春是如 自作名字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377-0378> (연월은 알지 못하는데 성주 권 부윤님의 임기에 저를 그의 장인 쪽 도망비인 이금 소생 반춘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어)

## 2) 前等(전등?), 後等(후등?)

前等도 명사류 이두이다. 前等은 <1511년 정승윤 입안>에 처음 나타난다. 이것은 이전 시기 자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두어이다. 16세기 노비결송 입안에서는 이 밖에도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1583년 임경수 입안> 등에 前等이 나타난다. 前等은 주로 ‘전임관’, ‘전임 수령’을 뜻하며, ‘전임(前任)’의 뜻을 나타낼 때도 있다. 前等の ‘前’은 ‘이전(以前)’이나 ‘전임’의 뜻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며, ‘等’은 앞의 等內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리’나 ‘수령’의 뜻을 지닌 이두자로 보고자 한다.<sup>27)</sup> 특히 아래 (2ㄴ, ㄸ)에 쓰인 ‘前未時’와 (3)에 쓰인 ‘前訟官時’의 표현의 유사성은 前等の 等이 ‘관리’나 ‘수령’을 의미하는 하나의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나타난 前等の 예들이다.



<그림 3>  
이두자 前等 (1511년 정승윤 입안 25행)

- (2) ㄱ. 前未 已會 回啓爲白有去未 <1511년 정승윤 입안, 25> (전임관이 이미 답변하였으니)  
 ㄴ. 法典 內 前未 官吏 未畢之訟 後未 官吏 畢決亦 載錄爲白有昆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1482-1484> (법전 안에 전임 관리가 아직 마치지 못한 소송은 후임 관리가 마치고 결급하라고 기재되었으므로)  
 ㄷ. 前未 官吏 未畢決之訟乙 後未 官吏 畢決之典載在錄爲白有昆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1517-1518> (전임 관리가 아직 판결을 마치지 못한 소송을 후임 관리가 판결을 마친다는 규정이 대전후속록에 실려 있으므로)  
 ㄹ. 前未 官吏 決折未成立案而 後未 官吏 成給亦 爲有臥乎 未乙 用良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1526-1528> (전임 관리가 판결하고 아직 입안을 작성하지 못하면 후임 관리가 성급하라고 하였으므로)  
 ㄴ. 所訟奴婢乙良 前未 親着 及 花名貌如 隻 李浚 等亦中 決給爲遣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1528-1529> (소송하는 노비는 전임관의 친착 및 노비 명단대로 피고 이준 등에게 결급하고)  
 ㄷ. 七朔至 呈所志推捉券 不喻 至於前未時 推闕時 現納 <1583년 임경수 입안, 060> (일곱 달에 이르기까지 소지를 올려 수색하여 붙잡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임 수령 때 이르러 심문할 때 제출한)  
 ㄸ. 前未時 七朔至 呈狀推捉爲良置 文記現納 不得 爲有如可 <1583년 임경수 입안, 067-068> (전임 수령 때, 일곱 달에 이르기까지 소장을 올려 수색하여 붙잡아왔어도 문기를 제출하지 않다가)  
 ㄹ. 前等 推捉時 文記現納 不得 肆緣 及 良德良賤眞僞乙良 前推 作文等乙 相考 施行教 味白齊 <1583년 임경수 입안, 077-078> (전임관이 수색하여 붙잡아 왔을 때 문기를 제출하지 못한 사연과 양덕의 양친 진위는 전에 제출한 문서들을 상고하여 시행하실 뜻입니다.)

- (3) 前訟官時 已會決折收立案爲白乎矣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1547> (전 송관 때 이미

27) 전임관을 조선시대에는 ‘先生’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전임 관리를 先生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현임 관리의 전임자이기 때문이다. 즉, 先生은 이전에 직임을 맡은 사람이란 뜻이다. 따라서 先生에는 관찰사, 부윤 등의 지방관뿐 아니라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와 고을을 지키는 무관들도 이에 포함된다. 중앙과 지방의 전임 관리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책을 ‘先生案’이라고 한다. 현재 전하는 선생안으로는 경주시·경주문화원에서 5종의 선생안을 묶어서 발행한 <慶州先生案>이 있다. 조철제(2000, 2002) 참조.

결절하여 입안을 받았는데)

(2ㄱ, 口, 日, 人, 〇)은 前等이 ‘전임관’이나 ‘전임 수령’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2ㄴ-ㄷ)의 예는 前等이 전임관의 뜻만이 아니라 ‘전임(前任)’의 뜻으로도 쓰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前等이 뒤의 官吏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2ㄴ-ㄷ)에 쓰인 後等은 ‘후임’의 뜻으로 쓰였다. 後等도 前等の 예로 미루어 ‘후임관’이나 ‘후임 수령’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증되지는 않는다. 前等과 後等도 等內처럼 음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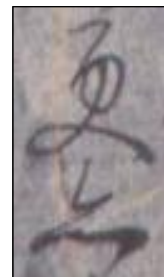
### 3) 更良/更亦(가식여)

更良은 부사류 이두이다. 更良은 조선 후기 이두 학습서에서 ‘가시아’<吏文>·<羅麗>·<儒必>·<東國>, ‘가식야’<吏襟>·<儒必>, ‘가식야’<吏師>, ‘가니여’<吏文><sup>28)</sup>, ‘다시’<語錄> 등으로 읽었다. 15세기 중세국어의 ‘가식야’, ‘가식여’에 대응하는 이두자이다. 更良은 ‘다시’의 뜻으로 해석된다.

(4) ㄱ. 更良 文記成置則 其等徒等亦 老母 教誘 偽造文記是如 爲白良置 <1560년 최득충 입안, 108> (다시 문기를 작성해 둘 때 그네들이 노모를 꺾어 위조한 문기라고 하여도)

ㄴ. 飾辭 餘良 從實現告亦 更良 推考教是臥乎 在亦 <1586년 이지도 입안, 179-180> (말을 꾸미지 말고 사실에 따라 즉시 고하라고 다시 추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更良의 이표기로 更亦이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보인다. <1560년 최득충 입안>에 쓰인 예가 그것이다. 이는 15세기 중세국어의 ‘가식여’에 일치하는 이두자로 16세기 이두문에서 更亦을 ‘가식여’로도 읽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박성중(2016: 507)에서는 1581년의 분재기에 쓰인 한 예를 소개하면서 更亦을 <이문대사>의 독법 ‘가식야’를 반영한 이표기로 보았으나 이두소(吏讀素) 亦이 ‘이’, ‘히’, ‘여’, ‘이여’로 읽힌 경우는 있어도 ‘야’로 읽힌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 4>  
이두자 更亦

(5) 更亦 分揀爲白乎脡 大典 內 無子息同生三寸己物乙 同生 及 姪子未亦中 並只 分數相分爲白乎 事是去乙 <1560년 최득충 입안, 131-132> (다시 분간하오며 대전의 내용에 의거하여 자식이 없이 죽은 동복 삼촌의 기물을 동복 및 조카들에게 모두 수를 나누어 서로 나눌 일인데)

(1560년 최득충 입안 131행)

### 4) 導良/導亦(드되여)

導良도 부사류 이두이다. 導良은 조선 후기 이두 학습서에서 ‘드되아’<羅麗>, ‘드되야’

28) 「이두자료선집」(1975, 아세아문화사)에 수록된 「전율통보(典律通補)」의 <이문(吏文)>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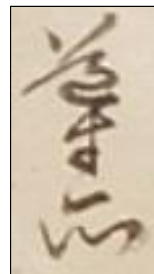
<吏文>, ‘드되여’<吏文>·<吏襍>, ‘드되아’<吏便>, ‘드되여’<儒必> 등으로 읽었다. ‘따라서’나 ‘근거하여’의 뜻을 지니고 있는 이두자이다. 導良은 중세국어 ‘드되여’(躡)<sup>29)</sup>에 대응된다. 導良은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동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두문에서는 導가 단독으로 동사로 사용되지 않고 항상 導良의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문법화한 것으로 보아 부사로 다룬다.

(6) ㄱ. 一從金克剛花名 導良 論報受決爲白臥乎所 事狀 至爲綢繆爲白齊 <1535년 5자녀 입안, 042-043> (오로지 김극강의 노비 명단에 따라서 논하여 이치를 따져서 보고하고 결급을 받은바 일의 현상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ㄴ. 父敎是 生存時 丙辰年 分 祖母許與成置 導良 叔母 奉祀位 奴婢 先計爲遣 <1560년 최득충 입안, 028>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 병진년 즈음 할머니가 허여문기를 작성해 둔 것에 따라서 숙모가 봉사위조로 노비를 먼저 계산하고)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는 導良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이표기 導亦이 출현한다. 導亦은 16세기 초반에 처음 등장하여 조선말까지 사용된 이두자로서 취음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導亦은 1523년 김숙보 분재기와 1530년 덕산이씨 별급문기에 각각 한 번씩 나타나며,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중에서는 <1583년 이함 입안>에서만 두 번 볼 수 있다. 이 이두자는 17세기 이후의 고문서 자료에서는 더 많은 용례가 보이며 導良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19세기에도 쓰였다.

(7) ㄱ. 矣身亦 李涵所訟之物 一無所執叱分 不喻 元財主 區處 導亦 各執使喚爲在 安東 居 四寸 權永緒興緒 軍威 居 同生妹夫 李軫等乙 齊到對卞爲乎爲再再 使人招致爲良置 <1583년 이함 입안, 044-046> (제가 이함이 소송하는 물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재주의 처분에 따라서 각각 차지하여 부리던 안동에 사는 사촌 권영서, 흥서, 군위에 사는 동생 매부인 이진 등을 일제히 도착하게 하여 대질하기 위하여 여러 번 사람을 시켜 불리도)



<그림 5>

ㄴ. 所訟奴婢元財主區處 導亦 各執使喚爲在 安東 居 權興緒 軍威 居 同生妹夫 李軫等乙 齊到對辦爲乎爲 再再 招致爲良置 <1583년 이함 입안, 074-075> (소송하는 노비의 원재주의 처분에 따라서 각각 차지하고 사환한 안동에 사는 권흥서, 군위에 사는 동생 매부 이진 등을 일제히 도착하게 하여 대질하기 위하여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이두자 導亦 (1583년 이함 입안 45행)

## 5) 並只/並亦(다모기)

並只는 ‘다르기’<吏師>, ‘다모기’<吏文>·<東國>·<羅麗>, ‘다무기’<儒必> 등으로 읽힌 부사류 이두로 ‘모두’, ‘함께’의 뜻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함께’라는 뜻을 지닌, 중세국어 ‘다뭇’에 대응하는 이두이다. 박희숙(1985: 142)에서는 ‘다모기’나 ‘다무기’보다 고음(古音)이라고 추정하여 독음을 ‘다뭇기’로 읽었다. 並只는 並亦, 并只로도 표기된다. 이 중에서 並亦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 처음 나타나는 표기이다.

29) 서르 드되여 念을 니르와드샤(相躡起念)<圓覺經諺解 上二之一 42>.

- (8) ㄱ. 遺漏奴婢未乙 萬分 生前分給 不得爲良置 汝未徒 同腹未 奴婢老壯弱分揀  
並只 執壽以 平均分執爲有如此 後現爲去未 <1517년 김효로 입안,  
047-049> (빠진 노비들을 만일 생전에 나누어 주지 못하여도 너희들  
형제자매들은 노비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분간한 뒤, 모두 제비뽑기로 평  
균분집하였다가 후에 나타나거든)



<그림 6>  
이두자 並  
導亦 (1560  
년 최득충  
입안 154  
행)

- ㄴ. 隻 柳應賢 衿 內 狀實奴婢 十三字 挾書 二十四字 打點 並只 後背良中 財  
主 着名 不冬爲白去等 僞造事狀 現著爲白齊 <1535년 5자녀 입안,  
028-030> (피고 유응현의 뒀 안에는 튼실한 노비 13자를 글자와 글자 사  
이에 글자를 끼워 넣었고 24자에 점을 찍어 놓았으며 모두 문서 뒷면에  
재주가 착명하지 않았다면 위조한 일의 현상이 현저합니다.)
- ㄷ. 同 光曙 後室 金氏亦 矣 妹 奉祀條奴婢以乎爲在果 他 奴婢 並亦 得至 據  
執不許 仍于 <1560년 최득충 입안, 154-155> (위 광서의 후처 김씨가 저  
의 누이의 봉사조 노비인 것과 다른 노비를 모두 과분하게 얻어 차지하  
고 주지를 않으므로)
- ㄹ. 奉祀位 二三口 各 別給 新奴婢 及 元 田民 等乙 并只 矣徒 父亦中 專給情由乙良 父  
亦 擅便 不得 事諭 擅便 事諭 右良 眞僞乙良 更亦 分揀爲良齊 拒逆不着爲去乎 相考  
施行教 事 <1560년 최득충 입안, 223-224> (봉사위 2, 3구를 각각 별급하고 신노비와  
원래의 전답과 노비 등을 모두 저희 아버지에게 전급한 사유는 아버지가 마음  
대로 처리 못할 일인지 마음대로 처리할 일인지 위와 같이 진위는 다시 분간하고자  
거역하고 착명하지 않았으니 상고하여 시행하실 일)

## 6) 右良/右亦(니피여)

右良은 ‘니피여’, ‘님의여’, ‘님의아’, ‘임의여’ 등으로 읽히는 부사류 이두자이다. ‘이와 같이, 위와 같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右良은 15세기까지는 右良如 혹은 右如 형태로 쓰였으나 16세기 이후로는 右良만 쓰이고 右良如나 右如是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右良은 일반적으로 부사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는 오히려 부사어로 기능하는 右良의 예는 찾아볼 수 없고 관형어로 기능하는 예만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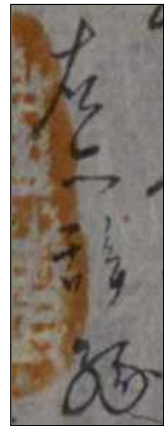
- (9) ㄱ. 右良 辭緣以 [ ] 月 分 矣徒等亦 安東府 發狀 分揀次 <1535년 5자녀 입안,  
008-009> (이와 같은 사연으로 ... 월 즈음 우리들이 안동부에 소지를 올려 분간하  
던 차에)
- ㄴ. 右良 條件段 繼母亦 家翁□□□幸有 各別論給事是去乙未 <1560년 최득충 입안,  
149-150> (이와 같은 조건은 계모가 바깥주인의 자녀에게 각별히 논하여 준 일인  
데)
- ㄷ. 右良 情由乙 推論爲良結 受議送 到付爲乎矣 <1560년 최득충 입안, 174-175> (이와  
같은 사유를 추론하고자 의송을 받아 접수했는데)
- ㄹ. 右良 辭緣 一一鑑當 義子女奉祀服喪 新奴婢 全給 法條 及 承重義子女 分數分給 法條  
并以 相考 分揀施行教 味白齊 <1583년 이함 입안, 104-105> (위와 같은 사연을 일  
일이 마땅한지 살펴보고 의자녀가 제사를 지내고 상복을 입었다면 신노비 전부를 주  
는 법조문과 승중자, 의자녀에게 수를 나누어 분급하는 법조문을 아울러 상고하여 분

간 시행하실 뜻입니다.)

- ㄱ. 右良 眞僞 細細相考 壓良爲賤情理乙 如此正法之時 以解冤悶 <1583년 임경수 입안, 136-137> (이와 같은 진위를 자세하게 상고하여 압량위천한 사정을 이와 같이 법으로 바로잡을 때에 원통함과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위 (9)의 예들은 모두 右良이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그런데 16세기 노비 결송입안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右良의 이표기가 나타나 주목된다. 아래 (10ㄱ-ㄴ)에 제시한 ‘右亦’이 그것이다. <1578년 이준 형제 입안>에는 右良은 전혀 쓰이지 않았고 右亦의 예만 10회 발견된다. 아래에 그 일부를 제시한다.

- (10) ㄱ. 右亦 辭緣 細細監當 依法治罪 一人懲惡 以 警萬民爲白只爲 行下向教是 事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047-0048> (이와 같은 사연으로 세세하게 마땅한지를 살펴서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한 사람의 악행을 징계하여 만민을 경계하도록 처분하실 일)
- ㄴ. 右亦 辭緣 分揀 斷訟爲白只爲 行下向教是 事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080> (이와 같은 사연을 분간하여 송사를 판결하도록 처분하실 일)
- ㄷ. 右亦 矣 婢子 事乙良置 李今 現付 河漚 過 文記 及 矣 祖上文記等乙 一時 現納 明鑑 曲折直 斯速決折 俾無祖宗泉下之冤教矣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342-0343> (위와 같은 저의 비자의 일도 이금이 등록되어 있는 하부 쪽 문기와 저의 조상 문기들을 일시에 제출하게 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살펴 빨리 판결하시어 조상이 지하에서 원통해 하지 않도록 하시되)
- ㄹ. 右亦 前呈議送辭緣 及 節 進呈現納爲在 矣徒 傳得文記 經官可文券 并以 憑閱手決 以解窮民冤抑鬱悵之情爲白只爲 行下向教是 事亦 在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808-0810> (위와 같이 전에 올린 의송의 사연과 이번에 나아가 올린 저희의 전득 문기와 관을 거친 문권을 모두 근거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판결하여 백성의 원통하고 억울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풀어 주도록 처분하실 일입니다.)
- ㄱ. 右亦 辭緣以 訟官主前 呈所志 白活白良置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821-0822> (이와 같은 사연으로 송관님께 소지를 올려 진정하여도)
- ㄴ. 隻 李春壽亦 自知理屈 逃避不現乙 仍于 推闕 不得爲白去乎 右亦 辭緣 相考 施行教 事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1253-1254> (피고 이춘수가 스스로 이치에 어그러져 바르지 못함을 알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문하지 못하니 이와 같은 사연을 상고하여 시행하실 일)



<그림 7>  
이두자 右亦  
(1578년 이  
준 형제 입  
안1254행)

右亦은 위 (10ㄱ-ㄱ)에 쓰인 右良과 통사적·의미적 기능이 동일하다. 그러나 右良이 동사 어간 이ㅁ-30)와 활용어미 -아 혹은 동사 어간 이ㅁ-와 관형사형어미 -(으)ㄴ의 구조를 지닌 반면 右亦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右亦의 右는 동사 어간 이ㅁ-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나 右亦의 亦은 관형사형어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右亦은 15세기까지 쓰이고 소멸한 右良如(님의+여)나 右如(님의+여)와 독음 면에서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右亦의 ‘亦’은 右良如나 右如의 ‘如’의 독음과 비슷한 글자를 빌려 쓴 것으로 생각된다. 즉, 右亦의 ‘亦’은 취음(取音)<sup>31)</sup>의 원리에 따른 음차자(音

30) <이두약해>에서 제시한 독법인 ‘이ㅁ다’를 가져왔다.

31) 취음(取音)이란 음(音)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써 원래의 글자를 대신해 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중(2016: 81-82)을 참조할 것.

借字)로 볼 수 있다. 이두에서 취음에 의하여 원래의 글자를 대신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追乎의 ‘乎’는 追于의 ‘于’의 독음과 비슷한 자를 빌려 쓴 것이고, 初如의 ‘如’도 初亦의 亦의 독음과 비슷한 글자를 빌려 쓴 것이다. 그러므로 右亦은 15세기까지 쓰이고 소멸된 右良如나 右如의 기능을 새로운 형태로 계승한 이두자인 것이다. 如형의 右良如나 右如를 다시 활용하지 않고 亦형의 새로운 이두자를 만들어 쓴 까닭은 이두문에서 亦의 쓰임이 매우 빈번했기 때문에 이에 이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두문에서 亦의 출현 빈도수는 대단히 높다. 亦은 대표적인 주격조사일 뿐만 아니라 처격이나 여격에도 쓰이고, 평서형, 명령형 종결어미로도 비교적 활발하게 쓰인다.

둘째,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는 계사 -是-의 생략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아울러 (-)爲-나 (-)爲- 뒤에서의 -良, -遣, -齊의 생략 현상도 종종 나타난다.

## 7) -是-(-이-)

동사류 이두에 포함되는 계사 -是-는 지정(指定)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 계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그 명사로 하여금 서술어의 기능을 하게 하는데 이두에서는 출현 빈도가 매우 높다. -是-는 -齊, -如, -旆, -遣, -去, -置, -乃, -沙, -乎矣, -良尔, -去乙, -亦, 在, 乎, 臥乎 등 다양한 어미들과 결합하고, 선어말어미 -白-과 빈번하게 결합하여 쓰인다.

- (1) ㄱ. 嘉靖十四年十月 日 所志是齊 <1535년 5자녀 입안, 054> (가정 14년 10월 일 소지이다.)
- ㄴ. 丁亥年 祖母 文記成置以 退計則 三年之間遠論 在京朝位 知不得 事是旆 <1560년 최득충 입안, 118-119> (정해년 조모가 문기를 작성해 둠으로써 돌이켜 따져보면 3년 동안의 오랜 중론에도 서울의 조정에서 지위에 있으면서 알지 못한 일이며)
- ㄷ. 三口乙良 本孫是在 崔得忠亦中 決給 花名 立案 後錄爲置 <1560년 최득충 입안, 315> (3구는 본손인 최득충에게 결급하고 노비의 이름을 입안에 후록한다.)
- ㄹ. 婢 仁介段 身故 其餘三口段 先母矣 父 金塘教是亦 無後亡女 己物是去 向入 <1583년 이함 입안> (여중 인개는 죽고 그 나머지 3구는 선모의 부친인 김당께서 자식 없이 죽은 딸의 기물인가 생각하여)
- ㄹ. 依法報使 刑推爲白乎 事是白去乙 <1583년 임경수 입안, 004> (법에 따라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형추할 일이거늘)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는 계사 -是-가 빈번하게 생략된다. 빈번한 생략 표기는 「대명률직해」의 특징으로 문서류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재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는 박성중(1996: 89, 2016: 32), 고정익(2002)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생략 표기는 「대명률직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보이는 계사 -是-의 생략의 용례 중 일부이다.

- (2) ㄱ. 元隻中 無緣故 不立訟爲白去等 依大典 施行教 事白齊 <1535년 5자녀 입안, 051-052> (원고와 피고 중에 까닭 없이 송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실 일입니다.)
- ㄴ. 凡 父母之情子息奴婢分給段 見其子女有子息無子息以 論計 文記成置事去乙 <1560년

최득충 입안, 115-116> (무릇 부모의 뜻으로 자식에게 노비를 분급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논하여 문기를 작성해 두는 것인데)

ㄷ. 矣徒 祖母亦 生年八十餘歲以 去 戊戌年 分 身死爲白乎 事遣 <1560년 최득충 입안, 115-116> (저희 조모가 생년 80여 세로 지난 무술년 즈음 돌아가신 일이고)

ㄹ. 春守所推之婢段 乃同今之所生 多勿沙里白遣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063-0064> (춘수가 추심하는 여종은 동금의 자식인 다물사리이고)

ㅁ. 徒以煩舌 以陰謀教誘分叱白遣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1130-1131> (단지 혀로만 음모하여 피어냈을 뿐이고)

(3) ㄱ. 眞僞乙良 傳係文記 推納相考 施行教 味白齊 <1517년 김효로 입안, 023-024> (진위는 상속 문기를 찾아서 바치게 하여 상고하여 시행하실 뜻입니다.)

ㄴ. 田民相訟事 當日爲始 立訟爲白去乎 元隻中 無故不就訟爲去等 依大典施行教 味白齊 <1583년 이함 입안, 051-052> (전답과 노비를 상송하는 일로 오늘부터 송정에 출두하니 원고와 피고 중에서 까닭 없이 송정에 나오지 아니하면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실 뜻입니다.)

ㄷ. 前等 推捉時 文記現納 不得 肆緣 及 良德良賤眞僞乙良 前推 作文等乙 相考 施行教 味白齊 <1583년 임경수 입안, 077-078> (전임관이 수색하여 붙잡아 왔을 때 문기를 제출하지 못한 사연과 양덕의 양친 진위는 전에 제출한 문서들을 상고하여 시행하실 뜻입니다.)

ㄹ. 多勿沙里 等亦 館婢投托情由段 知不得爲白去乎 相考 施行教 味白齊 <1586년 이지도 입안, 120-121> (다물사리 등이 관비로 투탁한 사정은 알지 못하니 상고하여 시행하실 뜻입니다.)

계사는 보통명사, 고유명사, 형식명사 뒤에서 자유롭게 생략되며 특히 事(일) 뒤에서 빈번하게 생략된다. 위 (2)의 예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계사 -是-가 가장 많이 생략되는 위치는 위 (3)의 예처럼 명사 味와 선어말어미 -白- 사이에서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계사 -是-가 규칙적으로 생략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결송입안식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문잡례」나 「유서필지」의 결송입안식은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계사 -是-가 명사 味와 선어말어미 -白- 사이에서 규칙적으로 생략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8) -爲-(-ᄃᆞ-)

-爲-는 중세국어의 ‘-ᄃᆞ-’에 해당하는 이두자이다. 이두문에서는 본동사로 쓰인 爲-보다 동사파생접미사로 쓰인 -爲-가 훨씬 많다. 노비결송입안에도 동사파생접미사 -爲-는 빈번하게 출현한다. -爲-에 결합되는 어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爲-는 현대국어만큼 다양한 활용형을 보여 주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다양한 활용형을 갖고 있다.

(4) ㄱ. 遺漏奴婢未乙 萬分 生前 分給 不得爲良置 <1517년 김효로 입안, 047> (유루 노비들을 만일 생전에 분급하지 못하여도)

ㄴ. 分執后所生乙良 各其本主使用爲遣 <1517년 김효로 입안, 049-050> (분집한 후의 소

생은 각각 저마다 본주가 사용하고)

- ㄷ. 並只 後背良中 財主 着名 不冬爲白去等 僞造事狀 現著爲白齊 <1535년 5자녀 입안, 029-030> (모두 문서 뒷면에 재주가 착명하지 않았다면 위조한 일의 현상이 현저합니다.)
- ㄹ. 孫光曙 後室 金氏亦中 決給爲在果 <1560년 최득충 입안, 314> (손광서의 후처인 김씨에게 결급하거니와)
- ㅁ. 或家中之物 種種偷竊爲跡 或更出入 教誘逃避爲去乙 <1586년 이지도 입안, 191-192> (혹은 집안의 물건을 종종 훔치거나 혹은 다시 출입하며 피어내어 도피하니)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도 「대명물직해」에서 볼 수 있는 (-)爲-의 생략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sup>32)</sup> 고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爲- 생략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인데 이러한 견해에 문제를 제기할 만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비록 생략의 빈도는 높지 않지만 노비결송입안에 나타난 (-)爲-의 생략은 주목을 끌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 (5) ㄱ. 無一毫与本族相分之意白在 而亦 <1560년 최득충 입안, 125> (조금도 본족과 함께 나누려는 뜻이 없었지마는)
- ㄴ. 實爲財主成文爲白在如中 子女 衿良中 奴婢 某某是如 各各分明 分衿後良中沙 無後辭緣論罷爲白乎 事是去乙 崔得忠 現納文記白在如中 <1560년 최득충 입안, 146-147> (실제로 재주가 문기를 작성한 것이라면 자녀의 몫에 노비 아무개 아무개라고 각각 분명하게 몫을 나눈 후에야 자식이 없는 내용을 말하고 마칠 일인데 최득충이 문기를 제출한 것이라면)
- ㄷ. 上項 李浚等 用心無狀 在前始叱 多行不義之事良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339> (위의 이준 등이 마음 씀이 형편없어 전부터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하여)
- ㄹ. 右亦 辭緣以 訟官主前 呈所志 白活白良置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821-0822> (이와 같은 사연으로 송관님께 소지를 올려 진정하여도)

(5ㄱ)은 爲白在의 (-)爲-가 생략된 예이다. (5ㄴ)은 爲白在如中の (-)爲-가 생략된 예인데 바로 위의 행에 (-)爲-가 생략되지 않은 동일 형태의 이두가 나온다. 이것은 (-)爲-의 생략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5ㄷ)은 爲良의 (-)爲-가 생략된 예이다. (5ㄹ)은 白活爲白良置라는 이두 형태에서 (-)爲-가 생략된 것인데 그 위의 817행에 동일한 이두 형태가 나온다. 이러한 생략 표기 현상은 이두토의 일부 요소를 생략하여도 이두문의 문맥에 따라 어렵지 않게 문장의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셋째, 존칭의 주격조사에 평칭의 주격조사가 결합된 특이한 주격조사 결합형 敎是亦이 나타난다.

32) (-)爲-의 생략은 조선 초기의 이두 문헌인 「대명물직해」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박용식(2003)에 따르면 「대명물직해」에서 爲-는 총 1,826회 생략된다. 이 중 373회는 연결어미 -遣의 앞에서, 1,453회는 종결어미 齊의 앞에서 생략되었다. 그만큼 대명물직해에서는 (-)爲-의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9) 敎是(이시)

이두문에서 ‘이시’로 읽히는 敎是는 존칭 체언에 결합하여 그 대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아래의 (1ㄱ-ㄴ)은 모두 敎是가 ‘존칭’의 뜻을 지닌 주격조사로 쓰인 예이다.

- (1) ㄱ. 金孝之妻 黃氏敎是 無子息乙 仍于 <1517년 김효로 입안, 026> (김효로의 아내 황씨께서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ㄴ. 前 監司敎是 不覺詳察 從文記決給亦 行下 違法爲白齊 <1535년 5자녀 입안, 32> (전감사께서 자세히 살펴야함을 깨닫지 못하고 ‘문기에 따라 결급하라’고 처리했으니 위법합니다.)  
ㄷ. 財主 母 李氏敎是 亦 去 丁亥年 許與 成置時 <1560년 최득충 입안, 004> (재주인 어머니 이씨께서 또한 지난 정해년에 허여문기를 만들어 두셨을 때)  
ㄹ. 前前使道敎是 洞知春壽之奸僞 手決後 依律治罪次以 同 作文乙 實色吏准受 <1578년 이준 형제 안, 1337-1339> (전전임 관찰사께서 춘수의 간사한 위조를 꿰뚫어 알고 직접 판결한 뒤에 형법에 의거하여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위 질문을 담당 색리가 확인해 받아)

그런데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특이한 주격조사의 결합형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체언에 주격조사는 하나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는 이와 다르게 존칭의 주격조사에 평칭의 주격조사를 결합해 쓰고 있다.

- (2) 婢 仁介段 身故 其餘三口段 先母矣 父 金塘敎是亦 無後亡女已物是去 向入 <1583년 이함 입안, 054-055> (여종 인개는 죽고 그 나머지 3구는 선모의 부친인 김당께서 자식 없이 죽은 딸의 기물인가 생각하여)

이러한 예는 현대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께서’의 표현들이다.

- (3) ㄱ. 예수그리스도께서 지금쯤은 와서 기다리라고 했어.  
ㄴ. 904호를 분양받으신 고객께서 강남 대치동에서 유명한 수학학원 하시던 분입니다.  
ㄷ. 주식회사 수요일 시골투어 김혜지 대표께서 아주 자세하게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ㄹ. 직접 사장님께서 아니라도 직원분들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면 타이밍도 좋고 가장 맛있는 상태의 구운 결과가 나와 만족합니다.

현대국어의 구어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예들이 16세기 고문서 이두문에도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단체 명사에 결합해 쓰이는 주격조사 ‘에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이두자 以의 용례가 여럿 보인다. 16세기에는 주격조사 以의 쓰임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도 보인다.

## 10) 以(이)

以는 삼국시대부터 줄곧 쓰여 온 격조사이다. 以는 일반적으로 도구, 시발, 방향, 원인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조격조사로 쓰여 왔으나 일찍이 주격조사로 쓰인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 (1) ㄱ. 去 甲寅年 分 國朝以 誅流 員將矣 奴婢未乙 公私分屬令是 事是 次 <1281년 松廣寺奴婢文書, 2-3> (지난 갑인년 즈음 나라의 조정에서 죽이고 유배 보낸 관원과 무관의 노비들을 공노비와 사노비로 분속시킨 일인 다음에)
- ㄴ. 同年 二月 分 主掌都官以 事定 別監 出納乙 據爲 <1281년 松廣寺奴婢文書, 3-4> (같은 해 2월 즈음 주장도관에서 일을 결정하여 별감의 출납을 근거로 삼아)
- ㄷ. 甲寅年帳付田乙 矣身以 傳持契持是臥乎 在乙 <1358년 張戡所志, 03> (갑인년 양안에 기재된 토지를 제가 이어받아 먹은 것을)

(1ㄱ, ㄴ)에서 이두토 以는 주격조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문맥상 國朝와 主掌都官이 각각 誅流와 事定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결합된 以는 주격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1ㄷ)의 矣身 역시 문맥적으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결합된 以는 주격조사이다. 이와 같이 ‘以’는 이른 시기부터 주격조사로 쓰였다.

고려시대 자료들에서 간혹 보였던 주격조사 以는 조선 초기 자료인 「대명률직해」에서 다시 발견된다. 「대명률직해」에서 주격조사 以는 모두 9회 쓰였는데 官司 뒤에서 8회, 國家 뒤에서 1회 쓰였다. 다음은 「대명률직해」에 쓰인 주격조사 以의 예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 (2) ㄱ. 官司以 支給合當爲在 衣糧乙 官吏等亦 趣便以 減給爲在乙良 監守自盜以 論爲乎 事 <1395년 대명률직해, 04:09> (관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의복과 양식을 관리들이 제 마음대로 줄여서 주는 경우에는 감수자도로 논할 일)
- ㄴ. 官司以 定付爲乎 牙人及頭目人等亦 容私隱置爲在乙良 笞五十 黜去爲乎 事 <1395년 대명률직해, 10:01> (관사에서 정하여 맡긴 아인과 두목인들이 사사로이 맡은 자를 용인하여 숨겨 두는 경우에는 태 50이고 강제로 내쫓을 일)
- ㄷ. 官司以 造給 斛斗秤尺乙 中間良中 增減爲在乙良 杖六十遣 造作匠人置 同罪齊 <1395년 대명률직해, 10:02> (관사에서 만들어 지급한 휘·말·저울·자를 중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장 60이고 조작한 장인도 죄가 같다.)
- ㄹ. 國家以 不得已擢用爲 起復爲在隱 不拘此律 <1395년 대명률직해, 12:07> (국가에서 부득이하게 뽑아 써 어버이의 상중에 벼슬에 나간 것은 이 율문에 구애되지 않는다.)
- ㅁ. 侍衛人員亦 被罪申聞令是在乙良 本司以 先亦 軍器乙 收取爲乎矣 違者乙良 同罪 論齊 <1395년 대명률직해, 12:07> (시위하는 인원이 죄를 입어 임금께 아뢰게 하면 해당 관사에서 먼저 군기를 거두어들여 되 어긴 자는 같은 죄로 논한다.)
- ㅂ. 凡 軍人等亦 官司以 出給爲乎 衣甲鎗刀旗幟等叱 軍器乙 私音丁 放賣爲在乙良 杖 一百 遠處充軍齊 <1395년 대명률직해, 14:08> (무릇 군인들이 관사에서 내 준 갑옷·창·칼·기치 등의 군기를 사사로이 방매한 경우에는 장 100이고 먼 곳에 있는 군대에 편입시킨다.)

16세기에 들어 以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박성중(2016: 250-251)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주격조사 以는 16세기 노비결송 입안에서도 여러 번 출현한다.

- (3) ㄱ. 同 觀察使亦 寧越郡以 分揀亦 移送 <1511년 정승윤 입안, 17> (위 관찰사가 영월 군에서 분간하라고 이송하였고)
- ㄴ. 一 榮川郡以 妻父母事知奴子乙 元隻間 一不取招爲白乎矣 論報決尾 內 事 知奴子取招 爲乎樣以 論報爲乎 所 至爲綢繆爲白齊 <1535년 5자녀 입안, 037-039> (영천군에서 처부모의 일을 아는 노자를 원고와 피고 간에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논하여 이치를 따져서 보고하는 끝 부분에 일을 아는 노자를 조사를 받은 양으로 논보한 것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 ㄷ. 背書 內 乙未七月初三日 榮川郡以 已曾決折爲有去未 狀辭相考 及時改分揀正斷向 事 清河 背書是齊 <1535년 5자녀 입안, 044-045> (뒷면의 글의 내용은 “을미년 7월 초3일 영천군에서 이미 판결하였으니 소장에 적힌 사연을 상고하고 때에 맞춰 다시 분간하여 바르게 판단하라”라는 관찰사의 배서이다.)
- ㄹ. 縣以 其等徒 分執記 相考 立案成給向 事 回送是齊 <1535년 5자녀 입안, 066-067> (“현에서 그들의 분집기를 상고하여 입안을 성급하라.”라는 회송이다.)
- ㄴ. 同 人乙良 更加捕捉亦 本郡以 嚴加行下爲旆 <1586년 이지도 입안, 142-143> (위 사람은 다시 붙잡으라고 본 군에서 엄하게 명하고)
- ㄷ. 隻人 無亦 縣以 相考 不得 同 正案流音冊乙 監封 同 郡色吏 氷萬丁 准換 輸送爲臥乎 味 牒呈是齊 <1586년 이지도 입안, 164-167> (피고가 없이 현에서 상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 정안 흘림책을 감봉하여 위 군 색리 빙만정이 확인하고 바뀌서 수송하는 취지의 첩정이었다.)
- ㄸ. 本郡以 續案內 成籍爲乎 所 理無爲白去乎 <1586년 이지도 입안, 222-223> (본 군에서 속안 안에 천적을 만들 일의 이치가 없으니)

(3ㄱ-ㄸ)에서 以는 모두 郡이나 縣과 같은 행정 단위 명사와 결합해 쓰였다. 여기서 以는 앞의 명사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행정 단위 명사 뒤에 쓰였기 때문에 ‘에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주격조사로 쓰인 以는 ‘이’로 음독(音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分이 처격조사가 아니라 형식명사 ‘즈음’이나 ‘무렵’의 뜻으로 쓰인 이두자임이 확인 되었다.

## 11) 分(분)

分은 관형어로 기능하는 시간 명사 뒤에서 ‘즈음’, ‘무렵’의 뜻을 나타내는 형식명사로 쓰이는 이두자로 볼 수 있다. 分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처격조사로 쓰인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표적인 예로 이승재(1992)를 들 수 있다. 아래의 (1ㄱ-ㄷ)은 이승재(1992: 114)에 제시된 예의 일부이다.

- (1) ㄱ. 去 丙辰年分 崔忠獻亦 聚類結黨爲 殺活專權爲旆 <尙書都官貼 19>  
 ㄴ. 同年二月分 主掌都官以 事定別監出納乙 據爲 <松廣寺奴婢文書 4>

ㄷ. 所生婢永珍矣 身乙 後小生 并以 子孫傳持 鎮長使用 向 事 有證成文爲遣 同年分 身故  
次 <南氏奴婢文書 5-7>

이승재(1992: 114-115)는 年, 月 뒤에 쓰인 分이 문맥상으로 처격조사 ‘에’에 대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격조사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박성중(2016)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박성중(2016: 261-262)에서는 이 分이 후기중세국어의 처격조사 ‘회’에 정확히 대응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러나 ‘회’에 대응하는 글자를 왜 ‘分’으로 표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승재(1992: 114)에서는 위의 예문 (1ㄱ-ㄷ)에서 볼 수 있는 이두자 分을 조선 초기까지만 한정되어 쓰인 이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다음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보이는 分의 용례 가운데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 (2) ㄱ. 去 戊戌年 分 汝未徒 各 衿良中 奴婢 并 十口武以 爲良 爲旆 <1517년 김효로 입안, 43-44> (지난 무술년 즈음 너희들에게 각자 몫으로 노비를 모두 10구씩으로 하라고 하며)
- ㄴ. 妻父 故 縣監 趙孟文教是 丁亥年 分 自手筆執 文記 成置爲乎矣 <1535년 5자녀 입안, 77-78> (장인인 고 현감 조맹문께서 정해년 즈음 자필로 문기를 만들어 두었는데)
- ㄷ. 前 嫡母 崔氏亦 去 庚戌年 分 無後身死爲白良在乙 <1560년 최득충 입안, 156-157> (전 적모 최씨가 지난 경술년 즈음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 ㄹ. 三寸叔母夫 李殷輔亦 戊戌年 分 娶妻 己亥年 分 叔母亦 婚嫁纔十朔 身死爲良去乙 <1583년 이함 입안, 69-70> (3촌 고모부 이은보가 지난 무술년 즈음 장가들어 아내를 얻고 기해년 즈음 고모가 시집간 지 겨우 열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分은 처격조사가 아니라 형식명사로 보아야 한다. 다음의 예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 (3) ㄱ. 況旆 去 丙辰年 分良中置 冒受議送 到付 接訟爲如可 無緣退縮 寂無蹤跡爲如乎 樣是如中 <1560년 최득충 입안, 048-049> (하물며 지난 병진년 즈음에도 법을 어기고 함부로 의송을 받아 소장을 접수하다가 까닭 없이 움츠리고 물러나 종적도 없이 잠잠하던 터이건대)
- ㄴ. 前年 七月 分良中沙 本府來到 接訟爲白有矣 <1578년 이준 형제 입안, 0994-0995> (지난해 7월 즈음에야 본 경주부에 와서 송사를 접수하였는데)

(3ㄱ)과 (3ㄴ)에서 分은 모두 뒤에 오는 처격조사 ‘良中’과 결합하여 쓰였는데, 만약 分이 처격조사라면 처격조사를 중복해 표기한 것이 되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된다. (3ㄱ)과 (3ㄴ)의 分은 모두 선행 시간명사의 꾸밈을 받는 형식명사로서 후행하는 처격조사 ‘良中’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시간명사 뒤에 쓰이는 分은 처격조사 ‘에’와는 성질이 다른 이두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남풍현(1974, 2000: 576-577)에서 지적한 바 있다. 남풍현(200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두문에서는 처격조사로 ‘中’과 ‘良中’을 쓰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른 형태의 처격조사를 새로 만들어 쓸 이유는 없다. 또한 서종학(1995: 104-105)에서 잘 밝혔듯이 分은 시간을 나타내는 일부 단어와만 선택적으로 결합되고 공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처격조사로 보기 어렵다.<sup>33)</sup> 分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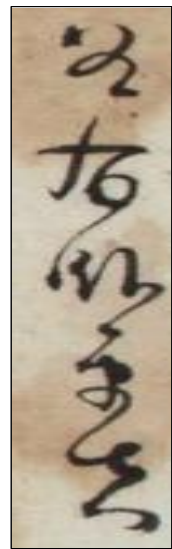
33) 서종학(1995: 104-105)는 일부 시간 표시어에만 통합되고 ‘즈음’, ‘무렵’의 뜻으로 해석되는 分을 보조조사로 간주하고 있다.

간명사 뒤에서 ‘즈음’, ‘무렵’의 뜻으로 쓰이는 형식명사로 보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물론 이러한 형식명사 分이 ‘왜 하필 ‘즈음’이나 ‘무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分이 처격조사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상황에서 우리는 시간명사 뒤에서 형식명사로 쓰이는 分의 의미를 ‘즈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홍기문(1957: 365)은 지금<sup>34)</sup>도 노인들이 흔히 ‘아무년경’이라는 말을 ‘아무년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分을 현대어의 ‘경(頃)’에 해당하는 이두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남풍현(1974, 2000: 576-577)에서도 보인다. 남풍현(1974, 2000: 576-577)은 이회승 선생님의 “옛 노인들 사이에서 ‘……年分’이라고 흔히 쓰여 막연하게 어느 해를 가리킬 때 쓰던 것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예로 들어 分을 현대어 ‘즈음’이나 ‘무렵’과 같은 의미로 쓰인 이두자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分은 시간 명사 뒤에서 ‘즈음’, ‘무렵’의 뜻을 나타내는 형식명사로 쓰이는 이두자로 볼 수 있다.

여섯째, 爲有臥乎則이라는 새로운 이두 활용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부사형 연결어미 ‘-ㄴ즉’을 나타내는 이두자 -則의 선구적인 활용 형태로 볼 수 있다.

#### 1) -則(-즉)

-則은 ‘즉’으로 읽히는 이두자이다. -則은 앞 절의 일이 뒤의 절의 이유나 근거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현대국어의 ‘-ㄴ즉’에 해당한다. -則은 爲有則(호이신즉), 爲乎則(호온즉), 是乎則(이온즉), 敎是則(이신즉), 敎是乎則(이시온즉) 등의 형태로 쓰이는데 이 이두 형태들은 모두 조선 후기의 이두문에만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음 (1)에 쓰인 爲有臥乎則은 매우 소중한 예라 생각된다. 爲有臥乎則은 15세기 국어로는 ‘호잇누온즉’으로 읽을 수 있으며, 현대국어로 ‘하엿은즉’, ‘하엿으므로’ 정도로 해석된다. 이 이두 형태는 16세기 말의 고문서 자료인 <1586년 이지도 입안>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부사형 연결어미 ‘-ㄴ즉’을 나타내는 이두자 -則의 선구적인 활용 형태로 생각된다. 다만 이 이두 형태는 판독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다. 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에 등재된 <1586년 이지도 입안>의 정서본에는 이 이두 형태를 爲有臥乎矣로 판독하였는데 이는 이두의 역사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일뿐만 아니라 형태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그림 8> 이  
두자 爲有臥  
乎矣 (1586  
년 이지도 입  
안 068-069  
행)

- (1) 故 夫 允必亦 李惟謙 奴子以 婢矣身乙 良女是如 多産子息爲有臥乎則 使喚計料 同 子孫等乙 背主是如 爲良置 母 吉德亦 成均館婢子是白去 [ ] 眞僞乙良 同 郡 移文 續案 退伊 相考敎是在如 [ ] 良賤 分明現發 爲白齊 <1586년 이지도 입안, 068-072> (죽은 남편 윤필이 이유겸의 사내종으로서 여종인 저를 양녀라고 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은즉 사환할 생각이었습니다. 위 자손들을 주인을 배반했다고 하여도 어미 길덕이 성균관의 비자이므로 ... 진위는 위 군에 이문하여 속안을 거슬러 상고하실 것 같으면 ... 양친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양친이 분명

34) 1957년 당시를 말한다.

위 (1)은 피고 다물사리의 초사 내용 중 일부분이다. 다물사리는 자신의 죽은 남편 윤필의 상전 이유겸(원고 이지도의 아버지임)이 자신의 딸과 그 딸이 낳은 자녀 6명을 종으로 귀속시켜 부리려고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sup>35)</sup> 그러므로 위 예문의 多産子息과 使喚計料 사이에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미적으로도 ‘자식을 많이 낳았으므로 부릴 생각을 했다’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위 예문의 多産子息 뒤에는 爲有臥乎矣가 아니라 爲有臥乎則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연세대 법학연구원 결송입안역주팀에서는 위 <그림 8>의 이두자를 爲有臥乎則으로 판독하였다. 그러나 판독과 해독은 다른 것이다. 위 <그림 8>의 이두자의 경우, 판독은 ‘矣’로, 해독은 ‘則’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므로 필자는 爲有臥乎矣를 爲有臥乎則의 오기(誤記)로 보고자 한다.

## 4.2. 문체적 특징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문체적 특징으로는 명사문 종결의 원칙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으로 들 수 있다. 이두로 작성된 글은 현대어와 달리 긴 텍스트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종결하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이두문은 명사문, 특히 ~事로 文을 종결한다. 이러한 명사문 종결의 원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자료로는 전적류인 「대명률직해」를 들 수 있으며 문서류 중에서는 분재기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는 이러한 명사문 종결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결송입안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벌어진 재판의 전 과정의 내용과 판결 요지가 빠짐없이 기록된다. 따라서 결송입안에는 원고와 피고 간의 치열한 다툼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게 마련이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신의 진술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문서와 진술에 나타난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는 인과관계가 분명하며 조사와 어미 표현들도 다양하고 섬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는 명사문 종결 형식이 「대명률직해」나 분재기에 비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원고와 피고는 재판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중에는 분재기도 포함된다. 따라서 결송입안에는 당연히 ~事의 형식으로 끝나는 명사문 종결 형식이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의 양은 결송입안 전체 분량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송입안에서 교착어의 특성인 조사와 어미의 다양한 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사문 종결 원칙의 약화는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한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길다는 점도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이 지닌 특징에 해당한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장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길다는 점이다. 현대국어 사용자들은 종결어미와 접속어의 빈번한 사용으로 비교적 짧은 문장을 사용하지만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사용자들은 종결어미를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연결어미를 통해 구절과 구절을 길게 이어 나가기 때문에 그 길이가 현대국어에 비해 길다. 그런데 노비결송입안에 쓰인

35) 양민과 노비가 혼인을 하면 그 자식은 노비의 주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윤필의 상전인 이유겸은 다물사리를 양녀(良女)로서 장적에 올렸다. 이에 대하여 다물사리는 자신의 어머니 길덕과 자신이 양녀가 아니라 성균관비로서 공노비라고 주장하였다. 양녀인 다물사리가 자신을 양녀가 아니라 공노비라고 주장한 것은 자신의 딸과 그 자녀들이 사노비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조선시대에 공노비는 사노비보다 처지가 나았기 때문에 다물사리는 자신의 딸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이 양민이 아니라 공노비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두문 중에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문장보다 긴 문장이 많다. 다음에 제시한 <1560년 최득충 입안>의 한 예문은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 003 …… 家翁 同生妹 崔氏亦 故 月城君 孫仲墩 後  
바깥양반의 여동생 최씨가 죽은 월성군 손중돈의
- 004 室以 無後是白去乙 財主 母 李氏敎是 亦 去 丁亥年 許與 成置 時 上項 崔氏 無後  
후처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는데 재주인 어머니께서 지난 정해년(1527, 중종 22)에  
허여문기를 만드실 때 위의 최씨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 005 辭緣 論破 奉祀位 二三口 外 別給 新奴婢 及 他餘 田民等乙 限 生前 執持 使用爲有  
내용을 말씀하시며 봉사위 2, 3구 외에 별급한 신노비와 여타 전답과 노비들을 생전에  
가지고 사용하였
- 006 如可 女矣 家翁亦中 無遺 許給亦 成置爲白乎矣 月城君 先室 孫子 孫光曙乙 女矣身 作婿  
乙  
다가 저의 남편에게 남김없이 허급한다고 (문기를) 작성하되 월성군의 전처의 손자인  
손광서를 제가 사위로 삼았기에
- 007 仍于 同 崔氏 執持爲有如乎 奴婢等乙 崔氏 死後良中置 推尋 不冬 孫光曙妻乙 仍 給爲有  
如  
위의 최씨가 가지고 있던 노비들을 최씨가 죽은 후에도 추심하지 않고 손광서의 처를  
그대로 주었다가
- 008 可 女子段置 亦 爲無後 身死爲白去乙 同 奴婢 推尋次 上項 孫光曙亦 義絶亡妻父是去 向  
入 辱  
딸도 또한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위의 노비를 추심하기 위해 위의 손광서가 죽은 처의  
아버지와 의절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 009 言發說 因執不許爲去乙 家翁敎是 不勝痛憤 去 丙辰年 分 受議送到付爲有如可 丁巳年  
육설을 발설하고 인하여 가지고 주지 않거늘 바깥어른께서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지  
난 병진년(1556, 명종 11) 즈음에 다시 의송을 받았다가 정사년(1557, 명종 12) 즈음  
에
- 010 分 家翁亦 不意身死 決訟 不得是沙 餘良 亦 爲險年停訟以 相訟 不得爲白乎跡 況跡 孫  
바깥어른이 뜻하지 않게 죽어 결송하지 못하였을뿐더러 또한 흉년이 들어 정송으로 소  
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하물며
- 011 光曙至亦 身死爲白乎矣 孫光曙 後室 金氏 及 孫仲墩 前室 子枝等亦 他矣 衿付 許多 奴  
婢乙  
손광서까지 사망하였는데 손광서의 후처 김씨와 손중돈의 전처 자식들이 남의 몫으로  
준 많은 노비를
- 012 不干人以 累年使用 加于 曖昧 閱望爲白良尠 財主 李氏 許與 辭緣 內 備細 相考 明正 決  
折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니 더욱 억울하고 민망하옵기에 재주  
이씨가 허여한 문기의 내용을 자세하게 상고하여 올바르게 밝혀 판결
- 013 敎是跡 不干奴婢 任然使用 辭緣乙良 依法科罪爲白只爲 行下向 事  
하시고, 관련 없는 노비를 임의로 사용한 일은 법대로 죄를 처단하도록 처분할 일.  
(밑줄은 필자가)

위 글은 고 최세온의 아내 신씨가 남편의 노비를 경주 손씨 집안에서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한 관의 처분을 요청하는 소지 내용인데 상당히 긴 글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글을 읽어 보면 글쓴이는 자신의 논지를 여러 가지 이두토(연결어미)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비결송입안은 다양한 연결어미의 사용으로 한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이 특징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이두의 실제 모습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자료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새 이두자를 발견하였다. 等內, 前等, 後等, 更亦, 導亦, 並亦, 右亦 등은 이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이두자들이다. 이 중에서 更亦, 導亦, 右亦은 모두 기존 단어의 형성소인 -良을 -亦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亦에 새롭고 특별한 문법적 의미가 추가된 것은 아니다. 16세기에 이러한 -亦형의 부사어 이두가 여럿 등장하는 것은 당시의 이두문에서 亦의 사용이 유행처럼 매우 활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새 단어를 만들어 쓸 때, 의미의 공통정보보다는 음의 유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언중(言衆)의 기호가 작용한 듯이 보인다. 更亦, 導亦, 並亦, 右亦 등과 같이 이 시기에 새로 출현한 이두자들은 16세기 이두가 여전히 전 시대의 이두와 마찬가지로 생산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等內, 前等, 後等도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이두인데 이 이두자들은 취음(取音)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更亦, 導亦, 右亦 등과는 다른 원리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는 계사 -是-의 생략 현상이 매우 빈번하며 아울러 (-)爲-나 (-)爲- 뒤에서의 -良, -遣, -齊의 생략 현상도 종종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이두를 반영하는 「대명률직해」(1395)에는 (-)爲-와 어말어미 -良, -遣, -齊 등의 생략 표기가 빈번하고 계사 -是-의 생략 표기도 종종 나타난다. 그러므로 박성중(1996, 2016)에서는 이를 일반화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이두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며 특히 문서류에서는 이런 현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는 계사 -是-의 생략 표기가 지나칠 정도로 자주 나타나고, (-)爲- 및 -良, -遣 등 어말어미의 생략 표기도 종종 나타난다.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이두는 전대(前代)의 이두인 「대명률직해」의 이두와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지니고 있다. 닮은 점은 이두의 생략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대명률직해」에서는 -是-보다 (-)爲-의 생략 표기가 많은 데 비하여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는 (-)爲-보다 -是-의 생략 표기가 많다는 점이다.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는 존칭의 주격조사에 평칭의 주격조사가 결합된 특이한 주격조사 결합형이 나타난다. <1583년 이함 입안>에 쓰인 敎是亦이 그것인데 敎是亦은 현대국어로는 ‘께서’로 해석되는 이두이다.

16세기 결송입안에는 단체 주격조사 ‘에서’를 표기한 이가 여러 번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 잠깐 보였던 이 이두자가 조선 초기에 다시 보이고 후대로 갈수록 그 쓰임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는 전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이두 곡용 및 활용 형태가 발견된다. 새로운 이두 곡용 형태로는 分良中置와 分良中沙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앞에서 이것들을 형식명사 分에 처격조사와 보조사가 차례로 결합된 복합 형태로 보고 여기의 分이 처격조사가 아니라 시간 명사 뒤에서 ‘즈음’, ‘무렵’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형식명사의 기능을 하는 이두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1578년 이지도 입안>에 보이는 爲有畝乎矣라는 활

용 형태도 이 시기에 처음 나타나는 이두이다. 이 형태는 후대에도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것을 爲有臥乎則(호잇누온즉)의 오기로 해독하였다. 만약 이러한 해독이 맞다면 爲有臥乎則은 부사형 연결어미 ‘-느즉’을 나타내는 이두자 -則의 선구적인 활용 형태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16세기 이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더 있다.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서는 「대명률직해」에서 확인되는 명사문 종결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은 다양한 연결어미 이두의 사용으로 구절과 구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길다는 점도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이두문이 지닌 특징이다.

이 글은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이두를 정리하고 그 국어학적 특성을 고찰하여 전 시대의 이두와 구별되는 16세기 이두의 특징과 그 과도기적 양상의 일면을 밝혔다.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로써 16세기 이두의 전반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기초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글은 국어학 연구자들에게는 여전히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고문서 이두에 대하여 연구하고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16세기 노비결송입안 자료를 정리하면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좀 더 폭넓고 깊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한 방대한 분량의 16세기 노비결송입안에 담겨 있는 모든 이두자 및 이두 복합 형태에 대하여 충분하게 기술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16세기 노비결송입안의 이두 자료를 전대 및 후대의 주요 이두 자료들과 낱낱이 비교하고 검토하는 작업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 보완해 나갈 것이며 많은 정진을 통해 연구의 깊이도 더욱 심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영(1998), 『『대명률직해』 이두의 어말어미 연구』, 국학자료원.
- 강전섭(1963), “吏讀矣新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전섭(1972), “「유서필지」에 대하여”, 『어문학』 27, 한국어문학회, 13-26.
- 고정의(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정의(1994), “대명률직해 이두의 표기법”, 『울산어문논집』 9,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23.
- 고정의(2002), “대명률직해의 이두와 그 특징”, 『구결연구』 9, 구결학회, 19-72.
- 고정의(2003), “이두 학습서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223-252.
- 구범진(2012), 『이문 역주』 상·중·하, 세창출판사.
- 권이선(2017), “조선시대 決訟立案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선(2018), “조선시대 決訟立案의 유형별 특징과 발급양상”, 『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5-234.
- 김경숙(2003), “1578년 慶州 驪州李氏 李浚家の 奴婢決訟立案”, 『고문서연구』 23, 한국고문서학회, 243-261.
- 김영만(1980), “유서필지의 이두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영(1996), “조선 초기의 傳准에 대하여-1469년 전양지 처 하씨 점련문기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9·10, 한국고문서학회, 123-138.
- 남풍현(1974), “十三世紀奴婢文書와 吏讀”, 『論文集』 8, 단국대.

- 남풍현(1977), “國語 處格助詞의 發達-舊譯仁王經의 口訣을 중심으로-”, 『李崇寧 先生 古稀 紀念 國語國文學論叢』, 탑출판사, 69-93.
-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研究』, 단대출판부.
- 남풍현(1994), “高麗初期의 帖文과 그 吏讀에 대하여-禮泉鳴鳳寺 慈寂禪師碑의 陰記의 解讀”, 『고문서연구』 5, 한국고문서학회, 1-19.
- 남풍현(1995), “16世紀 古文書의 吏讀文 解讀 二題”, 『韓日語學論叢(남학이종철선생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 남풍현(1998), “고대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207-241.
-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 남풍현(2005), “韓國 古代吏讀文의 文末語助辭 ‘之’에 대하여”,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5-28.
- 남풍현(2014ㄱ), 『古代韓國語 論攷』, 태학사.
- 남풍현(2014ㄴ), 『國語史研究』, 태학사.
- 노명호 외(2000),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 상·하, 서울대학교출판부.
- 동양학연구소 편(1973), 『千字文』, 단대출판부.
- 朴秉濠(1974), 『韓國法制史攷-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 박성중(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중(2004), “16세기 고문서 吏讀의 예비적 고찰”, 『고문서연구』 24, 한국고문서학회, 107-140.
- 박성중(2005), “韓國漢字의 一考察”,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51-96.
- 박성중(2006), 『朝鮮初期 古文書 吏讀文 譯註』,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성중(2007), “吏讀字 ‘內’의 讀法”,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139-170.
- 박성중(2008), “古文書 吏讀 研究의 回顧와 展望”, 『口訣研究』 21, 구결학회, 169-201.
- 박성중(2016), 『朝鮮前期 吏讀 研究』, 역락.
- 박용식(2003), “이두의 생략 표기에 대한 연구-대명률직해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희숙(1985),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대온(2002), 『吏讀文法素의 通時的研究』, 경상대학교출판부.
- 보경문화사(1986),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도서영인 제16호 대명률직해』, 보경문화사.  
「三綱行實」(런던본)
- 서종학(1991), “이두의 문법형태 표기에 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종학(1994), “指定文字와 借字 ‘內’”, 『민족문화논총』 1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서종학(1995),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 서종학(2004), “借字 ‘令是-’攷”,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33-155.
- 안병국(1998), 『古代漢語 語法의 基礎』,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안병희(1977), “養蠶經驗撮要和 牛疫方의 吏讀의 연구”, 『東洋學』 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3-22.
- 안병희(1983), “吏讀文獻 吏文大師에 대하여”, 『동방학지』 38, 연세대 어학연구원, 43-86.
- 안병희(1984), “「典律通補」와 그 吏文에 대하여”, 『목천 유창균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계명대출판부.

- 안병희(1985), “大明律直解 吏讀의 研究”, 『奎章閣』 9, 서울대학교출판부, 1-22.
- 안병희(1986), “이두문헌 <이문>에 대하여”, 『배달말』 11, 경상대 배달말학회, 1-41.
- 안병희(1987), 『吏文과 吏文大師』, 탑출판사.
- 안병희(1999), “이문(吏文)과 이문대사(吏文大師)를 다시 논함”, 『겨레문화』 13, 한국겨레문화연구원, 3-27.
- 안병희(2001), “吏讀便覽에 대하여”, 『서지학보』 25, 한국서지학회, 5-34.
- 안병희·윤용선·이호권(2002), 『중세국어연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안병희·이광호(1990), 『中世國語文法論』, 학연사.
- 안승준(2017), 『韓國古文書 세미나 安東 興海裴氏 臨淵齋宗家』 (고려대학교 2017학년도 제2학기 ‘도교 및 민속 서류 번역 실습 2’ 수업자료).
- 양주동(1965),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결송입안역주팀, 『조선시대 결송입안 집성』 (비공개 자료).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1992), 『嶺南古文書集成(Ⅱ)-晦齋李彦迪家門古文書-』, 영남대학교출판부.
- 오창명(1987), “備邊司謄錄의 吏讀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창명(1995ㄱ), “朝鮮前期 吏讀의 國語史的 研究-古文書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창명(1995ㄴ), “1407년 「長城監務關字」의 吏讀文 解讀”, 『古文書研究』 7, 한국고문서학회, 51-68.
- 오창명(1995ㄷ), “조선전기 이두항목 정리(1)”, 『古文書研究』 7, 한국고문서학회, 127-180.
- 오창명(1996), “조선전기 이두항목 정리(2)”, 『古文書研究』 8, 한국고문서학회, 147-220.
- 오창명(2018), “조선시대 吏讀 學習書 개관”, 『口訣研究』 39, 구결학회, 195-237.
- 윤국일 옮김(1998), 『新編 經國大典』, 신서원.
- 윤국일 역주(2000), 『譯註 經國大典』, 여강.
- 李樹健(1981),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영남대출판부.
- 이수건 외(2004),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41-75.
- 이용(2008), “古代 및 中世 吏讀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139-168.
- 이익섭·임홍빈(1983), 『國語文法論』, 학연사.
- 이현희·이호권·이종묵·강석중(1997), 『杜詩와 杜詩諺解 권6』, 신구문화사.
- 임상혁(2002), “1583년의 한 訴良事件과 壓良爲賤-允元·林慶秀 소송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75-98.
- 장경준(2007), “경리잡설(經俚雜說)의 이두와 독음”,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409-443.
- 장경준(2013a), 『대명률직해 이두문의 현대어역(초안)』 (고려대 대학원 2013학년도 제1학기 ‘국어어휘사연구’ 참고자료).
- 장세경(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 출판부.

- 장윤희(2003), “吏讀 研究史”, 『한국의 문자와 문자연구』, 집문당, 397-426.
- 전경목 외(2006), 『儒胥必知』, (주)사계절출판사.
- 정금식(2007), “1517년 安東府 決訟立案 분석”, 『법사학연구』 35, 5-40.
- 정승혜(2017), “小倉文庫 「公私恒用錄」에 合철된 <吏文襟例>에 대하여”, 『구결연구』 39, 구결학회, 275-302.
- 정재영(2000),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ㄴ-’와 그 변화-선어말어미 ‘-內-’, ‘-飛(ㄷ)-’와 ‘-臥(卜)-’를 중심으로”, 『형태론』 2, 73-106.
- 조선총독부중추원 편(1936, 2000), 『교정 대명률직해』, 경인문화사.
- 조철제(2002a), “경주선생안의 내용분석과 전래경위”, 『신라학연구』 6, 위덕대학교 부설 신라학연구소, 61-125.
- 조철제 역주(2002b), 『國譯 慶州先生案』, 경주시·경주문화원.
- 진윤정(2016), “대명률직해에 사용된 조선한자어 연구 - 유형 분류와 의미 고찰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승희(1989),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 최연숙(2005),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고문서학회 편(2014), 『제194회 한국고문서학회 연구발표회 ‘1578년 奴婢決訟立案 傳准’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한국고문서학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 『古文書集成』 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古文書集成』 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古文書集成』 3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古文書集成』 3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3), 『古文書集成』 65.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5), 『吏讀資料選集』, 아세아문화사.
- 한상인(1993),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學的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상인(1998), 『朝鮮初期 吏讀의 國語學的 研究』, 보고서.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웅(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인영(2018), “차자표기에 사용된 문법요소 ‘內’의 독법과 기능에 대하여”, 구결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32.
- 홍고(2001), “이두자료 『農圃集』의 경어법에 대하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79-111.
- 홍고 테루오(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기문(1957), 『리두 연구』, 과학원출판사.
- 홍순탁(1974), 『이두 연구』, 광문출판사.
- 홍순혁(1946), “유서필지 소고 (1)”, 『한글』 11, 한글학회, 189-195.
- 홍순혁(1947), “유서필지 소고 (2)”, 『한글』 12, 한글학회, 426-434.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 前間恭作(1929), “吏讀便覽에 就하여”, 『朝鮮』 165, 조선총독부.



#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성우철(고려대)

## < 목차 >

1. 서론
2.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
  - 2.1.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 2.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과서
3.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개선 방향
  - 3.1. 고대국어 교육으로부터의 독립
  - 3.2. 차자표기의 기제와 실현 양상 탐구
4. 결론

## 1. 서론

국어 표기사에서 차자표기<sup>1)</sup>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한글과 같은 고유한 문자가 없던 고대국어 시기에 한자는 국어를 기록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중국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를 국어에 적용하려는 시도로부터 형성된 차자표기의 전통은, 언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국어를 통한 문자 생활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삼국시대에 처음 발생한 이래 차자표기는 지속적 변모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색된 다양한 문자 사용 방식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유의미한 탐구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어교육에 있어서 차자표기의 교육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석독구결 자료의 발견 이후 차자표기에 관한 학문적 이해의 수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져 왔으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차자표기 관련 내용은 아직도 제7차 교육과정의 범위에만 머물러 있다. 게다가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겪으며 차자표기의 교육을 위한 내용적 근거는 줄어들고만 있으며, 그나마 언급되고 있는 내용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국어교육 전반에 걸쳐 차자표기에 대한 광범위한 물이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은 국어 차자표기가 표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문자론적 차원에서도 가치 있는 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어 차자표기의 교육 현황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두 층위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앞서 확인한 여러 비판점을 고대국어 교육으로부터의 독립과 차자표기의 기제와 실현 양상 탐

1) 엄밀한 관점에서 차자표기는 크게 어휘의 차자표기와 문장의 차자표기로 구분된다(安秉禧 1992: 270, 南豐鉉 2000: 14). 이 글에서는 국어를 본격적으로 기록한 문장의 차자표기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어휘의 차자표기와 문장의 차자표기에 내재하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내용에 따라 어휘의 차자표기를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볼 것이다.

## 2.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

우리는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사가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식적 문서인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텍스트인 교과서는 학급 수준의 상호작용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는 중심 수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과 그에 따른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을 거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1.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2015 개정 이전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비록 그 비중이 높지는 않았지만, 고대국어로부터 중세국어를 거쳐 근대국어에 이르는 국어사의 모든 범위를 다루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어의 문자 및 표기의 변천에 관한 내용도 탐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성취기준에 명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의 경우 ‘국어Ⅱ’와 ‘독서와 문법’에서 이에 관한 성취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밑줄 필자)

|           |                                                                                                                                                                                                                                                                                                              |
|-----------|--------------------------------------------------------------------------------------------------------------------------------------------------------------------------------------------------------------------------------------------------------------------------------------------------------------|
| 국어<br>Ⅱ   | (11)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br>고대, 중세, 근대 국어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지 탐구하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 속에 선인들의 사고가 어떻게 반영되어왔는지 국어의 변천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방향까지 모색해 보도록 한다. 국어의 미래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언어 동질화 문제를 다루고 국어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탐구하여 본다.                                                  |
| 독서와<br>문법 | (26)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한다.<br>국어의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시대에 따른 국어 변천의 양상을 탐구하고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국어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차자(借字) 표기와 한글 표기의 양상을 탐구하고, 나아가서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시대에 걸친 음운과 표기, 단어와 문장의 주요 변천 양상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국어 자료는 역사적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소중한 국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러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공통 과목인 ‘국어’에서 고대국어와 근대국어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었으며,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도 『훈민정음』 언해본과 같이 널리 알려진 문헌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경향 가운데 하나인 ‘성취기준의 단선화(구본관 2016)’와도 연관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교육 내용의 감축을 더 심하게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의 교육 내용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표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사 관련 성취기준(밑줄 필자)

|           |                        |                                                                                                                                                                                                                                                                   |
|-----------|------------------------|-------------------------------------------------------------------------------------------------------------------------------------------------------------------------------------------------------------------------------------------------------------------|
| 국어        | 성취기준                   | [10국04-01]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한다.                                                                                                                                                                                                                           |
|           | 학습 요소                  | 국어의 역사성,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
|           | 성취기준<br>해설             | [10국04-01] 이 성취기준은 구체적인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가 변화하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 활동을 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되, 한글 창제 후의 중세 국어 자료와 현대 국어 자료를 비교하며 국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
|           | 교수·학습<br>방법 및 유의<br>사항 | ① 국어의 변화를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의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u>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료를 사용</u> 하며, 시기는 <u>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로 한정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u> 주도록 한다.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널리 알려진 자료를 활용하되, 현대 국어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           | 평가 방법 및<br>유의 사항       | ④ 국어의 변화와 관련된 평가에서는 시대별 언어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묻기보다 현대 국어와의 차이를 알고 언어가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는 데 중점을 둔다.                                                                                                                                                                             |
| 언어와<br>매체 | 성취기준                   |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
|           | 학습 요소                  | 국어 자료의 시대별 특성(고대, 중세, 근대)                                                                                                                                                                                                                                         |
|           | 성취기준<br>해설             | [12언매02-08] 이 성취기준은 국어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에 대한 이해 수준을 심화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u>차자 표기 자료로 남아 있는 고대 국어</u> , 한글 창제 이후의 중세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 중에서 내용이나 표현이 <u>쉽고, 짧으며,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u> 하되, 상세한 국어사 지식의 학습보다는 <u>개략적인 어휘의 변화</u> 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
|           | 교수·학습<br>방법 및 유의<br>사항 | ⑨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할 때에는 국어사적 지식을 세세하게 학습하기보다는 국어 변화의 개략적인 모습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
|           | 평가 방법 및<br>유의 사항       | ②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 사회나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 혹은 모둠별 프로젝트 과제를 제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국어사는 각 시대의 국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어의 변화 과정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국어 표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과 같은 표기법이 국어에 정착된 과정은 개화기 시기에 나타난 무수한 문체적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어야 하며, 이것은 다시 중세국어 시기부터 개화기 시기까지 이어진 언해

(諺解)의 흐름과 고대국어 시기에 등장한 이래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계승되어 온 차자표기의 전통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 차자표기가 다루어지고 있는 방식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차자표기 자료=고대국어, 한글 자료=중세국어, 근대국어’라는 등식은 국어 표기사의 다양한 양상을 너무나 쉽게 획일화시키고 만다. 게다가 개략적인 어휘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성취기준 해설의 기술에서는 언어의 일부인 어휘를 언어 자체로 대치시키는 오류마저 범하고 있다. 이러한 조망 아래 국어 차자표기가 보여주는 다면적 양상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 내용을 감축한다고 해서 반드시 학생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하고자 하는 영역의 거시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내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생에게 파편화된 채로 전달되는 개별적 지식은 온전한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코끼리의 머리와 팔다리를 모두 떼어 낸 다음 몸통만 보여주어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2.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과목에는 ‘국어(공통 과목),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이상 일반 선택 과목),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이상 진로 선택 과목)’가 있으며, 각 과목에 따라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가 출판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서는 고대국어와 근대국어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제외되고, 교수·학습 자료도 『훈민정음』 언해본 등의 한글 문헌으로만 제한되어, 교과서에서 차자표기에 관한 내용을 다룰 만한 근거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11종 『국어』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차자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종의 교과서에는 차자표기 관련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었는데, 하나는 본문의 날개에서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 표기에 대해 언급한 천재교육 『국어』 교과서(이성영 외)이며, 다른 하나는 향가 『제망매가』에 관한 학습 활동으로 향찰 표기를 다룬 동아출판 『국어』 교과서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국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법은 인명, 지명 등 고유 명사를 표기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우리말의 단어나 문장을 표시하는 데까지 발전하였으나, 우리말을 온전히 적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글이 창제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글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국어 생활의 양상은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글로 쓰인 국어 자료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축적되기 시작했지요.

그럼 이제 1443년 한글이 창제된 직후에 쓰인 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옛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의 국어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 표기**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법에는 구결, 이두, 향찰 등이 있었다. 구결은 한문 어순대로 쓰되 필요한 곳에 토를 다는 것이고, 이두는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적고 토도 다는 것이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까지 전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가장 발달한 한자 차용 표기법이었다.

<그림 1> 천재교육 『국어』 교과서(이성영 외) 10-1 본문(359쪽)

한글 창제의 배경과 그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까지 시도되어 온 국어 표기 방식을 언급하는 것은 온당한 흐름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1>의 날개에 제시된 내용은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어 오히려 학생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구결이나 이두에서 토가 달리는 곳은 어디이며 그것을 읽는 순서는 어떠한지, 향찰 이외의 한자 차용 표기법에서는 조사나 어미를 전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지, 궁극적으로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 표기에 대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과서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3) <보기>를 참고하여 아래 표의 밑줄 친 부분이 한자의 음과 뜻 가운데 어느 것을 빌려 표현한 것인지 구분해 보자.

**보기**

향가를 창작할 당시에는 우리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내용을 적는 방식인 향찰을 활용하여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는 음을 빌려 읽는 글자와 뜻을 빌려 읽는 글자로 나누어진다.

| 표기                                                                                                                                                                                                                                                                                                                                                                     | 해석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生</span> <span>死</span> <span>路</span> <span>隱</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나다</span> <span>생</span> <span>죽다</span> <span>사</span> <span>길</span> <span>로</span> <span>숨다</span> <span>은</span> </div>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span>생사</span> <span>길은</span> </div> |

路: \_\_\_\_\_
隱: \_\_\_\_\_

<그림 2> 동아출판 『국어』 교과서 10-1 학습 활동(329쪽)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에서 차자표기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진 다른 유형은 향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 활동의 경우이다. <그림 2>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음독자(音讀字)와 음가자(音假字), 훈독자(訓讀字)와 훈가자(訓假字)의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박재민(2012)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처리는 차자표기 교육에서 교사나 학생이 설명이나 이해의 혼란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 엄밀하고 체계적인 설명 방식 대신에 더 단순하고 간략한 설명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다음으로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살펴보자. ‘언어와 매체’의 경우 성취기준에서 고대국어를 보여주는 자료로 차자표기를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어 내용상의 공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한 교과서에서는 『국어』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었으며, 국어학적 연구 성과가 대부분 무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다. 관련하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5종 『언어와 매체』 교과서 모두 제7차 『국어(하)』 교과서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었다는 점은 유념할 만하다.

2) 이 글에 쓰인 음독자와 음가자, 훈독자와 훈가자의 개념은 南豊鉉(2000: 14-20)에 따른 것이다.

3) 한편, 동아출판 『국어』 교과서의 경우 학습 활동에서 향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향찰 표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망매가』가 수록된 다른 ‘국어’ 교과서인 미래엔 『국어』와 신사고 『국어』에서는 향찰로 표기된 원문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이 대조적이다. 현대어역의 경우 세 종의 교과서 모두 金完鎭(1980: 127)의 것만을 싣고 있었으며, 옛말로 된 해독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는 없었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향가를 교육하는 데에 국어사 관련 내용을 개입시키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1 고대 국어

고대 국어 시기의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사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였다.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우리말식으로 표기하였다.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삼국사기》권 제47

현대어 풀이

5 소나(素那) 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은 ‘소나’라는 이름을 표기하기 위해 그 음을 빌려와 ‘素那(쥬 소, 어 짜 나)’로 적기도 하고, 그 뜻을 빌려와 ‘金川(쇠 금, 내 천)’으로 적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삼국 시대에 이르러 이두, 구결, 향찰처럼 보다 발전된 표기법이 등장했다.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를 전면적으로 기록하는 표기법이다. 향찰은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고유 명사 표기법과는 다르다. 향찰은 겉으로 보기에 한자를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라인들은 이것을 우리말로 읽었다.

향찰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의 실질 형태소는 주로 한자의 뜻을 이용하고, 조사나 어미 등의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적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서동요〉에서는 ‘선화공주님은’을 표기하기 위해 ‘善化公主主隱’으로 기록하였다. 이때 두 번째로 쓰인 ‘主(주인 주)’는 ‘임’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뜻을 빌려 썼고, ‘隱(숨을 은)’은 조사 ‘은’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빌려 쓴 것이다.



## 이두와 구결

이두는 한자를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따라 배열하고 토를 붙인 표기법이다. 구결은 한문 원문의 어구 사이에 한자를 빌려 붙인 우리말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를 가리킨다.



<그림 3> 미래엔 『언어와 매체』 교과서 4-1 본문(191쪽)

우선 <그림 3>에서 확인되듯이 『언어와 매체』 교과서 역시 『국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음독자와 음가자, 훈독자와 훈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엄밀한 구분 없이 차자표기의 원리를 단순히 ‘음독’과 ‘석독’으로만 구분함으로써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자료의 해독에 관한 혼란이다. 예컨대, 「서동요」의 ‘善花公主主隱’에서 앞의 ‘公主’에 쓰인 ‘主’는 실질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님”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두 번째 ‘主’와 ‘公主’에 쓰인 ‘主’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림 4>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 夜入伊遊行如可

- 「차용가(處容歌)」에서

[신라어] 밤드리 노닐다가

[현대어] 밤이 들도록 노닐다가

이러한 차자 표기는 단어뿐 아니라 문장을 표기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은 향찰로 표기된 향가의 일부이다. 어휘적 의미를 지닌 요소는 한자의 뜻을 빌려 적고, 문법적 의미를 지닌 요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에서 ‘夜入(밤 들-), 遊行(노니-: 놀-+니-)’처럼 어휘적 의미를 지닌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 적은 반면, ‘伊(-이), 可(-가)’처럼 문법적 의미를 지닌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고대 국어의 어휘와 문법 형태소를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 도움

향찰 표기의 ‘如(다 어)’는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말에서 음을 위해 ‘다’로 읽는다.

<그림 4> 창비 『언어와 매체』 교과서 2-1 본문(102~103쪽)

『언어와 매체』 교과서 본문에서 훈가자에 관해 소략하게나마 설명된 것은 <그림 5>의 날개가 전부이며, 음독자에 관한 설명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문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 교과서 대부분에서 이러한 구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3>에서 보이듯이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차자표기 자료는 향가이며, 향가에서는 음독자와 음가자, 훈독자와 훈가자의 각 유형이 두루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3>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제시된 차자표기 자료

| 출판사  | 제시된 차자표기 자료                             |                                                                                       |
|------|-----------------------------------------|---------------------------------------------------------------------------------------|
|      | 본문                                      | 학습 활동                                                                                 |
| 미래엔  | 『삼국사기』 권47 ‘素那或云金川’,<br>「서동요」 ‘善花公主主隱’  | 「처용가」 ‘夜入伊遊行如可’                                                                       |
| 비상교육 | 『삼국사기』 권34 ‘永同郡本吉同郡’                    | 「제망매가」 ‘吾隱去內如辭叱都<br>毛如云遣去內尼叱古’                                                        |
| 지학사  | 『삼국사기』 권44 ‘居柒夫或云荒宗’                    | 『삼국사기』 권47 ‘素那或云金川’,<br>『동몽선습』 음독구결의 일부,<br>「임신서기석」 ‘今自’ 및 ‘大罪得’,<br>「도술가」 ‘今日此矣散花唱良’ |
| 창비   | 『삼국사기』 권37 ‘買忽一云水城’,<br>「처용가」 ‘夜入伊遊行如可’ | 없음                                                                                    |
| 천재교육 | 없음                                      | 『삼국사기』 권47 ‘素那或云金川’,<br>「임신서기석」 ‘天前誓’,<br>「서동요」 ‘善花公主主隱’                              |

흥미로운 것은 고대국어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결을 제시한 교과서가 지학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 단 한 종뿐이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 6>과 같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대국어와 관련하여 고려 시대의 구결 자료를 다루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처리 방식으로 보인다.<sup>4)</sup> 그런데 지학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독구결 자료는 조선 시대에 편찬된 『동몽선습』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고대국어 시기와는 최소한 5세기 이상의 간격을 가지는 문헌이다.

4) 물론 황선엽(201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의 변화를 보다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한글 창제 이전의 자료를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교육 방법일 수도 있다. 향가와 석독구결 자료 간에 보이는 문법상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언어가 크게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황선엽 2013). 이러한 관점에서 황선엽(2013)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원적 시대 구분을 국어교육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         |         |
|-------------------|---------|---------|
| 고조선 말기<br>한사군 설치기 | 고대국어    | 차자표기 시대 |
| 원삼국시대             |         |         |
| 삼국시대              |         |         |
| 통일신라시대            |         |         |
| 고려시대              | 전기 중세국어 |         |



<그림 5> 천재교육 『언어와 매체』 교과서 5-1(210쪽)

고대국어를 보여주는 자료로 조선 시대의 『동몽선습』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그림 6>에 서는 구결 표기의 기본 원리가 고대국어 이래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조선 시대의 자료가 (고려 시대의 자료보다) 학습하기에 수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구결은 생겨난 이래 지속적 변모를 거치며 이어져 왔으며, 조선 시대의 자료가 고려 시대의 자료보다 학습하기에 수월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차자표기 자료=고대국어’라는 오해와 ‘구결=음독구결’이라는 낡은 관념이 빚어낸 폐해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구결 표기의 기본 원리는 고대 국어 이래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몽선습』은 조선 시대의 자료지만, 학습하기에 수월한 면이 있으므로 주어진 활동을 통해 구결 표기의 원리에 관해 탐구해 보자.

**학습 도구**

『동몽선습(童蒙先習)』, 조선 중종 때에, 박세무가 쓴 어린이 학습서로, 오륜(五倫)의 중요한 뜻을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천자문』을 익힌 어린이들이 『소학』을 배우기 전에 공부하는 교과서로 널리 사용하였으며, 덕행의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2. 다음 『동몽선습』의 표기를 바탕으로 구결 표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                                                         |         |
|---------------------------------------------------------|---------|
| 天地之間萬物之中 唯人 最貴 所貴乎人子 以其有五倫也                             | (한문)    |
| 天地之間萬物之中 唯人 伊 最貴爲尼 所貴乎人子 隱 以其有五倫也 羅                     | (구결문)   |
| 천지지간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 소귀호인자논 이기유오륜야라                       | (독법)    |
|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이 귀한 것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 (현대어 역) |

(1) 위 구결문의 밑줄 친 부분이 현대어 역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자.

| 厓 | 伊 | 爲尼 | 隱 | 羅 |
|---|---|----|---|---|
|   |   |    |   |   |

(2) 『동몽선습』은 한문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의 교재로 지은 책이다. 한문에 구결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측하여 말해 보자.

<그림 6> 지학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 4-1 학습 활동(210쪽)

관련하여 점토석독구결, 자토석독구결, 음독구결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교과서가 단 한 종도 없었다는 사실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구결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 성과가 국어교육의 영역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된다. 김유범(2018)에서 지적했듯이 학습량 경감이라는 이름 아래 가치 있는 교육 내용이 배제되어 버린 것이다. 구결에 관해 본문에 가장 긴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지학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구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③ 구결·이두·향찰

한자 차용 표기법은 고유 명사 표기에서 시작되어 점차 구결(口訣), 이두(吏讀), 향찰(鄕札) 등으로 발달하였다. 구결은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고, 이두는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구결의 경우 한문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만 더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구결 글자를 빼면 그대로 한문이 되지만, 이두의 경우 어순까지 우리말에 맞도록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표기를 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향찰은 신라의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표기법으로, 어순을 우리말에 맞도록 배열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로 표기할 뿐 아니라 명사나 동사 등의 실질 형태소와 단어들까지 한자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가장 발달한 형태의 한자 차용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단어 등 여러 가지를 한자 차용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다 보니 읽고 쓰기의 방식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가장 발달한 한자 차용 표기법이었음에도 향가의 소멸과 함께 그 표기법인 향찰 역시 사라지게 된다. 향찰이 통일 신라 시대까지만 사용되고 사라졌다는 점에서 조선 시대에도 그 쓰임이 꾸준히 이어졌던 구결이나 이두와는 그 운명이 사뭇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지학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 4-1 본문(209쪽)

끝으로 구결, 이두, 향찰의 구분에 관해 살펴보자.<sup>5)</sup> <그림 7>에서 보이듯이 대개의 교과서에서는 구결이나 이두와 비교하여 향찰이 지니는 특징으로 실질 형태소에 대한 차자표기의 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결이나 이두에서 실질 형태소가 한자를 빌려 표기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음가자라고 하더라도 한자를 ‘빌린’ 것이라는 점에서는 훈독자와 같은 범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고려 시대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에서도 실질 형태소가 훈독자로 표기된 용례는 그리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sup>6)</sup>

부정확한 내용은 교과서로서의 생명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김유범 2013). 박재민(2012)에서는 차자표기에 관한 교과서의 오류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다음 (1)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의 감축이 오히려 체계상의 혼란만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 차자표기를 교수·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 대부분 ‘체계의 복잡함’이 아닌 ‘체계의 무질서함’에 기인한다고 언급한 박재민(2012)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 (1) 차자표기에 관한 교과서의 오류가 일으키는 문제(박재민 2012)

- 가. 학생에게 상당한 혼동과 피로를 줄 수 있다.
- 나. 잘못된 개념이 권위를 얻어 정설로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
- 다. 잘못된 개념이나 인식이 자료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이두라는 말의 용법에는 ‘차자표기 전반’을 가리키는 광의의 개념과 ‘이두문에 쓰인 우리말’을 가리키는 협의의 개념이 있으며, 향찰도 기원적으로는 ‘광의의 이두’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듯하다(南豐鉉 2000: 11-12). 이 글에서는 『국어』 교과서나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의 일반적 쓰임을 고려하여, 이두와 향찰 모두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6) 고대국어 차자표기 자료가 보여주는 다양한 양상에 관해서는 이용(2016)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병기(2014)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유어 어휘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 3.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개선 방향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에 대한 지난 장의 비판은 다음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 차자표기에 관한 내용이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교육 대상이 되는 영역 자체가 아닌 그러한 영역에 관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가공해 내는 방식에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어 차자표기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대국어 교육으로부터의 독립과 차자표기의 기제와 실현 양상 탐구라는 두 방향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문제

- 가. 교육 내용 체계상의 문제: 고대국어 교육에의 종속, 국어 표기사에 대한 단절적 조망, 국어 차자표기의 다면성 무시
- 나. 교육 내용 구현상의 문제: 간략화된 지식의 단순한 전달, 국어학적 연구 성과의 미반영, 불필요한 내용상의 오류

#### 3.1. 고대국어 교육으로부터의 독립

국어 차자표기 교육이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대국어 교육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다. 차자표기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 체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황선엽(2013)에서도 이미 차자표기를 고대국어로부터 독립시켜 표기사 차원에서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차자표기 교육의 독립은 고대국어 교육과 차자표기 교육 모두가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고대국어와 차자표기가 뭉뚱그려 교육됨으로써 생겨난 중요한 문제는 ‘차자표기 자료=고대국어’라는 잘못된 인식이다. 국어 표기사의 흐름에서 한글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이며, 대부분의 시기 동안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은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였다. 차자표기의 지위는 한글 창제 이후에도 지속되어, 이두를 중심으로 한 차자표기와 한글 표기가 일종의 다중문어현상(多重文語現象, literary multilingualism)을 이루게 된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차자표기를 고대국어에만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일 수밖에 없다.

7) 다중문어현상의 개념은 龜井孝(1988)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龜井孝(1988)에서는 가나문(假名文)과 한자문(漢字文)이 공존하여 온 일본어 표기사의 특징을 이중문어성(二重文語性, literary bilingualism)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바 있다.

<표 4> 국어 표기사의 주요 표기 유형과 주된 사용 시기

| 주요 표기 유형 |      |        | 사용된 문자 기호 | 주된 사용 시기     |
|----------|------|--------|-----------|--------------|
| 이두       |      |        | 한자        | 삼국시대~조선 후기   |
| 향찰       |      |        |           | 통일신라시대~고려 중기 |
| 구결       | 석독구결 | 점토석독구결 | 부호(점, 선)  | 10세기~12세기    |
|          |      | 자토석독구결 | 한자(구결자)   | 12세기~13세기    |
|          | 음독구결 | 자토음독구결 |           | 14세기~조선 후기   |
|          |      | 한글음독구결 | 한글        | 15세기~조선 후기   |
| 언문       |      |        |           | 15세기~조선 후기   |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구결의 다양한 유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국어 표기사의 한 흐름으로서 구결이 보이는 다양한 유형은 충분히 가치 있는 교육 대상이 된다. 구결은 문자 기호의 기입 방식, 기입된 문자 기호, 문자 기호를 읽는 방식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문헌 자료에서도 각 기준이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다면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鄭在永 2006).

### (3) 구결의 서로 다른 분류 방식

가. 문자 기호의 기입 방식: 필사구결, 판각구결, 활자구결, 각필구결

나. 기입된 문자 기호: 부호구결(점토구결), 차자구결(자토구결), 한글구결

다. 문자 기호를 읽는 방식: 역독구결(석독구결), 순독구결(음독구결)

다른 차자표기 자료도 마찬가지이다. 安秉禧(1992: 270-271)에서는 국어 차자표기를 크게 한문이 아닌 국어의 문장 구조를 따르는 제1단계 차자표기와 그에 더해 국어의 형태부를 표기하기 위한 글자가 쓰이는 제2단계 차자표기로 나누었으나, 이용(2016)에서는 한문과 제1단계 차자표기 사이의 단계를 다시 초기 단계 차자표기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 각 시기의 차자표기가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로 다른 단계를 넘나드는 비전형적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이용 2016)

고대국어 교육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차자표기 교육은 국어 표기사의 다양한 국면을 중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언어와 문자는 같은 것일 수 없다. 하나의 언어를 기록하는 데에 둘 이상의 문자가 동원되기도 하며, 어떤 언어를 특정 문자로 표기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차자표기의 다양한 유형은 언어를 전달하는 주요한 매체(medium) 가운데 하나인 문자가 가지는 가능성의 폭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은 한글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화된 문자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은 수단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구결이라는 차자표기의 한 유형이 시대적 변화로 인해 전통의 단절을 겪으면서도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조선 후기까지 살아남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음독구결과 석독구결은 모두 구결에 속하지만 그 운용 방식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이것은 하나의 언어를 하나의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마저 얼마나 이채로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언어를 문자로 기록한 결과가 다시 언어로 소급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

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는 이두식 한자어의 유입이다. 예컨대, 현대국어 ‘차지하다’는 ‘ㄱ슴 알다’의 이두식 표기 ‘次知’로부터 비롯된 단어이며, 한자어 ‘염금(斂襟)’은 ‘여미다’의 이두식 표기 ‘斂衽’에서 유추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金亮鎭 2011). [가능]을 나타내던 석독구결의 ‘得 彡 糸’이 언문에 ‘시러곰’으로 정착되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것이나, 한자 ‘以’의 번역어로부터 조사 ‘-으로써’가 생겨난 것도 유사한 범주의 현상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국어 표기사의 서로 다른 국면을 연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사용 가능한 문자가 한자뿐이던 고대국어로부터, 한글이 새로운 표기 수단으로 자리 잡은 중세국어에 이르기까지, 옛사람들은 국어를 문자로 기록하기 위한 방식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국어의 다양한 표기 유형은 인간의 창의적 문자 사용 양상을 보여주는 단서이며, 이것은 문자 사용의 새로운 양식(mode)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학생에게도 충분히 유의미한 탐구 대상이 된다.<sup>8)</sup>

<표 5> 국어 표기사의 시대 구분과 주요 표기 유형의 주된 사용 시기

| 국어 표기사의<br>시대 구분 | 주요 표기 유형 |    |          |          |          |          |    | 한국사의<br>시대 구분 | 국어사의<br>시대 구분 |
|------------------|----------|----|----------|----------|----------|----------|----|---------------|---------------|
|                  | 한자       |    |          |          | 부호       | 한글       |    |               |               |
|                  | 이두       | 향찰 | 구결       |          |          |          | 언문 |               |               |
|                  |          |    | 자토<br>석독 | 자토<br>음독 | 점토<br>석독 | 한글<br>음독 |    |               |               |
| 차자표기 시대          |          |    |          |          |          |          |    | 삼국시대          | 고대국어          |
|                  |          |    |          |          |          |          |    | 통일신라시대        |               |
|                  |          |    |          |          |          |          |    | 고려시대          | 전기 중세국어       |
| 다중문어 시대          |          |    |          |          |          |          |    | 조선시대          | 후기 중세국어       |
|                  |          |    |          |          |          |          |    |               | 근대국어          |

### 3.2. 차자표기의 기제와 실현 양상 탐구

어떤 영역에서든 교육 내용으로 가공되어 교수·학습의 대상이 되는 지식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수동적 지식이 아닌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동적 지식이어야 한다. 교수·학습의 과정이 오로지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에만 그친다면 어떤 지식도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어렵다. 그간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이 학생에게 재미없고 어려우며 외워야만 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는 이러한 근본적 결함이 숨어 있다. 신명선(2007)의 용어를 빌리자면 학생을 ‘언어적 객체’로 길러내기 위한 내용에만 머물러 온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경우도 그러하다. 차자표기에 관한 지식을 과도하게 단순화하여 객관적으로만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은 교육적 의미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무엇을 위해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단순히 주어지는 지식은 학생을 너무나도 쉽게 타자(他者)로 만든다.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내용이 학생에게 유의미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김유범(2009)에서는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내용을 그것의 문자론적 의의로부터 모색한 바 있다.

8)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인터넷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야민정음’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 면이 있다. 이두, 향찰, 구결 등 차자표기의 원리가 한자의 3요소 가운데 ‘音’과 ‘義’을 토대로 성립된 것이라고 한다면, ‘야민정음’의 원리는 한글의 ‘形’을 토대로 성립된 것이라고 할 만하다.

(4) 한자 차자표기법의 교육 내용(김유범 2009)

- 가. 문자 발달사와 한자 차자표기법: 문자 발달의 단계, 차자표기법의 제약
- 나. 한자의 이해: 한자의 구성 요소, 한자의 다양한 서체, 음과 훈의 역사적 정보
- 다. 차자표기법의 원리: 隨書者之便, 譯上不譯上
- 라. 차자표기법의 유형: 고유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

국어 차자표기에서 발견되는 문자 발달의 기제는 오늘날의 학생에게도 충분히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유범(2009)에서는 국어 차자표기에 작용한 문자 발달의 기제로 레부스(rebus)와 소리보조글자(phonetic complement)의 사용을 언급한 바 있다. 국어 차자표기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음가자나 말음첨기자는 세계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자 사용 방식과 그 원리를 공유한다. 이집트 상형문자를 예시로 든 김유범(2009)과 달리 이용(2017)에서는 수메르 설형문자를 통해 이러한 유사성을 논의하고 있다.

(5) 수메르 설형문자의 사례(이용 2017)

- 가. “생명(ti)”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 상형자(象形字) ‘ti(화살)’



- 나. “태양”을 뜻하던 문자 ‘utu(식)’의 용법을 한정하기 위해 쓰인 소리보조글자

- ra(𒀭) → babar “빛나다”
- ga(𒄀) → zalag “푸르다”
- da(𒀩) → hād “희다”

국어 차자표기의 탐구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참고 대상은 수메르 설형문자를 빌려 자기네 언어를 기록한 아카드 설형문자이다. 한자의 3요소인 ‘形, 音, 義’ 가운데 ‘音’과 ‘義’를 토대로 국어 차자표기의 기본 원리가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아카드에서도 설형문자의 수메르어의 ‘音’과 ‘義’를 아카드어의 표기에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어 차자표기 체계의 음독자, 음가자, 훈독자, 훈가자에 대응되는 표기법상의 구분이 아카드 설형문자 체계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6) 아카드 설형문자의 음독자, 음가자, 훈독자, 훈가자(이용 2017)

- 가. 음독자: 𒅗 DU<sup>9)</sup> “hill” → 𒅗 dū “hill”
- 나. 음가자: 𒅗 DA “side” → 𒅗 da(音節字)
- 다. 훈독자: 𒅗 LUGAL “king” → 𒅗 šarrum “king”
- 라. 훈가자: 𒅗 KA “mouth” → 𒅗 bu<sub>14</sub> ‘pûm(mouth)’  
 𒅗 GIŠ “tree” → 𒅗 is ‘isum(tree<sup>10)</sup>)’

이러한 여러 사실은 국어 차자표기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기반이 된다. 고유한 문자가 없던 옛사람들에게 한자를 통한 표기는 필연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한 과정에서 발달시킨 차자표기의 전통은 국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언어에서 사용된 문자 체계와

9) 대문자로 전자(轉字, transliterate)된 로마자는 수메르어에서의 의미를 나타낸다(이용, 2017).

10) 이용(2017)에는 ‘arm’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맥락을 고려할 때 ‘tree’의 잘못으로 보인다.

그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용(2017)에서는 이것을 문자의 발명과 발전에서 보이는 인간 사유의 보편성과 연관시킨 바 있다. 국어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기제에 대한 탐구는 매체로서의 문자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보이는 문자 차용 방식의 공통성도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주요한 탐구 대상이 된다. 송기중(1997)에서는 자민족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변형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낸 민족의 예로 거란, 여진, 서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베트남, 백족(白族), 장족(壯族) 등의 기록에서도 국어와 유사한 차자표기 방식이 나타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국어 차자표기의 전통과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의 만요가나(萬葉假名)와 각종 훈점(訓點) 자료이다.

(7) 구결자(口訣字)와 가나(假名)의 공통점(송기중 1997)

- 가. 한문어(漢文語) 문장에 부기(附記)하여 통사 구조를 부분적으로 국어화(國語化)하는 기능을 함
- 나. 다수의 자형이 한자의 약체자(略體字)임
- 다. 대개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는 문자임

한편, 국어 표기사에서 점토석독구결은 선이나 점과 같이 한자로부터 독립된 부호를 사용하여 한자로 기록된 한문을 국어에 가깝게 읽는 독창적 방식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장경준 2013). 문자 기호의 모양이나 조합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동원하여 체계상의 변별을 시도한 점토석독구결의 표기 방식은 보통의 문자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테지만, 점토석독구결은 한글에 더하여 옛사람들의 창조적 문자 사용을 보여주는 새로운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림 8> 『유가사지론』 권66 06:18



<그림 9> 『유가사지론』 권20 17:04

마지막으로, 차자표기를 매개로 한 문자언어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내용도 언급될 수 있다. 고대국어 초기의 이두문은 한문의 속성과 국어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국어에 근접해 가는 양상을 보인다(이용 2016). 말하자면, 이른 시기의 이두는 한문도 국어도 아닌 중간언어(interlanguage)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이다. 문자언어로서의 이두가 지닌 이러한 특성은 일찍이 “절충적 문어(송기중 1997), 잡종 언어(南豊鉉 2000), 서면어(書面語) 크레올(伊藤英人 2018)” 등의 용어로 지칭되어 왔다.

이용(2016)에서는 국어를 한문으로 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간섭(interference) 현상으로 인

해 이러한 중간언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11)</sup> 국어는 형태론적으로 교착성이 두드러지며 통사론적으로 SOV의 어순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중국어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한문으로 국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한문에 없는 새로운 요소가 도입하여 언어적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 자토석독구결을 예로 들자면 구결자나 역독점(逆讀點) 등의 요소가 이러한 시도 가운데 일부로 설명된다.

이처럼 다른 언어로부터 비롯된 문자로 국어를 기록하는 방안을 오늘날의 경우에 적용해 보는 것도 유의미한 탐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일찍이 Jakobson(1959)에서는 번역의 방식을 언어 내 번역(*rewording*), 언어 간 번역(*translation proper*), 기호 간 번역(*transmutation*)의 셋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국어 차자표기 자료 중 일부의 경우 이 가운데 언어 간 번역과 기호 간 번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경준(2011)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석독구결을 가장 이른 시기의 번역 자료로 파악한 바 있다.

근대 이전의 옛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던 문자가 한자라고 한다면, 한글 이외에 현대의 대중이 가장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문자는 로마자일 것이다. 최근 국어에 미치고 있는 영어의 거대한 영향력은 개화기 전후까지도 그 위세를 떨쳐 온 한문의 그것과 대비된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자를 빌려 영문 문장을 국어로 번역해 보는 일은 국어를 기록하기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된다.<sup>12)</sup> 그것이 사용된 시기와 관계없이 차자표기의 문자론적 기제는 인간의 보편적 인지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표 6> 국어 표기사의 주요 표기 유형에 따른 한문 번역 방식과 영문 번역 방식

|        | 한문 번역 방식                                                      | 영문 번역 방식                                                   |
|--------|---------------------------------------------------------------|------------------------------------------------------------|
| 원문     | 爾去於學堂                                                         | You go to school                                           |
| 이두     | 爾是學堂良中去臥如                                                     | You-ga school-to go-nda                                    |
| 자토석독구결 | 爾 <sup>ㄴ</sup> 去 <sup>ㄱ</sup> 於 <sup>ㄴ</sup> 學堂 <sup>ㅅㅏ</sup> | You <sup>ga</sup> go <sup>nda</sup> to school <sup>e</sup> |
| 자토음독구결 | 爾 <sup>ㄴ</sup> 去於學堂 <sup>ㅅㅏ</sup> ㅅㅏ                          | You-ga go to school-handa                                  |
| 한글음독구결 | 爾 <sup>ㄴ</sup> 去於學堂 <sup>ㅅㅏ</sup> ㅎㄷㅏ                         | You가 go to school한다                                        |
| 언문     | 네 學 <sup>학</sup> 堂 <sup>당</sup> ㅅㅏ가 ㄴㅏ                        | 네가 school스쿨에 간다                                            |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언어를 하나의 문자로 표기하는 데에도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어의 표기 방식으로부터 그것을 고안해 낸 주체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차자표기에 대한 생활사적 접근은 이러한 토대 위에 마련될 수 있다. 인간과 언어와 문자의 상호작용을 역사적으로 살피는 것은 자신의 국어 생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교과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교육 내용으로서 국어 차자표기를 자리매김하게 한다.

## 4. 결론

지금까지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

11) 한문에 관한 인식이 더 성장한 후대에 이르러서야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는 음독구결의 전통이 생겨났다는 점도 위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표 8>에 제시된 영문 번역 방식의 예는 서민정(2012)에 정리된 것을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그에 따른 11종 『국어』 교과서 및 5종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 차자표기 교육의 현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그러한 비판점을 토대로 국어 차자표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대국어 교육으로부터의 독립과 차자표기의 기제와 실현 양상 탐구라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그러한 전환이 가져올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 글의 주된 논점은 국어 차자표기에 관해 무엇을 어떤 방향에서 교육해야 할지를 검토하는 데에 있었다. 요컨대, 교육 내용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교육 방법은 내용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한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정된 교육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게 가공하여 배열할 것인가는 교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국어 차자표기에 관한 내용을 유의미하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법에 대한 검토는 후고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국어교육에서 차자표기는 그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 여기에는 차자표기에 대한 국어교육 연구자나 국어 교사의 무지(無知)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나,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한글은 분명히 가치 있는 교육 대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차자표기를 대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글이 세계 문자사에 유례가 없는 특수한 사례라고 한다면, 차자표기는 인간의 보편적 문자 사용 방식 가운데 일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구본관(2016), 「2015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51-1, 국어교육학회, 89-133쪽.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亮鎭(2011), 「國語辭典 속의 吏讀式 漢字語 研究」, 『語文研究』 39-1, 韓國語文教育研究會, 63-85쪽.
- 김유범(2009), 「한국의 한자 차자표기법에 대한 문자학적 조명과 교육 방안의 모색」, 『인간과 문화 연구』 15,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147-172쪽.
- 김유범(2013), 「중세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63-96쪽.
- 김유범(2018), 「석독구결을 통해 본 고대국어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교육 내용」, 『구결학회 제55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1-82쪽.
- 南豐鉉(2000), 『吏讀研究』, 태학사.
- 박재민(2012), 「고등학교의 訓借字·音借字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149-171쪽.
- 서민정(2012), 「조선 시대의 번역 표기에 대한 연구」, 『코기토』 7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25-344쪽.
- 송기중(1997), 「借字表記의 文字論的 성격」,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5-29쪽.
- 신명선(2007), 「문법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423-458쪽.
- 安秉禧(1992), 『國語史 研究』, 文學과知性社.
- 伊藤英人(2018), 「韓中 言語接觸의 觀點에서 본 韓國 漢字文」, 『2018년 한국어문교육연

- 구회 고려대학교 BK21플러스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 공동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7-41쪽.
- 이병기(2014), 「구결 자료의 어휘」, 『口訣研究』 33, 口訣學會, 23-61쪽.
- 이용(2016), 「문자언어로서 한국어의 발생과 발달에 관한 시론적 접근」, 『口訣研究』 37, 口訣學會, 133-163쪽.
- 이용(2017), 「한국 차자표기와 아카드문자 체계의 비교론적 고찰: 한국의 한자 차자표기와 아카드의 수메르문자 차자표기가 보이는 유사성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80, 민족어문학회, 141-164쪽.
- 장경준(2011), 「석독구결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試論)」, 『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145-168쪽.
- 장경준(2013),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의 소개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 59, 한국어학회, 75-112쪽.
- 張允熙(2004), 「7차 國語科 教科書의 國語史 知識 內容 구성 연구」, 『語文研究』 32-3, 韓國語文教育研究會, 445-469쪽.
- 鄭在永(2006), 「韓國의 口訣」, 『口訣研究』 17, 口訣學會, 125-185쪽.
- 황선엽(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35-61쪽.
- 龜井孝(1988), 「日本語の歴史」, 『言語學大辭典 2: 世界言語編 中』, 1588-1634面.
- Jakobson, Roman (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euben A.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232-239.



# 한국어 어미 ‘-을’의 역사적 연구

- 명명 구문, 관형 구성을 중심으로 -

최준호(서울대)

## 1. 서론

이 글<sup>1)</sup>은 동명사 어미·관형사형 어미 ‘-을’의 의미·기능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현대 한국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sup>2)</sup> 특히 현대 한국어 이전에는 ‘-을’이 [총칭성(genericity)]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을’이 담당하던 [총칭성] 용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을’의 문법범주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의 의미는 구문에 따라 [예정], [성향], [가능성], [의지]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sup>3)</sup>

(1) 비제한적 관계절



ㄱ. 탈출할 7087번 죄수를 잘 감시해.

(지시적/한정적 → 예정)

ㄴ. 나는 탈출할 죄수를 알고 있다.

(지시적/비한정적 → 예정, 성향)

ㄷ. 탈출할 죄수가 있는지 눈여겨보시오.

(비지시적 → 가능성, 의지)



제한적 관계절

(임동훈 2009: 67)

후기 중세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의 주된 기능 역시 현대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ㄱ. 駕鵞夫人이 듣좁고 比丘씩 님오더 “내 몸도 좃조바 갇 싸힌가 묻 갇 싸힌가”

<月釋 卷8: 93>

["내 몸도 좃아서 갇 곳인가, 못 갇 곳인가?"] → [추측], [가능성]

ㄴ. 俱夷 니르샤더 “大闕에 보내스바 부텃기 받즈불 고지라” 答言: 男子!

1) 본 발표문은 필자의 석사 논문에서 일부를 발췌·요약하여 작성된 것이다.

2) 본고에서는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尸’, ‘-尸’은 ‘동명사 어미’로, 후기 중세 한국어 이후의 ‘-을’은 ‘관형사형 어미’로 칭한다. 또한, 이들을 아울러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대 한국어나 중세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을’은”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로 지칭할 것이다.

3) 임동훈(2009: 67)에서는 구문에 따라 ‘-을’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서, 첫째, ‘-을’이 관계절에 쓰였는지 보절에 쓰였는지, 둘째, 관계절이라 하더라도 제한적 관계절인지, 비제한적 관계절인지, 셋째, 핵 명사가 지시적(referential)인지 비지시적인지에 따라 (1)과 같이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此靑蓮花當送宮內，欲以上佛，不可得也。) <月釋 卷1: 10ㄱ>

[“대궐에 보내서 부처께 바칠 꽃이라서 못하겠다.”] → [의도]

- ㄷ. 對答호되 “부테 涅槃호야시닐 내 스승불 파호로셔 오노라”(答曰：佛般涅槃，我於茶毘所來。) <釋詳 卷23: 40ㄴ>

[“부처께서 멸도하셨거늘, 나는 (부처님을) 다비할 곳으로부터 오는 중이다.”] → [예정]

- ㄹ. 부테 니르샤디 “이 다 地藏菩薩이 오라건 劫으로서 호마 濟渡호니며 이제 濟渡호니며 장차 濟渡호리 들히라”(佛告文殊師利：吾以佛眼觀故，猶不盡數。此皆是地藏菩薩久遠劫來，已度、當度、未度。) <釋詳 卷11: 5ㄱ>

[“이는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劫으로부터 이미 제도한 사람이며, 이제 제도하는 사람이며, 장차 제도할 사람들이다.”] → [의도], [예정]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음’의 기본적인 의미는 [추측], [의도], [예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대 한국어 및 중세 한국어에는 [추측], [의도], [예정] 등의 의미 기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동명사 어미·관형사형 어미 ‘-음’의 용법이 존재한다.

- (3) ㄱ. 中國 西八域 ㄱ새 蜀이라 흙 ㄱ을히 잇느니 蜀에서 耶이 갓가뵈니 <月釋 卷2: 50ㄴ>

[중국 서쪽 가에 촉(蜀)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으니]

- ㄴ. 淨飯王 아드님 悉達이라 호샤리 나실 나래 하늘로셔 설흔두 가짓 祥瑞 느리며 (淨飯王子厥名悉達，其生之日天降瑞應三十有二) <釋詳 卷6: 17ㄱ>

[정반왕(淨飯王) 아드님 실달(悉達)이라고 하시는 분 → 실달(悉達)이라고 하시는 정반왕 아드님]

- ㄷ. 太子 | 나아 노니샤 閻浮樹 아래 가샤 반 값 사롬 보더시니 <釋詳 卷3: 15ㄴ>

[염부수(閻浮樹) 아래 가서서 발 가는 사람을 보시더니]

- ㄹ. 太子 | 니르샤디 “사르미 목수미 흐를 물 곧호야 머쁘디 묻호돗다” 호시고(菩薩曰。人命速駛。猶山水流難可再過。) <釋詳 卷3: 17ㄱ>

[사람의 목숨이 흐르는 물 같아서 머무르지 못하는구나!]

- (4) ㄱ. 他方七 大衆；及ハ 以尔 化衆；{此}ㄱ 三界七 中ㄱ七 衆；十二大衆 皆七 來ㄱ 集會ㄱ 九劫蓮花座ㄱ 坐ㄱ 白ろㄱム <舊仁 卷上: 02: 07-08>

[他方の 大衆이니 化衆이니 이 三界 중에 있는 대중이니 하는 十二大衆은 모두 와서 集會하여 九劫 蓮花座에 坐定하였는데]

- ㄴ. 時十 十六 大國王七 中ㄱ七 舍衛國主 波斯匿王 名[火] 曰白尸 月光 白ろ今ㄱ <舊仁 卷上: 02: 24-25>

[그때에 十六 大國王 가운데 舍衛國主인 波斯匿王이 이름이 이르기를 月光이라고 하는 이가]<sup>4)</sup>

(3)에는 관형사형 어미 ‘-음’이, (4)에는 동명사 어미 ‘-尸’이 사용되었는데, (3), (4)에서의 ‘-

4) 현대어역은 황선엽(2013)을 따랐다.

을’, ‘-ㅍ’의 의미는 [추측], [의도], [예정] 중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하기 힘들다. (3), (4)의 현대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 ‘-을’의 용법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는’이 대체하게 되었으며, ‘디딜방아, 건넌목, 뽕뽕, 날짐승, 길짐승, 자물쇠, 열쇠’와 같은 합성어에만 그 흔적을 남기고 소멸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 ‘-을’의 의미·기능을 [총칭성]<sup>5)</sup>으로 파악하고, 관형사형 어미 ‘-을’이 [총칭성]의 용법으로 사용된 환경을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공시적·통시적으로 기술을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을’의 [총칭성] 용법을 현대 한국어에서 ‘-는’이 대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을’이라는 단일한 문법형식에 [추측], [의도], [예정] 등의 [미래]와 관련된 의미와 [총칭성]이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의미가 공존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언어 유형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형사형 어미 ‘-을’에 관한 연구사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을’이 현대 한국어와는 다른 특이한 쓰임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이른 시기부터 논의되었다.

전기 중세 한국어의 경우 동명사 어미 ‘-ㄱ[은]’과 ‘-ㅍ[을]’의 의미·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 업적은 남풍현(1996ㄱ, ㄴ, ㄷ)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자토석독구결에서 보이는 ‘-ㅍ’의 쓰임이 현대 한국어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남풍현(1996ㄱ, ㄷ)에서는 자토석독구결의 동명사 어미 ‘-ㅍ’은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요소가 아닌 관념형 어미(觀念形 語尾)”라고 기술하였으며, ‘진리적 사실’ 또는 ‘관념적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ㅍ[여흥을]’을 ‘하는 것들을’로 현대어역하는 이유가 ‘-ㅍ’이 관념형 어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동명사 어미 ‘-ㅍ’의 [총칭성] 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 기능을 포착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ㄱ’은 ‘既定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병기(1997, 2006)에서는 향가와 자토석독구결에서의 ‘-ㄱ’과 ‘-ㅍ’에 대해 다루면서, 이들의 의미가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ㄱ’이 [미래]를 지시하거나, ‘-ㅍ’이 [과거]를 지시하는 일은 없다면, ‘-ㄱ’과 ‘-ㅍ’이 각각 [-미래], [-과거]의 용법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ㄱ’과 ‘-ㅍ’의 의미가 중복되는 영역은 이들 문법요소가 각각 ‘부정시(不定時)’로서의 기능 또한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후기 중세 한국어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을’은 주로 선어말어미 ‘-으니-’나 ‘-으리-’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었으며, 선어말어미 ‘-으리-’는 추측법(推測法), 추정법(推定法), 미정법(未定法), 미래(未來) 등으로 기술되었다. 관형사형 어미 ‘-을’에 대해서는 선어말어미 ‘-으리-’와 같은 의미로 파악한 논의와 관형사형 어미 ‘-을’의 [총칭성] 용법을 기술한 논의가 있었다. 아래는 대표적인 선행 연구를 가져온 것이다.

河野六郎(1951)에서는 ‘-을’을 ‘-으리-’와 함께 “제1미래어간(第一未來語幹)”으로 분류하면

5) 본고의 [총칭성]은 기존 연구의 [항상성], [불변의 진리], [초시간적 사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물은 흐른다.’라는 문장은 [항상성], [불변의 진리], [초시간적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총칭문(generic sentence)이기도 하다.

이 문장을 관계화하면 ‘흐르는 물’이 될 텐데, 현대 한국어 이전에는 이때 관형사형 어미 ‘-는’이 아니라, ‘-을’이 사용되어 ‘흐를 물’로 나타났다는 것이 본 논의의 출발점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는’과 ‘-을’의 대응 양상과 세계 언어학계에서 이 용어가 얼마나 통용되는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총칭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총칭성]의 의미 및 사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문에는 실지 않았다.

서도, ‘서르 늪 업시울 이리 나니라’, ‘高山이라 홀 뵈’ 등의 예문의 예를 바탕으로 관형사형 어미 ‘-으’이 “일반적인 서술에도 쓰인다(一般的な敘述にも用ゐられる)”라고 하였다.

김완진(1957)에서는 ‘-으’에는 “temps absolu와 futurum의 두境遇가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temps absolu’는 ‘절대 시제’로 옮길 수 있고, ‘futurum’은 ‘미래’로 옮길 수 있을 텐데, ‘temps absolu’를 설명하면서 든 예들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예문과 일치한다.

이승녕(1961/1981)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때로는 ‘未來’를, 때로는 ‘時制를 초월한 不定時制’의 두 구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허웅(1975)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를 선어말어미 ‘-으리-’와 함께 추정법(미정법)<sup>6)</sup>에 분류하였다. 그러면서 관형사형 어미 ‘-으’이 “때의 관념과 상관없는(중화된) 사실”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고 하면서 엄격히 따지면 추정법도 아니요, 시제라고도 할 수 없으나 ““-으’을 설명함에는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고영근(1981/2011, 1982)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으’를 추측 관형사형으로 분류하면서, 이러한 ‘-으’은 [-지시성]<sup>7)</sup>이 강한 구문에 쓰이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그로 인해 ‘-으’이 쓰인 관형사절을 ‘-으리니라’가 사용된 설명법 구문으로 전개하기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왜 유독 ‘-으’이 [-지시성]이 강한 구문에 쓰이는지는 논의되지 않았고, 이러한 ‘-으’의 쓰임을 어떤 용어로 포착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진리적 사실’, ‘관념적 사실’, ‘부정시(不定時)’, ‘일반적인 서술’, ‘temps absolu’, ‘시제를 초월한 부정시제(不定時制)’, ‘때의 관념과 상관없는(중화된) 사실’ 등의 용어는 용어만 다를 뿐, 지시하는 현상은 같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고대 한국어, 전기 중세 한국어 및 후기 중세 한국어의 ‘-으’에 [총칭성] 용법이 있다는 것은 기술하였으나, 이러한 쓰임이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토석독구결의 발견 이전이라는 자료의 한계일 가능성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자토석독구결의 언어 현상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 2. 명명 구문과 [총칭성]

명명(命名) 구문이란, 어떠한 개념을 제시하고서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 구문을 가리킨다(박진호 1997, 1998).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명명 구문의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명명 구문은 불경 자료에 자주 등장하며, 漢譯 불경에서 ‘P 名 Q’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6) 허웅(1975)의 ‘추정법(미정법)’은 장차 일어날 일, 방금 일어날 일을 기술하거나 또는 추측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문법적 방법을 뜻한다.

7) [+지시성], [-지시성]이라는 용어는 고영근(1981/2010: 83)에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서 ‘지시성’의 원어로 ‘deiktische Charakter’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로는 ‘deictic character’로 옮겨질 것이다.

고영근(1981/2011: 83)에서는 [+지시성]이 특정한 사실을 지시하며 일정한 화맥의 제약을 받는 것이라면, [-지시성]은 일반적 사실을 서술하고 특정한 화맥을 전제하지 않는다. ‘나는 흐르는 물을 마셨다’는 [+지시성]에, ‘흐르는 물은 맑다’는 [-지시성]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5) ㄱ. ㉑是 ㄱ乙 名 ㉒ ㉑一切施 ㄴヲチナ | <華疏 卷35: 12: 19>

[㉑이]를 일하 ㉒一切施여 호리겨다 / 이것을 이름하여 일체시(一切施)라고 하는 것이다.

- ㄴ. 그뿐 ㉑은 菩薩 比丘 | 일후미 ㉒常不輕이라(爾時 有㉑一菩薩比丘 名 ㉒常不輕。) <釋譜 卷19: 29ㄱ>

- ㄷ. 곧 ㉑讚頌을 지스샤 일후를 ㉒月印千江이라 하시니(輒製㉑讚頌 訶샤 名曰 ㉒月印千江이라 하시니) <月釋序: 12ㄴ-13ㄱ>

앞서 제시한 명명 구문의 정의와 연결해 보면 (5)에서 ㉑은 개념 혹은 대상, ㉒는 그것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5ㄱ)은 ‘이것’의 이름을 ‘一切施’로, (5ㄴ)은 ‘은 菩薩 比丘’의 이름을 ‘常不輕’으로, (5ㄷ)은 ‘讚頌’의 이름을 ‘月印千江’으로 명명하고 있다.

## 2.1. 15세기 한국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命名) 서술 구성은 계사 ‘-이-’를 사용하는 구성과 동사 ‘-을-’를 사용하는 구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6) ㄱ. 그 나랏 王 일후미 波斯匿이라 <釋詳 卷6: 15ㄴ>

- ㄴ. 師 | 또 니르샤디 見性이 이 功이오 平等이 이 德이니 念마다 거리썸 업서 本性 眞實 妙用을 상네 보미 일후미 功德이니라(師 | 又曰訶샤디 見性是功이오 平等是德이니 念念에 無滯訶야 常見本性眞實妙用이 名爲功德이니라) <六祖 卷上: 87ㄱ>

- ㄷ. 그뿐 은 菩薩 比丘 | 일후미 常不輕이라(爾時有一菩薩比丘名常不輕。) <釋譜 卷19: 29ㄱ>

- ㄹ. 이 衆 中에 내 大弟子 橋陳如比丘는 [중략] 부테 드외야 일후미 普明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이라(於此衆中에 我大弟子 橋陳如比丘는 [중략] 得成爲佛訶야 號曰 普明如來 應供 正遍知 明行足 善逝 世間解 無上士 調御丈夫 天人師 佛 世尊이라) <法華 卷4: 29ㄱ-29ㄴ>

- (7) ㄱ. 나삼 저기 吉慶드윈 祥瑞 하시란디 일후를 薩婆悉達이라 호습사이다(太子生時, 一切寶藏皆悉發出, 所有諸瑞莫非吉祥, 以此義故, 當名太子爲薩婆悉達。) <釋詳 卷3: 2ㄴ-3ㄱ>

- ㄴ. 그 太子 | 端正訶고 性이 도하 嗔心을 아니홀씨 일후를 忍辱이라 하시니라(其子端正, 人相具足. 生已召諸大臣、諸小國王, 占相吉凶, 卽爲立字. 以其太子性善不瞋, 名曰忍辱。) <釋詳 卷11: 18ㄱ>

- ㄷ. 이 菩薩人 일후를 大勢至라 호느니(是故號此菩薩名大勢至。) <月釋 卷8: 39ㄱ>

- ㄹ. 阿育王이 그 幡 들오 病이 도홀씨 일후를 續命幡이라 호더라(由是病愈增算十二. 故因名爲續命幡。) <釋詳 卷24: 32ㄴ>

- ㅁ. 프성귀며 듣그리며 터러기라도 다 어루 일후를 大라 호리니(草芥 塵毛 | 라도 皆可名大니) <楞嚴 卷3: 105ㄴ>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서술 구성에는 (6)처럼 계사 ‘-이-’가 사용되거나, (7)처럼 동사 ‘-ᄃᆞ-’가 사용된다. 15세기 한국어 명명 서술 구성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서술 구성에는 계사 ‘-이-’와 동사 ‘-ᄃᆞ-’ 뒤에 시제·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다. 계사 ‘-이-’ 뒤에는 선어말어미 ‘-느-’ 이외의 시제·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고, 동사 ‘-ᄃᆞ-’ 뒤에도 시제·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모두 나타난다.

둘째, 명명 서술 구성에 사용된 동사 ‘-ᄃᆞ-’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명명 서술 구성은 술어의 주어가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구문이다. 명명 서술 구성의 종결형이나 연결형 앞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명 서술 구성의 주어를 화자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sup>8)</sup>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8) 15세기 한국어 명명 서술 구성의 특징

- ㄱ. 첫째, 계사 ‘-이-’와 동사 ‘-ᄃᆞ-’ 뒤에 시제·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다.
- ㄴ. 둘째, 동사 ‘-ᄃᆞ-’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명명 서술 구성이 관형사형 어미를 취해 명명 관형 구성으로 나타날 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9) Q라 ㅎ P

- ㄱ. 그 仙 善慧라 ㅎ 仙人이 五百 外道의 그르 아논 이를 ㄴ르쳐 고터시닐(有仙人善慧。善慧初與五百外道講論義勝。) <月釋 卷1: 9>
- ㄴ. 【이 香이 高山이라 ㅎ 毗해서 나느니 그 뵈 보오리 쇠머리 ㄴ틀썩 牛頭施檀香이라 ㅎ느니 牛頭는 쇠머리라】 <月釋 卷1: 27>
- ㄷ. 孔子 | 나 ㄷ니시다가 슬픈 우름 쏘리롤 드르시고 가시니 梟魚 | 라 ㅎ 소니 사 오나쁜 옷 ㄷ고 環刀 가지고 ㄷ새 셔 이셔 울어늘(孔子出行 聞有哭聲甚悲 至則梟魚也 被褐擁劍 哭於路左) <三綱成: 孝 4>

#### (10) 일후미 Q라 ㅎ P

- ㄱ. ㅎ 耆梨山이라 ㅎ 毗해 일후미 또 耆梨라 ㅎ 노미 사로디(彼有一山名曰耆梨。中有一織師子亦名耆梨。) <釋詳 卷24: 13>
- ㄴ. 여덟 道士 | ㄷ로디 “우리는 蓮華上에 ㄷ니는 일후미 須檀延이라 ㅎ 白象을 사 얻고져 ㅎ노이다”(道士八人言: 我正欲得行蓮華上白象名須檀延者。) <月釋 卷20: 65>

8)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종결형이나 연결형 앞에서의 선어말어미 ‘-오-’는 주어가 화자 주어임을 나타내며(인칭활용), 관형사절에서는 핵 명사가 관계절 내에서 의미상 목적어 또는 부사어임을 나타낸다(대상활용). 마지막으로 명사구 보절일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수의적으로 통합된다고 종래에 기술되어 왔다.

따라서 명명 서술 구성의 종결형이나 연결형 앞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명 서술 구성의 주어를 화자로 파악할 수 없음을 뜻한다.

(11) P, Q라 호리 / 흐샤리

- ㄱ. 그 城 안해 흐 大臣 護彌라 호리 가스멸오 發心<sub>흐</sub>더니(到王舍城城中有一大臣名曰護彌。財富無量信敬三寶。) <釋詳 卷6: 14>
- ㄴ. 흐 올미 闍耶라 호리 부터 오시거늘 보습고 과<sub>흐</sub>스바(有一小兒遙見佛來。敬心內發歡喜踊躍) <釋詳 卷24: 7>
- ㄷ. 對答호디 “그되는 아니 듣즈뻐더시닛가 淨飯王 아드님 悉達이라 흐샤리 나실 나래 하늘로서 설흔두 가짓 祥瑞 느리며”(長者答言, 汝等聞乎? 淨飯王子厥名悉達, 其生之日天降瑞應三十有二。) <釋詳 卷6: 17>

(12) P, 일후미 Q라 호리 / 흐샤리

- ㄱ. 흐 상재 일후미 端正이라 호리 나히 열 세히러니 <釋詳 卷24: 22>
- ㄴ. 그뿐 모든 中에 흐 菩薩摩訶薩 일후미 救脫이라 흐샤리 座에서 니르샤(爾時衆中有一菩薩摩訶薩名曰救脫。卽從座起) <釋詳 卷9: 29>
- ㄷ. 葉波國王이 蓮華上에 돈니는 白象 일후미 須檀延이라 호리를 뒛느니(葉波國王有行蓮華上白象名須檀延, 多力健鬥。) <月釋 卷20: 64>

(9)~(12)는 서사 담화에서 특정 개체를 도입하는 맥락에서 주로 나타나며(이지영 2018: 28), 15세기 한글 문헌에는 『석보상절』, 『월인석보』, 『삼강행실도』에서 나타난다. 이들 문헌은 ‘서사 담화’라는 특징으로 묶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9)~(12)와 같은 구성을 ‘명명 관형 구성’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일찍이 이현희(1990: 699)에서는 이러한 ‘명명 관형 구성’에서 명명되는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에 따라 구문의 형식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명명되는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존재라면 (10), (11), (12)처럼 형식명사 ‘이’가 뒤에 오거나 그 앞에 ‘일후미’가 선행될 수 있으나, 자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면 (9)의 ‘Q라 홀 P’의 형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9)와 (10), (11)과 (12)는 ‘일후미’의 존재 여부로 나눈 것이지만, 형식상의 공통점을 중시하면 각각을 ‘Q라 홀 P’, ‘P, Q라 호리/흐샤리’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명명 관형 구성은 (9)~(1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본문, 협주, 서사, 대화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9)~(12)를 통해 알 수 있는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3) 15세기 한국어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

- ㄱ. 첫째, 관형사형 어미 ‘-을’이 선택된다.
- ㄴ. 둘째, 동사 ‘흐-’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다.

(13)에서 제시한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은 (8)에서 제시한 명명 서술 구성의 특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8)을 아래에 다시 제시하기로 한다.

(8) 15세기 한국어 명명 서술 구성의 특징

- ㄱ. 첫째, 계사 ‘-이-’와 동사 ‘흐-’ 뒤에 시제·상 관련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다.

ㄴ. 둘째, 동사 ‘ㅎ-’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8ㄱ)과 (13ㄱ)을 비교해 보자. 명명 서술 구성에는 계사 ‘-이-’나 동사 ‘ㅎ-’ 뒤에 시제·상과 관련한 여러 선어말어미가 올 수 있었으나, 명명 관형 구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ㄱ. 後에 巴連弗邑에 王이 이쇼디 [중략] 아드를 나흐니 일후미 頻頭婆羅 | 러니 [중략] 곧 아기 비야 아드를 나흐니 [중략] 일후물 無憂 | 라 흐니라 (於巴連弗邑 [중략] 彼王當生子名曰頻頭婆羅。仍便懷體月滿生子。過七日後立字名無憂。) <月釋 卷25: 66ㄴ-68ㄱ>9)

ㄴ. 後에 巴連弗邑에 ㅎ 王이 일후미 頻頭婆羅 | 러니 無憂 | 라 홀 아드를 나흐니 <釋詳 卷24: 11ㄱ-11ㄴ>

(14ㄱ)과 (14ㄴ)에서 ‘일후미 頻頭婆羅 | 러니’는 동일하다. (14ㄱ)의 ‘일후물 無憂 | 라 흐니라’라는 서술 구성을 관계화하면 ‘無憂 | 라 혼 아들’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으나 (14ㄴ)에서 볼 수 있듯이 ‘無憂 | 라 홀 아들’로만 나타낼 수 있다. (14ㄴ)에 ‘無憂 | 라 홀 아들’을 서술 구성으로 전개한다면 ‘일후물 無憂 | 라 흐리라’가 될 것 같으나, 이렇게 전개될 수는 없다. ‘일후물 無憂 | 라 흐리라’는 (14ㄱ)의 ‘일후물 無憂 | 라 흐니라’와 달리 [미래]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명명 구문에서 관형 구성과 서술 구성이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혹시 명명 관형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가 나타나지 않거나, 선어말어미 ‘-오-’가 나타나지 않는 예가 있는지 물을 수 있다.

<표 1> 명명 관형 구성에서 ‘-라 ㅎ/흔/흐논, -라 ㅎ/흔/흐논’의 빈도

| -라 ㅎ | -라 ㅎ | -라 흔 | -라 흔 | -라 흐논 | -라 흐논 |
|------|------|------|------|-------|-------|
| 30   | 0    | 2    | 0    | 0     | 1     |

<표 2> 명명 관형 구성에서 ‘-라 호리/흐리, -라 호니/흐니, -라 흐노니/-라 흐느니’의 빈도

| -라 호리 | -라 흐리 | -라 호니 | -라 흐니 | -라 흐노니 | -라 흐느니 |
|-------|-------|-------|-------|--------|--------|
| 35    | 0     | 0     | 0     | 0      | 0      |

<표 1>, <표 2>를 통해 우리는 관형사형 어미 ‘-으’가 선택되는 것과 선어말어미 ‘-오-’의

9) 전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14ㄱ)은 아래의 전문에서 (14ㄴ)과 공통되는 부분을 고려하며 밑줄 친 부분을 옮긴 것이다.

後에 巴連弗邑에 王이 이쇼디 일후미 日月護 | 러니 아드를 나흐니 일후미 修師摩 | 러니 그제 瞻婆國에 ㅎ 婆羅門의 ㅅ리 至極 端正 ㅎ더니 相師들히 닐오디 王妃 ㄷ외야 두 아드를 나하 흐나흔 天下를 거느리고 흐나흔 出家 ㅎ야 道理 비화 聖人이 ㄷ외리보다 ㅎ야놀 婆羅門이 물내 깃거 ㅅ리 ㄷ리고 巴連弗邑에 가 種種 莊嚴 ㅎ야 修師摩王子를 일유려 ㅎ더니 相師 | 닐오디 頻頭婆羅王의 받즈바사 흐리라 王이 더 ㅅ리 端正코 德 잇는 둘 보고 즉재 第一夫人을 사므니 곧 아기 비야 아드를 나흐니 낟 저기 便安 ㅎ야 어미 시름 업슬썩 일후물 無憂 | 라 흐니라 <月釋 卷25: 66ㄴ-68ㄱ>

통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5세기 한국어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용동사 ‘호-’가 사용되고 구문의 지시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흠, 혼논, 혼’이 “수의적”으로 사용된다고 기술한 경우가 있었다.<sup>10)</sup>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는 ‘혼논’과 ‘혼’이 수의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나타난다.

(15) ㄱ. 劫은 時節이라 혼논 쁘디라 <月釋 卷1: 5ㄱ>

ㄴ. 天眼은 하늬 누니라 혼논 마리라 <月釋 卷1: 7ㄱ>

(16) ㄱ. 知者는 아는 사르미라 혼 쁘디라 <月釋 卷9: 12ㄱ>

ㄴ. 曼殊沙는 불근 고지라 혼 마리라 <月釋 卷7: 37ㄱ>

(15), (16)의 문장들은 협주문에 흔히 나타나는 문장들인데, 일부러 모두 『월인석보』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여기에서 ‘뜯’과 ‘말’ 앞에는 ‘혼논’과 ‘혼’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혼/혼논 뜯’, ‘-혼/혼논 말’의 빈도

|           | 釋譜 | 月釋  | 阿彌 | 金剛 | 南明 |
|-----------|----|-----|----|----|----|
| -라/다 혼 뜯  | 7  | 51  | 1  | 3  | 2  |
| -라/다 혼논 뜯 | 4  | 17  | 3  | 3  | 3  |
|           |    |     |    |    |    |
| -라/다 혼 말  | 15 | 101 | 5  | 3  | 2  |
| -라/다 혼논 말 | 24 | 19  | 3  | 9  | 1  |

현재로서는 ‘혼’과 ‘혼논’이 어떠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선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sup>11)</sup> ‘혼’과 ‘혼논’의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혼’과 ‘혼논’은 문헌에서 “수의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기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동일 문헌에서 ‘혼’과 ‘혼논’이 둘 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을 예외로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현상과 명명 관형 구성에서 ‘흠’이 선택되는 것을 같이 묶어서 “수의적”이라고 기술할 수는 없다. 15세기 문헌에서 ‘-라/다 흠 뜯, 말’과 같은 표현은 단 하나의 용례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명명 관형 구성에서 관형사형 어미 ‘-을’이 선택되는 것은 그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때의 관형사형 어미 ‘-을’은 ‘명명

10) 고영근(1982: 21-22)에서는 “比丘 | 님오더 이 짜히 竹林國이라 혼 나라히이다” <月釋 卷8: 94 ㄱ>의 문장을 바탕으로 시제의 의미가 비교적 잘 나타나는 [+상관성]의 장면에 쓰인 것이지만, 동작성이 약한 인용동사 ‘호-’가 쓰였다는 점, 구문 자체가 지시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시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설법 ‘혼논’, 추측법 ‘흠’이 수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11) 문현수·허인영(2018: 30)에서는 『석보상절』의 협주문을 검토하면서, ‘혼논이라’는 단어나 표현의 사전적 의미 등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데 쓰였고, ‘혼이라’는 본문이나 협주문 내에서 어떤 단어나 표현을 사용한 이유 등 [특정 사실]을 설명할 때에 주로 쓰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석보상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혼논이라’와 ‘혼이라’가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면 ‘혼논’과 ‘혼’ 또한 의미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혼논’과 ‘혼’의 선택 역시 ‘수의적’이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구문’이라는 구문의 특성과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2.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

2.2에서는 주로 전기 중세 한국어 자료인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바탕으로 명명 구문을 살펴본다.

(17) ㄱ. 佛子 何 ㄷ {等} ㄴ 乙 菩薩摩訶薩 尸 聞藏 ㄴ ㄴ ㄴ {爲} ㄴ ㄴ ㄴ ㄴ ㄴ [“불자들이여, 어떠한 것들을 보살마하살의 문장이라고 하는가?” 할 것 같으면] <華疏 卷35: 01, 03>

ㄴ. {是} ㄴ 乙 名 下 菩薩摩訶薩 尸 五 ㄷ 第七 多聞藏 ㄴ ㄴ ㄴ ㄴ ㄴ [이것을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다문장(多聞藏)이라고 하는 것이다.] <華疏 卷35: 09, 03-04>

자토석독구결 자료에는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도입의 기능을 가지는 의문문이 많이 나타난다. (17ㄱ)이 그러한데, ‘불자들이여, 어떠한 것들을 보살마하살의 문장(聞藏)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것으로 도입이 이루어진다. 이후에 ‘보살마하살의 문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설명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종합하면서 (17ㄴ)과 같이 ‘이것을 일컬어 보살마하살의 다섯째 다문장(多聞藏)이라고 하는 것이다.’로 개념을 명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박진호(1998: 69)에서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명명 구문 및 뜻풀이 구문의 특징으로, 첫째, 명명 동사로 ‘\*옴-’이 사용된다는 점, 둘째, 현대 한국어의 ‘-(이)라고’에 해당하는 형태는 ‘-ㄴ/ㅏ’, ‘-ㄴ ㄴ’, ‘-ㄴ ㅏ’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 셋째, 그 뒤에 나오는 명명 동사의 대동사 ‘호-’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우-’와 동명사 어미 ‘-옴’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중에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박진호(1998: 69)에서 제시한 세 번째 특징이다.

(17) ㄱ. 佛子 何 ㄷ {等} ㄴ 乙 菩薩摩訶薩 尸 聞藏 ㄴ ㄴ ㄴ {爲} ㄴ ㄴ ㄴ ㄴ ㄴ <華疏 卷35: 01, 03>

ㄴ. {是} ㄴ 乙 名 下 菩薩摩訶薩 尸 五 ㄷ 第七 多聞藏 ㄴ ㄴ ㄴ ㄴ ㄴ <華疏 卷35: 09, 03-04>

(17ㄱ)의 의문문에서는 ‘ㅅ[리]’가, (17ㄴ)의 명명 구문에는 ‘ㅈ[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서, 이 두 형태는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ㄴ ㄴ ㄴ’가 ‘ㄴ ㅈ ㄴ’로 나타나지도 않고, ‘ㄴ ㅈ ㄴ ㄴ’가 ‘ㄴ ㅅ ㄴ ㄴ’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 자토석독구결의 ‘ㅅ’는 동명사 어미 ‘-옴’ + 형식명사 ‘이’의 구성으로, ‘ㅈ’는 선어말어미 혹은 선어말 구성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적어도 명명 구문에 한해서는 ‘ㅈ’가 언제나 선어말어미가 아닌, 동명사 어미 ‘-옴’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의 구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근거는 황선엽(2002: 71)에서 지적되었던 ‘ㅈ’와 ‘ㅅ’의 통합 순서이다. (17ㄴ)에서 나타난 ‘ㄴ ㅈ ㄴ ㄴ’라는 어형은 (17ㄱ)의 문말에 있는 ‘ㄴ ㄴ ㄴ ㄴ 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



구문에 통합되는 선어말어미 ‘-오-’가 명명 구문의 주어가 화자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이승재(2006: 201)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명명 구문은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문이기 때문이며,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서도 주절에 ‘ㅎ-’ 뒤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한 어형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통사적으로도 ‘-ㅈ-’를 동명사 어미 ‘-웁’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로 파악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ㄴㅈㅁ’의 경우 동사 ‘ㅎ-’+ 선어말어미 ‘-오-’ + 동명사 어미 ‘-웁’ + 형식명사 ‘이’+ 의문조사 ‘-고’로 분석하면 통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sup>13)</sup> 중세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시기에도 의문조사 ‘-고/가’가 존재하기에 형식명사 ‘이’ 뒤에 바로 결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ㄴㅈㅁ’라는 어형은 의문조사 ‘-고’ 앞에 계사 ‘-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ㄴㅈㅅㅁ’의 경우 동사 ‘ㅎ-’+ 선어말어미 ‘-오-’ + 동명사 어미 ‘-웁’ + 형식명사 ‘이’ + 선어말어미 ‘-겨-’ + 종결어미 ‘-다’로, 즉 계사가 없는 구성으로는 분석될 수 없다. 체언에 선어말어미가 바로 결합될 수는 없고, 따라서 선어말어미 ‘-ㅅ-’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반드시 계사 ‘-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명사 어미 ‘-웁’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가 합쳐져서 ‘-ㅈ-’로 나타나는 것은 통사 구조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ㄴㅈㅁ’와 ‘ㄴㅈㅅㅁ’를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 (20) ㄱ. ㄴㅈㅁ : 동사 ‘ㅎ-’+ 선어말어미 ‘-오-’ + 동명사 어미 ‘-웁’ + (형식명사 ‘이’) + 의문조사 ‘-고’  
 ㄴ. ㄴㅈㅅㅁ : 동사 ‘ㅎ-’+ 선어말어미 ‘-오-’ + 동명사 어미 ‘-웁’ + (형식명사 ‘이’) + 계사 ‘-이-’ + 선어말어미 ‘-겨-’ + 종결어미 ‘-다’

‘ㄴㅈㅁ’와 ‘ㄴㅈㅅㅁ’를 (20)과 같이 분석하고 나면,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에는 동명사 어미 ‘-웁’이 선택되고,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었다고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전기 중세 한국어 명명 구문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 전기 중세 한국어 명명(命名) 구문의 특징

- ㄱ. 첫째, 동명사 어미 ‘-ㅍ[웁]’이 선택된다.  
 ㄴ. 둘째, 동사 ‘ㅂ[ㅎ]-’ 뒤에는 선어말어미 ‘-ㅅ[오]-’가 통합된다.

그렇다면 이 특징을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관형 구성의 특징과 비교해 보자.

(8) 15세기 한국어 명명(命名) 관형 구성의 특징

- ㄱ. 첫째, 관형사형 어미 ‘-웁’이 선택된다.  
 ㄴ. 둘째, 동사 ‘ㅎ-’ 뒤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다.

(8)과 (21)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기 중세 한국어의 명명 구문의 특징이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명명 관형 구성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토석독구결 자료에도 명명 관형 구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존재하는데, 그것과 15세기 한국어의 명명

13) 장윤희(1997/2002: 76)에서도 ‘ㄴㅈㅁ’를 위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lt;표 4&gt; 'Q라 ㅎ P'에서 P에 일반명사가 온 구조의 세기별 변화 양상

|      | -라 ㅎ | -라 ㅎ | -라 혼 | -라 혼 | -라 혼논 | -라 혼논 |
|------|------|------|------|------|-------|-------|
| 15세기 | 31   | 0    | 2    | 0    | 0     | 1     |
| 16세기 | 22   | 0    | 4    | 4    | 1     | 1     |
| 17세기 | 0    | 0    | 0    | 0    | 0     | 2     |
| 18세기 | 0    | 0    | 0    | 0    | 0     | 27    |

&lt;표 5&gt; 'Q라 ㅎ P'에서 P에 형식명사 '이'가 온 구조의 세기별 변화 양상

|      | -라 호리 | -라 흐리 | -라 호니 | -라 흐니 | -라 혼노니 | -라 혼느니 |
|------|-------|-------|-------|-------|--------|--------|
| 15세기 | 35    | 1     | 0     | 0     | 0      | 0      |
| 16세기 | 1     | 4     | 0     | 0     | 0      | 1      |
| 17세기 | 0     | 6     | 0     | 2     | 0      | 0      |
| 18세기 | 0     | 8     | 0     | 0     | 0      | 2      |
| 19세기 | 0     | 0     | 0     | 0     | 0      | 44     |

### 3. 관형 구성과 [총칭성]

#### 3.1. 15세기 한국어

15세기 한글 문헌에는 관형사형 어미 '-웁'이 [총칭성]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예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24) ㄱ. 淨飯王이 相 (平)불 사름 五百을 大寶殿에 되호아 太子를 되더시니(王召善相者 五百人。於大寶殿令占太子。) <釋詳 卷3: 1ㄱ>

ㄱ'. 相師ㅣ 모다 萬歲호쇼셔 브르스불며 【師는 스스이니 아뭇 일도 잘 호는 사르물 師ㅣ라 호느니 相師는 相 잘 보는 사르미라】 <月釋 卷2: 46ㄱ>

ㄴ. 太子ㅣ 나아 노니샤 閻浮樹 아래 가샤 반 (平)왕 사름 보더시니(太子出遊前至王田。息閻浮樹) <釋詳 卷3: 15ㄴ>

- (25) ㄱ. 풍류 잘 ㅎ 伎女 五百을 고흐야 서르 마라 되스뻬게 호시니 【伎는 잘 ㅎ 씨니 伎女는 풍류며 여러 가짓 지조 잘 호는 겨지비라】 <釋詳 卷3: 5ㄱ>

ㄴ. 王이 손지 풍류 ㅎ 사르물 더호야 달애더시니 [중략] 淨居天이 虛空에 와 일찌 오습고 [중략] 풍류호는 겨집들히 니기 줌 드러 옷마외 헤디오고 추미며 더러 본 거시 흐르게 호야든 <釋詳 卷3: 22ㄴ-23ㄱ>

- (26) ㄱ. 淨居天이 山行 ㅎ 사르미 드외야 가니 袈裟를 니벳거늘(時淨居天人化作獵人披袈裟衣) <釋詳 卷3: 31ㄴ>

ㄱ'. 【獅子】 袈裟 니븐 사르물 보면 아니 물썩 山行 흐리 袈裟를 닙느니라】 <釋詳 卷3: 31ㄴ>

ㄴ. 부터 드외야 나라해 도라오샤도 즈올아비 아니호샤 아랫 恩惠를 니저 브리샤 길 (平)불 사름과 마티 너기시니(得佛還國都不見親忽忘恩舊劇於路人) <釋詳 卷

6: 4ㄴ-5ㄱ>

ㄴ. 恩惠를 니즈샤 親近히 아니흐샤 路人을 ㄴ티 흐시니(其一百四十一) <月千上: 51ㄴ>

ㄷ. 자내 妃子와 서르 븐드러 城 맞과 거리나니 길 (주)넙 사르미 울오 닐오디 하  
닐하 太子ㅣ 므스 罪 겨시관디 이리 드외어시뇨(行人爲之流涕。悉仰頭呼天。太  
子有何罪乃致此耶。) <釋詳 卷24: 51ㄴ>

ㄷ. 【莊子에 닐오디 답가히 아니 버려선 【祭에 쓰느니라】 筐에 담고 빗난 繡  
혼 거스로 둥다가 흐마 버린 後엔 길 (주)너리 닐오며 나모흐리 가져다가 밥  
지슬 썩르미라】 <法華 卷2: 212ㄴ>

ㄹ. 길 (주)넙 사르미 來往에 서르 보듯흐니(如行路人이 來往相見듯흐니) <楞嚴 卷  
8: 89ㄴ>

ㅁ. 너름지슬 아비는 膠漆 바토물 슬허코 길 (주)넙 사르미 蒺藜를 避흐닛다(田父  
嗟膠漆 行人避蒺藜) <杜初 卷3: 3ㄴ>

(27) ㄱ. 도라울 길헤 쇼 칠 아히 보시니 놀애를 브르더니(其二百四十五) <月釋 卷8: 87  
ㄱ>

ㄴ. 무티 올라 오는 ㄴ티에 쇼 칠 아히 놀애를 블로디 <月釋 卷8: 101ㄴ>

ㄷ. 그뻘 쇼 치는 사르미 뒤헤 오다가 보고 무로디 네 어떤 사르민다(爾時牧牛人  
尋後得見, 問言: 汝是何人?) <月釋 卷22: 51ㄴ-52ㄱ>

ㄹ. 一切 大衆이 모다 飲食을 주니 利師跋 길 우히 五百 빌머글 아히 다 어더 비  
차 먹더라(乃至充足利師跋道上五百乞兒, 皆得飽滿。) <月釋 卷22: 53ㄴ>

(24)~(27)에서 핵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에는 관형사형 어미 ‘-을’이 사용되었으며, 핵 명  
사의 속성 중에서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4)의 ‘相 볼 사람’은 앞으로 相을 볼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직업으로 相을 보는 ‘相者’를 가리키며, 이와 마찬가지로 ‘반 값 사람’은 ‘農夫’를 가  
리킨다. 또한 ‘길 넙 사람’은 앞으로 ‘길을 갈 사람’이 아니라 ‘行人’을 의미하며, ‘쇼 칠 아히’  
는 ‘牧童’을, ‘빌머글 아히’는 ‘거지’를 가리킨다. 위에서 핵 명사가 사람과 관련된 것을 살펴  
보았다면, 이제 핵 명사가 무정 체언인 예들을 검토한다.

(28) ㄱ. 수플 아래는 놀개 드리운 새 잇고 몫 가온던 넙 비 업도다(林下有塌翼 水中無  
行舟) <杜初 卷10: 21ㄱ>

ㄴ. 너와 드트레 사호맷 붓소리 하니 브롬 부는 몫겨레 (주)넙 비 적도다(煙塵多戰  
鼓 風浪少行舟) <杜初 卷10: 37ㄴ>

(29) ㄱ. 太子ㅣ 니르샤디 “사르미 목수미 흐를 물 곧흐야 머므디 몬흐닛다” 흐시고(菩薩  
曰。人命速駛。猶山水流難可再過。不獨此人天下皆爾。) <釋詳 卷3: 17ㄱ>

ㄴ. 네 내盟誓 드르라 흐고 닐오디 “ㄴ름 프리 넘고 커 우히 흐를 몫겨리 잇느니  
사람 일우린 적고 사람 흐야브리린 하도다” (汝聽我發誓言, 江水蕩蕩, 上有流波,  
成人者少, 敗人者多) <釋詳 卷23: 75ㄴ>

- ㄷ. 대 칙칙하야도 흐를 물 지나물 막디 아니호고(竹密하야도 不妨流水過호고) <金三 卷3: 23ㄴ-24ㄱ>
- ㄹ. 혼 닐웨 길 녀샤 무릎 털 물 건나샤 두 닐웨에 목 털 물 건나샤(其四百五十八) <月釋 卷22: 6ㄱ>
- ㄹ'. 그뿐 善友太子 | 導師와 하야 알프록 길 녀 혼 닐웨를 가니 프리 무루페 티 거늘 또 알프록 혼 닐웨를 가니 프리 모기 티거늘(爾時善友太子與盲導師即前進路, 行一七日, 水齊到膝。復更前行一七, 水齊到頸。) <月釋 卷22: 39ㄱ-ㄴ>
- ㄱ'. 그제 閻浮提 中에 상네 도흔 좡이 이쇼디 香山이 곤호며 흐르는 프리 도하마시 돌오(爾時閻浮提中, 常有好香, 譬如香山, 流水美好) <月釋 卷23: 32ㄱ>
- (30) ㄱ. 피헛 神靈이며 프리 神靈이며 萬萬 衆生들히 머리 좃습고 기쁘바 讚歎호스불 소리 天地 드리치며 하늬 좡이 섯버프리 곤곤마다 뽴비치 나더라(山靈河伯。萬衆稽首。讚歎權喜。聲動天地。天香繚繞。隨處生春。) <月釋 卷2: 51ㄴ-52ㄱ>
- ㄴ. 太子 | 소느로 놀러 지하샤 시울 뽴쌔 소리 잣 안히 다 들이더라(菩薩以手捺張。拏弓之聲悉聞城內。) <釋詳 卷3: 14ㄱ>
- ㄷ. 그 지비서 차반 땡굴 쏘리 위즈런호거늘(家內擻擻 辦具飲食。) <釋詳 卷6: 16ㄱ>
- ㄹ. 香嚴和尚이 대 털 소리에 도를 아라시고 偈 지서 니르샤디 <南明(1482) 21ㄱ-21ㄴ>
- ㄱ. 目連이 왼 바를 門 안해 드리드되오 올흔 바른 門 밧기 이서 설버 우를 소리를 듣고 제 머리를 기도애 다터 피와 슬쾌 너르 듣더니(目連左脚在門梟內 右脚在門梟外 聞叫苦痛之聲 將頭[月+贊]柱 血肉狼籍) <月釋 卷23: 87ㄴ>
- ㄷ. 그저기 如來 큰 悲力으로 가스므로서 브를 棺 밧기 내샤 브티시니 닐웨 스시를 모다 울 쏘리 굿디 아니호더라(爾時, 如來以大悲力, 從心胸中火踊棺外, 漸漸茶毘, 經于七日, 焚妙香樓, 爾乃方盡。) <釋詳 卷23: 45ㄴ>
- ㅅ. 내 正히 꿈 甬 時節에 이 디홀 쏘리를 惑하야 불 소리라 호다라(我正夢時에 惑此春音하야 將爲鼓響호다라) <楞嚴 卷4: 130ㄴ>
- ㅇ. ㅁ中에 놀라아 우를 쏘리 잇거늘 좡이 다 머리를 움치고 잇거늘(夜半忽有人驚呼聲 婢僕皆縮頸) <三剛成(1481) 烈: 34ㄱ>
- ㅇ'. ㄱ는 엄쏘리니 君ㄷ字 처썸 피아 나눈 소리 ㄱ트니 곶바 쓰면 蝸蚌字 처썸 피아 나눈 소리 ㄱ트니라 <訓諺 4ㄱ>

위의 예들 중에서 (29)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9ㄱ)의 ‘흐를 물’에서 ‘흐르다’는 ‘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명확하다. 현대 한국어였다면 (29ㄱ)은 “사람의 목숨이 흐르는 물 같아서 머무르지 못하는구나!”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인데, 이때 ‘흐르는 물’에서의 ‘흐르는’은 [충칭성]을 나타낸다. ‘물은 흐른다’라는 문장은 전형적인 충칭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관형사절로 나타나면 ‘흐르는 물’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29ㄱ')에서 보듯이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충칭성]을 ‘-음’ 이외에 ‘-는’도 사용될 수 있었다.

한편 ‘-음’과 ‘-는’ 중에는 ‘-는’이 선택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30)에서 볼 수 있는 ‘흐를 물’, ‘흐를 뽴겔’과 같은 표현은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3번밖에 검색되지 않으나, ‘흐르는/흐르는 심, 물, 뽴겔, ㄱ름’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45번 나타난다. 이 외에

‘널, 념’과 ‘녀논’을 비교해 보아도 ‘녀논’이 더 많이 사용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는 15세기 한글 문헌에서 [총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을’과 ‘-논’이 공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관형 구성에서는 이미 ‘-논’이 ‘-을’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3.2.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

항가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총칭성]의 용법으로 사용된 ‘-尸’의 쓰임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예만 제시하기로 한다.

(31) ㄱ.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郎이여 그릴 모속리 녀을 길 / 郎 그리는 마음 의 가는 길) <慕竹 7>

ㄴ. 臣隱愛賜尸母史也 (臣은 드속실 어시여 / 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 <安民 2>

ㄷ.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더에 쁘더딜 넙다 / 이에 저에 떨어질 있처럼) <祭亡 6>

ㄹ. 道尸掃尸星利望良古 (길 쌀 벼리 바라고 / 길 쓸 별 바라보고) <彗星 7>

(32) ㄱ. 次第… 居士リ尸 寶： 蓋： 法： 淨名： ヽ尸 等 ヽ尸 八百人ヲ十 問ニテ <舊仁 卷上： 03： 01-02>

[차례로 居士이신 寶니 蓋니 法이니 淨名이니 하는 것과 같으신 八百人에게 물으시며]

ㄴ. 作樂ノ尸カ 亦ヾ尸 然ヒヾ尸 亦ヾ尸 復ろ 共ヒ 量 無ヒ尸 音樂乙 作ヾ尸 如來乙 覺寤ニリ 白口ハニ尸 <舊仁 卷上： 03： 12-13>

[음악을 짓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하시어 또한 함께 그지없는 音樂을 지어 如來를 (三昧에서) 깨게 하셨는데]

ㄷ. 十六 大國王リ 意ヲ十 國土乙 護ノ今ヒ 因緣乙 問白{欲}ムヾ尸 入乙 火 知 白ヲ口口尸 ヽ尸 乃 <舊仁 卷上： 03： 17-18>

[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하려는 인연을 묻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ㄹ. 乃ヾ尸 盡命ヾ尸 矢十 至リヾ尸 亦ヾ尸 慍ノ尸 所ヲ 無ヒリ尸 應ヒヾ尸 리ヲヒ 一ッナカセ尸 <華疏 卷35： 10： 12-13>

[이에서 목숨을 다함에 이르러도 또한 아끼는 바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

ㄱ. 善男子 是 陀羅尼名 四恒河沙 過 諸佛 四地菩薩 爲救護 陀羅尼 誦持 得ヲ 糸 一切 怖畏リ尸 一切 惡獸リ尸 虎狼獅子 一切 惡鬼 人非人 等ヾ尸 怨賊 災橫 及 諸 毒害 ヽ尸 入乙 度ヾ尸 五障 解脫 四地 念 忘 不 <金光 卷3： 10： 07-10>

[善男子여, 이 陀羅尼의 이름은 四 恒河沙를 넘으신 모든 부처님이 四地菩薩을 救護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라 陀羅尼를 誦持하면 능히 일체 怖畏인, 一切 惡獸인 호랑이, 이리, 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의 怨賊이니 災橫이니 및 모든 毒害라 할 것을 건너 五障을 解脫하며 四地를 念하는 것을 마땅히 잊지 않으며

한다.]

(31)의 독음과 해석은 김완진(1980), (32)의 독음과 해석은 『제46회 구결학회 발표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31)와 (32)에서 사용된 ‘-尸’, ‘-尸’의 용법 역시 [충칭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ㄱ)의 ‘그릴 마숨’이나 ‘너올 길’은 앞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갈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칭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ㄴ)의 ‘득스실 어씨’도 ‘신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유지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1ㄷ)의 ‘쁘더딜 님’은 해석에서는 ‘떨어질 앞’이라고 하였으나 ‘떨어지는 앞’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쁘더디-’는 ‘님’의 쉽게 바뀌지 않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1ㄹ)의 ‘길 찢 버리’ 역시 앞으로 미래에 길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길을 쓸고 있는 별’이라는 점에서 [충칭성]과 관련된다.

향가의 ‘尸’와 자토석독구결의 ‘尸’는 모두 동명사 어미 ‘-음’을 나타낸다. 이전의 연구 업적에서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 ‘-음’을 현대 한국어의 ‘-는’으로 옮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동명사 어미 ‘-음’의 쓰임을 현대 한국어의 ‘-을’로 옮길 수 없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3.3. 15세기 이후의 변화

명명 구문에서의 ‘-음’은 모두 [충칭성]으로 사용되었으나, 관형 구성에서의 ‘-음’은 [추측], [의도], [예정]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충칭성]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각각 다르게 변화했을 것이다. 전자는 그대로 ‘-음’으로 후자는 ‘-는’으로 변화할 것이 기대된다. 아래는 이를 잘 보여준다.

(33) ㄱ. 할 폴 지비 가 무로디 폴 도흔 할 잇느녀(到賣弓的房子裏問道, 有賣的好弓麼?)

<飜老 卷下: 30ㄴ>

ㄴ. 할 폴 집의 가 무로디 폴 도흔 할 잇느냐(到賣弓的房子裏問道, 有賣的好弓麼?) <老諺 卷下: 27ㄴ>

ㄷ. 할 꼭논 푸즈에 가 무로되 도흔 할 잇느냐 <蒙老(1790) 卷6: 12ㄴ>

ㄹ. 또 저 할 꼭논 店에 가 무르되 폴 조흔 할이 잇느냐(且到那賣弓的店裏去問, 有賣的好弓麼?) <重老 下: 29ㄱ>

ㅁ. 할 꼭논 푸즈 주장흔는 형아 폴 조흔 할 잇느냐 <淸老(연도미상) 18ㄴ>

아래에서도 ‘-음’의 [충칭성] 용법을 ‘-는’이 대체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ㄱ. 유인 형님 우리 여러 길 널 사랴미 이 느즌디 일즉 아춤 밥을 못 머거 잇고 (我幾箇行路的人, 這早晚不曾喫早飯,) <飜老 卷上: 40ㄱ>

ㄴ. 유인 형아 우리 여러 길 네는 사랴미 이리 느즌디 일즉 아춤밥을 못 먹엇고 (主人家哥我幾箇行路的人這早晚不曾喫早飯) <老諺 卷上: 36ㄱ>

ㄷ. 主人아 우리는 이 길 돈니는 사랴미이라 이제도록 일즉 早飯을 먹지 못흐엿고 (主人家我們是行路的人這時候不曾喫早飯) <重老 卷上: 36ㄱ>

#### 4. ‘-을’에서 ‘-는’으로의 대체에 대한 해석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을’이 담당했던 [충칭성] 용법을 시간이 지나면서 ‘-는’이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앞장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어째서 처음부터 ‘-는’이 [충칭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지 않았는지 물을 수 있다. 또한 ‘-을’이 [충칭성]을 계속 담당하지 못하고 ‘-는’에 이러한 쓰임을 내어주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에서 [충칭성]을 ‘-는’이 담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어의 역사에서 선어말어미 ‘-느-’의 발달이 늦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사실 이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장 오래된 시기의 언어 사실을 보여주는 향가나 이두에도 동명사 어미 ‘-隱, -尸’과 ‘-느-’의 선대형으로 추정되는 ‘-臥-’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정황상의 증거에 해당한다.

첫 번째, 빈도의 문제이다. 15세기 한글 문헌에는 시제·상과 관련된 문법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시제·상 요소들이 15세기 한국어만큼 활발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가나 이두는 표기의 특성상 문법형태소를 명확히 나타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시제·상 관련 문법요소들은 15세기 한글 문헌에 비하면 그 쓰임이 결코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더-’의 경우, 자토석독구결 자료 전체에서 단지 다섯 예만을 확인할 수 있다(박부자 2018: 67). ‘-으리-’의 경우, 제3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문법화가 한참 진행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15세기 한국어의 ‘-느-’와 연관된 선대 요소는 다소 복잡하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법요소는 ‘-臥-’, ‘-卜-’<sup>15)</sup>라는 점이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104번 나타난다. 다른 시제·상 요소에 비해서는 ‘-卜-’의 사용 빈도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15세기의 ‘-느-’만큼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박진호(2011: 293)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동사의 경우 과거 사태에는 반드시 〇나 ‘-더-’가 사용되었고, 현재 사태에는 반드시 ‘-느-’가 사용되었으며, 형용사의 경우 현재 사태에는 〇가, 과거 사태에는 ‘-더-’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경우, 이들 문법요소의 낮은 빈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쓰임이 필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요컨대 15세기 한국어에 비해서 고대 한국어나 전기 중세 한국어는 시제·상과 관련된 문법요소의 쓰임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시제·상 문법요소의 형성이 늦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향가나 이두에서도 동명사 어미 ‘-隱’과 ‘-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사용되는 빈도도 높는데,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문법요소는 ‘-ㄱ’과 ‘-尸’로, ‘-ㄱ’은 2,000번 이상, ‘-尸’은 1,000번 이상 사용된다.

둘째, 한국어는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은’, ‘-을’의 대립을 바탕으로 하는 ‘명사문(名詞文)’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Ramstedt(1939), 김완진(1957) 등에서 논의된 것으로, 한국

15) ‘-卜-’는 동명사 어미 ‘-을’, 선어말어미 ‘-으리-’와 결합하지 않으며 형용사나 계사와의 결합도 제약된다는 점에서 15세기의 현재시제 ‘-느-’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

어와 알타이 제어는 모두 동명사 어미가 사용되고, 따라서 알타이 조어에서 명사문이 매우 중요했으리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한국어의 계통이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가와 관련된 문제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어가 기원적으로 명사문(名詞文)이 중심이 되는 언어였으리라는 것은 한국어 어미들의 형성에 동명사 어미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6>은 황선엽(2002: 12)에서 가져온 것이다.

<표 6> 동명사 어미와 서술성 어미의 관계

|     | 동명사 | 평서형(2) | 의문형     | 연결형     | 평서형(1) |
|-----|-----|--------|---------|---------|--------|
| 부정법 | 흔   | 흔니라    | 흔녀(흔니아) | 흔니      | 흔다     |
| 직설법 | 흔느  | 흔느니라   | 흔느녀     | 흔느니     | 흔느다    |
| 회상법 | 흔던  | 흔던니라   | 흔던녀     | 흔던니     | 흔던라    |
| 추측법 | 흔   | 흔리니라   | 흔려(흔리아) | 흔리니/*흔리 | 흔리라    |

<표 6>은 평서형, 의문형, 연결형 어말어미의 형성에 ‘-은’, ‘-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서형(2)의 ‘-으니라’와 ‘-으리라’는 동명사 어미 ‘-은, -을’로 끝나는 명사문에 계사 ‘-이-’와 종결어미 ‘-다’가 통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한편, 의문형 ‘흔녀’와 ‘흔려’는 동명사 어미 ‘-은, -을’에 의문 보조사 ‘-여’가 통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으니, -으리’에 관정의문에 쓰이는 보조사 ‘-가’가 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동명사 어미 ‘-은, -을’로 끝나는 명사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은 같다.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문에 쓰이는 ‘-은고/가’, ‘-을고/가’에서 ‘-은’, ‘-을’이 기원적으로는 동명사 어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은’, ‘-을’로 끝나는 명사문에 조사 ‘-고/가’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가 기원적으로는 평서문, 의문문에 관계 없이 명사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어가 기원적으로 명사문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였다면, 명사문을 이루는 데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법요소란 결국 동명사 어미 ‘-은’, ‘-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적으로는 이 두 문법요소의 대립이 한국어에서 매우 중요했을 것이며, 이들은 한국어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문법요소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동명사 어미 ‘-은’, ‘-을’이 선어말어미 ‘-느-’보다 선대의 요소라는 점은, 앞의 장들을 통하여 살펴본 ‘-을’의 [충칭성] 용법을 ‘-느’이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을’이 가지고 있었던 [충칭성] 용법을 ‘-느’이 대체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난 변화였다. 그런데 ‘-느’이 ‘-을’을 대체하는 과정은 덜 긴밀한 구성에서, 더 긴밀한 구성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컨대 관형 구성에서도 일반명사를 수식하는 구성에서는 15세기부터 ‘-을’과 ‘-느’이 경쟁하고, 또 ‘-느’이 ‘-을’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이거나, 형식명사 ‘이’를 수식하는 구성에서는 ‘-을’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같은 15세기임에도 명명(命名) 관형 구성에는 ‘-느’이 침투하지 못하고 ‘-을’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2.1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명명 관형 구성의 변화 양상 또한 ‘Q라 훔 P’에서 ‘P’에 일반 명사가 온 구성과 형식명사 ‘이’가 온 구성보다 ‘-느’으로 대체된 시간이 한 세기 이상 빠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느-’가 ‘-을’에 비해 후대에 발달한 문법요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선어말어미 ‘-느-’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의 한국어에서도 [충칭성]은 어떠한 문법요소를 통해 실현되어야 했을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충칭성]은 현재시제가 담당한다고 알려

져 있으나, 이러한 기술은 어디까지나 시제 언어에 국한되는 설명이다. [충칭성]을 담당할 만한 적당한 시제 요소가 없는 언어라면 이를 다른 문법요소를 통해 표현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그 요소가 ‘-을’이었다고 생각된다.

새롭게 출현한 시제·상 관련 문법요소들의 문법화가 진행되고, 또 이들이 서로 체계를 갖추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어는 완전한 시제 언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새롭게 발달한 여러 시제 요소 중에서 이러한 ‘-을’의 [충칭성] 용법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는 당연히도 현재시제 문법요소인 ‘-는’과 관련된 ‘-는’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범언어적으로 [충칭성]은 가장 무표적인 문법 요소, 즉 시제 언어에서는 현재시제가 담당한다는 [충칭성]의 ‘최소 표시 경향(minimal marking tendency)’에도 부합한다(Dahl 1995: 415).

## 5. 결론

이 글에서는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동명사 어미·관형사형 어미 ‘-을’의 [충칭성] 용법 및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려 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고의 한계 및 추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본고는 동명사 어미·관형사형 어미 ‘-을’이 시대에 상관없이 서상법(敍想法, *irrealis*) 요소라고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였다. 고대 한국어 및 전기 중세 한국어의 동명사 어미 ‘-은’에 대해서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통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동명사 어미 ‘-ㄱ’과 ‘-은’이 한국어에서 기원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문법요소라는 점을 받아들이다면, 이들의 대립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진다. 현대 한국어는 시제 언어라고 이야기되지만, 아직 시제 요소가 발달하지 않았던 기원적인 한국어는 무시제 언어(*tenseless language*)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 한국어의 ‘-은’, ‘-을’이 서실법(敍實法, *realis*) : 서상법(敍想法, *irrealis*)의 대립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한국어의 ‘-ㄱ’, ‘-은’도 서법의 대립을 보였다면 한국어는 기원적으로 서법의 대립이 중심이 되는 언어였다가 시제 언어로 발달한 언어일 가능성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본고는 관형사형 어미 ‘-을’의 [충칭성] 용법 및 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관형사형 어미와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 ‘-을’과 관련된 현상 중에는 ‘-은 바’, ‘-을 따름’과 같이 특정명사나 의존명사 앞에서 ‘-은’, ‘-을’의 하나가 의미 차이 없이 선택되는 현상이 있다. ‘-을 때’, ‘-은 이후’처럼 시간명사 앞에 ‘-은’, ‘-을’ 중 하나가 선택되는 현상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5세기 한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에, 그 역사적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81/2011), 『제4판 중세 국어의 시상과 서법』, 집문당.
- 고영근(1982), 서술성어미와 관형사형어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56.
- 고영근(1987/2010), 『제3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1995), 『단어 · 문장 · 텍스트』, 한국문화사.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 개관, 음운, 형태, 통사 -』, 집문당.
- 김완진(1957), -n, -l 동명사의 통사론적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국어연구』 2, 국어연구회(서울대), 43-72.
-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남풍현(1996ㄱ),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尸/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1, 구결학회, 11-44.
- 남풍현(1996ㄴ), 《금광명경》 권삼 석독구결에 나타난 尸의 용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228-251.
- 남풍현(1996ㄷ),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국어학회, 1-48.
- 문숙영(2005/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국어학총서 66, 태학사.
- 문현수 · 허인영(2018), 문법 형태 ‘-느-’의 통시적 변화,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7-52.
- 박부자(2018), 시상형태 {-더-}의 쟁점과 전망,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53-77.
- 박진호(1997), 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117-145.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10), 선어말어미 ‘-느-’ 다시 보기,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763-778.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 박진호(2018), 선어말어미 ‘-느-’와 ‘-누-’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 차자표기 자료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54회 구결학회 전국 학술 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1-11.
- 이남순(1998), 『시제 · 상 · 서법』, 월인.
- 이병기(1997), 미래 시제 형태의 통시적 연구 - ‘-리-’, ‘-ㄹ 것-’, ‘-겠-’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46, 국어연구회(서울대).
- 이병기(1998),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구결연구』 4, 구결학회, 1-22.
- 이병기(2006),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기(2018), 시상 형태 ‘-(으)리-’의 쟁점과 전망,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79-106.
- 이승재(1995),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변화 - 『구역인왕경』과 『화엄경』의 구결을 중심으로,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215-252.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 이승재(2010), 한국어 명명구문의 통시적 변화, 『관악어문연구』 3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5-84.
- 이지영(2018), 중세국어의 특이 관형사절 구성에 대한 일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9.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48.
- 이현희(1990ㄱ), 중세국어 명사구 확장의 한 유형: 형식명사 ‘이’와 관련된 몇 문제, 『기곡 강신항

- 선생 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681-703.
- 이현희(1990), 보문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임동훈(2009), ‘-을’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55-81.
- 임동훈(2010), 현대국어 어미 ‘느’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 59, 국어학회, 3-44.
- 임흥빈(1983), 동명사 구성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국어학연구 -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문총 I』, 55-68.
- 장윤희(1997/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41, 태학사.
- 전영철(2012), 총칭성과 양화,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51-76.
- 전영철(2013),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한정성/특정성, 총칭성, 복수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최동주(201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총서 27, 태학사.
- 하귀녀(2006), 석독구결과 대명률직해의 명명 구성에 대하여, 구결학회 구두발표논문.
- 허 웅(1975), 『우리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허인영(2018), 차자표기에 사용된 문법요소 ‘內’의 독법과 기능에 대하여, 제54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32.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2013), 《구역인왕경(上)》의 역주에 대하여, 『제46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40.
- Bybee, J. L., R. Perkins, &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 (1976), *Aspect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 Ö.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Oxford: Basil Blackwell.
- Dahl, Ö. (1995), The Marking of the Episodic/Generic Distinction in Tense-aspect Systems. In G. Carlson and F. J.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Second Edition)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 연결어미 ‘-ㅁ’의 의미 변화

: 대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이강혁(서울대)

## 1. 들어가며

전기중세 한국어<sup>1)</sup> 대동사 구문<sup>2)</sup>은 약 90여개이며 이 중 약 70여개가 선행절의 연결어미가 ‘-ㅁ’<sup>3)</sup>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연결어미 ‘-ㅁ’에 후행하는 절의 절반 가까이가 대동사 구문을 차지한다. 이런 수치상의 결과는 연결어미 ‘-ㅁ’과 ‘대동사’라는 두 문법 요소 간에 의미적으로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는바, 후행하는 대동사 구문이 선행절의 연결어미 ‘-ㅁ’의 의미적 지표로 작용함을 고려하여 연결어미 ‘-ㅁ’의 의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표적 선행연구인 최소영(2008)의 주장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위에서 언급한 전기중세 한국어의 ‘-ㅁ’에 후행하는 대동사 구문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연결어미 ‘-ㅁ’ 그리고 이의 후대형인 ‘-오디’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확인하고 최소영(2008)의 주장을 재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연결어미 ‘-ㅁ’의 의미 변화에 대한 본 발표문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본 발표문의 결론과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2. 연결어미 ‘-ㅁ’에 후행하는 대동사 구문<sup>4)</sup>

본 장에서는 위에서 문제제기한 바에 대해서 실제로 연결어미 ‘-ㅁ’과 대동사 간에 의미적으로 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대동사 구문은 주로 타동사 구문이며 목적어가 문면에 나타나는 경우와 생략된 경우로 나타난다.

1) 이기문(1998/2001)에 따라 시대 구분을 하였다.

2) 이강혁(2019)에서는 대동사 구문을 ①인용구문 ②의도·목적 구문 ③자·타동사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①과 ②는 구성이 유형화되어 있어 대동사가 취하는 논항이 그리 유동적이지 못하며 해당 구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③은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응하는 대동사 구문으로서 실현되는 논항들이 다양하며 대동사가 대응하는 동사를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기에 대동사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대동사 구문인 ③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3) 자토석독구결에서 ‘-ㅁ’과 ‘-ㅁ’ 사이에 명확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ㅁ’과 ‘-ㅁ’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문증되는 점(황선엽 2002: 195)을 고려하여 본 발표문에서는 편의상 ‘-ㅁ’로 통일하여 적는다. 물론 이 두 어미를 하나의 어미처럼 다루어 수치화 하는 것은 분명 오류로 지적될 부분이다. 이 두 어미가 이후 통합되어 15세기의 어미 ‘-오디’에 이르렀는지도 역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그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발달경로를 잠정적으로 설정하여 해당 어미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므로 본 발표문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한다. 이러한 태도를 비판한 이용(2003)에 대한 의견은 이강혁(2019: 78, 각주 86)을 참고할 수 있다.

4) 본 장은 이강혁(2019)의 4.2.3을 재구성하였다.

(1) 가. 塔乙 遶<sub>ノ</sub>尸ム 三市乙<sub>ソ</sub>太<sub>一</sub> 十<sub>一</sub> 當 願 衆生 勤<sub>レ</sub> 佛道乙 求<sub>ノ</sub>尸ム 心<sub>ヲ</sub> 十 懈歇  
尸 無<sub>レ</sub> 立 <화엄08:10>

(현대어역5): 塔을 오른쪽으로 돌되 세 번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부지런히 佛道を 구하되 마음에 쉬거나 게으름 없으소서)

나. 則 相乙<sub>ニ</sub> 莊嚴<sub>ノ</sub>尸ム 三十二乙<sub>ソ</sub> 非<sub>レ</sub> 分 <화엄12:21>

(현대어역: 곧 相으로 莊嚴하되 三十二相을 (莊嚴)할 것이며)

다. 口<sub>ヲ</sub> 十 常<sub>ニ</sub> 說法<sub>ソ</sub> 白<sub>ラ</sub>尸ム 無義<sub>ソ</sub> 一<sub>ハ</sub> 乙<sub>ソ</sub> 尸 非<sub>多</sub> 心<sub>智</sub> 寂滅<sub>ソ</sub> 下 緣  
無<sub>レ</sub> 照<sub>ソ</sub> 下 乙<sub>分</sub> <구인11:10>

(현대어역: 입에 항상 說法하오되 無義한 것을 하지 아니하시며 心智가 寂滅하시어 緣 없이 照하시며)

(2) 가. {是} 二 如<sub>支</sub> 三乘<sub>乙</sub> 教<sub>乙</sub> 開闡<sub>ソ</sub> 余 廣<sub>ニ</sub> 衆生<sub>乙</sub> 度<sub>二</sub> 尸ム 量<sub>ニ</sub> 無<sub>一</sub> 劫<sub>ヲ</sub> 十<sub>ソ</sub>  
口<sub>分</sub> <화엄14:22>

(현대어역: 이와 같이 三乘의 가르침을 열어 밝혀서 널리 衆生을 건네되 한량 없는 劫에서 하며)

나. 法王<sub>一</sub> 上 無<sub>レ</sub> 人 中<sub>ヲ</sub> 七 樹<sub>ニ</sub> 下 大衆<sub>乙</sub> 覆蓋<sub>ソ</sub> 白<sub>ラ</sub>尸ム 量 無<sub>レ</sub> 光<sub>ニ</sub> 下  
ニ<sub>分</sub> <구인11:09>

(현대어역: 法王은 위가 없어 人中의 樹이시어 大衆을 覆蓋하되 한량 없는 빛으로 하시며)

(1), (2)는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이 연결어미 ‘<sub>ソ</sub>尸ム’로 연결되어 있고 후행절에 대동사가 나타나는 구문이다. (1)은 목적어가 나타나는 타동사 구문, (2)은 목적어가 생략된 타동사 구문이다. 이때 후행절의 대동사 ‘<sub>ソ</sub>’는 모두 선행절의 서술어, 즉 연결어미 ‘<sub>ソ</sub>尸ム’의 용언어간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 상 ‘V<sub>1</sub>-{<sub>ソ</sub>尸ム, <sub>ソ</sub>尸ム} # V<sub>2(대동사)</sub>’에 해당하는 모든 용례를 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이 V<sub>2</sub>가 대동사일 때 해당 대동사는 V<sub>1</sub>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아래와 같이 후행절의 V<sub>2</sub>에 부사가 선행하는 용례까지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無<sub>レ</sub> 二 # <sub>ソ</sub>’

가. 念<sub>尸</sub> 已<sub>ニ</sub> 口<sub>ソ</sub> 一 {之} 二 乙 施<sub>ノ</sub>尸ム 心<sub>ヲ</sub> 十 悔<sub>ノ</sub>尸 所<sub>ヲ</sub> 無<sub>レ</sub> 二 口<sub>ソ</sub> 入<sub>乙</sub>  
{是} 二 乙 名下 內施<sub>ソ</sub> 尸<sub>ナ</sub> 一 <화소11:04-05>

(현대어역: 생각하고 나서는 이를 보<sub>시</sub>하되 마음에 후회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을 이를 일컬어 內施라 하는 것이다)

나. {是} 二 念<sub>乙</sub> 作<sub>ソ</sub>尸 已<sub>ニ</sub> 口<sub>ハ</sub> 一 卽<sub>支</sub> 便<sub>ニ</sub> {之} 二 乙 施<sub>ノ</sub>尸ム 而<sub>ニ</sub> 悔<sub>ソ</sub>尸 所<sub>ヲ</sub>  
三 無<sub>レ</sub> 二 口<sub>ソ</sub> 入<sub>乙</sub> {是} 二 乙 名下 外施<sub>ソ</sub> 尸<sub>ナ</sub> 一 <화소11:14-15>

(현대어역: 이 생각을 하고 나서는 곧 이를 보<sub>시</sub>하되 후회하는 바 없이 하는 것

5) 현대어역은 김성주(2013), 안대현(2013), 황선엽(2013), 이용(2013), 장경준 외(2015)를 참고하여 필자가 논지에 맞게 수정하였다.

을 이를 일컬어 外施라 하는 것이다)

(4) ‘如支 # ㅅ-’

가. 若 妙福端嚴身乙 獲<sub>ヒ</sub>尸入<sub>一</sub> 則 身<sub>リ</sub> 晃耀<sub>ノ</sub>尸ム 金山 如支<sub>ソ</sub>ヒチ<sub>ヲ</sub> <화엄 12:20>

(현대어역: 만약 妙한 福스런 단정하고 엄숙한 몸을 얻으면 곧 몸이 빛나되 金山과 같이 빛날 것이며)

나. 分別 無<sub>キ</sub>{有} 功用 無<sub>キ</sub>ソナ<sub>一</sub> ； {於}一<sub>一</sub> 念<sub>ヒ</sub> 頃<sub>ヒ</sub> ； + 十方 ； + {徧} ； 尸ム<sub>ム</sub><sup>6)</sup> 月光影 如支<sub>ソ</sub> ； 余 <화엄14:17-18>

(현대어역: 分別 없고 功用 없고 하니 한 念의 사이에 十方に 두루하되 달빛 그림자와 같이 두루하여서)

(5) ‘隨<sub>ノ</sub> # ㅅ-’

三者 一切 衆生<sub>リ</sub> 生死 ； + 往還<sub>ノ</sub>尸ム 其 因緣乙 隨<sub>ノ</sub>ソト<sub>ノ</sub>一入<sub>乙</sub> 是 如支 見知<sub>ソ</sub> ； <금광04:22-23>

(현대어역: 셋째, 一切 衆生이 生死에 往還하되 그 인연에 따라 하는 것을 이와 같이 見知하며

(6) ‘故<sub>ノ</sub> # ㅅ-’

五者 理乙 (如) 種<sub>ム</sub> ； {爲} ； 尸ム<sub>キ</sub> 熟<sub>ム</sub> ； {爲} ； 尸ム<sub>キ</sub> 脫<sub>ム</sub> ； {爲} ； 尸ム<sub>キ</sub> ； 是 如支 說法<sub>ノ</sub>尸ム 智力<sub>ム</sub> 故<sub>ノ</sub>ソ尸<sub>矢</sub>ナ<sub>一</sub> ； ； <금광04:23-24>

(현대어역: 다섯째, 理致대로 심게 하고자 하고 成熟하게 하고자 하고 벗어나게 하고자 하고 하여 이와 같이 說法하되 智力 때문에 하는 것이다)

(7) ‘無<sub>キ</sub> # ㅅ-’

生死<sub>リ</sub> ； 涅槃<sub>リ</sub> ； ； 尸ム<sub>入</sub> ； 皆 是<sub>一</sub> 妄見<sub>リ</sub> ； ； 乙 能<sub>分</sub> 度<sub>ノ</sub>尸ム 餘<sub>具</sub> 無<sub>キ</sub>ソ尸<sub>矢</sub> 是 波羅蜜義<sub>リ</sub> ； <금광05:18-19>

(현대어역: 生死이다 涅槃이다 하는 것은 모두 이는 妄見이거늘 능히 濟度하되 남김 없이 하는 것, 이것이 波羅蜜의 뜻이며)

(8) ‘愜<sub>キ</sub> # ㅅ-’

應<sub>ヒ</sub> ； ； 隨<sub>ヒ</sub> ； 普 現<sub>ヒ</sub> ； ； 其 心 ； + 愜<sub>キ</sub> ； ； 色乙 樂<sub>ヒ</sub> ； ； ； 者<sub>カ</sub> ； 乙 皆<sub>ヒ</sub> ； ； 道 ； + 從<sub>ヒ</sub> ； ； 俾<sub>リ</sub> ； ； <화엄18:05>

(현대어역: 마땅함을 좇아 널리 나타내되 그 마음에 쾌히 하여 色을 즐기는 사람을 다 道로부터 따르게 하며)

아울러 위의 (3)-(8)에서 확인할 수 있는 ‘V<sub>1</sub>-{ㅅㅅム, ㅅㅅム} # 부사어 # V<sub>2</sub>(대동사)’ 구문과

6) 박진호(1998: 194)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마다’는 처격조사 뒤에 오는 일이 없는 데에 비해, 고대 국어에서는 ‘마다’가 처격조사 뒤에 오는 일이 많음을 지적하고 ‘마다’는 본래 조사가 아니며 ‘마다’와 ‘히-’가 결합되어 합성 용언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 발표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며 이에 맞추어 ‘두루하다’로 현대어역을 옮겼다.

관련하여 이미 이현희(1994: 84)에서 후기중세 한국어의 용례를 통해 지적한 바가 있다.

(9) 이현희(1994: 84)의 예문

가. 더 久遠을 보샤<sup>ㄷ</sup>디 오늘 ㄱ티 ㅎ시니 <월석 14:10>

나. 三業을 니소<sup>ㄷ</sup>디 大悲로 ㅎ샤<sup>ㄷ</sup>몬(繼三業以大悲) <법화 5:5>

다. 智를 도보<sup>ㄷ</sup>디 慈로 ㅎ며 <월석 11:24>

라. 長者ㅣ 말썽물 ㅎ<sup>ㄷ</sup>디 상네 우셔 ㅎ야 <월석 23:72>

마. 四面에 各各 靑幡 닐굽곰 드로<sup>ㄷ</sup>디 기리 ㅎ 丈이에 ㅎ고 <월석 10:119>

이현희(1994: 84)에서는 ‘부사어 # ㅎ-’의 구조는 그 앞에 동명사 구성의 목적어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연결어미 ‘-오디’에 통합된 선행문을 요구하기도 함을 언급하며 이때 요구되는 ‘-오디’는 [전제] 표현을 담고있다고 하였다. 또한 (9)과 같이 ‘-오디’에 통합되는 서술어는 동사에 한정되며 (9)의 ‘ㅎ-’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디’에 통합되어 있는 동사의 대동사임을 지적하였다.<sup>7)</sup>

아래의 (10)은 모두 2음절 부사어에 대동사 ‘-’가 후행한 용례이다. 마찬가지로 (19)의 대동사 ‘-’는 선행절 ‘-’의 용언 어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10) 가. 其 說法<sup>ㄴ</sup>나<sup>ㄴ</sup>七 時<sup>ㄴ</sup>十<sup>ㄴ</sup> 廣長舌<sup>ㄴ</sup>乙 以<sup>ㄴ</sup> 妙音聲<sup>ㄴ</sup>乙 出<sup>ㄴ</sup><sup>ㄴ</sup> 十方<sup>ㄴ</sup>七 一切 世界<sup>ㄴ</sup> 十<sup>ㄴ</sup> 充滿<sup>ㄴ</sup><sup>ㄴ</sup>나<sup>ㄴ</sup> 十<sup>ㄴ</sup> <화소25:16-17>

(현대어역: 그 설법할 때에는 광장설을 써 묘음성을 내<sup>ㄷ</sup>되 시방의 일체 세계에 충만히 하여)

나. 三者 大慈大悲<sup>ㄴ</sup> 入出<sup>ㄴ</sup><sup>ㄴ</sup> 自在<sup>ㄴ</sup><sup>ㄴ</sup>나<sup>ㄴ</sup> <금광04:07-08>

(현대어역: 셋째 大慈大悲로 入出하<sup>ㄷ</sup>되 自在히 하<sup>ㄷ</sup>며)

다. {於}花池所<sup>ㄴ</sup> 十<sup>ㄴ</sup> 自<sup>ㄴ</sup> 身<sup>ㄴ</sup> 遊戲快樂<sup>ㄴ</sup><sup>ㄴ</sup> 淸淨 淸涼 無比<sup>ㄴ</sup><sup>ㄴ</sup>나<sup>ㄴ</sup> 十<sup>ㄴ</sup> 入<sup>ㄴ</sup> 乙 菩薩 十<sup>ㄴ</sup> 悉<sup>ㄴ</sup> 見<sup>ㄴ</sup>나<sup>ㄴ</sup>나<sup>ㄴ</sup> 十<sup>ㄴ</sup> <금광06:11-12>

(현대어역: 花池所에서 自身이 遊戲快樂하<sup>ㄷ</sup>되 淸淨 淸涼 無比하게 하는 것을 품

7) 이와 관련하여 이현희(1994: 83-92)에서는 ‘V<sub>1</sub>-오디 … V<sub>2</sub>’의 구조가 ‘V<sub>1</sub>-{오몰, 오매} … V<sub>2</sub>’로도, 혹은 ‘V<sub>1</sub>-{오미, 오매} … V<sub>2</sub>’로도 고쳐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더 나아가 ‘V<sub>1</sub>-오디 # 부사어 # V<sub>2</sub>대동사’의 구조에서 ‘-오디’가 ‘-오몰’로도, ‘-오매’로도 심지어 ‘-오미’로도 대체될 수 있는 사실은 지적하며 이것을 대치의 원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부사어 # V<sub>2</sub>대동사’ 구조가 선행절로 ‘V<sub>1</sub>-오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오몰’, ‘-오매’, ‘-오미’ 따위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본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사어 # 대동사’ 구조는 선행 요소로 대부분 ‘V-’를 요구하며 후기중세 한국어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후대로 갈수록 ‘부사어 # 대동사’ 구성이 더욱 긴밀해졌기 때문에 선행요소로 ‘-오디’ 구조뿐만 아니라 ‘-오매, -오몰, -오미’와 같은 명사 상당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연결어미 ‘-’의 의미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 문법 현상에 대하여 어느 한 쪽, 한 부분만이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오로지 ‘V<sub>1</sub>-’ # 부사어 # V<sub>2</sub>대동사’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 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V<sub>1</sub>-오디 # 부사어 # V<sub>2</sub>대동사’ 뿐만 아니라 ‘-오디’의 자리에 ‘-오매, -오몰, -오미’ 등도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은 연결어미 ‘-’가 통시적으로 ‘-오디’까지 오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현희(1994)에서 언급한 대치의 원리가 가능한 것은 ‘부사어 # 대동사’의 구조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오디’의 통시적인 요인 또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동사 구문에 선행하는 요소가 전기중세 한국어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대다수가 ‘-’ 구문인 것에 비하여 후기중세 한국어, 나아가 근대 한국어에까지 이르게 되면 대동사 구문에 선행하는 요소가 ‘-오디’와 대체되는 다양한 명사 상당구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결어미 또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연결어미 ‘-’가 ‘-오디’로 오면서 상당한 의미 축소가 일어났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상술하겠다.

薩은 다 본다)

이처럼 다소 많은 대동사 구문이 연결어미 ‘-ㅁ’ 구성의 절에 후행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지면 상 ‘-ㅁ’ 구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지만 ‘-ㅁ’ 구문 중에 대동사가 포함된 구문은 전체 158개 중 약 70개, 절반 가까이 되는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본 발표문에서 살펴본 대동사 구문은 총 90여개이며 이 중 약 70개가 ‘-ㅁ’ 구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전체 대동사 구문 중 80% 가까이가 선행절의 연결어미로 ‘-ㅁ’를 취했으며 또한 반대로 전체 ‘-ㅁ’ 구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대동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상의 결과는 연결어미 ‘-ㅁ’와 ‘대동사’라는 두 문법 요소 간에 의미적으로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 확인한 의미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ㅁ’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3. 연결어미 ‘-ㅁ’ 의미 변화

#### 3.1. 의미 변화 과정 검토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연결어미 ‘-ㅁ’와 대동사 간에는 의미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는 연결어미 ‘-ㅁ’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연결어미는 후기중세 한국어의 ‘-오디’로 발달하고<sup>8)</sup>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허웅(1975) : 설명; 앞의 말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나가거나 인용을 나타내는 이음법

이기문(1998) : 양보

권재일(1985) : 상대(선행문과 후행문이 서로 대비 혹은 대조됨)

안병희·이광호(1990) : 양보/설명

이현희(1994) : 전제/발견/역접/의미단락 완결

최소영(2008) : 상황 설정(후행문에 오는 내용이 기델 문맥적 바탕을 선행문에서 제한함)

이중 최소영(2008)의 정의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되며 이는 이현희(1994)의 분류와 서정수(2006)의 ‘상황 접속소’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의미론이라 할 수 있다. 즉 최소영(2008)에서 정의한 의미를 고려한다면 해당 연결어미와 후행절에 오는 대동사와의 의미적 관련성은 더욱더 높아진다. 다시 말해 당시 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대동사’라는 문법 요소가 연결어미 ‘-ㅁ’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의 의미적 지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지표는 후기중세 한국어인 15·16세기 한글자료로 넘어오면서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본 발표문의 주된 목표는 해당 연결어미의 통시적 형태 변화가 아니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통시적 형태 변화에 대해서는 전정례(2000), 황선엽(2002), 이용(2003)를 참조할 수 있다.

[15세기]

(1) ‘-오더’

海神이 또 브티습다가 몬<sup>ᄃᆞ</sup>야놀 모다 닐오더 如來 므스 因緣을 몬<sup>ᄃᆞ</sup>차 이러<sup>ᄃᆞ</sup>거시노  
호더니 <석상 23:38>

(2) ‘-씩’

부테 金剛定에 드르실씩 이 나모 아래를 金剛座 | 라 호느니 <석상 3:41>

(3) ‘-니’

가. 衆生 歸依<sup>ᄃᆞ</sup> 싸히니 우리 너희와 호야 브즈러니 精進<sup>ᄃᆞ</sup>호야 佛寶 法寶로 衆生을 濟  
渡<sup>ᄃᆞ</sup>호야 <석상 23:21>

나. 이리 水災<sup>ᄃᆞ</sup> 後에 다시 火災 여릅 번짜히사 또 水災호리니 이리곰 水災호몰 여릅  
번 호면 三禪天에서 브르미 니러 <월석 1:50>

(4) ‘-아/어’

가. 부터 니르산 야호로 轉輪王<sup>ᄃᆞ</sup> 法을 브터 호라 <석상 23:23>

나. 太子 | 가 公事를 甚히 잘 호더라 <석상 24:50>

(5) ‘-거늘’

이제 모미 굿디 몬<sup>ᄃᆞ</sup>샷다 호거늘 그저기 一切衆生喜見菩薩이 大衆 中에 盟誓를 호야  
<석상 20:19>

(6) ‘-며’

가. 七寶蓮花 | 비호며 百千 하늘 품뵈 절로 호더니 <석상 20:41>

나. 衆生 敎化<sup>ᄃᆞ</sup>샤디 잇봄 업스시며 또 諸 衆生은 敎化 받즈오몰 쉬이 호느니잇가 아  
니잇가 <법화 5:92>

(7) ‘-고’

어르미 스뵈 비취논 고들 보고 瑠璃想을 호야 이 想이 일면 <월석 8:6>

대동사는 선행절의 연결어미와 긴밀한 의미적 상관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올 수 있는 문법 요소인 것이다. 15세기로 넘어오면서 ‘-오더’와 대동사 구문은 (1)과 같이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와 동일한 구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에 선행절의 연결어미는 압도적으로 ‘-오더’의 소급형인 ‘-ᄃᆞ’가 대다수였던 반면, (2)-(7)과 같이 다양한 연결어미와 호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새로이 발달한 (2)-(7)의 연결어미들이 후행절에 대동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구문의 유사성을 토대로 기존 전기중세 한국어 연결어미 ‘-ᄃᆞ’의 의미가 (2)-(7)의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들은 기존의 ‘-ᄃᆞ’에서 의미가 분화되어 발달한 연결어미라고

하면 다소 비약일 것이다. 하지만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 ‘-오되’의 의미보다 후기중세 한국어 ‘-오되’의 의미가 축소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다. 선행절의 연결어미와 의미적으로 긴밀함을 보이는 문법 요소인 대동사가 당시 전기중세 한국어에서는 대동사 구문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의미적 비중을 가졌으나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그 이전과 같이 ‘-오되’ 구문에서만 대동사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여러 연결어미와도 상당수 공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동사와 연결어미의 양상은 16세기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8) -오되

상넷 말소매 닐오되 당상 도죽 믈스물 막고 늑미 갓 도죽 말라 흐나니 <飜老上34a>

(9) -면

벼개와 돛과를 부체 붓고 겨스리면 제 모뎀로 니브를 드시 흐더니 <三綱련던孝9>

(10) -고

어딘 이를 보고 내게서 나는 듯시 흐며 사오나온 이를 보고 내게 병ㄴ티 홀디니 <飜小8:17>

(11) -아

너는 불티 여췌 양 치는 오랑캐어늘 턴지 너를 쓰샤 삼도 절도스를 흐이샤 은혜와 영통이 가줄빌 디 업스니 <三綱동경忠13>

16세기의 경우도 15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로써 ‘-오되’는 그 당시에 비해 상당한 의미 축소를 경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구문과 통사적으로 동일한 구성인 (1), (8)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화법동사에 대한 대동사로 대응하는 구문만이 문증된다. 이 역시도 ‘-오되’와 대동사가 다양한 동사 및 구문과 호응했던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와 비교한다면 후기중세 한국어의 ‘-오되’로 오면서 겪은 의미 축소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결어미 ‘-오되’에 대해 전기중세 한국어부터 현대 한국어까지의 의미 변화를 유일하게 다룬 최소영(2008)에서는 본 발표문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전기중세 한국어에서 후기중세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오되’의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는 해당 연구의 의미 설정 단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sup>9)</sup>

9) 연결어미 ‘-오되’에 대해서는 주로 공식적인 의미나 후기중세 한국어까지의 형태적 변화 및 발달 과정을 다루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최소영(2008)은 해당 연결어미에 대하여 전기중세 한국어부터 현대 한국어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통시적으로 문법론적·의미론적 천착을 시도한 유일한 선행연구이다. 그러나 그 통시적 의미 변화 기술에서 근대 한국어부터 현대 한국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해당 연결어미의 의미가 축소한다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나 전기중세 한국어에서 후기중세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고민에서 본 장의 내용이 시작되었다. 의미변화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연구이기에 본 발표문의 주장을 공고히 하고자 본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검토하도록 하겠다.

### 3.2. 최소영(2008)에 대한 재검토 및 대안 제시

우선 최소영(2008)의 ‘-오디’에 대한 의미 설정은 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합리적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황 설정’이라는 의미를 15세기 문형에 맞춰 세분한 것이 그 첫 번째 오류라 할 수 있다. ‘상황 설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1) 최소영(2008: 50-51)의 상황 설정 분류

가. 설명적 상황 설정 : 후행문에 선행문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오도록 하는 설정

나. 대조적 상황 설정 : 후행문에 선행문과 대조적인 상황이 오도록 하는 설정

다. 인용 상황 설정 : 후행문에 피인용문이 오도록 하는 설정

이는 후기중세 한국어 ‘-오되’ 구문을 토대로 분류한 것이다. (1가)와 (1나)의 분류는 기본 의미인 ‘상황 설정’에 다소 부합한다고 판단되나 (1다)의 경우는 ‘인용’이라는 것이 ‘구체적’ 혹은 ‘대조적’인 상황이 아닐뿐더러 (1가-나)와 동일한 층위의 분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인용문’이라는 문형에 이끌린 정의이므로 지나치게 형식적인 요소에 얽매인 분류라고 생각된다. 또한 의미론적으로 보아도 (1다)의 상황설정이 (1가)의 상황설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sup>10)</sup>

필자의 추측으로는 15세기 ‘-오되’ 후행절의 대부분이 ‘인용문’을 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인용 상황 설정’이라는 의미를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15세기 문형에 기댄 의미 분류를 바탕으로 그 이전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연히 후기중세 한국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전기중세 한국어의 ‘-소푸ム’의 의미 파악에 대해서 부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sup>11)</sup> 衆生→ 相乙 思惟ソ白ノ尸ム 一切 種 皆七 無ソナリヲ七上ソニ尸ム <금광13:12>

(현대어역: 衆生の 相을 思惟하시되 “一切 種이 모두 없다.” 하시나)

최소영(2008)에서는 (1)의 ‘상황 설정’ 분류를 토대로 전기중세 한국어의 ‘-소푸ム’를 분석한 결과 (1가)와 (1나)와 같은 의미는 포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다)의 ‘인용 상황 설정’에 해당하는 ‘-소푸ム’는 (2)와 같은 인용 구문의 경우가 유일례이며 더 이상 문증되지 않는다 하였고 이에 따라 인용 구문이 다수 문증되는 후기중세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해당 의미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기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문형의 여부로 해당 문법형태소의 의미를 세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두 번째 오류는 유일례라고 언급한 위의 (2) 이외에도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에서 인용구문은 상당 수 문증된다는 점이다.

#### (3) 가. 其 有七ナ 所乙 隨ソ 一切之七 皆七 捨ノ尸ム 乃ソニ 盡命ソ尸矢十 至リソ乃 亦ソ ナ 悵ノ尸 所ヲ 無七リソニ應セソナリヲ七上ソナセ七ナ <화소10:11-13>

10) 이러한 지적과 같이 이미 최소영(2008: 53)에서 ‘설명적 상황 설정’과 ‘인용 상황 설정’ 간 다소 의미 중복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11) 현대어역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현대어역: 그 가진 바를 따라 모두 버리되 “이에서 목숨을 다함에 이르러도 또 한 아끼는 바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한다)

4. 善男子 } 菩薩 七地 } +7 是 相 前現ノ尸ム 左邊ニ 右邊ニノ今ナシ } 地獄 } +  
墮 應セシホリシセニ <금광06:12-06:15>

(현대어역: 선남자여, 보살의 칠지에서는 이 모습이 전현하되 “좌변이니 우변이니 하는 곳에서 地獄에 마땅히 떨어진다.” 하는데)

4. 又 正七 了知<sub>レ</sub><sub>3</sub> 尔 而<sub>レ</sub> {爲}受用<sub>ノ</sub>ム 謂<sub>1</sub> 是 如<sub>支</sub> 等<sub>レ</sub><sub>1</sub> 諸 資生具<sub>1</sub> 但  
 ハ 身乙 治<sub>レ</sub><sub>3</sub> 尔 敗壞尸 不<sub>レ</sub>令<sub>レ</sub>リ<sub>3</sub> 暫七 飢渴乙 止<sub>3</sub> 尔 梵行乙 攝受<sub>レ</sub>き  
<sub>レ</sub>{爲}ム<sub>ノ</sub>ヲ<sub>1</sub>リ<sub>3</sub>七<sub>1</sub>ンカ <유가19:13-15>

(현대어역: 또 올바르게 알아서 수용하되 말하자면 “이와 같은 등의 여러 생활도 구는 단지 몸을 다스려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잠시 굶주림을 멈추어서 범행을 접수하고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며

(3)은 최소영(2008: 85, 각주 42)에서 유일레라고 했던 (2)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문장이다. 이처럼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에도 ‘인용 상황 설정’에 해당하는 용례가 상당 수 등장하기에 설령 최소영(2008)의 의미 분류를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에 비하여 후기중세 한국어 시기에 해당 연결어미의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 오류는 의미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문형’은 15세기 문헌의 전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기에 온전히 해당 선행절 연결어미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15세기 문헌의 대부분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으며 문헌 종류의 대다수는 불교 경전이고 불경에는 문헌의 특성상 많은 인용문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15세기 대부분의 문헌인 불경은 당시 언중들의 언어가 아닌 궁중의 정제된 언어이고 문헌의 특성상 인용문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15세기에 들어 인용문이 많이 등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토대로 해당 선행절의 어미의 의미가 확장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미론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정 문헌의 전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인 문형을 기준으로 문법형태소의 의미를 정의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15세기 문헌은 간경도감의 정제된 언어로 만들어진 불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당 연결어미의 의미를 파악할 때, 당시 문헌의 전형성에 덜 영향을 받는 요소 혹은 문형보다 더 작은 단위인 문장 성분이나 문법 형태소와 같은 요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즉 본 발표문의 대동사와 같은 요소가 문형보다 당대의 문헌의 전형성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선행절 연결어미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후행절에 등장하는 대동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불교문헌이면 인용문이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기도 하며, 반대로 불교 경전이라고 하여 대동사가 많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헌의 전형성이 문형에 끼치는 영향은 단연 불교 경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5) 가. 돌기얹 누른 것 만케 비비여 값간 시버 벅이 솜쇼디 느리디 아니커든 다시 흐라  
 <구급방 삼52>

나. 陰陽이 調和하며 邊境이 卒卒한 後에야 그뵈 行하라 <內訓 2:50>

다. 주근 사르미 베클 그 우희 업터 머리를 드리워 프리 나게 흐라 &lt;救簡 1:68&gt;

라. 썰리 부러 머릿 골슈에 들에 흐라 누네 높므리 나면 도흐리라 <救簡 2:2>

- 마. 시속을 조차 옥식 툄링과 각씩를 흐라 <여씨향약언해 27>  
 바. 물읏 몽상 니븐 집은 수을 밥과 옷 ㄱ외 ㄱ초와 도문흐라 <여씨향약언해 28>  
 사. 서르 위곡흐야 화목흐기를 힘써 흐라 <경민중 9>  
 아. 해로오몰 헤아려 힘써 데적흐라 <경민중 14>

위와 같이 교화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문헌들에서는 ‘명령문’이 많이 나타남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대동사가 많이 나타남은 생각하기 어렵다. 대동사는 해당 문헌의 전형성에 영향을 받는다고보다는 대동사가 속해있는 문장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행절에 어떤 연결어미가 오는지 어떤 부사가 오는지 등이 후행절에 대동사가 등장하는 문법적·의미적 현상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하면 후행절에 등장하는 문형을 통해 해당 선행절 연결어미의 의미범주를 파악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기준에 이끌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어미 ‘-오디’에 대하여 전기중세 한국어에 비하여 후기중세 한국어에서 ‘인용 상황 설정’의 의미 확대되었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해당 연결어미의 의미는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최소영(2008)의 ‘-오디’ 의미 변화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오류 역시 절대적인 논거라기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은 사실을 조금 뒷받침해줄 뿐이다. 이에 따라 본고의 시각을 최소영(2008)과 대비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오디’의 의미 변화에 대한 본고의 시각(최소영 2008과 대비)

| 시기<br>시각  | 전기<br>중세<br>한국어 | 후기<br>중세<br>한국어 | 근대<br>한국어                                                                                                | 현대<br>한국어 | 비고                                                                                                  |
|-----------|-----------------|-----------------|----------------------------------------------------------------------------------------------------------|-----------|-----------------------------------------------------------------------------------------------------|
| 최소영(2008) | 의미 확대           |                 | 의미 축소                                                                                                    |           | 해당 어미의 의미를 ‘상황 설정’으로 정의하고 후행문의 상황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 ‘인용 상황 설정’에 대하여 후기중세 한국어 시기에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고 파악함 |
| 본고의 대안    | 의미 축소           |                 | 해당 어미의 후행절에 등장하는 대동사를 의미의 지표로 삼아 시기별로 해당 대동사 구문이 감소되고 선행절 연결어미가 다양한 어미로 대체됨에 따라 선행절 어미의 의미 축소가 일어났다고 파악함 |           |                                                                                                     |

## 4. 나오며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의 대동사 구문에 대해 대동사가 포함되어있는 절의 선행절 연결어미의 대부분이 ‘-으ㅂㅅ’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연결어미 ‘-으ㅂㅅ’와 대동사 구문 간에 긴밀한 의미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ㅂㅅ’의 의미적 지표를 후행하는 대동사 구문으로 고려하여 후기중세 한국어 시기로 올수록 점차 해당 구문의 양상이 줄어들고 선행절의 연결어미가 다른 다양한 연결어미로 대체되는 현상을 통해 후기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해당 연결어미의 의미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발표문의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기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현대 한국어 시기까지 해당 연결어미의 의미적 변화를 유일하게 다룬 선행연구인 최소영(2008)을 재검토하였다. 그러나 해당 논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일 뿐 새로운 주장을 정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재일(1985), 중세 한국어 접속문 연구, 김한방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역사언어학』, 전예원.
- 김성주(2013), 주본화엄경 권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원.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서정수(2006), 수정삼판 『국어문법』, 한세본.
- 안대현(2013), 『華嚴經疏』 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강혁(2019), 전기중세 한국어 ‘(-)ㅎ-’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1998/2001),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 용(2003), 『연결어미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 이 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이현희(1986), 중세 국어 내적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전정례(2000), ‘-온터/-올터 > -오터’ 연구,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 최소영(2008), 연결어미 ‘-오터’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 황선엽(2013),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 허 용(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기획 주제 발표>

제1부



# 고대국어 종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최성규(서울시립대)

##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대국어 종결어미 연구를 두루 모아 살펴보고, 앞으로 탐구할 것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선, 이 글에서 다루는 ‘고대국어’의 범위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포함한다. 이는 국립국어연구원 편(1998)의 방식과 거의 같다.<sup>1)</sup> 다만, 고려말 조선초에 작성된 음독구결 자료의 내용은 15세기 국어(중세국어)와 가깝다고 보아 제외한다.

고대국어 문장은 명사문 성격이 강해서 종결어미보다는 종결조사라고 할 것들이 많다. 여기서의 조사로 보일 것들은 원칙상 배제하거나 간략하게만 다룬다. 그 대표가 조사 ‘: / > (여)’이다. 그러나 의문문에서는 문장종결법 체계를 고려하여 조사 ‘가, 고’를 포함하였다. 그 밖에 의존명사와 종결조사 등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미구조체도 있는데, 여기서는 되도록 결합형보다 단일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다만, 15세기 이후에 하나의 어미로 융합하는 경우 등등은 논의에 포함하기도 했다. 논의 과정에서 종결어미와 종결조사를 아울러 가리킬 때에는 ‘종결형태’라는 말을 썼다.

학교 문법에서는 문장종결법 체계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으로 나눈다. 이 글에서도 대체로는 이를 따랐다. 다만 청유형의 경우는 조금 달리 처리하고자 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齊/ᄃᆞ(저)’인데 이 글에서는 기원/원망(願望)’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었다. 자세한 것은 본론 2.2.2.4.에서 살펴볼 것이다.

종결어미 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자높임법과 관련지어 등급 구분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높임법 문제를 별도의 범주로 보고 논의하지 않는다.<sup>2)</sup>

## 2. 삼국·남북국 시대

이 시기의 자료는 국어 형태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다. 희미하게 남은 붓자국을 글자로 읽어내는 것도 까다롭거니와, 한자를 빌려 적었던 당대의 자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정통 중국식 한문인지 우리말 방식으로 변형된 것인지(속한문 또는 변체 한문이라고도 한다)를 가르기도 쉽지 않다. 보통은 정통 중국식 문법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를 우리말의 요소로 다루곤 한다.<sup>3)</sup> 여기서는 국어의 종결어미로 거론되었던 대상을 두루 소개

1) 근래 나온 홍종선(2017:18~21)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신라가 멸망할 무렵까지를 고대국어로, 고려시대를 중고국어로, 조선 전기를 중세국어로 나누기도 했다.

2)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 국어의 종결어미를 다룬 장윤희(2002:45~49)에서는, 선어말어미가 청자높임법을 나타낸다고 보고, 종결어미는 청자높임과 무관하다고 처리하였다.

3) 중국 문헌 자료에 있기는 있는데 드물거나 특이한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보통은 연구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처리하는 편을 권장하므로, 한국어 연구자라면 해당 자료를 한국어 연구 대상에서 배

하되, 비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또한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 2.1. 고구려·백제

고구려의 언어자료 중에서 종결어미로 거론된 것은 다음과 같다.

- (1)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광개토왕비 4면 마지막>
- (2) a. 如兄如弟 上下相和守天 東來之 寐錦 忌太子共 <중원고구려비 3면 1~2행>  
 b. 建立處 用者 賜之 <중원고구려비 3면 4~5행>  
 c. 諸位 上下衣服(來) 受教 跪營之 <중원고구려비 3면 7행>
- (3) 自此 西北行 涉之 <평양성석각 제4석>

이 중에서 (1)의 ‘之’는 이기문(1981)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종결어미로 보고 있으며, 의견차가 거의 없다. (2)는 중원고구려비의 예문인데, 김영옥(2007)에서는 셋 모두를 종결어미로 보았다. 그러나 (2a)의 경우 남풍현(2000.12)에서는 ‘東夷之 寐錦’으로 해독을 달리하였고, 이곳의 ‘之’는 정통 한문 용법 ‘…의’로 풀이하였다. (2b)의 경우 남풍현(2000.12)에서는 ‘之’가 타동사 뒤에 놓여 있으므로 정통 한문 용법인 ‘그것’으로 풀이하였으나, 이승재(2000.12)에서는 종결어미로 보았다. (2c)의 ‘之’는 별다른 의견차 없이 종결어미로 보고 있다. (3)의 경우 ‘之’가 타동사 뒤에 있기는 하나 문맥상 ‘涉’의 목적어라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남풍현(2005)에서는 종결어미로 보았다.

고구려 언어자료 전체에서 국어의 종결어미와 관련되는 것은 위에 보인 것이 전부이다. 그 중에서 논란이 적은 것은 (1), (2c), (3)의 세 가지이다. 이곳의 ‘之’는 신라 또는 고려의 독법을 참조하여 ‘-다’로 읽는다.<sup>4)</sup>

백제어는 우리말 문장을 보여주는 자료가 드물다. 관련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4) 書亦 從此法 爲之 <능산리사지 301번 목간>
- (5) 大夫人分 二百卅主耳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
- (6) 梁官瓦爲師矣 <공주 송산리 양관와위사의 벽돌>
- (7) a. 其身者 如黑也 <능산리사지 305번 목간>  
 b. 凡六口五方 又行之也 <능산리사지 301번 목간>

(4)의 ‘之’는 앞서 고구려 언어자료에서 본 것과 비슷하다. 이승재(2013:22~23)에서는 이곳의 ‘之’를 종결형태로 설명하였으나, 한국 고유의 용법 여부보다는 ‘之’와 ‘也’의 기능 차이에 치중하고 있다. 정통 한문에서도 ‘爲之’가 나타나므로, 국어의 종결어미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정재영(2003), 권인한(2006)에서는 (5)의 ‘耳’를 문장종결사로 보면서 영일냉수리비의 ‘耳’를 관련 사례로 들었다. 물론 정통 한문에서도 ‘耳’가 문장종결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권인

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소수 사례를 근거로 온갖 것이 다 중국어 안에서 비롯되었다고 처리하는 것 또한 온당치 않을 수 있다. 당시 중국어의 일반 현상이 아니라면, 당시 중국인의 직관에도 어딘가 어색하거나 유표적인(marked)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통 한문에서도 ‘之’가 문장 종결 기능으로 쓰인 바가 있다(남풍현 2005:17, 이승재 2013:22 참조).

한(2006)에서는 ‘耳’ 바로 앞의 ‘主’가 단위명사로 보이는 등 (5)의 문장 전반이 정통 한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어 형태소를 표기한다고 보았다. 다만 두 논저 모두 ‘耳’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밝히지는 않았다.<sup>5)</sup>

(6)의 ‘矣’는 정재영(2003)에서 평양성석각 제2석의 ‘矣’와 함께 묶어 문장종결사로 보았다.<sup>6)</sup> 그러나 ‘矣’는 정통 한문에서도 자주 쓰이는 종결형태인데, 국어의 문법형태로 볼 만한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7a)의 ‘也’를 김영옥(2007)에서는 “文法形態들의 ‘懸吐方式’”으로 설명하였으므로 국어의 종결형태라고 본 셈이다. 다만 그것이 종결어미인지 종결조사인지, 해독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7b)의 ‘也’는 이승재(2013:22~23)에서 다루었는데, ‘之’보다 더 큰 단위의 종결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어의 종결어미인지 아닌지를 또렷이 가르치는 않았다.

백제의 언어자료 중에서 종결형태로 언급되었던 것은 위에 보인 것이 전부이다. 그 중에서 국어 고유의 형태로 가장 유력한 것은 (5)의 ‘耳’이나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우며, 국어 고유의 형태라고 해도 종결어미보다는 종결보조사 ‘-드녀’에 더 가까워 보인다.

## 2.2. 신라

### 2.2.1. 신라 금석문, 목간

신라의 언어자료는 여러 종류가 전해지고 있으므로, 기록 매체를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하나는 금석문 및 목간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자료이다. 금석문 및 목간 자료에 보이는 것은 ‘之, 如, 耳, 也, 矣, 哉’이다.

#### 2.2.1.1. ‘之’

신라 자료에서 ‘之’가 종결어미로 쓰인 예는 무척 많다.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골라 보이기로 한다.

(10) 并遊友 妹 麗德光妙 於史鄒安郎 主之 <울주천전리각석 원명 6~7행>

(11) a. □□□許利之 <단양적성비 8행>

b. □者 更赤城烟 去使之 <단양적성비 10행>

c. 赤城 佃舍 法爲之 <단양적성비 13행>

d. □□□合五人之 <단양적성비 15행>

e. □□□智大塢之 <단양적성비 마지막>

(12) a. 周了 成內之 <화엄경사경조성기 1축 1행>

b. 作作處中 進在之 <화엄경사경조성기 1축 7~8행>

(10)의 ‘之’는 남풍현(2005:16~17)에서 ‘-다’로 해독하였다. 5세기 초반 자료에 이미 종결어미로 쓰인 ‘之’가 나타난다. (11)의 예는 남풍현(2000:107~108)에서 종결어미 ‘-다’로 해독

5) 남풍현(2000:75)에서는 영일냉수리비의 ‘耳’를 15세기의 ‘-드녀’와 대응시켜 보았다. 아래 2.2.1.3. 참조.

6) 논저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百頭 上位使 余丈 作節矣” <평양성석각 제3석>에도 ‘矣’가 보인다.

한 것들이다. 남풍현(2000:118)에서는 “이들이 모두 국어로 읽히는 본격적인 이두의 형태를 보여주진 않지만 국어적인 뜻이나 기능이 가해져서 쓰였음은 분명하여 후대의 이두로 발달해 가는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하였다.

(12)의 예는 다른 문법형태와 함께 쓰였으므로 ‘之’를 국어의 문법형태로 결론짓는 중요 근거가 된다. ‘內’를 어떻게 읽을지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나, 적어도 정통 한문 용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은 통설로 자리를 잡았다. ‘在’는 우리말의 ‘(-)겨-’로 해독된다. ‘內’와 ‘在’ 외에 다른 문법형태와 붙은 ‘之’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4) 殂鐵十之 <성산산성 281번 목간>

(15) a. 村主敬白之 <성산산성 221번 목간 1면>

b. 口口禱<sup>?</sup>成<sup>?</sup>行<sup>?</sup>之 <성산산성 221번 목간 1면>

c. 卒日始<sup>?</sup>之 <성산산성 221번 목간 4면>

(16) a. 大鳥知郎 足下 万人 白一 <월성해자 목간 149번 1면>

b. 牒垂賜教在之 <월성해자 목간 149번 3면>

(14~16)은 모두 목간 자료에 나타난 것인데, 성산산성 목간은 6세기 중반 자료로, 월성해자 목간은 6~7세기 자료로 보인다. (14)의 ‘之’는 김영옥(2008:174, 184)에서 신라 초기 이두의 사례로 설명되었다. (15)의 ‘之’는 이승재(2013)에서 다루고 있으나, 그 논문에서는 “한국 고유의 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라는 말을 붙여 두고 있다. 판독도 불확실한 예이므로 판단 근거로 삼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16a)의 ‘一’는 김영옥(2007:179~181), 정재영(2008:96)에서 ‘之’의 초서체로 보고, 종결어미 ‘-다’로 해독하였다. (16b)에는 다른 문법형태들과 함께 나타나므로 ‘之’를 국어의 문법형태로 결론짓는 중요 근거가 된다. ‘賜’는 ‘-시-’로, ‘在’는 ‘(-)겨-’로 읽는다.

(17) 喙部 博士 于時教之 若此者 <울진봉평비 10행>

(18) 成賜乎 經之 成內法者 <화엄경사경조성기 1축 3행>

(17, 18)은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차가 있는 경우이다. (17)의 ‘之’는 남풍현(2000:102)에서 이두 성격을 지닌 어말의 어기사로 보았다. 이 의견을 따른다면 신라 자료 가운데 종결어미 ‘-다’를 적은 최초의 자료이다. 그러나 강종훈(2009:28)에서는 이 부분을 “...혜부의 박사이다. 이때 敎하기를 ‘만일 이번 일과 같이 하는 자는...’”이라고 해독하였다. 역사학자의 논문이므로 ‘之’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之’에서 문장이 끝난다고 보지는 않은 듯하다.

(18)의 ‘之’를 남풍현(2000:214)에서는 속격조사 ‘入’으로 보면서, 신라 이두에서는 처음 나타난 사례라고 하였다. 반면 이승재(1996:340)에서는 종결어미 ‘-다’로 보았다. 역사학계 책인 노명호 외(2000:470)에서는 “...이론 經이다. (經을) 이론 방법은...”이라고 읽었으므로 종결어미로 본 셈이다.

이승재(2008:260~261)에서는 신라 자료의 ‘之’를 ‘-다’로 읽어야 할 근거를 살펴보고 있다. 주요 근거는 문법 기능이 동일한 ‘右如’와 ‘右之’가 같은 시대 자료에 나타난다는 점이며, 그 밖에도 향찰, 이두, 구결, 15세기 한글 자료에서 음가가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2.2.1.2. ‘如’

- (20) 賣如白 貫甲一 <신라촌락문서 겉장 14행>  
 (21) 上仕而 汚去如 <신라공물문서 2행>  
 (22) a. 坐中 昇 經 寫在如 <화엄경사경조성기 1축 14행>  
       b. 一收 舍利 入內如 <화엄경사경조성기 1축 16행>  
 (23) 亦在如契与□□右如 <전인용사지 목간 뒷면 2행>

‘如’는 ‘之’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례를 다 보일 만큼 적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간추려 보인다.

(20)은 “팔았다고 아된 貫甲 하나”로 풀이된다. ‘賣如’는 <신라촌락문서>의 다른 곳에도 두 번 더 나타난다. 이 문서의 작성 연대는 695년으로 추정되므로, (20)은 종결어미를 적은 ‘如’의 최초 용례이다. (21)은 “바쳤으나 더럽혀졌다”로 풀이된다. 남풍현(2000:280)에서는 이곳의 ‘去’를 동사라고 추측하고,<sup>7)</sup> ‘如’는 종결어미 ‘-다’로 보았다. (22)의 ‘如’는 여러 논저에서 종결어미 ‘-다’로 읽었다. 국어의 문법형태를 적은 ‘在’, ‘內’와 함께 나오므로 종결어미로 볼 근거가 더욱 두터워진다.

(23)은 목간에서 찾은 예이다. 김영옥(2011)에서는 (23)에 나타난 ‘如’를 모두 종결어미 ‘-다’로 읽었다. 뒤에 나온 ‘右如’의 경우, ‘右’를 ‘古’의 이체자로 보고 <안민가>, <제망매가>를 참조하여, ‘-고다’로 읽으면서 ‘원망형 어미’로 해석하였다.

남풍현(2000:443)에서는 종결어미 ‘다’를 의존명사 ‘드’와 종결사 ‘아’의 결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자세한 이야기가 더 보이지는 않는다.

## 2.2.1.3. ‘之’, ‘如’ 이외의 표기

- (25) a. 令其得財 教耳 <영일냉수리비 앞면 2행>  
       b. 教其重罪耳 <영일냉수리비 뒷면 1행>

(25)는 ‘耳’가 쓰인 예인데, <영일냉수리비>에서는 이러한 ‘耳’가 네 번이나 나오지만, 그 외 다른 자료에서는 국어의 종결형태와 관련되는 ‘耳’를 찾을 수 없다. 남풍현(2000:75)에서는 15세기의 ‘-드녀’와 대응시켜 보았으나, 한문의 어법에 우리말의 어법이 가미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았으므로, 국어 고유의 형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풍현(2005)에서는 <무령왕릉 출토 은팔찌>(앞 예문 (5) 참조)의 ‘耳’를 근거로, 백제의 용법이 신라에 전달된 결과라고 추측하였다.

- (26) 十一月中 作城也 <명활산성작성비 1행>  
 (27) 妹者 敬信太王 [女+余]在也 <갈항사석탑기 5행>  
 (28) 無上菩提 成內飛也 <규흥사종명>  
 (29) 兜□來昏□□也 <성산산성 221번 목간>

7) 다른 곳에 나타난 ‘去’를 확인법으로 본 경우가 있기는 있다. (남풍현 2000:280 참조)

(26~29)는 ‘也’가 쓰인 예이다. (26)은 정통 한문의 용법에 맞게 쓰인 것이라 국어의 문법 형태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27, 28)은 국어의 다른 문법형태와 함께 쓰였으므로, 정통 한문 문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남풍현(2000:386, 404)에서는 각각 “(姨母)이겨다”, “일이 느다”로 해독했다.

(29)는 신라 목간에 나타난 예이다. 앞서 예문 (7)에서도 다루었듯이 ‘也’는 백제 목간에도 보인다. 이승재(2013:22~23)에서는 ‘也’가 ‘之’보다 더 큰 단위의 종결사라고 설명하였으나, 예문 (29)는 판독되지 않은 글자가 많으므로 판단을 내리기는 조심스럽다.

(30) 敷興寺 鐘 成內<sub>矣</sub> 合入錄 三百五十延 <규흥사종명>

후대의 이두에서 ‘矣’는 주로 연결어미 ‘-디’를 적는 데에 쓰였다. 이두 자료에서 연결어미 ‘矣’는 그 앞에 대개 ‘乎’가 오거나 동사 어간이 오며, 드물게 ‘賜’가 온 예도 있다(이승재 1992:205 참조). 그러나 (30)의 ‘矣’는 그 앞에 ‘內’가 있으며, 문맥상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 쓰였기에 특이해 보인다. 남풍현(2000:401~402)에서는 종결어미 ‘-다’로 읽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31) 後代 追愛人者 此善 助在<sub>哉</sub> <감산사아미타불조상기 19행>

남풍현(2000:425)에서는 (31)의 ‘助在哉’를 ‘돕겨지’로 읽고, 이곳의 ‘哉’를 향가의 ‘齊’, ‘制’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哉’의 기능은 양주동의 견해를 참조하여 단순 평서형이라기보다는 가벼운 청유나 원망(願望)으로 추정하였다.<sup>8)</sup> ‘哉’를 ‘-지’나 ‘-저’로 읽는다면, 신라 금석문-목간 자료 가운데 ‘-다’가 아닌 종결어미로는 유일한 예가 된다.<sup>9)</sup>

## 2.2.2. 신라 향가(삼국유사)

이곳에서는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만 다루기로 한다. 『균여전』의 향가는 고려시대 자료로 보아 3장에서 따로 다루겠다.<sup>10)</sup>

### 2.2.2.1. 평서형 종결어미

신라 향가에서 평서형 종결어미로는 ‘-다’로 읽히는 ‘如’와 ‘多’가 나타난다. 금석문-목간 자료에서는 ‘-다’로 읽을 만한 ‘之’가 많으나, 향가의 ‘之’는 모두 그 뒤에 ‘叱’이 따라 나오므로 종결어미 ‘-다’로 읽을 수 없다.<sup>11)</sup> ‘如’의 용례부터 몇몇 간추려 보이면 아래와 같다.

8) 석독구결의 ‘-ᄃᆞ(저)’처럼 나열 기능을 지닌 ‘哉’도 있다. “右 諸人等 若大小便爲<sub>哉</sub> 若師宿<sub>哉</sub> 若食喫<sub>哉</sub> 爲者 <화엄경사경조상기 6~7> 석독구결에서는 종결어미처럼 보이는 ‘-ᄃᆞ’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3.4.에 나옴) 이두 자료의 ‘哉’ 또한 종결어미와 나열 기능 둘 모두를 보여주어 흥미롭다.

9) 이승재(1992:175)를 따르면 이두의 ‘齊’는 동사어간에 직접 붙으며 선어말어미가 끼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의 ‘在’는 동사로 보는 것이 좋다. 이용(2008:195~196)에서도 ‘在’를 동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0) 박용식(2005)에서는 『삼국유사』 향가가 어휘형태 면에서는 『균여전』 향가보다 앞서나, 문법형태 면에서는 『균여전』 향가보다 더 뒤늦은 모습을 보인다고 정리하였다. 일단 위 본문에서는 그 견해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문제이다.

11) 음독하여 ‘지’로 읽기도 하고 훈독하여 ‘의/익’로 읽기도 하나, 정설이 자리 잡히지는 않았다.

- (35) a. 夜矣 卯乙 抱遣去如 <서동요 4>  
 b. 來如 來如 來如 <풍요 1>  
 (36) a. 道修良 待是古如 <제망매가 10>  
 b. 國惡 大平恨音叱如 <안민가 9>

(35)의 예는 동사 어간 바로 뒤에 붙은 것이다. 향가 연구자 대부분이 이곳의 ‘如’를 ‘-다’로 읽었다.<sup>12)</sup> (35b)의 경우, 이탁(1958:\*\*\* )은 ‘오다’로 해독하되 과거시제 ‘왔다’로 해석했는데, 고영근(2018:432)에서도 부정법-과거시제(aorist)로 보아 ‘왔다’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35a)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35b)의 ‘如’는 명령형 어미로 본 연구자들도 더러 있으나, 여기서는 ‘如’를 평서형 한 가지로 설명하는 편이 낫다고 보아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36)의 예는 선어말어미 뒤에 붙은 것이다. 이곳의 ‘如’ 또한 ‘-다’로 읽으며, 연구자들 사이의 의견차도 거의 없다. (36a)의 ‘古如’는 일찍부터 ‘-고다’로 읽어왔다. (36b)의 ‘音叱如’는 향가 해독 초창기에 15세기 국어의 ‘-이다’와 관련지었으나, 지금은 석독구결의 ‘ㅅㅅ’와 함께 ‘-ㅅㅅ다’로 읽는 것이 통설로 자리 잡았다.

- (37) 彗星也 白反也 人是 有叱多 <해성가 8>  
 (38) 祈以支白屋尸 置內乎多 <도천수대비가 4>

(37, 38)은 ‘多’가 쓰인 예이다. ‘多’의 용례가 ‘如’보다 적기는 하나, ‘-다’로 읽는 데에 별다른 의견차는 없다. (37)은 어간 바로 뒤에 붙어 있고, (38)은 선어말어미 뒤에 붙어 있다. (38)의 ‘-內乎多’는 ‘-느오다’로 읽는 것이 통설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오-’ 뒤에서 ‘-다’가 ‘-라’로 바뀌지만,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ㅅㅅ’, ‘-ㅅㅅ’, ‘-ㅅㅅ’(-오다)만 나타난다.

향가 자료에는 ‘羅(라)’도 나타난다. 그러나 향가 해독 연구를 보면 ‘羅’를 연결어미로 보거나, 종결어미로 보더라도 감탄형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다. 15세기 국어의 ‘다→라’ 교체가 고려시대 국어에서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거나 아예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생각하면(3.1에 나옴), 향가 자료의 ‘다’와 ‘라’는 별개의 어미로 갈라 보는 것이 낫다. 이 글에서는 ‘-라’를 명령형이나 감탄형 종결어미로 다룬다.

#### 2.2.2.2. 의문형 종결어미

금석문-목간 자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나, 향가 자료에는 여러 가지 의문형 종결형태가 보인다. 기본이 되는 것은 ‘...가/고’이다. 그런데 사실 ‘...가/고’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에 가깝다. 적잖은 예가 동명사어미 또는 의존명사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박진호(1998:124), 장윤희(2002:56)에서도 이미 설명된 바 있다. 다만 여기서는 문장종결법이라는 틀을 중시하여, 비록 어미보다 조사에 더 가깝더라도 의문형 문법형태를 논의에 포함하기로 한다.

먼저, 설명의문에 쓰인 ‘...고’는 향가에서 ‘古, 故’로 나타나는데, 예는 아래와 같다.

12) 정렬모(1965)만은 (35)의 ‘如’를 ‘요’로 읽었다. 그러나 (36)의 ‘如’는 ‘ㄷ’로 읽었다.

- (40) a. 二盼隱 誰支下焉古 <처용가 6>  
 b. 放冬矣 用屋尸 慈悲也 根古 <도천수대비가 10>  
 c. 奪叱良乙 何如爲理古 <처용가 8>  
 (41) 毛如 云遣 去內尼叱古 <제망매가 4>  
 (42) 此也 友物北所音叱 慧叱只 有叱故 <혜성가 10>

(40, 41)은 ‘古’가 쓰였고, (42)는 ‘故’가 쓰인 예이다. (40)은 동명사어미 ‘-ㄴ’ 또는 의존명사 ‘이’ 뒤에 ‘…고’가 붙은 예들이므로, ‘…고’를 조사로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40b)의 ‘根古’는 향가 연구자 대부분이 ‘큰고’로 읽었다. ‘根’을 음독하는 한, 동명사어미 ‘-ㄴ’ 뒤에 조사 ‘…고’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sup>13)</sup> (40c)는 선어말어미 ‘-리’ 뒤에 ‘…고’가 붙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선어말어미 ‘-리’는 동명사어미 ‘-ㄴ’과 의존명사 ‘이’로 더 분석되기도 하기에, ‘…고’를 조사로도 볼 수 있다.

반면, (41)과 (42)의 ‘-고’는 조사로 처리하기 어렵다. (41)의 ‘去內尼叱古’는 ‘가느넛고’로 읽는 것이 통설인데, ‘-尼叱(넛)-’의 정체는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명사류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곳의 ‘-고’는 어미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42)의 ‘故’는 어간 ‘잇-’ 뒤에 바로 붙은 것이다. 이 또한 조사가 아니라 어미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遣’을 ‘고’로 읽고, 이 또한 의문조사로 처리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황선엽(2002) 등의 견해를 따라 ‘遣’을 ‘견’으로 읽고 ‘거-’의 활용형으로 간주한다.

그 밖에, “民焉 狂尸恨 阿孩古 爲賜尸知 <안민가 3>”의 ‘古’는 인용된 문장의 마지막에 쓰였으므로 종결형이기는 하나, 문맥상 의문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의문사도 없는데 ‘…고’가 쓰여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sup>14)</sup>

다음은 판정의문에 쓰인 ‘…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43) 四十八大願 成遣賜去 <원왕생가 10>  
 (44) 白雲音 逐于 浮去隱 安支下 <찬기파랑가 3>

(43)의 ‘去’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조금 있으나, 연구자 다수는 ‘-르가’ 정도로 읽었다. 균여전 향가에도 의문을 나타내는 ‘去’가 있다. 황선엽(2006:214)에서는 ‘-尸(ㄷ)’가 생략된 표기로 보아 ‘-르가’로 읽고, 고려 석독구결의 ‘-尸去’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의문형 종결형태라는 분석에는 문제가 없으나 ‘去’는 ‘거’로 읽곤 하므로 독음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44)의 ‘下’를 양주동(1965/1997:334)에서는 의문조사로 보았으며, 적잖은 다른 연구자들도 ‘安支下’를 의문형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安支下’ 전체를 아주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으므로 또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가/고’ 외에 다른 의문 종결 형태로 볼 만한 것은 ‘…丁(더)’과 ‘…下是(아리?)’가 있다. ‘丁’의 예는 아래와 같다.

- (45) a. 此地盼 捨遣只 於冬是 去於丁 <안민가 5>  
 b. 去奴隱 處 毛冬乎丁 <제망매가 8>

13) 정재영(1995:237)에서는 ‘根’을 혼독해야 한다고 보았다. 명사 ‘\*불휘’로 읽는다면, ‘古’를 더더욱 조사로 처리해야 한다.

14) 황선엽(2008:214)에서는 이곳의 ‘古’를 안민가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였다.

(45)의 ‘丁(더)’는 의존명사 ‘ㄷ’에 종결조사 ‘여’가 붙은 구성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어미가 아니다. 다만, 정재영(1995)에서는 위의 것들을 15세기 국어의 2인칭 의문 종결어미 ‘-ㄴ다’, ‘-ㄹ다’로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았다.<sup>15)</sup>

(45a)의 ‘丁’는 향가 해독가 다수가 의문 형태로 해석하였다. ‘於冬是’를 의문사로 보는 한, 다른 견해를 내세우기 어렵다. 반면 (45b)는 의문형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고, 감탄형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어서 견해가 엇갈린다. 고은숙(2008:52~53)에서는 같은 형식이 억양에 따라 다른 기능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덧붙여, 수사의문문과 감탄문은 본래 의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둘 중 어느 쪽으로 쓰였는지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일단 의문 형태의 일종으로 분류하되, 억양 또는 수사법의 영향으로 감탄문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정리해 둔다.<sup>16)</sup>

(46) a. 逢鳥支 惡知 作乎下是 <모죽지랑가 6>

b. 蓬次叱 巷中 宿尸 夜音 有叱下是 <모죽지랑가 8>

(46)은 ‘下是(아리?)’의 예이다. 『균여전』 향가에 나오는 ‘下呂, 下里’와 묶어 다루기도 한다.<sup>17)</sup> 향가 연구자들의 해독 결과를 보면 의문형이 많으나, 평서형도 이따금 보인다. (46a)의 경우 ‘惡知’를 ‘엇디’로 해독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어미를 의문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박진호(1998:125)에서는 (46a)의 ‘下是’가 15세기 국어의 반말체 의문형과 비슷하다고 추측하였다.

(46b)는 의문사가 없어서인지 평서형으로 보기도 한다. 박진호(1998:125)와 고은숙(2008:49)에서는 (46a)는 의문형으로, (46b)는 평서형으로 해석하였다. 정재영(1995:239~240)에서는 둘 모두를 의문형으로 보았다. 근래의 해독인 이병기(2008)에서도 둘 모두를 의문형으로 본 듯하나 (46b)가 평서형이 아니라 의문형인 까닭을 적극 논증하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46b)도 의문형으로 해독한 연구자가 적지 않다는 점, 균여전 향가의 ‘下呂’가 모두 의문형으로 보인다는 점,<sup>18)</sup> 그리고 한 형태를 두 기능으로 설명하면 체계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중시하여 일단 (46)의 둘 모두를 의문형으로 간주해 둔다.

### 2.2.2.3. 명령형 종결어미

삼국유사 향가에 보이는 명령형 종결어미로는 ‘-良(라)’와 ‘-立(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으나 예가 매우 적다. 예는 아래 보이는 셋뿐이다.

(48) 彌勒座主 陪立羅良 <도솔가 4>

15) 고은숙(2008:50~51)에서는 ‘-ㄴ다’, ‘-ㄹ다’로 이어진다는 점은 동의하되, 당대에도 2인칭에만 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6) 장윤희(2002:84~85)에서는 석독구결의 ‘-ㄱ ㅅ (ㄴ더)’를 감탄법 어미라고 보고, 의문형 어미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승재(1992:187)에서는 고려시대 이두의 ‘丁’을 연결어미로 보았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17) 김지오(2012:136~138)에서는 『균여전』 향가의 ‘呂’만을 따로 떼어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뒤에서 다시 다룬다.

18) 균여전 향가의 ‘下里’는 또 다르게 보인다. 3.2.에서 다룬다.

(49) a. 惱叱古音 多可支 白遣賜立 <원왕생가 4>

b. 慕人 有如 白遣賜立 <원왕생가 8>

(48)의 ‘陪立羅良’는 대다수 해독가들이 명령형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羅良’의 독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북녘 저서인 홍기문(1956), 류렬(2005)에서는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 ‘陪立良羅’로 ‘-어라’라고 해독하되, 전체를 명령형으로 해석한 결과는 같다. 김완진(1980)에서는 ‘羅’를 혼독하여 ‘陪立羅良’를 ‘모리셔 벌라’라고 해독하였다.

(49)의 ‘-遣賜立’는 고려 석독구결의 ‘-ㅁㅏ ㄹ’, 15세기 국어의 ‘-쇼셔’와 관련되는 형태이다. 등급이 가장 높은 명령형 어미로 해석하는 데에 견해차가 없다. 다만 ‘遣’을 ‘(-)거-’로 읽는다면 고려 석독구결의 ‘-ㅁ’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遣, 賜’는 종결어미가 아니므로, 명령형 종결어미는 ‘-立’로 분석된다.

‘-賜(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이므로, 15세기 국어 ‘호쇼셔’체의 ‘아주 높임’ 등급은 ‘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령형 어미 ‘-立(셔)’와 ‘-良(라)’는 등급이 아니라 다른 기능에서 차이가 있었을지 모른다. ‘-立(셔)’와 ‘-齊(저)’를 묶어 소망 또는 원망(願望)이라는 틀로 접근해 볼 가능성도 있겠다.

#### 2.2.2.4. 기원/원망(願望)형 종결어미

삼국유사 향가에서 소망 또는 원망(願望) 기능으로 다룰 만한 어미는 ‘-齊(저)’이다. 균여전 향가에서는 ‘制’로 나타난다(뒤에 나옴). 삼국유사 향가의 예는 아래 둘뿐이다.

(50) a. 兒史 年數就音 墮支行齊 <모죽지랑가 4>

b. 心未 際叱盼 逐內良齊 <찬기과랑가 8>

이곳의 ‘-齊’는 원망(願望), 청유, 감탄 등등으로 해석해 왔다. 일찍이 양주동(1965/1997:138)에서는 ‘-齊’가 ‘원망(願望), 청유, 명령’ 세 가지 뜻을 겸하여 지닌다고 하였다. 박진호(1998:123)에서는 ‘당위, 권유, 약한 명령’을 표시한다고 설명하되 평서형 어미에 포함시켰다. 홍종선(2017:160)에서는 고려 및 그 이전 시기에 청유형 어미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고, 위와 같은 ‘齊’를 ‘권유 성격을 가진 평서형 어미’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고영근(2018:432)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제안법(학교 문법의 청유형)에 포함시켰다. 요컨대 ‘齊’는 ‘평서, 청유, 명령, 감탄’에 두루 걸치는 미묘한 뜻을 지닌 존재이다. 사실을 단순히 서술하는 평서형과는 다르면서도, 청유형이나 명령형만큼 요구하는 바가 뚜렷하지는 않고, 어떠한 감정 표현까지 깃들어있는 종결어미라고 하겠다.<sup>19)</sup>

‘평서, 청유, 명령, 감탄’ 등은 현대국어를 기준으로 세운 종결형 체계이다. 옛말의 체계는 이와 다를 수 있다. 15세기 국어의 청유형 어미로 설정되는 ‘-저’도 현대국어 청유형 ‘-자’와 사뭇 다른 기능을 보이므로, 그 이전 시기에는 차이가 더 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국어를 기준으로 종결형 체계를 세운다면, ‘齊’를 ‘평서, 청유, 명령, 감탄’ 중 어느 하나에 굳이 집어넣지 않고, 별도의 체계를 세우고 그에 걸맞은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예전 논저들 곳곳에서는 원망(願望)이라는 용어를 쓴 바 있으며, 이 용어는 만주어나 몽골

19) 의미가 다른 ‘齊’를 별개로 갈라 보기도 한다. 아래 3.4에서 살펴본다.

어 문법 설명에도 쓰일 만큼 범위가 넓다. 따라서 이 용어를 받아들여 ‘원망형 종결어미’라는 이름을 쓸 만도 하나, 이 용어는 뜻이 좋지 않은 ‘원망(怨望)’과 발음이 같아(‘원’이 긴 소리라는 것까지 똑같다) 오해할 여지가 있다. 한편, 영문법에서는 기원문(optative sentence)이라는 개념을 쓰므로, ‘기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sup>20)</sup>

한편, ‘기원/원망’이라는 개념은 현대국어의 ‘명령’과 ‘청유’를 아우르는 범위에 쓰일 수도 있다. 앞서 명령형으로 다룬 ‘-立(셔)’ 또한 여느 명령형과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명령과 청유를 묶어 ‘기원/원망’이라는 체계를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sup>21)</sup> 그러나 이 글은 글쓴이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너무 특이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종전의 ‘명령’은 그대로 두고, ‘청유’는 ‘기원/원망’으로 이름을 바꾸는 정도로만 해 두고자 한다.<sup>22)</sup>

### 2.2.2.5. 감탄형 종결어미

항가에서 확인되는 감탄형 종결어미로 우선 살펴볼 것은 ‘-羅(라)’ 또는 ‘-良羅(아라)’이다. 이 어미는 명령형 종결어미 ‘-羅(라)’와 형태가 비슷하므로 해독가들 사이에 더러 논란이 있다. 예는 아래와 같다.

- (51) a. 來如 哀反 多羅 <풍요 2>  
       b. 脚烏伊 四是良羅 <처용가 4>  
 (52) 此盼 喰惡支 治良羅 <안민가 4>

(51a)의 경우, 해독가들 대부분은 평서형이나 감탄형으로 풀이했다. 박진호(2016:141)에서는 (51a)와 (52)를 감탄형으로 보았고, (51b)는 거론하지 않았다. 문맥으로는 평서형과 감탄형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고 못한지를 가르기 어렵다. 다만 석독구결 자료에서 평서형 어미의 ‘다→라’ 교체가 있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중시한다면 평서형보다 감탄형으로 보는 쪽이 나아 보인다.

(52)의 ‘-良羅’에 대해서는 평서형, 명령형, 감탄형까지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황선엽(2008:221~222)에서는 ‘治良羅’를 ‘다슬아라’로 읽고 감탄형 ‘다스러지는구나’라고 해석하였다. 박진호(2016:141)에서도 감탄형으로 보았으나, 명령형일 가능성도 붙여두었다.

그 밖에, 어미구조체인 ‘-叱等邪’도 감탄을 나타낸다.

- (53) a. 後句 達阿羅 浮去伊叱等邪 <해성가 9>  
       b. 一等沙隱 賜以古只內乎叱等邪 <도천수대비가 8>

(53)의 ‘-叱等邪’는 삼국유사 향가는 물론 균여전 향가에도 ‘叱等邪’로 여러 차례 나타나는 형태이다. ‘等’은 의존명사 ‘ㄷ’로, ‘邪’는 종결조사 ‘야/여’로 볼 만하다. 그러나 그 앞의 ‘叱(ハ)’은 속격조사로도 선어말어미로도 보기 어려우며, 정체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 이 형

20) ‘optative’를 원망(願望)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21) 『석독구결사전』 14, 54쪽에서는 ‘-ヒ요’와 ‘-ロハヒ요’ 모두 원망(願望)을 나타내는 종결형태라고 풀이하였다.

22) 관련 용어와 개념에 관해서는 도재학(2016)을 참조하였다.

태는 고려 석독구결의 ‘ㅅ’, 음독구결의 ‘ㅅ ㅅ ㅅ/ㅅ ㅅ ㅅ’, 15세기 국어의 ‘-(이)ㅅ녀’와 함께 논의되곤 한다.<sup>23)</sup>

향가 해독가들은 평서, 감탄, 명령(…하옵소서) 등으로 해석하였다. 이승재(1998:67~68), 박진호(2016:141)는 감탄형으로 처리하였다. 정재영(1995:259)에서는 (54b)가 수사의문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수사의문문과 감탄문은 의미차가 크지 않다. 이 글에서는 통틀어 감탄형으로 처리해 둔다.

### 3.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종결어미에 관해서는 장윤희(2002:51~123)에서 한 차례 정리된 바가 있다. 이 글 또한 장윤희(2002)를 크게 참조하였음을 밝혀 둔다. 다만 장윤희(2002)는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다른 자료는 반영이 덜 된 편이다. 여기서는 향찰, 이두, 구결의 자료를 아울러 살펴보겠다.

#### 3.1. 평서형

고려시대 자료에서는 ‘-다’만 확인된다.<sup>24)</sup> ‘다→라’ 교체를 인정한다면 이형태 ‘-라’를 하나 더 내세우는 정도에 그친다.

- (55) a. 吾焉 頓部叱 逐好友伊音叱多 <상수불학가 4>  
       b. 法界 餘音玉只 出隱伊音叱如支 <참회업장가 4>  
 (56) a. 迷火隱乙 根中 沙音賜焉逸良 <항순중생가 2>  
       b. 法性叱 宅阿叱 寶良 <보개회향가 7>  
 (57=51b) 脚烏伊 四是良羅 <처용가 4>

(55~56)은 균여전 향가의 예이다. 우선, 삼국유사 향가와 마찬가지로 ‘多’와 ‘如’가 보인다. (55)는 모두 석독구결의 ‘ㅅ ㅅ ㅅ’와 함께 ‘-ㅅㅅㅅ’로 읽을 만한 예이다. (55a)의 ‘多’는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읽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55b)의 ‘如’는 그 뒤에 ‘支’가 붙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많은 해독자들이 종결어미 ‘-다’로 보기는 했으나, ‘…듯이’로 해석하는 연구자도 있다.<sup>25)</sup> 근래의 연구인 김지오(2010)에서는 (55b)의 ‘如’를 평서형 ‘-다’로 읽었다.<sup>26)</sup>

(56, 57)은 계사 뒤 ‘다→라’ 교체와 관련된다. 김정아(2000:314~315)에서 (56, 57)의 용례들을 바탕으로 이른 시기에 ‘다→라’ 교체가 있었다고 보았다. (56a)의 경우, 근래의 해독인 이용(2007:187)의 본문에서는 종결어미로 보았다. 그러나 그 각주에서는 연결어미로 보는 건

23) 이용(2007:191~192)에서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3.5.에서 살펴보겠다.

24) 이는 글쓴이의 태도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글쓴이는 ‘-齊(저)’ 등을 평서형으로 보지 않았다.

그 밖에, 김지오(2012)에서는 평서형 종결어미 ‘-아/어’가 있다고 보고, 균여전 향가에 나타나는 ‘良, 也/耶(이+아), 齊(지+어), 制(지+어), 過(고+아)’를 모두 평서형 종결어미가 포함된 구조로 분석한 바 있다.

25) 삼국유사에 실린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원가 6>”의 ‘如支’는 많은 이들이 ‘…듯이’라고 해석하였다.

26) 그 뒤의 ‘支’는 ‘如實法’으로 보자는 제안을 남겼으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지오(2010:79)의 각주 20번 참조.

해도 소개해 두고 있다. (56b)의 경우, 근래의 해독인 김성주(2011:200~201)에서는 연결어미로 보았다. (57)은 앞서 본 예문 (51b)을 다시 보인 것이다. 이 글의 2.2.2.5.에서는 감탄형으로 처리했다. 요컨대, (56, 57)의 예들은 평서형 종결어미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다→라’ 교체의 유무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확실치 않다.

(58) 山院名 并 十四州郡縣契乙 用 成造令賜之 <자적선사 능운탑비 음기 7~8>

(59) a. 向前 寺段 殘爲甚 接人 不得是如 爲去乙 <장성감무관첩 22>

b. 忠臣義士 所以推心是如 在而亦 <상서도관첩 37>

c. 爲如乎 事是如 有以 龜山寺屬田地是如 出食 收齋 向事以 <덕녕공주 청주목관 문서 4~5>

(58~59)는 이두 자료의 예이다. 이곳의 ‘之’, ‘如’는 모두 종결어미 ‘-다’로 읽힌다. 남풍현(2005:25)를 따르면, 신라 자료에 많았던 ‘之’는 10세기까지 이어지다가 자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 7~8세기 무렵 나타났던 ‘如’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sup>27)</sup>

(60) a. 是 如 聖法 略 二種 有 一 <유가03:22>

b. 生死 涅槃 皆 是 妄見 <금광05:18>

(61) a. {我} 身 薄祐 諸 根 殘缺 <화소15:20>

b. 無上勝寶 皆 現 令 發 <화엄14:12>

c. 量 無 衆生 菩提心 發 <금광14:24>

(60~61)은 석독구결에 쓰인 ‘- 一 (다)’의 예이다. 예가 많으므로 몇 가지만 골라 보인다. (60)은 어간에 직접 붙는 경우이고, (61)은 선어말어미 뒤에 붙는 예이다.

석독구결 자료에는 어말어미 자리에 ‘ㅁ’가 보이는데, 장윤희(2002:54~55)의 본문에서는 일단 계사 어간 뒤에서만 ‘다→라’ 교체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으나, 각주에서는 어말의 모든 ‘ㅁ’를 연결어미로 볼 가능성도 적어두고 있다. 『석독구결사전』(2007)에서는 어말의 모든 ‘ㅁ’를 연결어미로 처리하였다.

이두 자료의 평서형 종결어미 중에 독음을 ‘-라’로 확신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향찰 자료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독이 엇갈리므로 단단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반드시 평서형 종결어미로 해석해야 할 ‘-라’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나, 고려 석독구결 자료의 하한선인 13세기 및 그 이전에는 평서형 어말어미 ‘다→라’의 교체가 없었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 밖에, 이승재(1992:177~178)에서는 이두 자료의 ‘臥’가 종결어미로 쓰인 듯하다고 하였다. 일부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7) 한편, 이승재(2008)에서는 ‘之’와 ‘如’의 역사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之’가 먼저 쓰이다가 8세기 중엽에 이르러 ‘如’가 나타난 것까지는 비슷하다. 그러나 고려 초에 이르러 ‘之’, ‘如’가 모두 사라지고 “...亦 在(주격조사+‘견’)”이라는 종결 구조체가 쓰인다고 한다. 앞서 나온 이승재(1992:176)에서는 ‘如’를 내포문의 종결어미라고 보아 ‘之’와 구분하되, 신라 시대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가 고려 시대 이후에 ‘如’가 내포문의 종결어미로 한정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이승재(2013:22)에서는 ‘之’를 단락 종결사로, ‘也’를 그보다 더 큰 단위의 종결사로 구분하였다. 요컨대, 종결어미들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었다는 뜻이다.

(62) a. 繼繼相承 九百九十二年是臥 后唐閔帝 清泰二年 乙未良中 <경주사 수호장 행안 서 9~10>

b. □當敎是 則 官上爲有臥 田出 還給明決 向敎是 事乙良 <장전소지 14~15>

(62)의 예는 『이두자료 읽기 사전』(2001:188)에도 이승재(1992)의 견해를 따라 실려 있다. 그러나 노명호 외(2000:131~132, 341, 343)을 참조하면 각각 “992년째인 後唐 閔帝 清泰 2년”, “官上한 田出을”이라고 해석해 두었다. 노명호 외(2000)은 역사학계의 저서이므로 ‘臥’의 정체를 자세히 논증하지는 않았으나, (62)의 ‘臥’를 종결어미로 보지 않고 수식 구조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재(1992:178)에서는 동명사어미가 통합된 상태에서 문장이 종결될 수 있다고 하면서 ‘在, 乎’ 등등을 예로 들었다. 이 글에서는 (62)의 예도 종결어미가 아니라 동명사어미가 쓰인(표기상 생략된) 경우로 보고, 수식 구조로 해석하든 문장 종결로 해석하든 진정한 종결어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 3.2. 의문형

고려시대 자료에서 의문형 종결형태는 석독구결 자료에 크게 치우쳐 설명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이두 자료는 공문서라는 특성상 의문형이 쓰이기 어렵다. 글쓴이는 이두에서 의문형 종결형태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균여전 향가에는 의문형 종결형태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김지오(2012:136)을 따르면 모두 수사의문문이다. 우선 균여전 향가의 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63) 嫉妬叱 心音 至刀 來去 <수회공덕가 10>

(64) a. 於內 人衣 善陵等沙 不冬 喜好尸 置乎理叱過 <수회공덕가 7~8>

b. 際 毛冬留 願海伊過 <충결무진가 4>

(63)의 ‘去’는 삼국유사의 “成遣賜去 <원왕생가 10>”에서도 나왔던 것이며, 보통 동명사어미 ‘-로’를 더 넣어 ‘-로가’로 읽는다. 석독구결에서는 ‘-尸 去’로 나타난다. 독음이 ‘가’인지 ‘거’인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의문형 종결형태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64a)의 ‘過’는 많은 이들이 의문형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64b)의 ‘過’는 많은 해독가들이 평서형 종결어미나 연결어미로 해독했다. 김지오(2012:134, 141)에서는 (64a)의 ‘過’를 의문형으로 보고, (64b)의 ‘過’는 평서형으로 보되 원망(願望)의 뜻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박재민(2002:135, 224)에서는 (64a)의 ‘過’를 의문형으로, (64b)의 ‘過’는 소망을 뜻하는 연결어미 ‘-스’로 풀이하였다. 같은 글자를 전혀 다르게 풀이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기는 하나, 지금으로서는 (64a)는 의문형으로 넣고, (64b)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

(65) a. 吾衣 身 不喻仁 人音 有叱下呂 <수회공덕가 4>

b. 吾衣 身伊波 人 有叱下呂 <보개회향가 10>

c. 佛影 不冬 應爲賜下呂 <청불주세가 10>

(66) 然叱 皆好尸 卜下里 <상수불학가 7>

(65, 66)은 의문형 종결어미 ‘-아리(?)’로 볼 만한 예이다. (65)의 경우, 의문형으로 해석하



함께 다루는 연구가 있었다. 동명사어미 뒤에 쓰였으므로 조사라고 보아야 한다. 『석독구결사전』 421쪽에서는 ‘ㄴ ㅅ ㅈ’를 ‘ㅎ첨가’로 읽었는데, 15세기의 ‘-르가’와 연결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까운 곳에 나오는 두 ‘ㅅ’를 달리 읽는다는 부담이 있다.

### 3.3. 명령형

고려시대 자료에서도 명령형 어미로 볼 만한 것은 ‘-囉(라)’와 ‘-立/(서)’이다. 그러나 ‘-라’의 경우는 명령형인지 감탄형인지 논란이 있다.

- (74) a. 下簾曰 箇恥具囉  
b. 坐曰 阿則家囉  
c. 凡呼取物 皆曰 都囉
- (75) a. 來曰 烏囉  
b. 客至曰 孫烏囉

(74)는 장윤희(2002:59~60)에서 명령형으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박재민(2003:154~155)에서는 기본형이거나 어간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보면서, (75)를 반례로 제시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어 부분 ‘下簾, 坐, 取物, 來, 客至’에는 어떤 문장종결법을 뜻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囉’를 평서형 ‘-다’의 이형태로 해석할 경우 계사 뒤가 아닌데도 ‘다→라’ 교체가 일어난다는 무리한 설명을 붙여야 하므로,<sup>30)</sup> 일단 평서형은 제쳐놓을 수 있다. 의문형이나 청유형으로 보기에겐 견줄 만한 비슷한 형태가 없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의 감탄형 어미에는 형태가 꽤 비슷한 ‘-게라, -에라’가 있으므로, 감탄형의 경우는 간단히 제쳐놓을 수 없다. 다만 15세기 국어에서 이들의 높임 형태는 ‘-게이다, -에이다’로 나타나므로, 이들의 기원은 어떤 선어말어미 뒤에 평서형 어말어미 ‘-다’가 붙은 구조로 더 분석된다. 그렇다면 위에 보인 (74, 75)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결국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감탄형으로 보기에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15세기부터 지금까지 명령형 어미로 쓰이는 ‘-거라’는 (74a, b)와 음상이 상당히 가깝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74, 75)의 ‘囉’를 명령형 어미로 보고자 한다. 설령 한두 예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해도, 명령형 어미 ‘-라’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찰 자료에서 명령형 ‘-라’로 볼 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76) a. 法界 毛叱所只 至去良 <예경제불가 4>  
b. 一念惡中 涌出去良 <칭찬여래가 4>
- (77) 灯油隱 大海 逸留去耶 <광수공양가 4>

(76, 77)의 예는 양주동의 해석 이래로 많은 이들이 명령형으로 해석해 왔으나 평서형 또는 감탄형으로 본 연구자도 있다. 박진호(2008:323)에서는 (76)의 두 예를 명령형으로 보고 석독구결의 ‘ㄴ ㅅ ㅈ’가 명령형으로 쓰인 사례(아래 나옴)와 관련지었다. 고영근(2018:432)에서

30) 앞서 3.1.에서는 고대국어에서 ‘다→라’의 교체가 15세기 국어보다 더 적거나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는 (76b)를 언급하면서 명령형으로 보았다.

그러나 박재민(2003)에서는 (76, 77)의 모든 예를 다루면서 문맥상 의미, 화엄경 본문, 최행귀 한역시를 근거로 감탄형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김지오(2012:126~127)에서는 (76)의 주어가 1인칭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평서형으로 풀이하고 ‘良’을 ‘아’로 읽었으며, 김지오(2010:68)과 김지오(2012:145)에서는 (77)을 감탄형으로 풀이하고 ‘耶’를 ‘야’로 읽음으로써 (76)과 (77)을 별개로 보았다. 김유범(2010:65)에서는 (77)의 경우 문맥상 명령이 아니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평서형인지 감탄형인지 가려내지는 않았다.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에 보인 예가 명령형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석독구결에서는 아쉽게도 명령형으로 쓰인 ‘\*-ㅁ’의 예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아래 예가 명령형일 가능성이 있다.

(78) a. 善カ 之乙 思ッ 念ッ 法乙 如 修行ッ ナ ソロハ 1 <구인 03:18-19>

b. 善カ 之乙 思ッ 念ッ 法乙 {如} 修行ッ ナ 七佛ヒ 偈 是 {如} 1ッ  
1 <구인 14:23>

(78)은 『석독구결사전』 432쪽에서 명령형으로 해석한 예이다. 그런데 다른 곳에 쓰인 ナ는 ‘…하여야, …해서’쯤으로 풀이된다(장윤희 2002:61). 따라서 (78)의 사례는 상당히 특이한 소수 사례이다. 박진호(2008:323)에서는 위 (76)의 ‘-去良’과 이곳의 ‘-ナ’를 묶어 명령형 어미로 보았다. ‘-ナ’를 명령형 어미로 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나, ‘-去良’과 ‘-ナ’가 같거나 이어지는 형태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석독구결에서는 명령형 ‘\*-ㅁ’가 보이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앞서 삼국유사 향가의 “彌勒座主 陪立羅良 <도솔가 4>”를 명령형으로 보았다. 위에서는 계림유사에 나타나는 ‘囉’도 명령형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가 비록 적기는 하나 고대국어 명령형 어미로 ‘-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둔다.

‘-立(셔)’의 예로 균여전 향가에 보이는 것은 하나이다. 아래에 보인다.

(79) 十方叱 仏体 闕遣只賜立 <참회업장가 8>

균여전에는 위에 보인 것뿐이지만, <원왕생가>에 ‘白遣賜立’가 두 번 더 나온다. 이 사례를 명령형 종결어미로 보는 데에는 견해차가 없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명령형 종결어미는 ‘-立(셔)’로 분석된다.

석독구결에서는 ‘-ロハ 𐄀(고기시셔)’와 ‘-ヒ 𐄀(느?셔)’, ‘-ヒ 𐄀(느셔)’가 나타난다. 예는 다음과 같다.

(80) 大王 𐄀 當ハ 知ロハ 𐄀 <화소 10:17-18>

(81) 當 願 衆生 怨親 平等ッ 永 貪著 離 𐄀 𐄀 <화엄 02:21>

(82) a. 當 願 衆生 {於}聖地 入ッ 永 穢欲 除 𐄀 <화엄 02:24>

b. 當 願 衆生 皆ヒ 妙法 得ッ 究竟 清淨ッ 𐄀 <화엄 4:10>

c. 當 願 衆生 調柔ッ 寂靜ッ 畢竟 第一 𐄀 <화엄 6:12>

(80)은 ‘-ㅁㅏ ㄴ’의 예이며, 15세기 국어의 ‘-쇼셔’로 이어진다. ‘-ㅁㅏ ㄴ’의 ‘ㄴ’은 높임을 나타내는 ‘ㄴ’이다(정재영 1996:200, 장윤희 2002:100).

(81)은 ‘-ㅈ’의 예인데,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장윤희(2002:63)에서는 ‘ㅈ’를 지정문자로 보았다. 『석독구결사전』에서는 ㅈ를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ㅈ’와 마찬가지로 “... 1 1 + 1 當ハ 願口尸入 1 衆生 1 ...” 구문의 끝에 나타난다.<sup>31)</sup>

(82)는 ‘-ㅈ’의 예이다. (82a)는 동사 뒤에 붙은 예이고, (82b)는 형용사 뒤에, (82c)는 계사 뒤에 붙은 예이다. 명령형 어미가 형용사나 계사 뒤에 붙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정재영(1996:203~)에서는 이 경우 형용사나 계사가 자동사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장윤희(2002:94~97)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명령 대신 원망(願望)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너무 과감한 주장을 세우지 않기로 한다.

### 3.4. 기원/원망(願望)형 종결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글에서는 기원/원망(願望)이라는 이름으로 ‘-齊, 制(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균여전 향가의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다.

- (84) a. 九世 盡良 禮爲白齊 <예경제불가 8>  
 b. 來際 永良 造物 捨齊 <참회업장가 10>  
 c. 他道 不冬 斜良只 行齊 <상수불학가 10>  
 d. 迷反 群无史 悟內去齊 <보개회향가 4>  
 e. 伊留叱 餘音良 他事 捨齊 <충결무진가 10>  
 (85) a. 問 毛冬留 讚伊白制 <칭찬여래가 8>  
 b. 佛佛 周物叱 供爲白制 <광수공양가 8>

평서형으로 보았던 ‘多’와 ‘如’보다도 예가 더 많다. 향가 해독가들은 평서형, 청유형, 감탄형 등 다양하게 해석했지만 이 글에서는 이를 ‘기원/원망’이라는 이름으로 아우르기로 한다. 김지오(2012:134, 218)에서는 ‘齊, 制’를 ‘지+어’로 분석하고, 당위, 원망(願望)은 ‘지’에서 나오며, ‘어’는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보았다.<sup>32)</sup> 이 글에서는 ‘齊, 制’를 더 잘게 나누는 문제를 보류해 둔다.

- (86) a. 奴婢乙良 各十口 賜給敎是齊 <상서도관첩 50>  
 b. 王室乙 廢殆令是白乎 所 無齊 <상서도관첩 81>  
 c. 賊兵驚 惑 還走爲乎 事是齊 <경주 왜구격퇴 사실기 13~14>

- (87) a. 同居子息 同腹甥姪 女婿族派 明分開坐 記錄爲齊 <고려말 화령부 호적 단편 둘째 폭 3>

- b. 兩班乙良 受職爲良置 不許出謝齊 屬從公狀是良置 不許入屬齊 <고려말 화령부 호적 단편 둘째 폭 9~10>

31) 이 구문은 <화엄 02:18>부터 <화엄 08:15>까지 이어진다.

32) 남미정(2010:141)에서도 ‘저’를 더 잘게 나누었는데, ‘지’ 또는 ‘지’를 미지의 형태소로 보고, 종결형태 ‘어’가 그 뒤에 붙었다고 보았다.



종결어미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 3.5. 감탄형

삼국유사 향가에서 살펴봤던 감탄형 종결어미 중에는 ‘-羅(라)’, ‘-良羅(아라)’가 있었으나, 균여전 향가에서는 감탄형 ‘\*-라’로 읽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也, 耶(야)’가 감탄문에 보인다.

- (91) a. 仙體 頓叱 喜賜以留也 <항순중생가 10행>  
 b. 又都 仙體叱 事伊置耶 <총결무진가 8행>

(91)의 예들은 대개 감탄문이나 평서문으로 해석하였다. 김지오(2012:145)에서는 (91)의 두 예 모두 감탄형 종결어미로 보았다. 한편 박진호(2016:139)에서는 (91b)의 ‘置耶’를 평서형 종결어미로 보았다. 평서형과 감탄형은 본래 가까워서 문맥만으로는 둘을 갈라내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뒤에 나올 ‘-叱等耶(니드야)’, ‘-1 丁(니더)’, ‘尸 丁(지더)’와 함께 묶을 것을 고려하여 감탄형으로 처리해 둔다.

(91a)의 경우 적혀있는 표기에 충실하자면 ‘也’는 어말어미로 보아야 하나, 혹시 ‘也’ 앞에 동명사어미가 생략되었다고 본다면 ‘也’를 조사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종결조사 ‘...여’와 같을지도 모른다.

- (92) a. 毛葶盡良白乎 乃兮 <칭찬여래가 10행>  
 b. 皆 仙體置 然叱爲賜 伊留兮 <상수불학가 8행>

(92)에는 ‘兮’가 나타나는데, 대개 감탄형이나 평서형으로 해석하였다. 김지오(2012:146)에서는 ‘兮’를 한문의 용법을 빌려온 글자라고 추측하면서, 우리말의 ‘...야/여’로 읽고 감탄형으로 해석하였다. (92a)의 ‘乃’는 동명사어미의 수식을 받는 명사류일 가능성이 높다. (92b)의 경우도 혹시 ‘兮’ 앞에 동명사어미가 생략되었다고 본다면 ‘兮’를 조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92)의 ‘兮’는 종결조사 ‘...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독이 아직 말끔하지 않기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조심스럽다.

앞서 삼국유사 향가에서 보았던 ‘-叱等耶(니드야)’와 같거나 비슷한 예도 보인다.

- (93) a. 此良 夫作 沙毛叱等耶 <예경제불가 10>  
 b. 法雨乙 乞白乎叱等耶 <칭전법륜가 4>  
 c. 不冬 菱玉內乎留叱等耶 <항순중생가 4>  
 d. 佛體爲尸如 敬叱好叱等耶 <항순중생가 8>

- (94) 世呂中 止以友白乎等耶 <칭불주세가 4>

향가 해독가들은 (93, 94)를 대부분 평서문이나 감탄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승재(1998:67~68), 박진호(2016:141), 홍종선(2017:153)에서는 감탄형으로 처리하였다. 정재영(1995:260)에서도 위의 예 대부분을 감탄문으로 보되, (94)는 수사의문문으로 처리하였으나, 수사의문문과 감탄문은 의미차가 크지 않다.

앞서 적었듯이 이 형태는 고려 석독구결의 ‘ㅅ’, 음독구결의 ‘ㄷㅅ/ㄷㅅ’, 15세기 국어의 ‘-(이)ㅅ녀’와 함께 논의되곤 한다. 그러나 이용(2007:190~192)에서는 그리고 석독구결의 ‘ㅅ’가 욕망이나 청원을 뜻하므로 감탄을 뜻하는 위의 것들과 함께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음독구결의 ‘ㄷㅅ/ㄷㅅ’은 그 분포가 ‘-叱等耶’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덧붙여 ‘-叱等耶’에서 감동법 선어말어미 ‘-웃-’을 분석해내고, 감탄의 뜻은 그 ‘-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감탄의 근원을 종결조사 ‘…여’와는 다른 곳에서 찾은 셈이다.<sup>34)</sup>

이두 자료는 공문서라는 특성상 감탄문을 찾기 어렵다. 굳이 가까운 것을 찾자면 아래의 한 예를 생각해 보자.

(95) 節中 教旨 然ㄷ 戶丁矣 地□ <자적선사 도평성첩 5>

이승재(1992:187)에서는 연결어미로 보았으나, 남풍현(2000:474)에서는 석독구결의 ‘-ㅅㅅ’와 관련지어 종결어미로 보고, ‘然ㄷ’을 ‘그러한가’, ‘그렇구나’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남풍현(2000:475)에서는 ‘그러하도다’로 해석해 놓았으므로 감탄형으로 본 셈이다.

석독구결에 보이는 감탄형 종결어미로는 ‘-ㅅㅅ/ㅅ(은더)’와 ‘-ㅅㅅ(-은더)’가 있으며 ‘-ㅅㅅ(-은더)’도 함께 논의되어 왔다. 이들은 하나로 굳어진 어미처럼 보이기도 하나, 아직은 따로 분석되는 구조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감탄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평서형처럼 해석하기도 한다.

(96) a. 何ㄷ {等}ㅣㅅㅅㅅ {是}ㅣ 事 有ㅅㅅㅅ 故ㅅ {是}ㅣ 事 有ㅅ ㅅㅅ ノㅅㅅㅅ {爲}  
<화소 1:17>

b. 虛空ㅅ 花 {如}ㅣㅅㅅㅅ 影: 三ㅅㅅ 手ㅣ 無ノ ㅅㅅノㅅㅅ {如}ㅣㅅㅅㅅㅅㅅ: <구인 15:07>

c. 名ㅅ 圓滿ㅅㅅㅅ 淸淨 鮮白ㅅㅅㅅ ㅅㅅノㅅㅅ 未ㅅㅅ <유가 16:12>

(97) 況ㅅ 量 無ㅅ 邊ㅅ 無 劫ㅅㅅ 具ㅅ 地度ㅅ 修ㅅㅅㅅ 諸ㅅ 功德ㅣㅅㅅㅅ ㅅ <화엄 09:06>

(98) a. 善男子: 是ㅅ 名ㅅ 菩薩摩訶薩ㅣ 屬提波羅蜜ㅅ 成就ㅅ ㅅㅅノㅅㅅㅅㅣㅣ <금광 03:09-10>

b. 菩薩摩訶薩ㅅ {是}ㅣ 如ㅅㅅㅅ 念ㅅ 作ㅅㅅ ㅅㅅ <화소 08:19>

(96)은 ‘-ㅅㅅ’, (97)은 ‘ㅅ’의 예이다. (96)은 ‘-ㅅㅅ’가 어간 뒤에도 붙고 다른 선어말어미 뒤에도 붙음을 보여준다. ‘-ㅅㅅ’와 ‘-ㅅ’는 15세기 국어의 감탄어미 ‘-ㅅ녀’처럼 해석할 수 있다.<sup>35)</sup> (98)은 ‘-ㅅㅅ’의 예를 보여준다. 이들도 감탄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99) a. 我ㅅ 當ㅅ 統領ㅅㅅㅅ 王ㅅ 福樂ㅅ 受ㅅㅅㅅㅅㅅㅣㅅㅅㅅㅣㅅ <화소 11:11>

b. 二者 (生死) 二處ㅅㅅ 解脫ㅅㅅㅅ ㅅ 不著ㅅㅅ <금광03:18-19>

34) 이용(2007:190)에서 적었듯이, “後句 達阿羅 浮去伊叱等耶 <해성가 9>”에서는 ‘-웃-’을 분석하기 어려우나, 이 예도 대개 감탄문으로 이해해왔다. 예문 (94)에서도 ‘-웃-’ 대신 ‘-은’이 있다고 보아야 해서 약간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초점은 선어말어미가 아니므로 더 이상 깊이 묻지 않는다.

35) ‘-ㅅㅅ’는 ‘-ㅅㅅ’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석을 달리 한다. “或ㅅ 有ㅅㅣ 雜染ㅅㅅㅅ 或ㅅㅣ 淸淨ㅅㅅㅅ: <화엄 15:11>”에서 보이듯, 후치된 주어 뒤에 ‘ㅅ’가 붙은 구조이다.

‘-ㅅ’은 장윤희(2002:117~121)에서 감탄형 종결어미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용(2007:190~192)에서는 그리고 석독구결의 ‘ㅅ’가 욕망이나 청원을 뜻한다고 보아 감탄형이 아니라고 하였다. 『석독구결사전』에서는 ㅅ를 연결어미로 올려두고 ‘...하고자’라고 풀이하였다. 이 글에서는 일단 감탄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4. 맺음말

(생략)

#### 참고문헌

- 강종훈(2009), 「울진봉평신라비의 재검토」, 『동방학지』 148, 연세대 국학연구원, 1-50.
- 고영근(2018), 『우리말 문법, 그 총체적 모습』, 집문당.
- 고은숙(2008),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권인한(2006), 「무령왕릉 출토 명문들에 대한 어학적 고찰」, 『구결연구』 17, 구결학회, 87-123.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김성주(2011), 「균여향가 보개회향가의 한 해석」,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173-215.
- 김영옥(2007), 「고대 한국 목간에 보이는 석독표기」,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171-189.
- 김영옥(2008), 「한국어 표기의 기원과 전개 과정」,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1-191.
- 김영옥(2011), 「전인용사지 목간에 대한 어학적 접근」, 『목간과 문자』 7, 한국목간학회, 67-79.
- 김정아(2001),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국어학회, 309-336.
- 김지오(2010), 「참회업장가의 국어학적 해독」, 『구결연구』 24, 구결학회, 61-96.
- 김지오(2012),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0.12), 「중원고구려비문의 해독과 이두적 성격」, 『고구려연구』 10, 고구려학회, 363-378.
- 남풍현(2005), 「한국 고대 이두문의 문말어조사 ‘-ㅅ’에 대하여」,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5-28.
- 노명호·박영제·박재우·오영선·윤경진·윤선태·최연식·이종서(2000),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교감역주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도재학(2016), 「한국어에서의 바람(wish) 개념의 실현 방책과 범주에 대하여」, 『어문논집』 78, 민족어문학회, 361-390.
- 류렬(2005), 『향가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용식(2005),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에 나타난 언어의 시대적 특징 고찰」,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173-195.
- 박재민(2003), 「보현십원가 난해구 5제」, 『구결연구』 10, 구결학회, 143-175.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립국어연구원 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16), 「문법」,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편, 『신라의 언어와 문학』,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28-159.
- 양주동(1965/1997),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이기문(1981), 「이두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52, 진단학회, 65-78.
- 이병기(2008), 「모죽지랑가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21, 구결학회, 309-344.
- 이승재(1992),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 이승재(1996), 「차자표기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광복 50주년 국학의 성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37-362.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립국어연구원 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 이승재(2000), 「'중원고구려비문의 해독과 이두적 성격'에 대한 토론」, 『고구려연구』 10, 고구려연구회, 379-386.
- 이승재(2008), 「이두 해독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4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1-267.
- 이승재(2013),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의 해독」, 『한국문화』 6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32.
- 이용(2007), 「항순중생가의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173-205.
- 이준환(2014), 「수희공덕가(보현십원가 제5) 해독」,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311-359.
- 이탁(1958), 『국어학논고』, 정음사.
- 이현희(1995), 「‘-아저’와 ‘-良結」, 소곡 남풍현 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411-428.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정재영(1995), 「전기중세국어의 의문법」, 『국어학』 25, 국어학회, 221-265.
- 정재영(1996), 「종결어미 ‘-立’에 대하여」, 『진단학보』 81, 진단학회, 195-214.
- 정재영(2003), 「백제의 문자 생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87-124.
- 정재영(2008), 「월성해자 149호 목간에 나타나는 이두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1, 한국목간학회, 93-110.
- 홍기문(1956),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 [김지용 해제 첨부, 1990, 여강출판사 재출간]
- 홍종선(2017), 『국어문법사』, 아카넷.
- 황선엽(2002), 「향가에 나타나는 ‘遑’과 ‘古’에 대하여」, 『국어학』 39, 국어학회, 3-25.
- 황선엽(2008), 「안민가 해독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5-233.
- 황선엽·이전경·하귀녀·이용·박진호·김성주·장경준·서민욱·이지영·서형국(2007),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지오(동국대)

## <목 차>

1. 서론 : 고대국어 시대 구분
2. 연결어미 목록 정리
  - 2.1. 고대국어 연결어미 목록
  - 2.2. 목록에서 보류시킨 형태들
  - 2.3. 여말선초 음독구결에만 나타난 특이한 연결어미
  - 2.4. 고려가요의 연결어미
  - 2.5. 보조적 연결어미
3. 고대국어 연결어미의 특징
  - 3.1. 외형적 변화가 큰 연결어미
  - 3.2. 절 접속 이상을 담당하는 연결어미
  - 3.3. 연결·종결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의 존재
4.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의 한계 및 과제
  - 4.1. 자료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형태들
  - 4.2. 어미 연구가 아닌, 연결 표현 찾아내기
  - 4.3. 생략표기에 대한 고려 미흡
  - 4.4. 연결어미에 대한 의미 연구 부족
  - 4.5. 현대국어 연결어미 이해에 대한 실마리 제공 결여

## 1. 서론

이번 연구에서는 고대국어의 연결어미에 어떤 형태들이 존재했는지 정리하고, 이 시기 연결어미들이 보이는 특징들에 대해 알아본 후, 앞으로의 연구 과제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대국어’란 어떤 시기를 지칭하는지부터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기문(1972/1998)의 시대 구분-고대국어, 전기중세국어, 후기중세국어, 근대국어’-에 따른다면, 고대국어의 연결어미를 다루는 일은 통일신라 시기까지를 다루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와 점토구결 자료가 새롭게 발견되고 훈민정음 이전의 언어 현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이런 시대 구분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기문(1972)에서 전기중세국어라고 명명했던

‘고려시대’의 언어는 후기 중세국어의 언어 현상과는 현저히 다르며, 오히려 통일신라까지로 규정했던 고대국어 시기의 언어 현상과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고대국어’에서는 여말선초 시기까지(음독구결 자료까지)를 고대국어로 지칭하였으며, 남풍현(2003)에서는 고대국어를 3시기로 세분화 하여<sup>1)</sup> 13세기 고려 중엽까지를 고대국어로 설정하였다. 즉 차자표기 자료의 연구가 진행될수록 고려시대의 언어 현상들은 중세국어 쪽이 아닌, 고대국어의 범주로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연구에서도 국립국어연구원(1998)이나 남풍현(2003)의 시대 구분에 따라, 고려시대를 고대국어 시기로 설정하여, 석독구결 자료까지를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여말선초 음독구결이나 고려가요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2. 연결어미 목록 정리

### 2.1. 고대국어 연결어미 목록

이 장에서는 향가·이두·자토석독구결에 나타난 연결어미들의 총목록을 정리한다. 목록에 포함된 형태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연결어미로 논의된 형들 가운데 적어도 두 자료 이상에서 출현하거나 한 자료에만 출현하더라도 출현 횟수가 적어도 2회 이상 확인되는 형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목록 정리를 위해 참고했던 선행 연구는 ①고대국어 연결어미 목록을 총 정리한 ‘서태룡(1997), 황선엽(2002나)’, ②고대국어 문법 개설 중 연결어미에 대한 기술이 존재하는 ‘최남희(1996), 이승재(1998), 박진호(1998)’, ③향가, 이두, 구결 자료의 해독과 함께 문법 특징들을 언급한 ‘[향가] 양주동(1965), 김완진(1981), 유창균(1994), 박재민(2017), 김지오(2012나), [이두] 남풍현(2000나), 이승재(1992), 서종학(1995), [여말선초 음독구결] 김두찬(1987), 이승재(1990), 한상화(1994), 남풍현(1995), 박성중(1996), 정재영(1996)’ 등을, ④고대국어 연결어미 중 특정 어미를 대상으로 한 ‘김두찬(1996), 김지오(2012가), 남미정(2004), 남미정(2010), 남풍현(1996가), 남풍현(1996나), 남풍현(2000가), 이용(2003), 이용(2008), 이견식(2017가), 이견식(2017나), 이승재(1987), 장윤희(2006), 장윤희(2010), 황선엽(2002가), 황선엽(2003), 황선엽(2004), 황선엽(2010)’ 등이다.

1) 上古時代の 국어: 삼국시대, 中古時代の 국어: 통일신라시대, 近古時代の 국어: 고려초에서 13세기 중엽까지, 前期中世國語: 13세기 후반에서 15세기 훈민정음창제까지

## 【 고대국어 연결어미 목록 】

| 의미                   | 형태                      | 항가                     | 이두                          | 석독구결                                |
|----------------------|-------------------------|------------------------|-----------------------------|-------------------------------------|
| [대조]<br>[양보]         | -나                      | (隱)乃 <sup>2)</sup> , 奈 | 乃                           | (ㄱ)乃                                |
|                      | -과두                     |                        |                             | 人 斗                                 |
|                      | -마리여                    | 而也                     | 而亦                          |                                     |
| [나열]                 | -며                      | 歟                      | 歟/余                         | 兮                                   |
|                      | -나                      |                        | 乃, 那                        |                                     |
|                      | -저/제                    |                        | 齊, 哉                        | 兮                                   |
| [조건]<br>(계기)         | -ㄴ ㄷ ㄴ/ㄷ                | 尸等隱/等                  | (願爲內等者)/等                   | 尸 入 ㄱ / 入 ㄱ                         |
|                      | -ㄴ ㄴ 3)                 |                        | 者                           | ㄱ ㄱ                                 |
|                      | -ㄴ 다 ㄴ                  |                        | 在如亦中                        | ㄱ ㄱ + ㄱ                             |
|                      | -ㄴ 다 ㄱ                  | 隱多衣                    | 在如中                         | ㄱ ㄱ +                               |
|                      | -고 ㄴ                    |                        |                             | 口 斤 <sup>4)</sup> , 口 ㄴ ㄱ           |
|                      | -아 ㄴ                    | 根 <sup>5)</sup>        |                             | ㄱ 斤 <sup>6)</sup> ,<br>ㄱ ㅅ ㄱ, ㄱ ㄴ ㄱ |
| [연접]<br>[계기]<br>[접속] | -아<br>(+아사, 약, 아곰)      | 良<br>(+沙, +只, +糸)      | 良<br>(+只, +糸) <sup>8)</sup> | ㄱ (四/下) <sup>7)</sup><br>(+ㅅ, +糸)   |
|                      | -오/우                    | 刀, 毛, 好, 玉             | 于/乎                         | ㄱ/ㅅ/ㄴ                               |
|                      | -이                      | 伊, 以, 爾                | 亦                           | ㄴ                                   |
|                      | -고<br>(+곡)              | 古(遣?)<br>(+只)          | (遣? <sup>9)</sup> )         | 口<br>(+ㅅ)                           |
|                      | -ㄴ ㄷ ㄴ로                 |                        |                             | ㄱ 入 ㅁ                               |
| [원인]                 | -ㄷ <sup>10)</sup>       | 米                      |                             |                                     |
| [전제]<br>[이유]         | -전/겨                    | 遣                      | 遣→고                         | ㅅ ㄱ ? <sup>11)</sup>                |
| [발견]<br>[이유]         | -곤                      | 昆                      | 昆                           | 口 ㄱ / 口 ㅁ ㄱ                         |
| [인용]<br>[상술]         | -은                      |                        |                             | -ㄱ <sup>12)</sup> (謂 ㄱ)             |
|                      | -을(을더)                  |                        |                             | -ㅅ/-ㅅ ㄱ <sup>13)</sup><br>(인용문)     |
|                      | -은디/웁디                  |                        | 乎矣                          | ㅅ ㄱ ㅁ<br>ㅅ ㅅ ㅁ                      |
| [배경]<br>[전제]         | -ㄴ 여/ㄴ 여 <sup>14)</sup> | 尸也                     | 在亦                          | ㄱ ㅅ, ㅅ ㅅ,<br>(ㄱ ㄱ, ㅅ ㅅ)             |
|                      | -늘/늘                    | (隱)乙                   | 乙                           | ㄱ 乙                                 |
| [소망]                 | -과                      |                        | 欲                           | 人                                   |
| [전환]                 | -다가                     | 如可                     | 如可                          |                                     |

2) ‘-나’는 앞에 ‘ㄴ’을 첨가한 ‘隱乃, ㄱ 乃’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를 두고 ‘나’ 역시 동명사어미 ‘ㄴ’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란 주장과 단순한 두음첨기라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3) 남풍현(2000가)에서 [조건]으로 제시된 형태이다. 다른 논의들에서는 ‘-ㄱ 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서태룡(1982)에서 논의된 것처럼 조건과 주제의 보조사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남풍현(2000가:14)의 ‘[ㄷ], [ㄴ]’의 예처럼 조건의 연결어미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는

## 2.2. 목록에서 보류시킨 연결어미들

한 자료에 1회만 나타는 예들로 연결어미 목록에서 보류시킨 예들이다.

- (1) 가. [양보] 마론/마르논 : 本矣吾下是如馬於隱 <處容7>

나. [목적] 라 : 修叱如良來如 <風謠4>

다. [도달] 지/지 : 伊知皆矣爲米 <請仏7>

라. [소망] 곡저 : 菩薩<sub>1</sub> 勤<sub>7</sub> 大悲行<sub>乙</sub> 修<sub>3</sub> 糸 願<sub>入</sub> 一切<sub>乙</sub> 度<sub>11</sub> 口ハミ ノ 尸ム 果  
 達<sub>尸</sub> 不<sub>ノ</sub> 尸<sub>丁</sub> ノ 尸 無<sub>11</sub> ノ 3 ナ<sub>牙</sub> 四 <화엄14:09>

(1가)의 ‘마론/마르논’은 양보의 연결어미로 처리되어 왔는데, 종결어미 ‘-다(如)’ 뒤에 출현한 것으로 볼 때 보조사일 가능성도 높다. (1나)는 대부분의 향가 해독자들이 목적의 ‘-라’로 파악해온 형태이다. 15세기에도 목적을 나타내는 ‘-라’가 ‘오다/가다’ 동사와 함께 쓰인

예가 있음을 볼 때 충분히 연결어미에 포함시킬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 4) ‘口片’은 여말선초 음독구결에도 나타난다. 음독구결의 ‘口片’은 ‘조건’ 의미가 강하게 포착된다(황선엽 2002나).
- 5) 기존 해독에서는 ‘根’을 ‘昆’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다. 그러나 김지오(2012나)에서 주장한 바대로, 이것은 연결어미 ‘아/良’가 생략된 표기로 ‘-곤’의 이표 기라기보다는 석독구결의 ‘3 片, 3 八’에 훨씬 유사한 양상을 보이므로 ‘아곤’의 예로 포함시켰다.
- 6) ‘3 片’은 여말선초 음독구결에도 나타난다. 음독구결의 ‘3 片’은 ‘계기+한정’ 의미가 강하게 포착된다(황선엽 2002나).
- 7) 석독구결의 ‘-아’는 계사 뒤에서는 ‘ㅁ’로, 선어말어미 ‘-ㅁ/ㄹ’ 뒤에서는 ‘ㅌ’로 나타난다.
- 8) ‘-아’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良置’가 14세기 후반 이두 자료에 출현하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 목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만일 포함시킨다면 [양보]의 연결어미에 추가할 수 있다.
- 9) ‘遣’은 전통적으로 연결어미 ‘-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려 이두까지 ‘古’는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정렬모(1965), 서재극(1972), 서재극(1975), 황선엽(2002가,나), 장윤희(2005) 등의 논의를 통해 ‘遣’을 ‘겨/견’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만일 ‘遣’을 ‘겨/견’으로 파악한다면 고려시대 이두 자료에서 연결어미 ‘-고’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된다.
- 10) 기존의 향가 해독자들은 ‘-매’로 파악했던 연결어미이다. 그러나 유창균(1994)에서는 한자음을 근거로 ‘-며’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후에서도 이현희(1996), 이용(2000)에서는 고대국어에 처격조사 ‘-애’가 없고, 명사형어미는 ‘-음/움’으로 실현된다는 사실들을 근거로 ‘매’로 읽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황선엽(2002나)에서는 ‘-며’로 읽어도 의미가 통하는 문맥이 있다는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 ‘米’는 향가에 7번이나 출현하는데, 문맥상 [원인], [계기]의 연결어미 위치에 쓰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번 목록에서는 독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인] 정도의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로 분류해 둔다.
- 11) 황선엽(2002가)에서는 석독구결에도 ‘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으나, 황선엽(2002나)에서는 ‘口 ㅌ’은 ‘口…ㅌ’의 불연속형태소인 것으로 처리해 석독구결에는 ‘ㅌ’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견해를 수정하였다.
- 12) 동명사어미 ‘-ㅌ’은 ‘謂ㅌ’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명사+ㅌㅌ’이나 ‘동사+ㅌㅌ/ㅌㅌ’의 형태로 나타난다. 뒤의 경우는 ‘-니’에 해당하는 정도의 ‘계기’나 ‘전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 13) 동명사어미 ‘-ㅌ’이 연결어미로 쓰이는 일은 화법구문과 사유구문에서만 확인된다. ‘言/曰/告ㅌ’(말한 내용 직역 인용)의 형식과 ‘思惟ㅌㅌㅌ+(사유 내용 인용)’의 형식으로만 사용된다. 이와 동일한 환경에 ‘ㅌㅌ’가 나타나기도 한다.
- 14) 기존 연구에서는 ‘ㅌ’를 종결적 요소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구결 해독에서도 ‘ㅌㅌ, ㅌㅌ’는 해독자에 따라 종결로도 연결로도 기준 없이 처리해 왔던 형태이다. 그러나 김지오(2012가)에서는 ‘-은여, 을여’ 뒤에 접속사 ‘而’가 온다는 사실과 도치된 목적어절이나 주절 안에 ‘-ㅌㅌ, ㅌㅌ’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연결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①배경 상황 제시, ②설명·부연, ③대립 또는 양보의 의미를 지닌 연결 표현으로 파악하였다.

다는 특징이 여기에서도 반영되고 있지만, 앞의 ‘如’는 무엇이고 왜 ‘아’를 표기하는 ‘良’이 ‘아’가 아닌 ‘라’를 표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풀릴 때 연결어미 ‘-라’에 대한 확신이 설 수 있다. (1다)는 ‘알괴 ㄷ외매’ 정도로 해독되어 온 부분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괴’로 파악해 왔는데, ‘矣爲米(ㄷ외매)’의 해독에 이견이 많아 ‘-게 ㄷ외-’로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라)의 ‘口ハㄱ’은 나열의 ‘…ㄱ…ㄱ ㄴ-’ 구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로 주목을 받아왔던 예이다. ‘ㄴ’과 더불어 [원망]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이며, 15세기 ‘-고저’로 연결되는 형태로 파악할 수도 있다.

다음은, 용례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결어미로 주장되어 왔던 형태이지만 이번 목록에서 제외시킨 형태들이다.

(2) 가. [목적] 려(將來)

- 兇史毛達只將來吞隱日逸遠鳥逸□□過出知遣 <遇賊歌 2>
-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彗星歌 5>
- 皆往焉世呂修將來賜留隱 <常隨佛學歌 2>
- 造將來臥乎隱惡寸隱 <懺悔業障歌 3>
- 煩惱熱留煎將來出米 <請轉法輪歌 6>
- 作福作威爲將來臥乎等用良 <尙書都官>

나. [도달] ㄷ록(所只)

- 法界毛叱所只至去良 <禮敬諸佛歌 4>
- 仏伊衆生毛叱所只 <隨喜功德歌 3>
- 手焉法界毛叱色只爲旃 <廣修供養歌 5>

다. [조건] 을디(尸知)

-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安民歌 3>
-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 <安民歌 5~6>

(2가)는 양주동(1965)에서 ‘-려’로 해독한 이후, 여러 해독자들과 이승재(1987)에서도 의도의 연결어미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5)</sup> 그러나 ‘將來’라는 두 글자로 하나의 선어말어미를 표현하는 기이한 차자 방식, ‘將來’가 과연 ‘-려’음을 전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무엇보다 ‘-려’로는 문맥이 통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문제점 때문에 거센 반론도 존재해왔다. 본고에서는 박재민(2002가)의 ‘가오’나 김지오(2010)의 ‘가저오’의 해독안을 따라 ‘將來’는 어휘 요소로 판단하여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2나) 역시 양주동(1965)에서 ‘ㄷ록’으로 해독한 이후 [도달]의 연결어미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所’가 ‘ㄷ로’에 해당한다는 義訓借의 설명이나 이두의 ‘巴只’의 오자라는 설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더욱이 ‘毛叱所只’를 ‘다하도록, 없도록’로 해석해서는 <隨喜功德歌>의 ‘仏伊衆生 毛叱所只’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박재민(2002나:17-18)에서 제안한 것처럼 ‘두루, 다’의 의미를 갖는 ‘못속’ 정도의 부사로 파악한다.<sup>16)</sup>

(2다)는 ‘~한다면’ 정도의 [조건]의 연결어미로 파악되어 왔다. 그러나 ‘尸知(을디)’가 문법 요소라면 ‘동명사어미#ㄷ+이’ 이상의 분석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것은 명사구 보문 구성이

15) ‘將來’에 대한 종래의 연구사와 기존 해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김지오(2010:72~75)를 참고할 수 있다.

16) ‘못속’은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모로기(물록)[頓]’와 관련되는 형태로 짐작된다.

지 연결어미 구성이 되기는 어렵다. 황선엽(2008)의 제안처럼 ‘知’를 혼독하고 (향가에서 자주 생략되는) 연결어미 ‘-아(良)’의 생략으로 파악한 견해에 따라 ‘-르디’라는 연결어미는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결어미 ‘-니’의 존재 여부의 문제이다. ‘-니’는 동명사어미 ‘-ㄴ’에서 기원한 형태이고 중세국어부터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연결어미이기에 일찍부터 존재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고대국어 자료에 확실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고대국어 연결어미 기술에서 ‘-니’를 인정하고 있는 기술은 서태룡(1997), 전병용(1995)뿐이다.)

(3) 가. 此兵物叱沙過乎 好尸曰沙也內乎吞尼 <遇賊歌7~8>

: 이 잡골사 디내온 도홀날 새누웃다니 <양주동 역>

나. 家<sub>1</sub> 是<sub>1</sub> 貪愛繫縛<sub>7</sub> 所<sub>11</sub> ㄴ<sub>?</sub> 衆生<sub>乙</sub> 悉<sub>3</sub> 免離 使<sub>11</sub> 欲<sub>人</sub>

<화엄18:16>

: 집은 貪愛가 얹힌 곳이니 衆生을 다 벗어나게 하고자

(3나) ‘니’ 자형

고대국어 자료에서 ‘ㄴ/尼’의 자형 자체도 잘 나타나지 않고,<sup>17)</sup> 더욱이 어말어미 위치에 나타나는 ‘-니’는 위의 단 두 예뿐이다. (3가)의 ‘吞尼’는 해독부터 큰 의견 차이를 보인다. ‘골짜기여’, ‘-더니’, ‘-던 것’, 감탄의 ‘-다니’, ‘의문 어미’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 ‘-니’를 확신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尼’의 출현 위치가 문제가 되는데, 10구체 향가의 8행 마지막은 종결어미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니’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연결보다는 종결의 기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3나)는 문맥상 연결어미로 해석될 위치이나, 이미지로 제시한 바와 같이 ‘ㄴ’의 자형이 ‘ㄴ’에 가까워 ‘-니’를 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결어미를 쓰려던 오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ㄴ/尼’는 하나의 단일 문법 형태소라기보다는 ‘-ㄴ+이(+이-)’를 두 형태를 단순한 글자로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차자표기 자료에서는 ‘ㄱ 11’로 분리된 표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석독구결에서 ‘-ㄱ 11-’는 무려 180회나 출현한다.

(4) 가. 安支尙宅都乎隱以多 <遇賊 >

나. 皆佻体置然叱爲賜隱伊留兮 <常隨 8>

(5) 가. 世間<sub>乙</sub> 利益<sub>ㄴ</sub> 爲<sub>ハ</sub> 而<sub>ㄴ</sub> 發心<sub>ㄴ</sub> ㄱ<sub>11</sub> ㄴ <화엄09:13>

cf) 後<sub>11</sub> ㄴ<sub>1</sub> 方<sub>7</sub> 食<sub>ㄴ</sub> ㄴ <화소09:12>

나. 我<sub>1</sub> 今<sub>ㄴ</sub> 貪<sub>ㄴ</sub> 衆<sub>1</sub> 苦<sub>ㄴ</sub> 逼迫<sub>ㄴ</sub> ㄱ<sub>11</sub> ㄴ <화소11:09-10>

cf) 我<sub>1</sub> 今<sub>ㄴ</sub> … 死<sub>ㄴ</sub> 將<sub>ㄴ</sub> 久<sub>3</sub> 不<sub>ㄴ</sub> ㄴ <화소10:19>

‘隱以/ㄱ 11’는 동명사어미 ‘-ㄴ’과 ‘이(계사/의존명사+이)’의 구성으로, ‘~함이, ~하는 것(이)’ 정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5)의 예처럼 ‘-ㄱ 11-’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ㄱ 11-’들로 인해 동명사어미와 ‘이’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단일 형태 ‘ㄴ/尼’로 표기하면서 ‘-니(-)’가 발달한 것으

17) 비어말 위치에 나타나는 ‘ㄴ/尼’는 ‘毛如云遣去內尼叱古 <祭亡 4>’와 ‘不<sub>ㄴ</sub> ㄱ<sub>11</sub> ㄴ<sub>乙</sub> 觀察<sub>ㄴ</sub> ㄴ <화소13:10>’처럼 석독구결에 4회 정도가 더 나타난다. ‘不<sub>ㄴ</sub> ㄱ<sub>11</sub>’의 ‘니’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동명사어미 ‘-ㄴ’과 ‘이(계사/의존명사+이)’의 복합 구성을 하나로 표기한 것이다. 동일한 구문이 “-ㄴ 可<sub>ㄴ</sub> ㄱ<sub>11</sub> ㄴ 不<sub>ㄴ</sub> ㄱ<sub>11</sub>”로 나타난다는 점이 근거이다.

로 짐작된다. 따라서 (3)의 ‘ㄷ/ㄴ’의 예가 ‘-니’의 태동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고대국어 기술에서 연결어미 ‘-니’를 목록에 포함시키기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 2.3. 여말선초 음독구결에 나타난 특이한 연결어미

여말선초 음독구결의 연결어미들은 이미 15세기 연결어미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므로 고대국어 연결어미에 함께 다루기엔 이질감이 크다. 그런데 향가, 이두, 석독구결에는 나타나지 않고 여말선초 음독구결에만 나타나는 희귀한 연결어미가 있어 주목된다. 이 두 용례는 고대국어 연결어미에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 (6) 가. ㅎ머히(ㄴㅎㅁ)

- 空色ㄴ 既立ㄴㅎㅁ 想相ㄴ 競生ㄴ ㄴ <9594楞嚴02:8b>
- 纔有 所明ㄴㅎㅁ 卽墮妄覺ㄴ ㄴ 無窮妄業ㄴ 由是而生也ㄴ <남01楞嚴04:30a>

#### 나. ㅎ니여(ㄴㅎㅁ)

- 法身覺了ㄴㅎㅁ 無一物ㄴ ㄴ <南明3ㄱ>
- 西風ㄴ 一陣ㄴ 掃 無蹤ㄴㅎㅁ 萬里山河共晴日ㄴ ㄴ <南明3ㄴ>

※‘ㄴㅎㅁ’의 예는 남풍현(2000)에서 재인용

(6가)의 ‘ㅎ머히’는 [조건]의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로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소개되었다.<sup>18)</sup> (6나)는 ‘ㅎ니, ㅎ여’ 등에 대응되는 형태로 김두찬(1987)에서는 처음 소개되었다. 그러나 남풍현(2000가)에서는 ‘흔+이(의존명사)+여(처격조사)’로 분석하여 ‘ㄴㅎㅁ+’의 방언형을 반영하는 [조건]의 형태로 추정하였다.

### 2.4. 고려가요의 연결어미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노래이기는 하나 15세기 이후에 한글로 채록되었고, 더욱이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노래들은 근대국어적 특성까지도 갖고 있어,<sup>19)</sup> 고대국어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에는 ‘-저’와 같이 고대의 문법 형태들도 존재하고 있어, 고려가요의 연결어미 목록도 참고삼아 제시한다.

#### (7) 고려가요의 연결어미

-고, -곤, -ㄴ 돌, -ㄴ 뉘, -니, -다가, -도록, -ㄴ 만당, -라, -란디, -마론/마르논/  
마른, -며, -면, -명, -아/어, -아서, -어곰, -어니와, -언마르논/언마르논, -저

18) ‘ㅎ머히’에 대해서는 ‘金斗燦(1987), 金斗燦(1996), 이승재(1990), 南豐鉉(2000), 이진식(2017가)’를 참고할 수 있다.

19)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에 사용된 문법 형태의 시대적 층위 문제에 대해서는 김지오(2018)을 참고할 수 있다.

## 2.5. 고대국어 보조적 연결어미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어미(-아, -게/기/괴, -디, -고)에 해당하는 형태들이 고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본다.<sup>20)</sup>

(8) 가. 他密只嫁良置古 <薯童謠2>, 此身遣也置遣 <원왕생가8>

나.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祭亡妹歌6>

(9) 伊知皆矣爲米 <請佛住世歌7>

(10) 가. 其 味 ㅅ + 食尸 不 ㅅ 나 ㅅ <화소09:17>

나. 愛樂 ㅅ 可 ㅅ ㅅ ㅅ 不 ㅅ ㅅ <유가27:06>

(11) 가. 夜矣夕 ㅅ 乙抱遣去如 <薯童謠4>

(8)에서 ‘置’, ‘落’을 보조용언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때의 ‘-아’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처리할 수 있다. (9)는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이 알기 ㅅ 외매’ 정도로 해독하여 ‘皆’를 보조적 연결어미 ‘-기/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기/괴’는 유일례로 다른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되다’에 해당하는 동사 ‘ㅅ외다’가 고대국어에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sup>21)</sup> 석독구결에서는 ‘일돌ㅎ(ㅅ尸爲入乙ㅅ)-’로 나타나고 있어 고대국어에 ‘ㅅ외-’가 존재했는지도 불투명하다. ‘矣爲米’가 ‘ㅅ외다’가 아니라면 ‘皆’가 보조적 연결어미인지는 확신이 어렵다. (10)을 통해 부정문을 이끄는 보조적 연결어미 ‘-디’가 고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동명사어미 ‘-ㅅ, -尸’이 이끈다는 사실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11)의 ‘去(가다)’를 보조용언으로 인정한다면 ‘견/겨(遣)’를 보조적 연결어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遣’을 ‘고’로 읽는 관점에서는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황선엽(2002나)에서 지적한 대로 ‘-古’는 절 접속에서만 사용되고, 句 접속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보조적 연결어미 ‘-고’의 존재는 희박하다.<sup>22)</sup>

20) 고대국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가 없어 보조적 연결어미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허웅(1975:439)에서 분류한 중세국어 보조용언에 근거해 보조용언이 나타날 만한 환경들을 검토해 보았다. 허웅(1975)에서는 “아/어 아래 : 보다, 브리다, 디다, 잇다, 거시다, 가다, 두다, 내다, 나다”, “-게 아래 : ㅅ외다”, “아어, 거, 가 아래 : 지라”, “아/어, 게, 디 아래 : 말다”, “여러가지 말 아래 : ㅎ다, 아니ㅎ다, 묻하다”를 보조용언으로 분류한 바 있다.

21) 일부 학자 연구자들의 해독에서 ‘ㅅ외-’로 파악한 부분이 나타나기는 한다. <우적가> 10행 ‘安支尙宅都乎隱以多’의 ‘都乎隱以多’를 ‘ㅅ외니다’로(양주동 1965), <怨歌> 4행의 ‘冬矣也’를 ‘다외야’로(남풍현 2017나) 정도가 보인다.

22) 남풍현(2017가)에서는 고대국어의 동사 ‘ㅅ/只(기)-’의 존재를 주장하였는데, 이 동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특정 의미를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품위 있는 행위’, 또는 ‘모범적인 행동’,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로 기술되었다. 만일 이 형태를 인정한다면 현대국어의 보조용언과 유사하지 않나 싶다. 그런데 이 보조동사 ‘기-’ 앞에는 ‘ㅁ(고)’, ‘ㅅ(아)’, ‘ㅅ/다(→더)’, ‘ㅅ(거)’, ‘ㅅ(느)’, ‘ㅅ(겨)’, ‘ㅅ(습)’처럼 다양한 선어말어미만 선행할 뿐, 보조적 연결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는 어미의 매개 없이 직접 동사어간에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남풍현(2017가)에서는 기술하였다.)

### 3. 고대국어 연결어미 특징

#### 3.1. 외형적 변화가 큰 연결어미

15세기 연결어미 형태와 전주어불 때 고대국어 연결어미는 이후의 형태들과 차이가 크다.

| 고대국어              | 15세기           | 고대국어     | 15세기               |
|-------------------|----------------|----------|--------------------|
| -나                | 0              | -오/우     | △                  |
| -과두               | ×              | -이       | △                  |
| -마리여              | ×              | -고       | 0                  |
| -며                | 0              | -ㄴ ㄷ 로   | ×                  |
| -나                | -거/어나          | -미?      | -오매 <sup>23)</sup> |
| -저/제              | ×              | -견/겨     | ×                  |
| -ㄹ ㄷ ㄴ/ㄷ          | ×              | -곤       | 0                  |
| -ㄴ ㄹ              | ×              | -은       | ×                  |
| -ㄴ 다 ㄴ            | ×              | -을/을더    | ×                  |
| -ㄴ 다 ㄹ            | ×              | -ㄴ 여/ㄹ 여 | ×                  |
| -아 ㄴ              | ×              | -늘/늘     | -거늘                |
| -고 ㄴ              | ×              | -온디/옴디   | -오디                |
| -아<br>(아사, 악, 아픔) | 0<br>(0, △, △) | -과       | -고저/과더             |
|                   |                | -다가      | 0                  |

문법 형태는 어휘 형태보다 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욱이 한국어의 모든 문장은 어말어미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필수 요소이므로 쉽게 변하기 힘들다. 그러나 고대국어 연결어미 목록과 중세국어 연결어미 목록을 비교해 보면, 15세기까지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대조의 ‘-나’, 연결의 ‘-아(사)’와 ‘-고’, 발견의 ‘-곤’, 전환의 ‘-다가’ 정도이고, 대부분 소멸되거나 형태가 조정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4)</sup>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어미의 외형적 변화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①첫째, 절 접속만을 전담하는 단일 형태의 연결어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②둘째, 연결어미를 구성하는 주재료인 동명사어미, 처격조사, 의존명사가 15세기로 넘어가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 ③셋째, 선어말어미가 문법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첫째, 절 접속을 전담하는 단일 형태의 연결어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른 문법 요소로는 전용/혼용되지 않고 오로지 절 접속으로 순수하게 사용되는 단일 형태는 [대조]의 ‘-나’와 [願望]의 ‘-과’ 정도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 단일 형태의 연결어미는 부사파생 접미사로도 사용되고 있다.

23) 15세기의 ‘오매’는 대부분 명사형어미 ‘-음’과 처격조사 ‘-애’로 분석되는 구성이나 문맥에 따라서는 연결어미화된 것처럼 보이는 예도 존재한다. 卍菩薩이 돌니시며 셔 겨시며 안즈시며 누보사매 夫人이 아므라토 아니호더시니 <月釋2:26a>

24) 형태적 변화가 크다고 이후 문법형태소와의 연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윤희(2010)의 기술처럼 15세기 ‘-오디’는 고대국어의 ‘-온디, -을디’뿐 아니라 동명사어미가 연결어미로 쓰인 ‘-을(尸)’의 의미와 기능까지 합류되어 만들어진 형태이다. 이처럼 의미와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연결어미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일 수 있으나, 이번 논의에서는 외형적 형태 측면에서의 변화를 강조해 바라본 것이다.

25) 고대국어 부사파생 접미사의 목록과 예들은 장윤희(2006)에서 가져온 것이다.

| 연결어미   | 부사파생접미사 <sup>25)</sup> |
|--------|------------------------|
| -ㅓ     | 盡ㅓ, 悉ㅓ, 更ㅓ, 先ㅓ/ㅓ       |
| -ㅓ     | 能ㅓ, 善ㅓ, 況ㅓ             |
| -ㅓ     | 專ㅓ                     |
| -ㅓ/ㅓ/ㅓ | 初ㅓ, 爲三ㅓ, 好ㅓ, /因ㅓ       |
| -ㅓ     | 無ㅓ, 廣/普ㅓ, 常ㅓ           |

하나의 형태가 연결어미로도 사용되고 접미사로도 사용된다면 경쟁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쪽은 퇴화하거나 소멸하는 구조를 갖기 쉽다. 실제로 ‘아(ㅓ)’, 며(ㅓ), 고(ㅓ)’는 접미사의 기능이 퇴화된 쪽이라면, 오히려 ‘오(ㅓ)’와 ‘이(ㅓ)’는 연결어미로의 기능이 퇴화된 쪽이다.

둘째, 고대국어 연결어미를 구성하는 형태를 보면 ‘동명사어미’가 단독으로 연결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동명사+조사’, ‘동명사+의존명사+조사’의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sup>26)</sup> 이렇게 연결어미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3요소-동명사, 조사, 의존명사-들은 15세기로 넘어가면서 큰 변화를 입는다. 동명사어미 ‘-ㄴ, -ㄹ’은 고대국어 시기에는 명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 부사형어미(今ㅓ), 연결어미로 다양하게 쓰였지만 15세기에는 대부분 관형사형 어미로 그 기능이 급격히 축소된다. 그리고 연결어미 구성에 자주 참여하는 처격 조사 ‘아기/기’는 15세기의 ‘애/에/예’와는 형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대국어 연결어미 구성에는 의존명사 ‘ㄷ’만 참여하였으나, 여말선초 시기부터는 새롭게 등장한 ‘스’가 연결어미 구성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연결어미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셋째, 15세기 연결어미는 ‘-거/어-’나 ‘-오/우’처럼 선어말어미가 연결어미의 문법화에 참여한 형태들이 많지만, 고대국어에서는 ‘-온타/올타’를 제외하고는 선어말어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들이 거의 없다. 연결어미의 문법화에 선어말어미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연결어미의 형태 변화를 크게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다.<sup>27)</sup>

### 3.2. 절 접속 이상을 담당하는 연결어미

고대국어의 문장들은 현대처럼 종결어미로 짧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연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길게 늘어지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만연체의 양상을 보이기 위해 <瑜伽師地論>의 종결과 연결 양상 일부를 제시한다. <瑜伽師地論>은 일종의 백과사전식의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자토 구결자료들 중에서 가장 간결한 문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역(역경원 번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긴 호흡의 종결 패턴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황선엽(2002나)에서 연결어미 분류를 ‘단일형 연결어미, 동명사어미 개재형 연결어미, 의존명사 개재형 연결어미, 기타 합성형 연결어미’로 나누어 다른 것으로도, 고대국어 연결어미의 구성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27) 황선엽(2002가,나)에서 주장한 ‘-건’이라는 형태는 선어말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여타의 연결어미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형태가 된다.

|            |            | 석독구결 번역            | 역경원 번역         |
|------------|------------|--------------------|----------------|
| ③<br>涅槃爲上首 | 개관         | 04:19 尸矢           | 04:19          |
|            |            | 04:20              | 04:20          |
|            |            | 04:21 卍            | 04:21          |
|            |            | 04:23 當知 卍   ~ 1 丁 | 04:23          |
|            | 十法         | 1)聞所成慧             | • (가)          |
|            |            | 2)三種信解             | • (가)          |
|            |            | 3)遠離憤鬧惡尋思          | • (가)          |
|            |            | 4)趣入思所成智           | • (가)          |
|            |            | 5)趣入二修方便           | • (가)          |
|            |            | 6)證得修所成智           | • (가)          |
|            |            | 7)發起勝解             | • (가)          |
|            |            | 8)證得有學解脫           | • (가)          |
|            |            | 9)證得無學解脫           | • (가)          |
|            |            | 10)解脫圓滿            |                |
|            | 獲得五<br>種勝利 | 05:14 卍ノ牙          | 05:14          |
|            |            | 05:16 ナギセ          | 05:16          |
|            |            | 05:17 當知 卍   ~ 1 丁 | 05:17          |
|            |            | 개관                 | 05:18 當知 ~ 1 丁 |
|            |            |                    | 05:21 尸矢       |
|            |            | 聽聞法時 饒益            | •              |
|            |            |                    | •              |
|            |            |                    | •              |
|            |            |                    | • (가)          |
|            |            | 修正行時 饒益            | •              |
|            |            |                    | •              |
|            |            |                    | •              |
|            |            |                    | •              |
|            |            |                    | 06:10 ヌ尸丁 ヌ又牙  |
|            |            |                    | 06:12 卍ノ牙      |
|            |            |                    | •              |
|            |            |                    | 06:13 ナ 1 卍    |

※ 김지오(2018나:225-226)

또한 <화엄경소>와 <화엄경> 자료들은 보살들의 문답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많다. 이때 종결어미는 하나의 문답이 끝날 때 드물게 사용된다. 즉 한 문창이 끝날 때마다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담화가 끝날 때**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느낌을 준다(科文 패턴과 거의 동일하게 종결어미가 사용되는 경향을 보임).

그렇다면 이런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사용 패턴은 단순한 문체의 차이를 넘어서, ‘고대국어의 종결과 연결의 개념이 현대국어와는 다른 개념을 갖는 건 아닐까? 고대국어의 종결과 연결은 문장보다 더 큰 단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가설을 설정해 보게 한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의 종결과 연결에 관한 인식 차이는 ‘句讀點’의 개념에서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sup>28)</sup>

28) 구두점의 개념은 柳雲龍, 謙菴集 권64, 「分句讀法」에 기술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讀者, 文似斷而意未斷, 連讀下文者, 於文似斷處, 正當其中直點圓圈者是也. 句者, 於文義并絶斷處, 橫點圓圈於右邊

讀：‘문장’이 끊어진 듯하지만, ‘뜻’이 끊어지지 않은 곳(文似斷而意未斷)

句：‘문장’도 끊어지고, ‘뜻’도 끊어지는 곳(於文義并絶斷處)

<分句讀法>에 따르면 두점(讀點)이란 연결어미가 사용될 만한 곳이고, 구점(句點)이란 종결어미가 사용될 만한 곳이다. 이때 ‘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담화 주제(科文)’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끊어짐의 단위가 ‘문장’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뜻’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이런 구두점의 체계에서 讀點(연결어미)은 현대적 개념의 문 종결의 기능을 겸할 수 있고, 句點(종결어미)은 문장보다 큰 단위, 즉 담화가 끝남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다시 가설로 돌아와, 고대국어의 연결어미가 절 접속 이상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연결어미가 문장(절)을 종결하면서 담화는 계속 이어준다는 가설은 무엇으로 더 뒷받침할 수 있는가? 바로 선어말어미의 분포에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고대국어 연결어미 중에는 종결어미와 유사하게 청자존대, 시상, 서법 등 많은 선어말어미를 선행시킬 수 있는 연결어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ㅁ(며)’가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고대국어 연결어미 대부분은 ‘-습-, -시-, -겨-’만을 선행한다(일부의 연결어미들만 이 외의 선어말어미를 제한적으로 선행). 그런데 ‘-며’는 ‘-시-, -습-, -겨-’ 외에도 ‘-오-, -느-, -리-, -앗-, -골(口乙/口尸)-’과 심지어 동명사어미 ‘-을(尸)’을<sup>29)</sup> 선행하기도 한다.<sup>30)</sup>

일반적으로 연결어미에 선어말어미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나는 까닭은 후행문(문장 종결)의 시제, 상, 서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대국어의 ‘-며’가 이렇게 다양한 선어말어미를 취한다는 사실은 후행절의 지배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며’로 접속된 절은 그 자체로 종결적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며’ 앞의 형태들 중 주목되는 선어말어미는 ‘-앗-’이다. 청자존대의 선어말어미는 선어말어미의 배열 순서에서 맨 뒤에 위치하는 요소이다. 이것은 문장 내부의 정보에 관여하지 않고, 문장을 벗어난 담화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에 종결로 문장이 완결되었다는 정보가 주어지야 출현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런데 박진호(1998)의 주장대로 ‘-고-’와 ‘-앗-’이 청자존대를 담당하는 형태라면, 청자존대가 연결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연결어미 분포의 예외성을 두는 것이겠지만, 본고에서는 ‘고대국어에서는 예외적으로 연결어미 앞에서도 청자존대의 선어말어미가 출현할 수 있었다’는 기술보다는 ‘고대국어 시기에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특징을 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화 요소인 청자존대의 선어말어미가 연결어미 앞에 출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더 바람직한 설명이 아닌가 한다.

결국 ‘-며’와 같은 연결어미는 접속된 절(문장)은 종결하지만 담화는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의 ‘접속’ 기능을 수행한다. 접속의 대상이 절이 아니라 더 큰 단위일 수 있다는 특징에 주목하면, 단순히 절 접속만을 나타내는 (현대국어적 관점으로 규정된) 연결어미와는 개념을 달리 해야 한다. 물론 15세기로 넘어가면서 ‘-며’는 더 이상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지만 절이나 문장은 종결하면서 이야기는 계속 연결하는 기능은 여말선초에 새롭

者是也(최식 2008:4)”.  
29) 度リ亡尸分 <화엄14:22>, 不(ノ?)尸分 <A화엄15:05>

30) 종결어미 ‘-다’에 선행하는 선어말어미로는 ‘白, ニ, ナ, ヌヒ, ヌ/ヲ, ヒ, ト, 牙, 口, 口ヒ, ヅヒ’ 등이 있는데, ‘-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게 출현한 연결어미 ‘-니’를 통해 유지된다. ‘-니’는 중세국어 연결어미 가운데 유일하게 시제의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나타나는데, 종결어미의 시제 분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결론적으로 고대국어 연결어미 중에는 순수하게 절 접속만을 수행하는 연결어미도 있지만,<sup>31)</sup> ‘-며’처럼 절 접속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어미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 그리고 구결문이나 언해문이 긴 만연체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문체의 문제를 넘어 연결어미의 특수한 기능에서 발생한 현상일 수 있다.

### 3.3. 연결·종결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의 존재

앞서 논의한 것처럼 연결과 종결의 경계를 공유하는 형태가 있다고 할 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형태가 더 있다. 바로 ‘여(여, ㄹ)’이다. ‘여’는 명사와 명사구 뒤에 출현하므로 문법적 지위는 ‘조사’이지만 그 기능은 종결과 연결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남풍현(2018)에서는 ‘여’를 서술격 조사로, 전기량(2018나)에서는 ‘서술 보조사’로 명명하여 ‘-다’와 대칭을 이루는 종결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sup>3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풍현(2018)에서는 연결어미로 풀이해야 자연스러운 예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sup>34)</sup> 김지오(2012가)의 기술처럼 ‘(ㄴ/ㄷ)여’ 뒤에 접속사 ‘而’가 온다는 사실과 도치된 목적어절이나 주절 안에 ‘-ㄱ, ㄴ, ㄷ’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면 ‘동명사어미 -ㄱ/ㄷ’과 결합한 ‘ㄴ/ㄷ’은 분명 연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결과 연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이 ‘여’는 난감한 형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여’의 모호한 특징은 번역에서도 혼란을 야기한다. 실제 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번역과 해독들에서 ‘ㄴ/ㄷ’은 연결로도 종결로도 처리되는 일이 흔하다.

(12) 가. 是 如 支 初 支 生 圓 滿 廣 聖 教 義 此 十 種 有 ㄴ ㄷ <유가04:04-05>

ㄴ, 열 가지가 있으니

나. 廣 說 入 當 知 二十 種 有 ㄴ ㄷ 菩 薩 地 當 說 如 支 初 支 生 圓 滿 廣 聖 教 義 此 十 種 有 ㄴ ㄷ <유가04:09-10>

ㄴ, 있으니

ㄴ, 같은 것이다.

다. 定 心 中 慧 於 所 知 境 清 淨 轉 入 故 ㄴ <유가06:16-17>

ㄴ, 까닭에서이다.

※장정준외3(2015) 번역 일부 제시

이런 모순적인 기술(동일 형태를 종결로 연결로 해석)과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장 종결도 겸할 수 있는 연결어미의 존재, 연결과 종결의 개념의 차이 등을

31) 제한적인 선어말어미(‘-습-, -시-, -거-’만 선행)를 취하면서 절 접속의 기능만 수행하는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아, -고, -오/우, -이’가 있다.

32) ‘-며’ 이외에 절 접속 이상을 담당하는 형태로 ‘-늘’을 들 수 있다. ‘-늘’도 ‘-시-, -거/아-, -고-, -느-, -누-, -거-, -ㄹ’ 등 다양한 선어말어미를 선행한다.

33) 남풍현(2018)에서는 ‘여’를 현대어의 ‘이다’에 대응시켜, ‘여’가 출현한 대부분의 예를 종결형 ‘-다’로 해석하는 태도를 보인다. 전기량(2018:28)에서는 도치라는 특성을 제외한다면, 두 형태 모두 내포문을 종결하고, 인용조사의 용법으로 쓰이며, 이유절 도치 구문의 경우 ‘여’의 자리에 ‘다’가 온 예를 볼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여’와 ‘-다’를 평행한 형태로 파악하였다.

34) 남풍현(2018:55)의 예문 (1다) ‘花須彌山王{如}雲{如}而下<구인2,15> (꽃은 須彌山王같은데, 구름 같아 아래로 내리고 있으며)’와 (1라) ‘時大自在梵王{於}大會中座從而起<금광13,18> (이 때 大自在梵王은 大會가운데 있으시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고려해 볼 때, ‘여’와 같이 연결과 종결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지 끊거나 쉴 수 있다는 표지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존재도 고대국어에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에 대한 일관성 없는 번역은 불완전한 번역이 아니라 고대국어의 연결과 종결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한 번역일 수 있다.

## 4. 고대국어 연결어미의 연구의 한계와 과제

### 4.1. 자료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형태들에 대한 처리 문제

동일한 연결어미라 하더라도 자료에 따라 그 기능(의미)이나 출현 양상이 이질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갖고 고대국어 연결어미의 전체 특징처럼 말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가도 조심스럽다. 이런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본다.

먼저 연결어미에 선행하는 선어말어미의 분포 차이를 보이는 경우다. ‘-아(良)’의 경우 향가에서는 대부분 어간에 직접 연결되거나 ‘內’이 선행한 경우도 보이지만,<sup>35)</sup> 구결에서는 ‘-습(白)-, -시(二)-, -겨(ナ)-’만이 선행한다. 또한 ‘-며(分)’는 석독구결에서는 ‘-시-, -습-, -겨-, -느-, -리-, -앗-, -오-, -을’처럼 다채로운 선어말어미가 선행하지만 향찰과 이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 ‘-遭’를 ‘고’가 아닌 ‘겨/견’으로 읽는 견해는, 향가 자료에서는 ‘古와 ‘遭’의 구분이 유용하다. 그러나 이두에서는 고려시대까지 ‘遭’만 사용되고 ‘古’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이두에는 연결어미 ‘-고’가 없었다는 의미가 되며, 구결에서는 ‘-古’이란 연결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세 번째, ‘-저’의 분포와 출현 환경도 이두에서와 구결에서가 다르다. 구결의 경우 ‘…  
…  
’란 아우름 동사를 동반하여 나타나지만, 이두에서는 반복이나 아우름 동사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소망]의 의미나 명령형 종결어미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자료별 ‘-저’의 출현이 이질적이다.

네 번째, ‘-곤’도 자료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향가에서는 ‘入良沙侵矣見昆 <處容>, 得賜伊馬落人米無叱昆 <隨喜>’로 전제나 발견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석독구결에서는 ‘略口<sub>1</sub>, 廣<sub>11</sub> 說口<sub>1</sub>, 何<sub>1</sub>口<sub>1</sub>’과 같이 쓰인 예들은 향가의 예들과 의미의 차이가 크다.

이처럼 환경과 의미에 따라 ‘-X1, -X2’로 구분하거나, ‘-X(鄉歌), ’-X(口訣)’로 분리해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보게 된다.

### 4.2. 어미 연구가 아닌, 연결 표현 찾아내기

고대국어는 자료가 빈약하다보니 연결어미의 문법화 정도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그런 까닭에 고대국어 연결어미는 ‘어미 연구’라기보다는 ‘연결 표현 연구’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35) 二是掌音毛乎支內良<禱千 2>

- (13) 가. 비가 많이 와서 출발하지 못했다.  
나. 비가 많이 온 까닭에 출발하지 못했다.

- (14) 가. 비가 오면 10키로 감속하세요.  
나. 비가 올 때에는 10키로 감속하세요.

연결어미는 (13,14가)의 ‘-아서’, ‘-면’이고, (13,14나)의 ‘-ㄴ 까닭에’와 ‘-ㄴ 때에는’은 연결어미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고대국어 연결어미는 (가)와 (나)의 유형을 모두 아울러 ‘어미’라고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3나)에 해당하는 것이 ‘-ᄃᆞᆫ(ㄴㄷ로)’이고, (13나)에 해당하는 형태가 ‘-ᄃᆞᆫ(ㄴ다과), -ᄃᆞᆫ(ㄴ다과)’이다. 과연 이런 형태들도 어미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4.3. 생략표기에 대한 고려 미흡

차자표기 자료는 모든 형태를 있는 그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음독구결의 경우, 계시 ‘-이-’, 접미사 ‘-ᄃᆞᆫ-’, 동명사어미 어미와 조사 등이 생략되는 일이 흔하다. 그리고 이 두 자료는 어말어미를 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연결어미 ‘-良’의 생략이 대표적이다 (연결어미 ‘良’은 11세기 자료에서부터 나타남).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형태를 보아야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도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다. 어떤 자료와 어떤 환경에서 생략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절실하다. 더불어 생략표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대국어의 문법 형태를 잘못 파악한 경우는 없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연결어미의 형태로 향가에 나타난 ‘根’, ‘尸知<安民歌>’를 들 수 있다. 이 두 형태 모두 ‘良’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오(2012나)에서는 ‘根’ 앞에 ‘良’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구결의 ‘ᄃᆞᆫ, ᄃᆞᆫ’과 동일한 형태로 파악하여, ‘根’을 ‘昆’과 동일한 형태로 파악해왔던 기존 견해를 뒤집었다. 또 황선엽(2010)에서는 ‘知’를 동사 어간으로 파악하고 뒤에 ‘良’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尸知’를 조건의 연결어미로 보아왔던 설을 뒤집었다. 이렇게 생략 표기로 오도된 형태들은 더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4.4. 연결어미에 대한 의미 연구 부족

고대국어 연결어미는 형태와 선후행 요소에 대한 분석, 고대국어 연결어미가 어떻게 15세기 연결어미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의미 연구는 빈약한 느낌이다.

향가의 경우 동일한 형태의 연결어미를 노래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형태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른 의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고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빌려 연결어미를 분류한다면, 전체 연결어미의 2/3 가량이 [전제]와 [배경]이란 의미에 다 포함될 정도로 의미 분화가 정교하게 기술되지 않은 형태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남풍현(2000가)에서도 [조건]의 의미를 갖는 형태로 6가지 형태가 소개되었는데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 ᄃᆞᆫ(在如中, 乙上十, 十上十, 十上十), ᄃᆞᆫ),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많은 형태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형태를 의미에 따라 세분화해 보면, ‘-ㄴ온(ㄱ ㄱ)’, ‘-ㄴ든’, ‘-ㄴ다권’은 한문의 조건 표현인 ‘若…則’ 구문에 자주 사용되지만, ‘-ㄴ다기’, ‘아곤/근’, ‘고곤/근’은 그렇지 않다. 대신 ‘-ㄴ다기’는 ‘爾時’, ‘時’라는 시간 지시 표현과, ‘아곤/근’, ‘고곤/근’은 ‘已’, ‘乃’와 같은 시간적 선후 관계를 지시하는 표현들과 함께 사용되어, 이들의 기본 의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한정] 또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존 분류 |       |   | 세분화한 분류1 |       | 세분화한 분류2        |       |
|-------|-------|---|----------|-------|-----------------|-------|
| [조건]  | -ㄴ든/든 | ⇒ | [가정]     | -ㄴ든/든 | [가정]            | -ㄴ든/든 |
|       | -ㄴ온   |   |          | -ㄴ온   |                 | -ㄴ온   |
|       | -ㄴ다권  |   |          | -ㄴ다권  |                 | -ㄴ다권  |
|       | -ㄴ다기  |   | [조건]     | -ㄴ다기  | [시간한정]          | -ㄴ다기  |
|       | -아곤   |   |          | -아곤   | [시간선후]<br>/[계기] | -아곤   |
|       | -고곤   |   |          | -고곤   |                 | -고곤   |

2.1장의 목록 표에는 동일한 의미로 묶여 있는 복수의 형태들이 많다. 기능과 분포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의미의 세분화와 구체화가 필요하다.

#### 4.5. 현대국어 연결어미 이해에 대한 실마리 제공 결여

고대국어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의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 가치는 배가 될 것이다. 중세국어 연구만 해도 지금의 언어 현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기술되고 있다(ㅎ말음체언과 합성어에서의 ‘ㅎ’첨가 현상, 현대국어 불규칙 현상과 중세국어의 관련성). 그러나 아직 고대국어는 현대국어의 이해에 기여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느낌이다.

그러나 고대국어와 현대국어의 시간적 간극이 크다 하더라도 연결성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가령, 현대국어 연결어미 연구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과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연관성’의 문제가 그러하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처럼 사용된 예가 향가에서도 포착되는데, “必于化緣盡動賜隱乃 手乙寶非鳴良尔<請佛住世歌 2~3>”와 “必只一毛叱德置 毛等盡良白乎隱乃兮<稱讚如來歌 9~10>”가 그렇다. 두 용례 모두 ‘~하지만/하더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지녔지만, 앞의 예는 연결어미로 뒤의 예에서는 종결어미의 위치에 ‘隱乃’가 사용되었다.<sup>36)</sup> 이런 예뿐만 아니라 이두의 ‘齊’가 연결과 종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예나, 종결과 연결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ㄴ’의 존재, 종결어미가 청자대우를 포함한 다양한 선어말어미를 선행시켜 종결의 기능을 겸할 수 있는 현상은 현대국어의 이슈들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36) ‘兮’는 보조사 정도로 파악되며, ‘~하더라도/하지만 말이다’ 정도의 표현에 해당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 金斗燦(1987),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 (1989), 「佛說四十二章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18.
- (1996), 「口訣語尾 ㄴㅅㅈ에 대하여」, 『口訣研究』1, 45-71.
- 김동소(1999),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승곤(1992), 「이두의 ‘遣’과 ‘古’의 통어기능」, 『홍익어문』10·11.
- 김영옥(1993), 「향가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古-의 문법적 기능과 역사적 변화」, 『주시경학보』12.
- 김완진(1957), -n, -l 動名詞의 형태론적 기능과 발달에 대하여, 국어연구2.
- (1981),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지오(2010), 「<懺悔業障歌>의 國語學的 解讀」, 『口訣研究』24, 61-96.
- (2012가), 「구결 자료의 ‘-은여/을여’에 대하여」, 『한국어문학연구』58, 217-242.
- (2012나),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 (2018가), 「고려가요의 문법」, 『口訣研究』40, 29-67.
- (2018나), 「『瑜伽師地論』 二種 翻譯에 대한 對照 研究」, 『民族文化』52, 201-234.
- 남기심 편(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 남미정(2004), 「접속어미 ‘-ㄱ 乙’에 대한 일고찰」, 『口訣研究』12.
- (2010),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난 ‘-제(齊)’의 문법범주와 의미」, 『어문연구』38, 129-149.
- 南豐鉉(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集 一-高麗時代 楞嚴經-』, 韓國學資料叢書 六,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20.
- (1996가),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ㅍ/ㅌ」, 『口訣研究』1, 11-44.
- (1996나),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 /ㄴ」, 『國語學』28, 1-48.
- (1999),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 (2000가), 「條件法 連結語尾 ‘-면’의 發達」, 『口訣研究』6, 11-40.
- (2000나), 『이두연구』, 태학사.
- (2003), 「古代國語의 時代 區分」, 『口訣研究』11, 1-22.
- (2017가),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난 동사 ‘-ㄱ/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2017나), 「원가의 해독」, 『國語學』83, 3-34.
- (2018), 「석독구결의 서술격 조사 ‘亦/여’에 대하여」, 구결학회 54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李基文(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 박성중(1996), 「송성문본 능엄경의 해제」, 『구결자료집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재민(2002가), 「普賢十願歌 難解句 5題」, 『口訣研究』10, 口訣學會, 143-175.
- (2002나), 口訣로 본 普賢十願歌 解釋,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 (2017), 『신라 향가 변증』, 태학사.
-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진호(1998), 「고대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 국립국어연구원.

- (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國語學』63.
- (2016), 「문법」, 『신라의 언어와 문학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총서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서재극(1972), 「현화가 연구」, 『상산이재수박사 환력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 (1975),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서종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서태룡(1982), 「국어의 조건과 주제」, 『성신여대 논문집』13.
- (1988), 「副動詞의 連結과 定動詞의 終結」, 『성신여대 논문집』18, 5-26.
- (1989), 「국어 활용어미의 체계화 방법」, 『애산학보』8, 85-110.
- (1997), 「어말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 (1998), 「접속어미의 형태」, 『문법 연구와 자료』, 435-464.
- 梁柱東(1965),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 俞昌均(1994), 『鄉歌批解』, 螢雪出版社.
- 유현경(2002),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261, 123-148.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이 용(2000), 연결어미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 (2003), 『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 (2008), 「‘-저’의 역사적 고찰」, 『진단학보』105.
- 이건식(2017가), 「여말선초 순독구결 토 ‘-ㅂㅅ/하며히’의 형태 구성 분석을 통해 본 부사형 어미 ‘-ㅅ/며’와 ‘-ㅅ/히’의 문법적 특징」, 『口訣研究』38.
- (2017나),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조건’과 ‘양보’의 부사와 보조사에 대하여」, 『口訣研究』39.
- 李承宰(1987), 「‘將來’考」, 『國語學』16, 221-238.
- (1990), 「高麗本 梵網經의 口訣」, 『애산학보』9, 117-147.
- (1992), 『고려시대의 이두- 국어학총서17』, 태학사.
- (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安秉禧先生 回甲紀念論叢』, 문학과 지성사, 56-76.
- (1995),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 (1998), 「고대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3』, 국립국어연구원.
- 이은경(1998), 「접속어미의 통사」, 『문법 연구와 자료』, 465-490.
- (2000),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태학사.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이현희(1995), 「‘-아저’와 ‘良結」,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 (1996), 「향가의 언어학적 해독」, 『새국어생활』6-1, 국립국어연구원.
- 장경준외3(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윤희(1995), 「이두에 나타난 국어 활용어미의 성격」, 『전통어문연구』7 (서울시립대국문과).
- (2006), 「고대국어 연결어미 ‘-遣’과 그 변화」, 『口訣研究』14.
- (2006), 「고대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國語學』47.
- (2010), 「중세국어 연결어미 형성의 문법사, ‘-오더, -은더, -은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38.
- 전기량(2018가), 「자토석독구결의 ‘-ㅂㅅ/ㅅ’ 구문에 대하여」, 『국어사연구』24, 231-270.

- (2018나),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 전병용(1995), 중세국어 어미 ‘-니’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 정렬모(1965), 『향가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9, 한국문화사 영인]
- 鄭在永(1992), 「통합형어미 ‘-ㄴ ㄷ’과 ‘-ㄴ ㄹ’에 대한 고찰」, 『國語學』22.
- (1996), 「祇林寺本 楞嚴經 解題」, 『口訣資料集 二-朝鮮初期楞嚴經』,
- (1998), 「고려시대의 {-이} 부사와 부사형」, 『국어 허위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최 식(2008), 「句讀解法, 漢文의 句讀와 懸吐 口訣」, 『民族文化』32, 105-155.
- 최남희(1996), 『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 최재희(1990), 『국어의 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 최창영(2008),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관련성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 한상화(1994), 기림사본 능엄경 구결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
- 허 웅(1975), 『우리옛말본』, 크라운.
- 홍윤표(1995), 「國語史 時代區分の 問題點과 文法史의 측면에서 본 時代區分」, 『國語學』25, 319-333.
-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그 기원」, 『국어연구』135.
- (2002가), 「향가에 나타나는 ‘遣’과 ‘古’에 대하여」, 『國語學』39.
- (2002나),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 (2003), 「구결자 ‘斤’의 해독에 대하여」, 『口訣研究』10.
- (2004), 「석독구결의 불연속 형태소 ‘ㄱ ㄴ’에 대하여」, 『형태론』6-1.
- (2010), 「향가의 연결어미 ‘-아’ 표기에 대하여」, 『口訣研究』25, 83-105.



#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병기(한림대)

## 1. 서론

고대국어 문법의 총체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동명사 어미와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상법 선어말어미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한다. 동명사 어미는<sup>1)</sup> 일종의 어말어미로서 종결어미, 연결어미와 구분되는 부분은 명사화와 관형화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국어에서는 동명사 어미가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동명사 어미의 특징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으로 최소화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에 대한 관심은 알타이 제어의 공통 특징으로서 명사문 종결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제고되었다. 계통론적 기반 위에서 김완진(1957)은 동명사 어미의 음가 및 기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기문(1961)에서도 동명사와 명사문 종결에 대하여 계통론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김홍수(1975: 55-58)에서도 명사화의 사적 변화를 고찰하며 ‘-n’, ‘-l’ 동명사 어미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이들 논의는 계통론적 기반에 향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흔히 고대국어 자료로 향가, 신라 및 고려 시대 이두, 석독구결을 꼽는다.<sup>2)</sup> 고대국어 연구에 향가가 일찍부터 활용되었지만 자료의 양이 적고 해독에 아직도 이견이 있는 구절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성격의 자료가 모두 하나의 공시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고대국어의 동명사어미를 고찰하는 데 있어 석독구결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적으로 향가와 이두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석독구결자료를 이용하여 고대국어 동명사어미를 고찰한 선행 연구로는 심재기(1979), 이승재(1995), 남풍현(1996ㄱ, ㄴ, ㄷ) 등이 대표적이다. 심재기(1979)는 가장 먼저 발견된 석독구결 자료인 『구역인왕경』을 대상으로 ‘ㅍ’ 동명사 어미의 분포 및 기능을 설명하였고, 이승재(1995)는 『화엄경』, 『구역인왕경』 자료를 중심으로 ‘ㄱ’, ‘ㅍ’ 동명사 어미를 사적 변화를 설명하였다. 남풍현(1996ㄱ, ㄴ)은 『유가사지론』, 『(합부)금광명경』 자료까지를 포함하였지만 심재기(1979)의 틀을 발전시켜 ‘ㅍ’을 대상으로 그 기능 및 분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남풍현(1996ㄷ)은 『화엄경소』 일부까지를 포함하여 남풍현(1996ㄱ, ㄴ)의 틀에 따라 ‘ㄱ’을 대

1) 이흥식(1998)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정동사, 부동사, 동명사’ 체계와 ‘어미’가 상충하는 면이 있어서 ‘동명사 어미’라는 용어는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ㅍ’ 자체는 동명사가 아니다. 김완진(1957:53)에서는 이를 ‘동명사의 접미사’라고 하였고 Ramstedt(1939/문법대계2-5:123)에서는 ‘suffixs’라 지칭하였다. 심재기(1979)에서는 향가와 석독구결 『구역인왕경』에 나타나는 ‘ㅍ/ㅍ’에 대하여 ‘동명사’, ‘동명사 어미’, ‘접미사’ 모두를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임홍빈(1983), 이승재(1995), 남풍현(1996ㄱ, ㄴ)에서는 ‘동명사 어미’로 지칭하였다, 본고에서도 다른 어미와의 상응을 고려하여 ‘-ㄴ’, ‘-ㄷ’ 등의 어미만을 따로 지칭할 때는 ‘동명사 어미’를 사용하기로 한다.

2) 李基文(1961/1972/1998)의 국어사 시대구분에 따르자면 12, 13세기의 석독구결은 전기중세국어에 해당하지만 석독구결의 문법은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향가와 더 유사하기 때문에 고대국어 자료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한편 김동소(1998)의 경우는 14세기의 모음추이의 변화를 중시하여 이를 경계로 고대와 중세로 가르고 있으며 『조선관역어』 이전의 자료는 자연스럽게 고대국어 자료로 간주한다.

상으로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석독구결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동명사어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된 6종의 석독구결자료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러 동명사 어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 연구를 새롭게 종합할 필요가 있다.

석독구결 자료의 현황에 대하여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병기(2014: 2장)에 정리한 바 있는데 이들 자료 외에 남권희·남경란(2016)에 의해 소개되고 2017년에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검토된 『자비도량참법』이 추가되어야 한다.<sup>3)</sup> 그리고 점토석독구결자료도 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을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점토석독구결자료의 판독 및 연구는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자토석독구결자료와 동등하게 활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역시 필요에 따라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대국어자료는 다음의 자토석독구결자료이다.<sup>4)</sup> 이들은 모두 12-13세기에 구결이 기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문헌명(판본)      | 약호 | 비고        |
|--------------|----|-----------|
| 大方廣佛華嚴經疎 卷35 | 화소 |           |
| 大方廣佛華嚴經 卷14  | 화엄 |           |
| 舊譯仁王經 卷上     | 구인 | 5장 낙장본    |
| (合部)金光明經 卷3  | 금광 | 점토, 자토 공존 |
| 瑜伽師地論 卷20    | 유가 | 再雕大藏經     |
| 慈悲道場懺法 卷4    | 자비 | 17-21장 殘編 |

석독구결자료에 나타나는 동명사 어미는 ‘尸’와 ‘ㄱ’이 있으며 선행연구들도 이들을 중심으로 고찰이 이루어졌다.<sup>5)</sup> 하지만 이들과 같은 환경에 ‘ㅅ’와 ‘ㅌ’가 놓이는데 ‘ㅅ’는 ‘尸’와 형식명사 ‘ㄱ’의 결합으로 간주하고 ‘ㅌ’는 주로 전어말어미로서 관심을 받았기에 동명사 어미와의 연관성 속에서 그 분포와 기능이 고찰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들 각각의 구결자별로 동명사 어미의 분포 및 기능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에 대하여 고찰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3)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동명사어미의 출현 환경 및 기능을 고찰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본과 용례 색인 프로그램은 필수적인데,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입력본을 고려대 장경준 교수가 종합하고 보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장경준 교수가 2019년 1월 배포한 입력본과 박진호 교수가 개발한 unicon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자료의 인용 및 해석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필자의 몫임을 밝혀둔다.

4) 균여의 저술로서 10세기 중엽의 자료로 추정되는 『釋華嚴教分記』도 있는데 2행뿐이고 다른 자료들과 이질적이어서 중심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 자료를 지칭할 때는 표에서 제시한 약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5) 이승재(1995: 240-249)에서는 ‘-ㅅㅌ 應七ㄴ-’, ‘-ㅅㅌ 可七ㄴ-’ 등에 나타나는 ‘ㅅ’을 恒時性 혹은 持續性을 갖는 동명사 어미로 보고 고려 중기 이후에 ‘ㄱ’, ‘尸’을 대신해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된 동명사 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김동소(1998: 72)에서도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로 ‘尸, ㄱ, ㅅ’ 셋을 열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구문의 ‘ㅅ’이 동명사 어미라는 확신이 없고 고대국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형태는 제외하기로 한다.

김완진(1957: 49-53)은 Jespersen(1935)나 Ramstedt(1939, 1945) 등에서 사용한 동명사(gerund, Nomina verbalia)의 개념과 특징을 국어의 어미 ‘-ㄴ’과 ‘-ㄹ’에 적용하여 주로 향가에서의 기능과 이후 동명사 어미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법적인 사실들을 설명하였다. 특히 동명사 ‘-ㄴ(ㄹ)’이 고대에는 ‘substantive verbal’, ‘adjective verbal’ 두 가지 기능을<sup>6)</sup> 모두 가지며<sup>7)</sup> ‘substantive verbal’로 쓰일 때는 원래 부정 시제(temps absolu)였으나 미래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는 설명한다.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동명사어미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밝히 ‘ㄱ’, ‘ㅍ’의 특징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남풍현(1996ㄱ, ㄴ, ㄷ)에서 동명사 어미의 통사적 특징으로 다음과 6가지를 중시하였다.<sup>8)</sup>

- ① 조사의 연결
- ② 조사 없이 명사절 형성(격조사의 생략 및 不定格)
- ③ 체언의 수식
- ④ ‘말하다’ 류에 결합하여 前提의 연결어미 기능 → 인용문에 선행하는 화법동사 활용
- ⑤ 否定 서술어의 논항
- ⑥ 어미류(첨사) ㅁ, ㅂ 등과 결합

이중 ④, ⑤, ⑥ 특징은 ‘내포문에서는 서술어가 되며 모문에는 명사적 성분이 된다는’ 동명사의 특징과는 거리가 있지만 고대국어의 다른 문법적 특징과 연관하고 역사적 변화 과정을 고려하여 동명사 어미의 기능에 포함하여 논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명사 어미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상 대립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는데 남풍현(1996ㄷ: 48)에서는 “‘ㄱ’ 동명사 어미는 既成의 事實을, ‘ㅍ’ 동명사어미는 眞理的 事實 또는 觀念的 事實을 나타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통사적인 기능은 같은 것이다”라고 하여 심재기(1979), 서태룡(1980), 이승재(1995)에서 상정하고 있는 [±결정성], [±완료], [±확실성], [±과거] 등의 시상 대립과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의미적 대립을 설명한다. 어떠한 성격이든 동명사 어미에 대한 연구에서는 ‘ㄱ’과 ‘ㅍ’이 어떠한 대립 관계를 가지는가, 이러한 대립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등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고찰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임홍빈(1982/1998: 566)의 “명사성과 시제성의 반비례 원리”라는 동명사 구성의 해석 원리가 주목된다. 이는 “동명사의 명사성이 강화될수록 시제성은 약화되며, 명사성이 약화될수록 시제성은 강화된다는 것이다.”는 것인데 완전한 명사는 무시제성을 가지며 동명사의 명사적 용법은 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는 한 대체로 시제 중립적인 [+현재성]을 보인다고 하였다.<sup>9)</sup> 그렇지만 ‘대립의 원리’에 따라 ‘-은’과 ‘-을’이 대립을 이루게 될 때 ‘-은’은

6) 동명사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Ramstedt(1939/문법 대계:105)에고서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동명사(nomina verbalia)가 ‘verbal adjectives’와 ‘verbal substantives’로 나뉜다고 하였다.

7) 김완진(1957)은 ‘-ㄴ’을 기본적으로 형용사(관형사) 기능을 동명사로 보았으며 고대에는 이러한 성격의 동명사가 명사적 기능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8) 부정법, 피부정사, 부동사 등의 문법 용어는 이 논문의 다른 용어와 어울릴 수 있도록 바꾸었다. 그리고 심재기(1979)의 기술 역시 이러한 동명사 어미의 통사적 특징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용어나 기술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①격어미 앞에서 동명명사형으로, ②완정명사 앞에서 동격명사형으로, ③형식명사 앞에서 관형형으로, ④否定辭 앞에서 관형형으로, ⑤引用文 앞에서 서술형으로.(심재기1979: 171)

9) 이는 김완진(1957)의 ‘temps absolu’의 설명과 동격이며 Lyons의 ‘time stability’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김완진(1957)은 ‘-ㄴ’을 기본적으로 형용사(관형사) 기능을 동명사로 보았으며 고대에는 이

[-미래성]을 ‘-을’은 [+미래성]을 띠게 되는데, 이는 ‘-은’이 정적 상태성을, ‘-을’이 내적 동인성을 그 원초적인 의미 특성으로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동명사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로 변하면서 시상의 대립은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추론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고대 국어의 시기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sup>10)</sup>

전술했듯이 자토석독구결자료에서 동명사 어미를 나타나는 구결자별로 그 분포와 기능을 비교하여 고찰하되 n계와 1계의 의미적 대립에 대하여도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동명사 어미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 고대국어 否定法에 관한 논의, 선어말 어미, 연결 어미, 종결어미로의 발달에 관한 논의, 尸의 음가에 관한 논의 등이 따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지면의 제약 상 생략하기로 한다.

## 2. 각형태의 빈도 및 분포

먼저 동명사 어미의 통사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통사적 분포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곳에서는 본격적으로 분석할 여력이 없지만 문헌별로 빈도를 분석한 이유는 통사적 분포가 특정 종파나 특정 문헌의 특징일 가능성과 12,13세기에 걸쳐 미세한 문법 변화를 간취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1. 尸/ㄱ + 조사<sup>11)</sup>

| 문헌 | 형태 | ㄱ                  | ㄱ -12)            | 乙                  | ㄷ | ㄴ/ㄴㄷ             | 人 | ㄴ +13) | 乙 ㄴ(ㄷ) | ㄱ | 刀  |
|----|----|--------------------|-------------------|--------------------|---|------------------|---|--------|--------|---|----|
| 화소 | 尸  | *                  | *                 | *                  | * | *                | 8 | *      | *      | * | 3  |
|    | ㄱ  | *                  | 14                | 27                 | * | *                | * | *      | 3      | 7 | 1  |
| 화엄 | 尸  | *                  | *                 | 1                  | * | *                | * | *      | *      | * | 7  |
|    | ㄱ  | *                  | 12 <sup>14)</sup> | 29                 | * | 1                | * | 5      | 3      | * | *  |
| 금광 | 尸  | *                  | *                 | 20-115)            | * | 1                | * | 116)   | 2      | 2 | *  |
|    | ㄱ  | (1)                | 39                | 13                 | * | *                | * | 3      | *      | 5 | 21 |
| 구인 | 尸  | *                  | *                 | *                  | * | *                | * | *      | *      | * | 1  |
|    | ㄱ  | *                  | 21                | 15                 | * | *                | * | 1      | *      | * | *  |
| 유가 | 尸  | *                  | *                 | 16-117)            | * | 1/1              | 9 | *      | *      | 1 | *  |
|    | ㄱ  | (4) <sup>18)</sup> | 69                | 50                 | * | 2 <sup>19)</sup> | * | 20     | *      | 3 | *  |
| 자비 | 尸  | *                  | *                 | *                  | * | *                | * | *      | *      | 1 | *  |
|    | ㄱ  | *                  | 9                 | 7-1 <sup>20)</sup> | * | *                | * | *      | *      | 4 | *  |

러한 성격의 동명사가 명사적 기능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10) 남풍현(2011:14-15)에서는 통일신라시기까지의 향가와 이두 자료만을 대상으로 자토석독구결 이전 ‘中古韓國語’의 동명사 어미를 기술하였는데 n계 동명사 어미의 의미를 ‘既定’, 1계 동명사 어미의 의미를 ‘未定이나 眞理的 事實’로 설명하여 대립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통사적 분포에 대한 단편적 기술에서는 남풍현(1996ㄱ, ㄴ, ㄷ)에서 다른 석독구결의 동명사 어미와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11) 남풍현(1996ㄷ: 14)에서는 다음 예의 ‘今八ㄱ ㅅ’도 ‘今八/열기-’ 어간에 동명사어미 ‘ㄱ’이 결합하고 강세 보조사 ‘ㅅ’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는데 ‘今八’이 부사로 쓰이고 ‘ㄱ’을 보조사로 볼 수도 있어 이곳에서는 제외하였다.

“出世心乙 得ㄱ 昔尸 得尸 未ㄴㅅ ㅅ ㄷ 1 ㄴ ㄱ 所ㄴㄱ 乙 而 今八ㄱ ㅅ 始 ㄴ 得ㄱ(出世心を 얻으며, 예전에 얻지 못한 바인 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얻으며) <금광06:23-24>”

- 12) ‘ㄱ ㄴ ㄷ(ㅅ)’는 우선 제외. 이때의 ㄴ은 의존명사로 볼 수도 있고 서술격 조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3) ‘ㅅ+’ 결합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ㅅ+’는 ‘菩薩ㅅ+’와 같이 일부 체언에 붙어 여격 또는 부사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ㅅ’은 보통 동명사 어미로 보지 않는다.
- 14) ‘ㄴ ㄱ ㄴ ㅅ(ㄷ)’ 등의 ‘ㄴ’는 황선엽 외(2009:468), 장경준(2019.01) 등에서 의존명사로 보고 있는데 ‘ㅅ+’, ‘ㅅ+’를 고려하면 역시 서술격 조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곳에서는 우선 이를 서술격 조사 결합 빈도에서 제외하였다.
- 15) 未來ㅅ+ 是 礙ㄴ 更ㅅ 生ㅅ 不ハソㅅ 乙 更ㅅ 生 不ハソㄷ ㄴ 智乙 得ㅅ 未ハソㅅ ㄱ ㄴ <금광 08:09-10>

16) 三者 一切 難行ノㅅ+ 獸心乙 生ㅅ 不冬ㅅ <금광03: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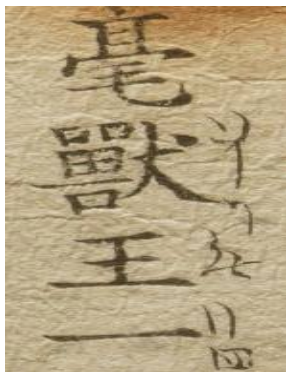
17) 卽ㄷ 四種七 正法 受用ノㅅ+ 因緣 現前ㅅ 糸 正法乙 受用ノㅅ+ (곧 네 가지의 정법을 수용하는 인연이 현전하여서 정법을 수용하거늘,) <유가03:13-14>

18) (寶)女人 如ㅅ ㄱ ㄴ 一切之七 其 身 頂上乙 莊嚴ノㅅ+ <금광06:07-08>, 謂ㄱ 有ㄴ 一 一 如ㅅ ㄱ ㄴ 依止 圓滿ㅅ <유가02:07>, 謂ㄱ 有ㄴ 一 一 如ㅅ ㄱ ㄴ 必 五無間業乙 成就ㅅ 不冬ㅅ <유가02:10-11>, 尸羅乙 犯ㅅ ㄱ ㄴ 有七ㄴ 乃 而ㄱ 輕擧 不冬ㅅ <유가17:12-13>, 謂ㄱ 聖弟子 如ㅅ ㄱ ㄴ 或 衆乙 與七 同居ㅅ <유가26:05-07>

남풍현(1996: 7)에서는 동명사어미 ㄱ 과 주격조사가 결합한 예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들 예에 대하여 형식명사 ㄱ 이 결합한 것으로 본 것 같다. 실제 ‘有七’의 논항 실현 양상을 보면 『유가』와 『금광』에서는 주격조사가 결합한 다른 예가 보이지 않고 『화소』, 『구인』에만 ‘一切 衆生ㄴ 有七ㄴ’ <B 구인02:01 2>와 같은 예가 출현하다. 본고에서는 이들 예에 대하여 주격조사가 결합한 예로 보지만 형식명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현 빈도를 괄호에 넣었다. 한편 『유가』에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보면 ‘-ㅅ, -ㅅ, -ㄱ, -ㅅ’이 ‘有七’의 주어 자리에 놓이는 것이 주목된다.

“涅槃乙 首 {爲} ㅅ 有七 一 <유가04:20-21>, 謂ㄱ 有餘依 <유가04:19-20>, 愛 與七 俱行ㅅ 有七 所七 喜悅ㄴ <유가12:04-06>, 疑ㄴ 隨逐ノㅅ 有七 <유가11:15-17>, 十一法ㄴ 所對治ㄴ ㅅ {爲} ㅅ 有七 一 <유가11:10-12>”

그리고 “左邊ㅅ 右邊ㅅ 師子ㄴ 臆ㅅ 長毫ㅅ 獸ㅅ 王ㄴ 一切 衆獸乙 悉 皆 怖畏ㅅ 菩薩ㄴ 悉 見ㄴ 左邊이니 右邊이니 하는 곳에서 師子가 가슴에 長毫한/長毫함이 獸의 王이라서 一切 衆獸를 다 두렵게 하는 것을 菩薩은 다 본다.” <금광06:15-17>의 ‘長毫ㅅ 獸ㅅ’을 남풍현(1996: 25)에서는 ‘長毫ㅅ 獸’로 판독하고 ‘ㄴ’을 의존명사로 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寶)女人 如ㅅ ㄱ ㄴ 一切之七 其 身 頂上乙 莊嚴ノㅅ+ <금광06:07-08>’의 ‘ㄴ’나 ‘ㄱ’과 자형을 비교하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점토석독구결에서도 毫[32-33(/)]과 如[22-32(/)]로만 사선이 기입되어 있어 역시 확실하지 않지만 22-32 위치의 ‘ㄴ’에 대응하고 33 위치의 단점이 ‘ㄱ’에 대응하므로 ‘長毫ㅅ 獸’의 가능성이 더 클 듯하다. 장경준(2019.01)의 교감본에도 ‘長毫ㅅ 獸’으로 되어 있다.



- 19) “亦 {於} 他ㅅ 利養恭敬ㅅ 及七 餘 不信ㅅ 婆羅門 等ㅅ 對面ㅅ 背面ㅅ 諸 不可意七 身業 語業乙 現行ㅅ 事ㅅ 中ㅅ 心ㅅ 憤恚乙 生ㄴ ㅅ 不冬ㅅ (또한 다른 이의 이양과 공경이니, 나머지 불신하는 바라문 등의 이들이 마주 보고 등 돌리고 하여 여러 不可意의 身業 語業을 現行하는 일이니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憤恚을 내지 않고,) <유가 19:03-05>” 2예 중 이 한 예는 일반적인 속격과 다른 듯. ‘주어적 속격’ 같으나 뒤에 명사형이나 명사가 오지 않고 용언 결합한다. 그리고 이때의 ‘ㄱ’에는 지시적 의미의 명사가 포함되어 있음.

## 2.2. ㄱ/ㄷ+조사

| 문헌 | 형태 | ㄱ | ㄱ- | 乙                | 七                   | ㄴ | ㄴ+ <sup>21)</sup> /十 | 人 | 乙 ㄴ(七) | ㄱ                | 刀 |
|----|----|---|----|------------------|---------------------|---|----------------------|---|--------|------------------|---|
| 화소 | ㄱ  | * | *  | 27               | 7                   | 1 | 5/*                  | * | *      | 3                | * |
|    | ㄷ  | * | *  | *                | 11-0                | * | *                    | * | *      | * <sup>22)</sup> | 1 |
| 화엄 | ㄱ  | * | *  | 28               | 31                  | 4 | 5/*                  | * | *      | 3                | * |
|    | ㄷ  | * | *  | *                | 24-4 <sup>23)</sup> | * | *                    | * | *      | *                | * |
| 금광 | ㄱ  | * | *  | *                | 4                   | * | */7                  | * | *      | *                | * |
|    | ㄷ  | * | *  | *                | 7-0                 | * | *                    | 1 | *      | *                | * |
| 구인 | ㄱ  | * | *  | *                | 10                  | * | */*                  | 5 | *      | 7                | 1 |
|    | ㄷ  | * | *  | * <sup>24)</sup> | 18-10               | * | *                    | * | *      | *                | 8 |
| 유가 | ㄱ  | * | *  | *                | 82                  | * | */17                 | 4 | *      | 1                | * |
|    | ㄷ  | * | *  | *                | 20-0                | * | *                    | * | *      | *                | * |
| 자비 | ㄱ  | * | *  | 6                | 4                   | 1 | 1/*                  | * | *      | *                | 1 |
|    | ㄷ  | * | *  | *                | 6-2                 | * | *                    | * | *      | *                | * |

## 2.3. 尸/ㄱ 不定格 또는 조사 생략

| 문헌 | 형태  | 如 支<br>(ㄴ) <sup>25)</sup> | {等} 尸 ㄴ<br>/等 ㄴ <sup>26)</sup> | 隨 ㄴ | {爲} ㄴ | 已 ㄴ ㄴ <sup>27)</sup> | 無/无/靡                   | 有 七              | {有} 4            |
|----|-----|---------------------------|--------------------------------|-----|-------|----------------------|-------------------------|------------------|------------------|
| 화소 | 尸   | 2                         | 1                              | *   | *     | 9                    | 19/*/*                  | *                | *                |
|    | ㄱ   | 1                         | *                              | *   | *     | *                    | *                       | *                | * <sup>28)</sup> |
| 화엄 | 尸   | 2                         | 5                              | *   | 2     | 3                    | 41 <sup>29)</sup> /*/*3 | *                | *                |
|    | ㄱ   | 2                         | *                              | 2   | *     | *                    | */*/1                   | *                | *                |
| 금광 | 尸/乙 | 5                         | *                              | *   | *     | 1                    | 7/*/*                   | *                | *                |
|    | ㄱ   | 4                         | *                              | *   | *     | *                    | *                       | *                | *                |
| 구인 | 尸/乙 | *                         | */3                            | *   | *     | *                    | 6/*/*                   | * <sup>30)</sup> | *                |
|    | ㄱ   | *                         | *                              | *   | *     | *                    | *                       | *                | *                |
| 유가 | 尸   | 3                         | *                              | *   | *     | 8                    | 3/12/*                  | 1                | 1                |
|    | ㄱ   | 7                         | *                              | *   | *     | *                    | *                       | * <sup>31)</sup> | 4                |
| 자비 | 尸   | *                         | 1                              | *   | *     | *                    | 2/*/*                   | *                | *                |
|    | ㄱ   | *                         | *                              | *   | *     | *                    | *                       | *                | *                |

20) 다음 예는 목적격 조사 결합 예에서 제외하였다. <자비21:02-21:04> 或 尸 獄卒 ㄴ 十 問 尸 尸 衆生  
 尸 苦 乙 受 尸 尸 尸 甚 悲 念 尸 可 七 尸 乙 而 尸 汝 尸 常 尸 酷 毒 乙 懷 七 尸 慈 愍 尸 令 七 心  
 亡 無 七 尸 尸 尸 尸

21) ‘ㄴ 十’ 결합형은 보이지 않는다.

22) ‘尸 乙 尸 乙’과 같이 ‘ㄷ’에 후행하는 ‘ㄱ’이 동명사어미인 경우 제외하였음.

23) 동명사어미 ‘ㄱ’이 선행하여 ‘ㄷ’가 의존명사의 성격이 강한 경우 제외하였음.

24) 『구인』의 ‘尸 尸 乙 尸’ 구성에서 ‘乙’은 목적격조사가 아닌 동명사어미 ‘尸’로 파악되므로 ‘ㄷ’와 목적격조사가 결합하는 예에서 제외하였음.

25) 명사나 동명사 모두 격조사 없이 논항으로 결합함.

26) {等} 尸 ㄴ는 모두 명사구 나열 뒤에 나타나는데 남풍현(1996ㄱ/1999:292)은 ‘尸 ㄴ’ 전체를 형용사로 파악하여 그 앞의 ‘-尸’에 대하여 부정격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았다. 의미적으로 ‘如 支(ㄴ)’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27) ‘死 已 尸 尸 <유가21:02-03>’은 ‘生 尸 已 尸 尸 <유가05:04>’과 비교하면 ‘死’ 뒤에 ‘尸’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생략 가능성을 모든 환경에 적용하여 확정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으므로 생략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8) ‘汝 尸 今 尸 尸 {有} 4 尸 尸 所 乙 <화소10:08\_1>’ 전체를 부사로 보고 제외하였음.

2.4. ㄱ/ㄷ 不定格 또는 조사 생략<sup>32)</sup>

| 문헌 | 형태 | 如 支<br>(ㄴ) | {等}ㅅ<br>/等ㄴ | 隨ㄷ | {爲}ㅅ | 已ㅅㄴ | 無/无/靡  | 有(ㄷ/ㄴ) | {有}ㅅ |
|----|----|------------|-------------|----|------|-----|--------|--------|------|
| 화소 | ㅅ  | *          | *           | *  | *    | *   | 4      | 1      | *    |
|    | ㄷ  | *          | *           | *  | *    | *   | *      | *      | *    |
| 화엄 | ㅅ  | *          | *           | *  | *    | *   | 9/*/1  | *      | *    |
|    | ㄷ  | *          | *           | *  | *    | *   | *      | *      | *    |
| 금광 | ㅅ  | *          | *           | *  | *    | *   | 1      | *      | *    |
|    | ㄷ  | *          | *           | *  | *    | *   | *      | *      | *    |
| 구인 | ㅅ  | *          | *           | *  | *    | *   | *      | 2      | *    |
|    | ㄷ  | *          | *           | *  | *    | *   | *      | (1)    | *    |
| 유가 | ㅅ  | *          | *           | *  | *    | *   | */233) | 5      | *    |
|    | ㄷ  | *          | *           | *  | 2    | *   | *      | 6      | 1    |
| 자비 | ㅅ  | *          | *           | *  | *    | *   | *      | *      | *    |
|    | ㄷ  | *          | *           | *  | *    | *   | *      | *      | *    |

2.5. ㄹ/ㄴ 否定辭의 외부정문<sup>34)</sup>

| 문헌 | 형태  | 不 矣 | 不(ㄴ)能ㄴ 矣 | 不 多/未 多 | 不 八                | 未 八 | 未 ㄴ | 勿 | 非 矣 | 非 多 |
|----|-----|-----|----------|---------|--------------------|-----|-----|---|-----|-----|
| 화소 | ㄹ   | *   | 3        | 2/1     | *                  | *   | 2   | * | *   | *   |
|    | ㄴ   | 7   | *        | *       | *                  | *   | *   | * | 1   | *   |
| 화엄 | ㄹ   | *   | 2        | *       | *                  | *   | 1   | * | *   | *   |
|    | ㄴ   | 7   | *        | *       | *                  | *   | *   | * | *   | *   |
| 금광 | ㄹ/乙 | *   | *        | 12      | 3                  | 3   | 4   | * | *   | *   |
|    | ㄴ   | 3   | *        | *       | (1) <sup>35)</sup> | *   | *   | * | *   | *   |
| 구인 | ㄹ/乙 | *   | *        | 1       | *                  | *   | 1   | * | *   | 1   |
|    | ㄴ   | 7   | *        | *       | *                  | *   | *   | * | *   | *   |
| 유가 | ㄹ   | *   | *        | 26      | 4                  | 1   | 3   | 1 | *   | 1   |
|    | ㄴ   | 3   | *        | *       | *                  | *   | *   | * | *   | *   |
| 자비 | ㄹ   | *   | *        | *       | *                  | *   | *   | 1 | *   | *   |
|    | ㄴ   | *   | *        | *       | *                  | *   | *   | * | 1   | *   |

29) ‘若 得 ㄹ 亦 辯才 障礙 ㄹ 無 ㄷ 入 ㄴ 則 能 邊 ㄹ 無 ㄴ 法 乙 開演 ㄴ ㄷ 牙 分 <화엄11:17>’에서 ‘邊 ㄹ’은 명사 ‘가’로 해석되어 ‘ㄹ’을 표기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활용형으로 ‘가’의 의미를 나타냈을지도 모르므로 ‘無’가 취하는 부정격에 포함시켰다. 남풍현(1996ㄱ/1999: 316)에서는 ‘大光明 乙 放 ㄴ ㄴ 邊 ㄹ 無 ㄴ ㄴ 分 {有} <화엄15:04>’에 대하여 ‘大光明 乙 放 ㄴ ㄴ 邊 ㄹ 無 ㄴ ㄴ 分’로 파악하여 ‘有邊’에 ‘ㄴ’나 ‘ㄴ’가 생략되고 ‘ㄹ’이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30) ‘若 ㄷ 言 ㄴ 有 ㄷ ㄴ ㄴ ㄴ ㄴ ㄴ ㄴ {者} <구인14:19>’에서 ‘言 ㄴ ㄹ’은 ‘有 ㄷ’의 논항이 아니고 화법동사이므로 제외하였다.

31) ‘謂 ㄴ 有 ㄴ ㄴ <유가02:07>’에서 ‘謂 ㄴ’은 ‘有’의 논항이 아니고 화법동사이므로 이러한 예들은 제외하였다.

32) 남풍현(1996ㄱ)에서 부정격의 예로 다른 ‘又 無 嫉 ㄹ 入 乙 依 ㄴ ㄴ ㄴ {於} 自 ㄴ 身 ㄴ ㄴ ㄴ ㄴ 如 支 {於} 他 ㄴ ㄴ ㄴ 亦 亦 ㄴ ㄴ ㄴ <유가28:15-16>’는 ‘亦’의 범주가 확실하지 않고 유일예여서 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3) 達須 ㄴ 筏戾車 ㄴ ㄴ ㄴ 中 ㄴ ㄴ 謂 ㄴ {於} 是 處 ㄴ 四衆 ㄴ 行 ㄴ ㄴ 無 ㄴ 亦 賢聖 ㄴ ㄴ 正至 ㄴ 正行 ㄴ ㄴ 諸 善丈夫 無 生 ㄹ 不 多 ㄴ ㄴ ㄴ (達須 ㄴ 筏戾車 ㄴ 하는 것의 가운데인 이른바 이곳이, 四衆이 행함이 없고 또한 賢聖인 正至 ㄴ 正行이니 하는 여러 善丈夫가 없고 하는 곳, 나지 않는 것이다.) <유가02:02-03>

34) ‘無/无/靡’도 일종의 否定辭라고 할 수 있으니 ‘有’와의 대응을 고려하여 不定格의 예에 포함시켰다.

## 2.6. $\text{속/ㄱ}$ 否定辭의 皮부정문

[illegible]

### 2.7. 尸/ㄱ + 어미류(또는 첨사)<sup>39)</sup>

- 35) 남포현(1996ㄷ: 41)에서는 “未來ㄴ 十 是 礙ㄴ 更ㄴ 生ㄴ 不ハㄴ 尸乙 更ㄴ 生 不ハㄴ 尸今七 智乙 得尸 未ハㄴ トㄴ 刀 無明ㄴ 因(爲)ㄴ 尸入乙ㄴ 示四 是乙 如來地七 障ノㄴ 示ナㄴ ㄴ 示一 一 <금광 08:09-10>”를 바탕으로 ‘不ハ’이 ‘ㄴ’ 동명사와 ‘尸’ 동명사 모두를 부정한다고 하였는데 ‘不ハ’이 ‘ㄴ’ 동명사를 부정하는 예는 하나뿐이어서 잘못 현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장경준(201901)에서도 ‘生ㄴ’을 ‘生尸’로 수정하였다. 참고로 점토구결에서는 ‘ㄴ’을 나타내는 33 위치의 단 점도 없고 ‘ㄷ’을 표시하는 우상 위치의 어떤 부호도 보이지 않는다.



- 36) 然<sub>1</sub> 乃<sub>2</sub> {此<sub>1</sub>} 法<sub>1</sub> {者<sub>2</sub>} 處所 有<sub>7</sub> 亡<sub>7</sub> 非<sub>失</sub> 處所 無<sub>7</sub> 亡<sub>7</sub> 非<sub>失</sub> <화소13:20-14:01> 이 예의 ‘亡’은 의존명사일 가능성이 큰데 ‘亡’이 없는 『유가』의 예들과 같은 환경이어서 중복표기일 수도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도록 괄호에 출현 빈도를 기입하였다.
- 37) “謂<sub>ノ</sub> 今<sub>1</sub> 非<sub>失</sub> 亡<sub>1</sub> 二 諦<sub>1</sub> 亡<sub>1</sub> 一<sub>1</sub> 亡<sub>1</sub> 亡<sub>1</sub> 二 非<sub>失</sub> 亡<sub>1</sub> 亡<sub>1</sub> 亡<sub>1</sub> (말하는 것 아니다, 二諦가 하나이다 한다. 둘 아닌 것이라면) <구인15:05> 앞뒤 문맥을 살펴봐도 ‘謂<sub>ノ</sub> 今<sub>1</sub>’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非<sub>失</sub> 亡<sub>1</sub>’의 피부정사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亡<sub>1</sub>’나 ‘非<sub>失</sub>’에 ‘亡<sub>1</sub>’ 동명사만 오고 ‘亡<sub>1</sub>’ 동명사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이러한 예는 특이한 것이지만 『유가』에도 5 예가 더 나오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 38) 二 諦<sub>1</sub> 常<sub>1</sub> 亡<sub>1</sub> 卽<sub>1</sub> 亡<sub>1</sub> 非<sub>失</sub> 亡<sub>1</sub> 亡<sub>1</sub> <구인15:03-04>
- 39) 남풍현(1996-1/1999: 301)에서는 ‘亡<sub>1</sub>’가 병렬접속조사와 어말어미 두 기능이 있다고 한 뒤 ‘동명사 어미 亡<sub>1</sub>이 계사의 매개 없이 어말어미와 직접 연결되는 고대국어 문법’에 따라 ‘亡<sub>1</sub>’과 ‘亡<sub>1</sub>’가 직접 결합한다고 설명한다. ‘亡<sub>1</sub> 亡<sub>1</sub>’ 등의 예를 고려하면 어미와 조사의 성격 모두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주가 현대국어 문법 범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미류’ 또는 ‘접사’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어미류는 어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 의문 조사로도 분류되는 ‘亡<sub>1</sub>’ 역시 이곳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亡<sub>1</sub>와 亡<sub>1</sub>는 의존명사 결합 형태이기는 하지만 어미로 굳어진 성격이 강하고 의존명사와의 결합 빈도는 따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곳에서 같이 빈도를 살펴보았다. 나중에 어미화한 결합형들을 따로 분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문헌 | 형태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ㅇ/ㅅ/ㅆ |
|----|-----|----|-------------------|----|---|-------------------|------------------|-------|
| 화소 | ㅍ   | *  | * <sup>40)</sup>  | 19 | * | *                 | *                | *     |
|    | ㅑ   | *  | 9                 | 13 | * | *                 | *                | *     |
| 화엄 | ㅍ   | *  | *                 | 11 | * | 1 <sup>41)</sup>  | *                | *     |
|    | ㅑ   | *  | 6                 | 1  | 1 | *                 | *                | *     |
| 금광 | ㅍ/ㅊ | 8  | *                 | 8  | * | 5/1               | *                | *     |
|    | ㅑ   | 3  | *                 | 1  | * | *                 | *                | *     |
| 구인 | ㅍ/ㅊ | *  | 1                 | 1  | * | * <sup>542)</sup> | *                | 1     |
|    | ㅑ   | *  | 17                | 2  | 1 | *                 | 2 <sup>43)</sup> | *     |
| 유가 | ㅍ   | 19 | *                 | 12 | * | *                 | *                | *     |
|    | ㅑ   | 37 | *                 | 72 | * | *                 | *                | *     |
| 자비 | ㅍ   | *  | *                 | 5  | * | *                 | *                | 1     |
|    | ㅑ   | *  | 23 <sup>44)</sup> | 4  | * | *                 | *                | *     |

## 2.8. $\mathbb{S}/\mathbb{E}$ +어미류(또는 첨사)

- 40) {是}나 十尸 : {爲}ノヲナ | <화소26:12-13>에서 ‘尸’은 동명사어미가 아니고 말음첨기이므로 제외하였다.
- 41) 남풍현(1996ㄱ/1999: 301)에서는 다음의 문장을 ‘尸’의 예로 포함시켰는데, 문맥과 ‘衆生乙 度脱ノ尸ム 亦ㄴ 限ヲ 無リㄴ’ <화엄15:04>와 같은 앞뒤 반복되는 유사 구문을 참조하면 장경준(200901)과 같이 ‘尸’의 잘못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 {是}나 如支 三乘七 教乙 開闡ㄴ 亦 廣リ 衆生乙 度リㄴ尸ム(→ム) 量リ 無ㄴ 劫 ; 十ノ口ヒ分 (이와 같이 三乘의 가르침을 열어 밝혀서 널리 衆生을 건네되 한량 없는 劫에서 (그렇게) 하며) <화엄 14:22>

度衆<sup>ニ</sup>  
リウニク

- 42) 남풍현(1996ㄱ/1999: 303)에서는 ‘乙’이 ‘尸’과 함께 ‘ㄱ’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것은 ‘尸’ 동명사어미의 쇠퇴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43) 五眼<sub>リ</sub> 成就<sub>ノ</sub> 公<sub>ハ</sub> 亡<sub>ニ</sub> 七<sub>ヒ</sub> 時<sub>ト</sub> 見<sub>テ</sub> 乃<sub>リ</sub> 見<sub>ル</sub> 尸<sub>所</sub> 無<sub>ニ</sub> 公<sub>ハ</sub> (五眼이 成就되신 때에 보시나 볼 바 없으시며) <구인15:16> 역접의 ‘乃’가 ‘亡’ 뒤에 결합한 것인데 이들 예에 대하여 남풍현(1996ㄷ: 29)는 ‘乃’의 두음을 표기하기 위해 ‘亡’이 쓰인 것이지 문법성을 가진 동명사 어미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른 예들은 ‘乃/나’가 모두 선어말어미나 동사 어간 뒤에 결합한 것들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듯도 하지만 두음을 표기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역시 동명사 어미의 결합형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 ‘ㄱ’나 ‘ㄴ’의 생략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듯하다.
- 44) 十八 獄王<sub>リ</sub> 亡<sub>ニ</sub> 亡<sub>ニ</sub> 亡<sub>ニ</sub> 曰<sub>ク</sub> 尸<sub>亡</sub> 迦延<sub>ニ</sub> 牙<sub>亡</sub> 泥犁獄<sub>乙</sub> 典<sub>亡</sub> 二七子 號<sub>リ</sub> 屈尊<sub>ニ</sub> 牙<sub>亡</sub> 刀山獄<sub>乙</sub> 典<sub>亡</sub> (18獄王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일컫는 것은 迦延이라고 하는 것이니 泥犁獄을 주관하며, 두 번째 이의 이름이 屈尊이라고 하는 것이니 刀山獄을 주관하며. <자비20:09-10>

| 문헌 | 형태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ㅈ/ㅊ                  |
|----|----|---|---|---|---|--------------------|---|------------------------|
| 화소 | ㅅ  | * | 9 | * | * | *                  | * | 31                     |
|    | ㅈ  | * | * | * | * | (1) <sup>45)</sup> | * | *                      |
| 화엄 | ㅅ  | * | 3 | * | * | *                  | * | 1                      |
|    | ㅈ  | * | * | * | * | (12)               | * | *                      |
| 금광 | ㅅ  | * | * | * | * | *                  | * | 4                      |
|    | ㅈ  | * | * | * | * | *                  | * | *                      |
| 구인 | ㅅ  | * | * | * | * | *                  | * | */3/1                  |
|    | ㅈ  | * | * | * | * | *                  | * | */1/(1) <sup>46)</sup> |
| 유가 | ㅅ  | * | * | * | * | *                  | * | 29                     |
|    | ㅈ  | * | * | * | * | *                  | * | *                      |
| 자비 | ㅅ  | * | 1 | * | * | *                  | * | *                      |
|    | ㅈ  | * | * | * | * | *                  | * | *                      |

## 2.9. 체언 수식-의존명사

| 형태 | ㅅ                                                                                  | (ㅈ)                        | ㅈ                                      | ㅈ   |
|----|------------------------------------------------------------------------------------|----------------------------|----------------------------------------|-----|
| ㅅ  | ㅅ 矢#/ㅅ(ㅈ)/ㅈ/ㅈ/ㅈ<br>ㅈ/ㅈ/ㅈ/ㅈ/ㅈ/ㅈ/ㅈ/ㅈ<br>ㅅ ㅈ/ㅈ/ㅈ/ㅈ<br>ㅅ ㅈ<br>ㅅ {爲} ㅈ ㅈ<br>ㅅ ㅈ         | *                          | *                                      | ㅅ ㅈ |
| ㅈ  | ㅈ 矢#/ㅅ(ㅈ)/ㅈ/ㅈ/ㅈ<br>ㅈ ㅈ/ㅈ/ㅈ 48)/ㅈ 49)<br>ㅈ ㅈ 50)<br>ㅈ ㅈ ㅈ 51)<br>ㅈ ㅈ 52)<br>ㅈ ㅈ 53) | ㅈ ㅈ ㅈ(ㅈ)<br>ㅈ ㅈ ㅈ<br>ㅈ ㅈ ㅈ | ㅈ ㅈ ㅈ 54)<br>ㅈ ㅈ ㅈ ㅈ<br>ㅈ ㅈ ㅈ<br>ㅈ ㅈ ㅈ | ㅈ ㅈ |

45) ‘亦カ {是} ㅈ 如ㅈㅈㅈㅈㅈ <화소09:12>’ 이곳의 ‘ㅈ’는 선어말어미로 보아야 할 듯하다. 『화엄』의 예들도 ‘ㅈ’이 선행한 두 예를 제외하면 모두 선어말어미 ‘ㅈ’가 선행한다.

46) 第一義 ㅈ 中 ㅈ ㅈ 世諦 有ㅈㅈㅈㅈㅈ ㅈ ㅈ ㅈ ㅈ ㅈ (第一義의 가운데에 世諦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구인14:18.2> 이 예에서 ‘ㅈ’ 앞에 ‘ㅈ’이 있어서 이곳의 ‘ㅈ’는 의존명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ㅈ’와 계열관계에 있고, ‘ㅈ’이 선행하지 않은 ‘二 ㅈ ㅈ {之} 義 ㅈ 其 事 云何ㅈㅈㅈㅈㅈ <구인14:19-20>’를 고려하면 ‘ㅈ ㅈ’에서 ‘ㅈ’은 중복 표기일 가능성이 크다.

47) 跏趺坐 ㅈ 捨ㅈㅈㅈ ㅈ ㅈ ㅈ 當 願 衆生 諸 ㅈ 行法 ㅈ 悉 ㅈ 散滅 ㅈ ㅈ ㅈ 歸 ㅈ ㅈ ㅈ 觀ㅈㅈㅈ 立 (가부좌를 풀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중생은 모든 行法이 다 散滅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을 觀하소서 (할 것이며)) <화엄04:03>

48) ‘-ㅈ ㅈ/ㅈ-ㄴ’은 후대의 ‘-거든’에 이어지는 어미로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여기서는(다음 예) 각 형태소의 구별이 분명하다.(남풍현1996: 21) ‘ㅈ ㅈ’도 마찬가지로 봄.

菩薩 ㅈ 發意ㅈ 菩提 ㅈ 求ㅈㅈㅈ ㅈ ㅈ {是} ㅈ 因 無ㅈㅈㅈ 緣 無ㅈㅈㅈ {有} 非 ㅈ ㅈ {於} 佛法僧 ㅈ ㅈ 淨信 ㅈ ㅈ 生 ㅈ ㅈ 是 ㅈ {以} ㅈ ㅈ 而 ㅈ 廣大心 ㅈ 生 ㅈ ㅈ ㅈ ㅈ <화엄09:10-11>

菩薩이 發意하여 菩提를 求하는 것은 이것이 因 없이 하며 緣 없이 하는 것 아니니 佛法僧에 대해 깨끗한 믿을 내어 이로써 廣大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49) “이 인과관계 표현의 ‘-ㅈ ㅈ’은 이두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아마도 신라시대부터 쓰여왔을 것이

## 2.10. 인용절 앞 화법동사(또는 사유동사) 활용

|                                                                                                                                                                                                    |                                                                                                                                                                                                                                                  |
|----------------------------------------------------------------------------------------------------------------------------------------------------------------------------------------------------|--------------------------------------------------------------------------------------------------------------------------------------------------------------------------------------------------------------------------------------------------|
| 問 <sub>3</sub> 言 <sub>1</sub> 尸/問 <sub>3</sub> 曰 <sub>1</sub> 尸/答 <sub>3</sub> 曰 <sub>1</sub> 尸/白 <sub>3</sub><br>曰 <sub>1</sub> 尸/白 <sub>3</sub> 言 <sub>1</sub> 尸/告 <sub>3</sub> 言 <sub>1</sub> 尸 | 謂 <sub>1</sub><br>說 <sub>1</sub> 口 <sub>1</sub> -廣 <sub>1</sub> 說 <sub>1</sub> 口 <sub>1</sub><br>略 <sub>1</sub> 口 <sub>1</sub> -略 <sub>3</sub> 說 <sub>1</sub> 口 <sub>1</sub><br>摠 <sub>1</sub> 口 <sub>1</sub><br>何以故 <sub>1</sub> 口 <sub>1</sub> |
| 廣 <sub>1</sub> 說 <sub>1</sub> 尸                                                                                                                                                                    |                                                                                                                                                                                                                                                  |
| 言 <sub>1</sub> 尸/言 <sub>3</sub> 尸                                                                                                                                                                  |                                                                                                                                                                                                                                                  |
| 謂言 <sub>3</sub> 尸                                                                                                                                                                                  |                                                                                                                                                                                                                                                  |
| 讚歎 <sub>3</sub> 白 <sub>1</sub> 尸                                                                                                                                                                   |                                                                                                                                                                                                                                                  |
| 思惟 <sub>3</sub> 尸 55)                                                                                                                                                                              |                                                                                                                                                                                                                                                  |

## 3. 尸과 1 의 비교

남풍현(1996ㄷ: 1)에서는 석독구결자료에서 ‘-옴/옴’과 ‘-기’에 대응하는 형태는 발견되지 않고 ‘尸’와 ‘1’이 시간 표현이나 서법상 차이를 보이며 통사적 기능은 일치하는 동명사어미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2.1, 2.3, 2.5, 2.7, 2.9, 2.10의 표를 참조하면 통사적 분포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즉 尸과 1 모두 ①조사가 결합할 수 있고, ②조사 없이 특정 서술어의 논항이 되고, ③별도의 조사나 어미 없이 부정사의 피부정어가 되고, ④어미류(첨사)와 결합할 수 있고, ⑤명사 앞에서 관형절 또는 동격절을 이끌 수 있고, ⑥인용문 앞에서 화법동사 및 사유동사의 활용형으로 나타난다.

다만, 각각에 있어 약간씩의 차이도 발견된다. 남풍현(1996: 47-48)에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이곳에서는 2장의 분포별 빈도표를 참고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한다. 먼저 2.1의 조사 결합 양상을 보면 尸에는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경우가 보이지 않는데 1에는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는 예 5개와 서술격 조사가 결

- 다. 순독구결이나 가요에서는 이 형태보다 ‘<sub>1</sub>尸<sub>1</sub>’가 주로 쓰였는데 15세기에는 ‘홀신’<sup>50</sup>가 주로 쓰여 이 표현법이 시대적으로 변천해 온 모습을 볼 수 있다.”(남풍현 1996ㄷ:22). 남풍현(1996ㄱ/1999: 298)에서는 ‘尸<sub>1</sub>’의 ‘<sub>1</sub>’ 역시 순독구결의 ‘<sub>1</sub>尸<sub>1</sub>’에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 50) 남풍현(1996ㄷ: 23)에서는 ‘ム/더’를 의존명사 ‘더’에 처격조사 ‘이’가 결합되어 축약된 것으로 보고 “15세기에는 ‘-온더’형만이 쓰여 前提의 표현을 주로 나타내지만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서는 ‘-올더’와 ‘-온더’형이 쓰이고 처격의 기능도 살아 있어 전제의 표현보다는 ‘함에 있어’, ‘하여서’, ‘하니’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51) 남풍현(1996ㄷ: 23)에서 ‘1 1 + 1’에 대하여 조건을 나타내며 ‘더+아귀’ 구성이 ‘1 1 +/다귀’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 52) 남풍현(1996ㄷ: 24)에서 ‘1 1’에 대하여 감탄을 나타내며 ‘더+여’ 구성이 ‘1/더’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때의 ‘여’를 종결어미로 보았다. ‘<sub>1</sub>尸<sub>1</sub>’에서도 같게 설명하고 있다.
- 53) 남풍현(1996ㄷ: 27)에서는 ‘이’를 ‘셔(스+여)’로 읽고 감탄의 의미로 설명하였으나 ‘더’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량(2018: 23)에서는 ‘1 1’은 도치 구문에 ‘1 이’는 감탄 구문에 나타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 54) 我<sub>1</sub> 今<sub>1</sub> 已<sub>1</sub> 諸<sub>1</sub> 菩薩<sub>1</sub> {爲<sub>1</sub>} 佛<sub>1</sub> 往<sub>1</sub> 修<sub>1</sub> 清淨行<sub>1</sub> 說<sub>1</sub> 口<sub>1</sub> 口<sub>1</sub> 口<sub>1</sub> 口<sub>1</sub> (나는 지금 이미 모든菩薩을 위해 부처님이 과거에 닦으신/닦으신 것의 清淨行을 說하였으니) <화엄 08:23> 유사한 구문에 ‘1’ 없이 ‘<sub>1</sub>’만 결합하는 예가 있어서 1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55) 참고-思惟<sub>3</sub>白<sub>1</sub>尸<sub>1</sub>ム

합한 예가 모든 문헌에 많이 보인다.<sup>56)</sup> 그리고 관형격 조사는 동명사 어미에 결합의 제약이 있는데 ㄱ의 경우는 드물게 ‘ㄴ’이 결합한 예가 보이기도 한다. 반대로 공동격 조사는 ㅍ과만 결합한 예가 보인다. 그리고 처소격 조사의 경우 ㅅ+와 +의 결합은 보이지 않고 ㄴ+와의 결합만 보이는데 관형격조사 ‘ㄴ’과 마찬가지로 ‘ㄱ’과 결합하고 ㅍ과 결합한 예는 『금광』에만 한 예가 보인다. 주격 조사와 서술격 조사를 제외하면 각각의 제약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과제: ㅅ의 내적 구성과 격조사 결합 제약

+과제: 격조사의 제약의 의미

부정격 또는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특정 서술어에 국한 되는데 ‘如(ㄴ)’만 ㅍ과 ㄱ이 고루 선행하고 나머지는 ㄱ이나 ㅍ 하나만 선행하거나 드물다. ‘無/无/靡’와 ‘有’ 즉 존재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모두 ㄱ과 ㅍ 중에 ㅍ만 선행한다. 이는 ‘已(ㄴ)’도 마찬가지이고 ‘如(ㄴ)’와 의미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는 ‘{等}|ㄴ’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들 서술어는 ‘-함 이 있다/없다’, ‘-함을 이미 하다’와 같이 현대어로 바꿨을 때 선행 명사절은 아직 일어나기 전의 내용보다는 이미 일어난 후의 내용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결합 제약이 시상의 대립하고도 관계가 없다. 『화엄』의 두 예씩뿐이기는 하지만 ‘隨(ㄴ)’은 ‘ㄱ’과만, ‘{爲}|ㄴ’은 ‘ㅍ’과만 결합한다는 제약도 눈에 띈다.

+과제: 부정격 실현과 주격조사, 비교격 조사와의 결합 제약과의 관련성<sup>57)</sup>

+과제: ‘존재’와 ‘已(ㄴ)’ 앞에 ‘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과제: ‘隨(ㄴ)’의 문법 범주와 ㄱ과의 공기 배경<sup>58)</sup>

부정사의 피부정문에 동명사 어미가 사용되는 경우는 ㅍ과 ㄱ이 확연하게 대별된다. 즉 ‘不(非)矣’는 ‘ㄱ’과만, 나머지 ‘不(ㄴ)能(ㄴ)矣, 不(未)多(非)多, 不(未)八, 未(ㄴ), 勿’은 모두 ‘ㅍ’과만 나타난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공기 제약은 ‘ㅅ’, ‘ㅈ’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서 그 배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56) 이에 대하여 ㅍ에 주격조사와 서술격조사가 결합하면 각각 ‘ㅅ’과 ‘ㅈ’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설명하는데 ‘ㅅ’의 경우는 ‘ㄱ’에 주격조사 결합이 드문 만큼 주격 조사 결합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57) 이승재(1995:224)에서는 부정격으로 실현된 예들을 동명사 어미의 기본적인 용법으로 보고 격 표시의 명시화를 목적으로 후대에 격조사가 통합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부정격으로 실현되는 경우 서술어가 특정한 의미 범주에 한정된다는 점과 이들 서술어의 논항에 결합해야 할 주격 조사나 공동격 조사는 자체로 동명사 어미와 결합이 드물다는 점도 고려하여 더 고찰이 필요하다. 물론 이승재(1995:216)의 설명처럼 향가에서는 “三花矣 岳音 見賜烏尸 聞古(曄星歌 5)”와 같이 다양한 서술어에 동명사가 부정격으로 실현된다. 그렇지만 향가에서도 이미 조사가 통합한 예가 보인다는 것과 향가가 산문이 아니고 시가인 것을 고려하면 동명사가 부정격으로 실현되었다는 설명은 확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동명사 어미에 격조사가 통합하거나, 부정격으로 실현되거나 하는 것은 동명사 어미의 변화 단계와는 별도로 이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58) 두 예가 보이는데 모두 ‘應(ㄴ)ㄱ 隨(ㄴ)(마땅함을 좇아)’ 형식이다. ‘隨(ㄴ)’은 『화소』와 『화엄』에만 나타나는데 이 두 예를 제외하면 ‘宜(ㄴ)ㄴ+ 隨(ㄴ)’, ‘{於}諸 定(ㄴ)+ 隨(ㄴ)’, ‘衆生(ㄴ) 心(ㄴ) 隨(ㄴ)’와 같이 처격과 명사의 목적격과 결합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는 “그릿 혼 조초 ㅎ야 <釋詳6:8b>”와 같은 예가 15세기 국어에도 세 예가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제: 동명사 어미와 부정사의 공기 제약 배경<sup>59)</sup>

+과제: ‘ $\text{ㄷ}$ ’과 ‘ $\text{ㄴ}$ ’의 연관성

‘어미류(또는 첨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는  $\text{ㄷ}$ 과  $\text{ㄴ}$ 의 차이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연결의 기능을 하는 ‘ $\text{ㄷ}$ ’와 의문의 기능을 하는 ‘ $\text{ㄷ}/\text{ㄴ}/\text{ㄴ}$ ’가  $\text{ㄷ}$ 과  $\text{ㄴ}$  중  $\text{ㄷ}$ 과만 결합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과제: ‘ $\text{ㄴ}$ ’에 ‘ $\text{ㄷ}$ ’와 ‘ $\text{ㄷ}/\text{ㄴ}/\text{ㄴ}$ ’가 결합하지 않은 이유<sup>60)</sup>

의존명사와의 경우는  $\text{ㄴ}$  및 ‘ $\text{ㄴ}+\text{조사}$ ’가  $\text{ㄴ}$ 과  $\text{ㄷ}$  뒤에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text{ㄴ}/\text{ㄷ}$ ,  $\text{ㄴ}/\text{ㄴ}$ ,  $\text{ㄷ}/\text{ㄷ}$  등과 같이 전체가 하나의 어말어미로 발전한 용법을 보여준다.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의존명사인지 확실하지 않은 ‘ $\text{ㄴ}$ ’과 ‘ $\text{ㄴ}$ ’가 ‘ $\text{ㄴ}$ ’ 뒤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과제:  $\text{ㄴ}$   $\text{ㄴ}$ ,  $\text{ㄴ}$   $\text{ㄴ}$ 의 구조 분석<sup>61)</sup>

인용절 앞 화법동사(또는 사유동사) 활용에 있어서도 남풍현(1996ㄷ)에서 언급했듯이  $\text{ㄷ}$  동명사 어미와 결합하는 예에 ‘ $\text{ㄴ}$ ’이라는 사유동사가 더할 뿐 다른 특징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과제: ‘인용절 앞 화법동사(또는 사유동사)+동명사 어미’는 부사절인가, 명사절인가?<sup>62)</sup>

59) 이러한 공기 제약은 남풍현(1977, 1996)에서 이미 포착되어 설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남풍현(1977: 66-69)에서는 이두문에서 ‘ $\text{ㄴ}$ ’과 ‘ $\text{ㄴ}$ ’이 명확히 구별되어 전자는 명사문의 부정에 후자는 용언문의 부정에만 쓰인다고 하였고 남풍현(1996ㄷ: 40)에서는 ‘ $\text{ㄴ}$ ’과 ‘ $\text{ㄴ}$ ’ 역시 같은 현상이라고 하여  $\text{ㄴ}$  동명사는 명사로  $\text{ㄴ}$  동명사는 동사로 파악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text{ㄴ}$  동명사를 명사로,  $\text{ㄴ}$  동명사를 동사로 설명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text{ㄴ}$ ’과 ‘ $\text{ㄴ}$ ’의 다른 차이들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60) 남풍현(1996ㄷ: 28, 29)에서는 단순한 자료의 제약일 수도 있지만 동명사어미에 어말어미가 연결되는 문법이 쇠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는 동명사 어미의 쇠퇴하고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키면  $\text{ㄴ}$ 이 먼저 동명사 어미의 기능을 잃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고찰이 필요하다.

61)  $\text{ㄴ}$ 이 먼저 동명사 어미의 기능을 잃고 관형사형 어미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가설이 맞다면  $\text{ㄴ}$  뒤에서 의존명사가 먼저 나타났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 $\text{ㄴ}$ ’을  $\text{ㄴ}$ 과 의존명사  $\text{ㄴ}$ 의 결합으로 보는 설명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설명은 필요없게 되고 ‘ $\text{ㄴ}$ ’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만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석독구결자료에서 유일하게 그 존재가 확실한 의존명사 ‘ $\text{ㄴ}$ ’은 단순히 의존명사 ‘ $\text{ㄴ}$ ’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남풍현(1996ㄱ, ㄴ, ㄷ)에서 강조하듯이 ‘바로 그것’ 정도의 강조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지시적 의미를 가지는 의존명사는 동명사어미만으로도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토석독구결자료에서 한문의 者에 의존명사가 따로 현토되지 않고 점토석독구결자료에서는 者에 주로 ‘ $\text{ㄴ}$ ’을 나타내는 33 위치의 단점이 찍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제에 대하여 고민할 때는 이러한 사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2) 남풍현(1996ㄱ, ㄴ, ㄷ: 32-33)에서는 “‘ $\text{ㄴ}$ ’의 동사의 동명사형이 전체의 기능을 하는 것은 동명사의 不定格인 용법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어 이들이 중세에 ‘ $\text{ㄴ}$ ’과 같은 부동사형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 $\text{ㄴ}$ ’의 모든 문장은 명사문이라는 사실과 ‘ $\text{ㄴ}$ ’의 부동사형은 기원적으로 동명사의 斜格形 등이 화석화된 것이라는 설이 참고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남풍현(1996ㄱ/1999:306)에서는 15세기국어에는 ‘ $\text{ㄴ}$ ’, ‘ $\text{ㄴ}$ ’과 같은  $\text{ㄴ}$  동명사형만 존재한다는 사실도 주목하였다.

동명사 어미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어서 2장의 분포별 빈도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구결자 尸과 ㄱ이 나타내는 다른 기능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남풍현(1996ㄱ,ㄴ)에서 尸에 대하여는 속격조사(如來尸, 梵志尸, 外尸, 三世尸), 말음 첨기(菩薩尸, 一切尸, 十尸), 부사 파생 접미사(昔尸) 등으로 이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는데,<sup>63)</sup> ㄱ의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보조사로서의 기능과 ‘亦ㄱ/又ㄱ/復ㄱ/或ㄱ, 今ㄱ<sup>64)</sup>’ 등의 부사어로 볼 수 있는 예들에 결합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타 기능들과 동명사 어미로서의 기능은 동음어적인 것으로 보고 말 수도 있지만 기원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동명사 어미, 관형사형 어미, 속격조사의 공통 기능은 명사 수식이다. 그리고 구결자 ‘尸’은 이들 기능에 모두 나타난다. ‘ㄱ’은 속격 조사로 쓰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명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와 동명사 어미가 기원적으로 같은 형태소였을 가능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존칭 체언과 무정물에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 ㅅ이 속격 조사로 쓰일 때 비슷한 분포를 ‘尸’과의 상관성도 음운적 고찰을 넘어 기능적으로도 더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ㄱ’의 경우도 동명사 어미가 조건이나 전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변화하는 것과 주제,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ㄱ’과의 기능적 연결 지점을 생각할 수 있다. 서태룡(1980)은 ‘動名詞 {은}과 後置詞 {은}도 關係化와 主題化라는 별개의 現象을 반영하는 範疇’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기저 의미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적으로 설명되었던 ‘제한’, ‘한정’의 의미에서 공통되는 것은 물론 ‘대조적 대립’, ‘주제(화제)’의 의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동명사 어미 ‘-을’과 주제화에 참여하는 목적격 조사도 마찬가지로 기저 의미가 공통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국어의 문장에 대한 의미적 분석에 의한 도출이지만 의미적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고대국어 연구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다만 목적격 조사와 尸 동명사 어미는 고대국어 자료에서 표기상 구분되고 있고 주제화가 목적격 조사의 일반적인 기능은 아니므로 ‘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 4. 尸과 ㅅ의 비교

남풍현(1996ㄱ/1999: 291)에서는 “十恒沙七 鬼神王：乃至三趣七子：ノ今有七ナㄱ：<구인11:15-16>”와 같은 예의 ‘ㅅ’을 동명사어미 ‘尸’과 주격조사 ‘ㅅ’의 결합으로 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幻法：幻化：ノ今名字 無七ㄱ 體相 無七ㄱㄱ <구인14:03-04>”와 같이 ‘것’ 등의 의존명사가 해석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의존명사(또는 접미사)”의 결합이 분명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동명사 어미 자체에 명사의 지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언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병기(1998)에서는 ‘尸’과 ‘ㅅ’의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ㅅ’을 의존명사 ‘ㅅ’의 결합이 아닌 동명사 어미로 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2장의 분포별 빈도를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장부터는 3장에서의 나열적인 비교보다는 특징적인 부분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63) 각각에 대하여는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菩薩尸’과 ‘如來尸’의 尸은 나타나는 분포를 보면 다른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김유범(1996), 장윤희(2012)는 尸의 음가 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64) 爾七ㄱ/爾：七ㄱ/爾ㄱ/是七ㄱ 時 참고

조사 결합을 보면 尸과 ㅅ 모두 주격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데 이는 ‘尸+ㅁ(주격 조사)’가 ‘ㅅ’로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고 ‘ㅁ+ㅁ’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동명사 어미에 尸과 ㅅ가 이들 조사의 결합에 제약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有七’의 주어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1가)를 보면 (1나)의 ‘ㅁ ㅁ’도 주격조사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1나)를 참고하여 (1다)의 ‘ㅅ’를 ‘尸+이(주격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런데 다시 동명사 어미 尸 뒤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1라)와 ‘없다’의미의 서술어에 동명사 어미는 모두 부정격으로 실현된 것을 보면 (1다)의 ㅅ를 다시 ‘尸’과 동일한 성격의 문법 범주로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적인 면모는 ㅅ와 尸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데 계속 나타나 확정적인 추론을 어렵게 하고 있다.

- (1) 가. 復ㅅㅁ 五道七 一切 衆生ㅁ 有七ナㄱ(또 五道の 모든 중생이 있으며) <D구인 02:01\_2>

나. 尸羅乙 犯ㅅㅁ ㅁ 有七去乃 而ㅁ 輕擧 不多ㅅㄱ(尸羅를 범함이 있어도 가벼이 들추지 않고) <유가17:12-13>

다. 未來ㅅ+ㅁ 幾七ㄱ七 如來ㅅ 幾七ㄱ七 聲聞 辟支佛ㅅ 幾七ㄱ七 衆生ㅅㅁ 有ㅅ(미래에는 얼마만큼의 여래니 얼마만큼의 성문 벽지불이니 얼마만큼의 중생이니 하는 이가 있으며) <화소07:17-18>

라. {於}思惟ㅁ 尸 所ㅅ+ 疑ㅁ 隨逐ㅁ 尸 有七ㄱ(사유하는 데에 의심이 뒤따름이 있으며) <유가11:117>

바. 復 五因ㅁ 二十種 相ㅁ{之} 攝受ㅁㅁ 所ㅁ ㅁ 有七ㅁ(또 다섯 인이 스무 가지 상으로攝受된 바임이 있다.) <유가22:20-21>

관형격 조사 七과의 결합 양상에서도 이러한 순환적인 면모는 계속된다. ‘七’과 尸과의 결합 예는 한 개도 없는 반면 ㅅ와의 결합 예는 상당히 많다. 이는 범주적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尸과 ㅅ의 음성적 차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전자로 본다면 ㅅ가 의존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尸과는 달리 관형사형 어미와 같은 기능이 없고 이러한 이유로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존명사 결합형으로 보지 않는 ‘ㅁ’ 경우도 ‘七’이 결합한다는 점에서 자음 뒤 모음 뒤라는 음성적 차이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尸과 ㅅ의 통사적 분포에 있어 확연히 차이나는 것 중 하나는 ‘不多/未多’의 피부정문에 尸이 결합한 예는 많이 보이지만 ㅅ가 결합한 예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尸과는 달리 ㅅ가 동명사 어미가 아니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尸ㅁ(ㅅ)’가 『금광』, 『구인』, 『유가』에만 나타나는 반면 ‘ㅅㅁ(ㅅ)’는 『화소』, 『화엄』, 『자비』에만 나타나 문헌의 상보성을 보이고 있어서 尸과 ㅅ과 같은 동명사 어미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통사적 분포로서는 ㅅ와 尸의 관계를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했듯이 ‘ㅅ’에 지시적 명사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의존명사 ‘ㅁ’의 결합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 예를 보면 이 역시 반박의 여지가 크다. 문맥 파악을 위하여 좀 긴 구절을 인용하기로 한다.

爾七ㅁㅁ 時+ 波斯匿王ㅁ ① 卽ㅁ 神力乙 {以}ㅁㅁ 八萬種七 音樂乙 作ㅁㅁㅁ(그때에 波斯匿

王은 즉시(바로) 神力으로써 八萬 種の 音樂을 지으시며)

十八梵天：六欲七 諸天：ノ全カ② 亦ソ七 八萬種七 音樂乙 作ソニ下 聲ミ 三千乙 動ソヒ  
ハニ七：(十八梵天이니 六欲의 모든 하늘이니 하는 것도 또한 八萬 種の 音樂을 지으시어 소  
리로 삼천세계를 진동시키는데)

乃<sub>1</sub> 十方<sub>7</sub> 恒河沙<sub>7</sub> 佛土<sub>3</sub> 十<sub>1</sub> 至<sub>11</sub> 有緣<sub>1</sub> 十<sub>1</sub> 十<sub>1</sub> 斯毛<sub>1</sub> ン<sub>1</sub> 巴<sub>1</sub> 現<sub>1</sub> ン<sub>1</sub> 巴<sub>1</sub> 二<sub>1</sub> | (이에 시방의  
恒河沙 佛土에 이르도록 인연 있는 곳에는 이렇게 나타났었다.)

彼 他方 佛國七 中 3 七 南方 3 七 法才菩薩 7 五百萬億 大衆 11 俱 3 7 乙 共 七 來 3 3 糸 {此} 11  
大會 3 + 入 3 2 兮 (저 타방 佛國 가운데 南方에 있는 法才菩薩은 갖추어진 五百萬億 大衆과  
함께 와서 이 대회에 들어오시며)

(중략)

西方ㄴ七 善住菩薩ㄱ 十恒河沙七 大衆ㄴ 俱ㄴㄴㄱ 乙 共七 來ㄴㄴ 糸 {此}ㄴ 大會ㄴ 十 入ㄴㄴ 分  
 六方ㄴ 七 子力ㄴ③ 亦ㄴㄱ 復ㄴ 是}ㄴ {如}ㄴ ㄴㄴ ㄴㄴ 分(六方に 있는 이(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하시며)

作樂ノ尸カ④ 亦ソ 然セソソ下 亦ソ 復ろ 共セ 量 無セ 音樂乙 作ソ 如來乙 覺寤ソ  
 白口ハソ (음악을 짓는 이(들)도 또한 그렇게 하시어(이 대회에 들어오시며) 또한 함께 그지  
 없는 音樂을 지어 如來를 깨닫게 하셨으니)

佛1 卽ろ 時1 去ろ 入乙 知ニ 分分 (부처는 바로 때인 줄을 아시며)

<구인03:04-13>

위에서 ①과 ②는 ‘音樂乙 作’하는 주체들이다. 波斯匿王을 먼저 언급하고 十八梵天, 六欲의 모든 天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ㄴ ㅅ/(라고) 하는 이’를 통해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구문에 ‘ㅅ’는 지시적인 명사의 의미가 간취되기 때문에 의존명사 ‘이’가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데 ④의 ‘ㅅ’ 역시 문맥을 보면 ‘하는 이’로 파악해야만 한다. 즉 十方 중 남, 동, 북, 서의 보살과 대중이 이 대회에 들어움을 열거하고 나머지 六方의 이들도 그렇게 하고(들어오고) ①과 ②의 音樂을 作하는 이들도 그렇게 했다는 기술인데 ‘①과 ②의 音樂을 作하는 이들’이 ④의 ‘作樂ㄴ ㅅ’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ㅅ과 ㅅ은 지시적인 명사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ㅅ에 의존명사 ‘이’가 결합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과제: 동명사 어미의 약화와 의존 명사 ‘ㄴ’의 출현

## 5.7 과 ㅈ 의 비교

남풍현(1996: 8-9, 13-14)에서는 동명사어미 ‘ㄱ’에 속격의 ‘ㄷ’이 직접 결합된 예는 없지만 “二者 能分 一切 衆生乙 甚深ノヒト(之) 法ヲ入 令ニ分 <금광04:21>”에서와 같이 ㄷ 뒤에 ㄷ이 결합한 예가 보이며 이때의 ‘ㄷ’은 ‘ㄷ’ 앞에서 ‘ㄱ’의 보충법적 성격으로 나타나는 동명사 어미라고 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ㄱ ㄷ’가 『금광』에서만 나타나고, ‘ㄷ ㄷ’가 『구인』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ㄱ’과 ‘ㄷ’가 방언적 차이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65)</sup> “聖人性乙 證ノㄱ ㄷ ㄷ

65) 두 문헌 반복 나열되는 문장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두 문헌에서 상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毫末許ヤ 如支ノ匕刀 <화소10:09>’, ‘一切 榮盛ノ匕刀

リ<sub>ク</sub> 一切 無量報乙 得<sub>ト</sub>カ<sub>リ</sub>ナ<sub>リ</sub> (聖人性을 證한 자도 있으며 一切 無量報를 얻은 자도 있었다.) <구인11:18-19>”와 같이 한 문장에 선어말어미의 분포를 보이는 <sub>ト</sub>와<sup>66)</sup> 동명사 어미의 분포를 보이는 <sub>ト</sub>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생략 표기나 중복 표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풍현(1996: 13)에서는 이에 대하여 ‘<sub>ト</sub>’가 동명사어미 ‘<sub>リ</sub>’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하나는 동명사어미로, 다른 하나는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 세부적인 면에서의 타당성을 차지하고 <sub>ト</sub>가 자토석독구결에서 동명사 어미의 통사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음성적 유사성으로 尸과 示과 관여적이듯이 <sub>リ</sub>과 <sub>ト</sub>가 관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사의 피부정문을 이끄는 경우 <sub>リ</sub>과 尸은 상보성을 보였는데 <sub>ト</sub>와 示는 모두 非<sub>ト</sub>의 피부정문에 쓰이고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가. 卽<sub>ハ</sub> 名下 已<sub>ハ</sub> 得<sub>ル</sub> {於}現見法<sub>ヲ</sub> + 永<sub>ク</sub> 熾燃<sub>ス</sub> 離<sub>レ</sub> <sub>リ</sub> <sub>ト</sub> <sub>示</sub> 非<sub>ト</sub>  
 卽<sub>ハ</sub> <B유가22:06>

가’. 是 如<sub>レ</sub> <sub>リ</sub> 五因<sub>ヲ</sub> 當<sub>ハ</sub> 知<sub>ル</sub> <sub>ト</sub> 諦現觀<sub>ヲ</sub> 逆次因<sub>ヲ</sub> 依<sub>テ</sub> 說<sub>フ</sub> <sub>リ</sub> <sub>ト</sub> <sub>示</sub> 順次因<sub>ヲ</sub> <sub>ト</sub>  
<sub>ト</sub> 非<sub>ト</sub> <sub>リ</sub> <sub>ト</sub> <유가23:10-11>

가”. {此} <sub>リ</sub> 法<sub>ヲ</sub> {者} 處所 有<sub>レ</sub> <sub>リ</sub> <sub>ト</sub> 非<sub>ト</sub> 處所 無<sub>レ</sub> <sub>リ</sub> <sub>ト</sub> 非<sub>ト</sub> <B화소  
 13:20-14:01>

나. 第一義<sub>ヲ</sub> 中<sub>ヲ</sub> + 世諦 有<sub>レ</sub> <sub>リ</sub> <sub>ト</sub> 不<sub>レ</sub> <sub>リ</sub> <sub>ト</sub> 若<sub>レ</sub> 言<sub>フ</sub> 無<sub>レ</sub> <sub>リ</sub> <sub>ト</sub> 智<sub>ヲ</sub> 二<sub>リ</sub> <sub>ト</sub> 應<sub>ヲ</sub> 不<sub>レ</sub> <sub>リ</sub> <sub>ト</sub> 若<sub>レ</sub> 言<sub>フ</sub> 有<sub>レ</sub> <sub>리</sub> <sub>ト</sub> 智<sub>ヲ</sub> 一<sub>리</sub> <sub>ト</sub> 應<sub>ヲ</sub> 不<sub>レ</sub> <sub>리</sub> <舊仁 14:18-20>

(2 가)는 부정어 ‘非<sub>ト</sub>’ 앞에 ‘<sub>示</sub>’가 결합하였다. 석독 구결 자료에서는 부정 표현 앞 절에 동명사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非’ 앞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명사구가 앞에 온다. 따라서 (2 가)의 ‘<sub>示</sub>’는 명사적인 성격을 갖는데 형식명사 결합형인지 동명사인지가 문제이다. (2 가)에서는 ‘非’에 ‘<sub>ト</sub>’가 선행하였는데 여기서 ‘<sub>ト</sub>’는 ‘<sub>示</sub>’와 같은 환경에 출현하고 형식명사 ‘이’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명사 어미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sub>示</sub>’ 역시 동명사 어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가사지론』의 경우와는 달리 (4 가)에서 보듯 『화엄경소』에서는 ‘<sub>ト</sub>’에 관형사형의 기능을 하는 동명사 어미 ‘<sub>리</sub>’이 선행하여 ‘非’ 앞의 ‘<sub>ト</sub>’를 형식명사 상당 요소로 파악하게 한다. 그리고 (2 가)에서는 (2 가)의 ‘<sub>示</sub>’에 대응하는 요소는 ‘<sub>ト</sub>’가 아닌 ‘<sub>리</sub>’가 되어 ‘<sub>示</sub>’를 ‘尸<sub>リ</sub>’로 보도록 한다. 이러한 ‘<sub>리</sub>’와 ‘<sub>示</sub>’의 대응은 (2 나)에서도 드러난다.

+과제: <sub>리</sub>과 <sub>ト</sub>의 세 가지 기능의 상관성

## 6. <sub>示</sub>와 <sub>ト</sub>의 비교

목적격 조사가 <sub>示</sub>에만 결합하고 <sub>ト</sub>에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통사

<화소11:12>’와 같이 『화소』에는 두 종류의 예가 모두 나타난다.

66) 우연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 예에서 ‘得’ 뒤에서만 ‘<sub>ト</sub>’가 동사 뒤에 바로 결합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적 분포에서  $\kappa$ 와  $\tau$ 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점토석독구결이 비록 자토석독구결에 기대어 해독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현수(2017: 578, 582)의 점도를 보면 25위치에서 수평선과 수직선에 의해 ‘ㄴ $\tau$ ㄷ’과 ‘ㄴ $\kappa$ ㄷ’이, 상향 눈썹과 하향 눈썹에 의해 ‘ㄴ $\tau$ ㄷ’과 ‘ㄴ $\kappa$ ㄷ’이 계열적으로 구분된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그러나 ‘ $\tau$ ’는 선어말어미와 의존명사의 통사적 분포도 보이기 때문에 앞서 (2)에서 보았던 문제들이 계속 순환될 수 있다.

+과제:  $\mathcal{S}$ 와  $\mathcal{T}$ 의 모임을 같이 볼 가능성

## 7.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로의 변화

선어말어미 - 리- (이병기 1998)

‘ㄱ ㅁ’가 석독 구결 자료에서 많이 표기되기는 하지만 몇몇 불확실한 예를 제외하면 (3가)와 같이, (3나)의 ‘ㅈ’와 출현 환경에서 유사한 ‘ㄱ+ㅁ(계사)’의 구성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를 참조하면 ㅈ가 ‘ㅈ+ㅁ(서술격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3) 我今(者)於四種苦+何等乙(爲)脱之ノリセロ  
 <瑜伽18:13-14>

4. 何<sub>レ</sub>法<sub>リ</sub>最<sub>ハ</sub>後<sub>リ</sub>十<sub>ニ</sub>在<sub>リ</sub>牙<sub>ヲ</sub>セロノ尸人 <華疎 08:03>

연결어미 ㄱ “-니”, “조건” 남풍현(1996ㄷ)

(4) 가. 菩薩 三昧 中 住 在 種 種 自 在 衆 生 攝 (菩薩이  
三昧 가운데 머무르니 갖가지 自在로 衆生을 攝受하는구나!) <화엄17:04>

나. 법界ᄇ分別無七口ᄇ是故ᄃ異ᄂᄇ乘無七口ᄇ乙衆生乙度ᄂ{爲}人ᄂニ尸入ᄃ故ᄈ分別ᄂᄃ三乘乙說ᄈ口ᄇリᄃ七レソヒハシ(法界는 分別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다른 乘이 없거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分別하여 三乘을 說하셨습니다. 하셨다.) <금광13:16-17>

‘-오기ム’, ‘-오尸ム’ > 오/우디<sup>67)</sup>

72 > ‘-거늘’<sup>68)</sup>

尸 入 7 (69)

67) 이승재(1995: 234-236)에서는 ‘-ㄱㅏㅓㅓ’, ‘-ㄱㅓㅓㅓ’가 모두 중세국어 ‘-오/우디’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원적으로 상적 대립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예에서 이러한 대립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명사 어미의 기능 약화와 함께 상적 대립을 잃게 되었고 결국에서 생략되었다고 설명한다. “大光明乙 放<sub>ㄱㅏㅓㅓ</sub> 邊尸 無<sub>ㅓㅓㅓ</sub>{有} 衆生乙 度脫<sub>ㅓㅓㅓ</sub> 亦<sub>ㅓㅓ</sub> 限<sub>ㅓㅓ</sub> 無<sub>ㅓㅓㅓ</sub>{有} (큰 光明을 발하되 가 없이 하며 衆生을 제도하되 또한 한 없이 하며) <화엄15:04> ”

68) 彼 微塵<sub>1</sub> 亦<sub>2</sub> 增<sub>3</sub> 不<sub>4</sub> 失<sub>5</sub> 乙<sub>6</sub> 於<sub>7</sub> 一<sub>8</sub> 十<sub>9</sub> 普<sub>10</sub> 難<sub>11</sub> 思<sub>12</sub> 刹<sub>13</sub> 乙<sub>14</sub> 現<sub>15</sub> 十<sub>16</sub> 百<sub>17</sub> 分<sub>18</sub> (저 微塵은 또한 더할 없거늘 / (더하지 않거늘) 하나에 널리 생각하기 어려운 刹土를 나타내며) <화엄 15:09>

69) 佛子 3 若 7 諸 1 菩薩 11 善 支 其 心 乙 用 7 乙 尸 入 7 則 支 一切 勝妙功德 乙 獲 7 乙 尸 四 (佛子야 만 약 모든 보살이 좋게 그 마음을 쓰는 경우에는 곧 一切 勝妙功德를 얻을 것이라서) <화엄

尸矢 |

정재영(1996), 이용(2000/2003), 황선엽(2002) 등

의문형 어미- ‘스즈’에 대하여 이병기(1997, 2006)에서는 명사 뒤에서는 모음 뒤에서도 ‘ㄱ’ 약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른 시기의 어형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고은숙(2007: 56-58)은 동명사 어미에 의문 첨사가 결합한 구조의 ‘-리가[去, 尸去]’, ‘-리고[尸口]’, ‘-니고[焉古]’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다가 동명사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로서의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리고[理古, 스口]’와 같은 의존명사 ‘이’가 결합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청자높임의 요소인 ‘스[叱]’과 ‘앗[ㅅ 叱]’이 결합한 ‘-릿고[理叱過]’, ‘-리앗고[牙ㅅ叱口]’, ‘-닛고[尼叱古]’, ‘-니이앗고[기 ㅅ 叱口]’는 ‘-고’가 어미화했고 이 시기에는 ‘-리가’, ‘-니고’도 의문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리앗고’와 같은 의문형 어미 결합형에 유추되어 ‘관형사형 어미+형식명사+의문첨사’ 구성의 ‘-리고[스口]’의 ‘리’도 유추에 의한 재분석에 의해 ‘선어말어미와 의문 어미’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ㄱ’ 약화형인 ‘-리오[스즈]’, ‘-리아[스ㅅ]’와 같은 표기형들도 나타난 것의 보았다. 하나의 공시태로 간주되는 석독구결자료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결합형들에 대하여 이러한 통시적 변화를 상정할 수 있을지 동명사 어미의 변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                                |
|--------------------------------|
| +과제: 동명사 어미의 약화와 다른 어미로의 발달 과정 |
|--------------------------------|

## 8. 마무리

### 참고문헌

- 고은숙(2007),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권용경(2001), 국어 사이시옷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경아(1992), 중세국어 중성표기 ‘스’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1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경아(1997), 국어 장애음의 분류와 후두 자질, 『국어학』30, 국어학회, 35-64.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완진(1957), -n, -l 動名詞의 統辭論的 機能과 發達에 대하여, 『국어연구』2, 43-72.  
 김유범(1996), ‘尸’의 二重的 音價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한국어학』4, 한국어학회, 208-218.  
 金興洙(1975), 「中世國語의 名詞化 研究」, 『국어연구』34,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남권희·남경란(2015), 13세기 高麗 釋讀口訣本 『慈悲道場懺法』 卷4 殘片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22, 199-250.  
 南豐鉉(1977/1986), 國語 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3, 문법연구회, 탑출판사, 55-81.  
 남풍현(1996ㄱ),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尸/ㄹ’에 대한 考察, 『口訣研究』1, 구결학회,  
 남풍현(1996ㄴ),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尸의 用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228-251..  
 남풍현(1996ㄷ),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국어학』28, 국어학회,

1-48.

- 남풍현(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 研究』, 태학사.
- 남풍현(2011), 中古韓國語의 文法 概觀, 『口訣研究』27, 5-25.
- 李基文(1961/1972/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 李東林(1982), 「구역인왕경의 구결해독을 위하여」, 『논문집 인문·사회과학원』21, 동국대 대학원.
- 李炳銑(1982),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형설출판사.
- 李丞宰(1996), 「‘ㄱ’ 弱化·脫落의 通時的 考察-南權熙本 楞嚴經의 口訣資料를 중심으로-」, 『국어학』28, 49-79.
- 문현수(2017), 「周本 『華嚴經』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朴鎭浩(2003), 「周本 『華嚴經』 卷第36의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구결연구』11, 211-247.
- 朴鎭浩(2006), 「晉本 《華嚴經》 卷第20의 點吐 解讀」, 『구결연구』16, 173-206.
- 백두현(1995),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에 관한 고찰, 『國語史와 借字表記(소곡 남풍현 선생 회갑기념 논총)』, 태학사, 253-283.
- 서태룡(1980), 動名詞와 後置詞 ‘은’, ‘을’의 基底意味, 『震檀學報』50, 震檀學會, 97-120.
- 심재기(1980), 명사화의 의미기능, 언어 5-1.
- 양주동(1956),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오정란(1993), 국어 ‘ㄱ’음의 양음절성과 겹자음화, 『언어』18-1.
- 兪昌均(1956), 향가에 나타난 ‘尸’의 문법적 기능과 음가, 『국어국문학』15,
- 유창균(1973), 향가 표기용자의 상고성적 특면-특히 「尸」의 음가와 그 연원에 대하여, 『신라가야문화』5, 신라가야문화연구소.
- 이건식(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조사에 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67), 韓國語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 이남순(1989), 『國語의 不定格과 格標識 省略』, 태학사.
- 이병기(1997), 미래 시제 형태의 통시적 연구: ‘-리-’, ‘-ㄹ 것-’, ‘-겠-’을 중심으로, 『국어연구』146, 국어연구회.
- 이병기(1998),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口訣研究』4, 구결학회, 1-22.
- 이병기(2006),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승재(1992), 융합형의 형태분석과 형태의 화석, 『주시경학보』10, 탑출판사.
- 이승재(1994),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형태음소론적 연구, 『진단학보』78, 진단학회.
- 이승재(1995), 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변화: 「구역인왕경」과 「화엄경」의 구결을 중심으로, 『國語史와 借字表記(소곡 남풍현 선생 회갑기념 논총)』, 태학사, 215-252.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3-고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7.
- 이승재(2000), 借字表記 資料의 格助詞 研究, 『국어국문학』127, 국어국문학회, 107-132.
- 이 용(2000/2003), 『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 이장희(1995), 화엄경 구결자 ‘尸’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56.
- 이장희(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수’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17, 문학과언어연구회, 43-56.
- 이장희(2005), 한자음 설내 입성 운미의 유음화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32, 285-302.
- 이현희(1994), 『중세국어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홍식(1998), 동명사 설정의 문제에 대하여, 『국어학』31, 국어학회, 247-270.
- 임근석(2005), 문법적 언어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형태론』7-2, 277-302.
- 임홍빈(1982), 동명사 구성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국어학연구: 백영 정병옥선생 환갑 기념논총1』, 신구문화사, 73-86.[임홍빈(1998: 553-568) 재수록]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I』, 태학사.
-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 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장경준(2017), 『『瑜伽師地論』點吐口訣의 몇 가지 특징』, 『구결연구』21, 67-98.
- 장경준(2019.01), 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2019. 1. 17. 수정본)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전기량(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정재영(1996), 『依存名詞 ‘ㄷ’의 文法化』, 태학사.
- 최동주(1995), 『國語 時相體系의 通時的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沈在箕(1975),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미술자료』18, 국립중앙박물관.
- 沈在箕(1979), 「{-ㄷ} 動名詞의 統辭的 機能에 대하여-舊譯仁王經의 구결 “尸”를 中心으로」, 『문법연구』4, 문법연구회, 157-173.
- 홍종선(1986/1990), 『國語體言化構文의 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황선엽(2000), 석독구결 ‘尸’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26, 한국문학회, 255-280.
-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황선엽 외(2009), 『釋讀구결사전』, 박문사.
- Ramstedt, G. 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a. [역대학국문법대계 2부 5책에 재록]



<기획 주제 발표>

제2부



# 고대국어 경어법 선어말어미의 연구 현황과 과제

- ‘-ㅅ-’을 중심으로 -

박부자(성신여대)<sup>1)</sup>

## 1. 서론

본고는 애초 고대국어<sup>1)</sup> 경어법 선어말어미 중 고대국어 시기에 문법화된 선어말어미 ‘-ㅅ-’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를 따라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ㅅ-’의 실체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이에 2장에서는 고대국어 경어법 선어말어미 ‘-ㅅ-’의 기능에 대해, 3장에서는 선어말어미 ‘-ㅅ-’을 이해하는 데에 기반이 될 동사어간 ‘ㅅ-’의 의미에 대해, 4장에서는 선어말어미 ‘-ㅅ-’의 문법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ㅅ-’의 기능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ㅅ-’에 대해서는 그 형태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중세국어에서처럼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는 논의가 있어 왔고, 중세국어와는 다른 용법을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를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된 경우,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경우, 기존 논의에서 특이한 예로 언급한 것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2.1.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된 경우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ㅅ-’은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ㅅ-’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용법이다.

- (1)가. 爾時十 文殊師利菩薩<sup>1</sup> 智首菩薩<sup>乙</sup> 告<sup>ソ</sup>言<sup>ハ</sup> 善<sup>ナ</sup>哉<sup>1</sup> {哉}<sup>イ</sup> 佛子<sup>ニ</sup> ... (중략) ... 父母<sup>乙</sup> 孝事<sup>ソ</sup>去<sup>1</sup> 十<sup>1</sup> 當<sup>ハ</sup> 願<sup>ハ</sup> 衆生<sup>1</sup> 善<sup>ナ</sup>支<sup>1</sup> {於}佛<sup>乙</sup> 事<sup>ハ</sup> 白<sup>1</sup> {於} 一切<sup>乙</sup> 護<sup>ソ</sup> 養<sup>ソ</sup> 養<sup>ソ</sup> 支<sup>1</sup> 立<sup>1</sup> (그때 文殊師利菩薩이 智首菩薩에게 말하기를 “좋습니다, 불자여. ...(중략)... 父母를 孝事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잘 부처님을 섬겨서 一切를 보호하고 봉양하고 하소서 (할 것이며) ...) <화엄02:10~20><sup>2)</sup>

1) 본고는 고려시대의 향찰·이두·석독구결 자료까지를 고대국어 자료로 다룬다는 입장에 있으나 실제 논의에서는 석독구결 자료를 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선어말어미 ‘-ㅅ-’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기 때문이기도 했고 이두나 향가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외하게 되었다. 차후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2) 자토 석독구결 자료의 판독과 현대어역은 2013년 학술대회 자료와 얼마전 배포된 입력본을 활용하였다.

나. 時+ 諸<sub>1</sub> 大衆<sub>1</sub> 月光王<sub>11</sub> 十四 王<sub>1</sub> 量 無<sub>7</sub> 功德藏<sub>乙</sub> 歎<sub>ソントろ</sub> 入<sub>乙</sub> 聞<sub>白ロソ</sub> 大  
法利<sub>乙</sub> 得<sub>ヒハフ</sub>(이때에 모든 大衆은 月光王이 十四王의 한량 없는 功德藏을 歎하시는 것  
을 듣고서는 大法利를 얻었으며) <구인11:14-15>

(1가)에서 화자는 문수사리보살, 청자는 지수보살이며, 밑줄 친 동사 ‘事ハ-’의 주체는 주체 “衆生”, 목적어로 실현된 객체 “佛”이다. 객체인 “佛”은 화자보다도 주체보다도 상위자이므로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하여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白-’이 결합되었다. (1나)에서 ‘聞<sub>白ロソ</sub>’의 ‘-白-’은 목적어 내포문 속의 주어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인 ‘月光王’을 높이기 위해 모문 동사에 결합한 것이다.(박진호 1998: 150)

위 (1)의 예는 선어말어미 ‘-白-’과 관련된 객체가 화자뿐 아니라 주체에 대비해서도 상위자인 경우이다.<sup>3)</sup> 객체가 화자에 대비되어 상위자인 경우와 주체에 대비되어 상위자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가). 時+ 或<sub>カ</sub> 有<sub>ナ</sub> 人<sub>1</sub> 來<sub>ソ</sub> 王<sub>1</sub> 白<sub>3</sub> 言<sub>白ナ</sub> 大王<sub>下</sub> 當<sub>ハ</sub> 知<sub>口ハ</sub> 我<sub>1</sub> 今<sub>ソ</sub>  
1 衰老<sub>ソ</sub> 身<sub>1</sub> 重疾<sub>3</sub> 嬰<sub>ヒソ</sub> 熒<sub>獨ソ</sub> 羸<sub>頓ソ</sub> 死<sub>ノ</sub> 將<sub>与</sub> 今<sub>ハ</sub> 久<sub>3</sub>  
不<sub>ソ</sub> 亡<sub>口乙</sub>(그때에 또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사뢰어 말하는 일이.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나는 지금은 노쇠하여 몸은 중병에 걸렸으며 외롭고 지치고 하니 죽는 것은 장차 오래지 않습니다.) <화소10:17-19>

나. 佛<sub>1</sub> {言<sub>1</sub>乃<sub>ニ</sub>是<sub>1</sub>如<sub>支</sub>是<sub>1</sub>如<sub>支</sub>善男子<sub>3</sub>汝<sub>1</sub>說<sub>3</sub>メ<sub>1</sub>所<sub>1</sub>如<sub>支</sub>ナ... (중략)... 善男子<sub>3</sub>是<sub>1</sub>金光明經<sub>乙</sub>聽聞<sub>ソ</sub>受持<sub>ソ</sub>入<sub>乙</sub>{以<sub>1</sub>故<sub>ノ</sub>是<sub>1</sub>善男子<sub>ニ</sub>善女人<sub>ニ</sub>ノ<sub>1</sub>一切<sub>1</sub>罪障<sub>乙</sub>悉<sub>1</sub>能<sub>分</sub>①除滅<sub>ソ</sub>極<sub>1</sub>清淨<sub>ソ</sub>入<sub>乙</sub>②得<sub>ソ</sub>常<sub>1</sub>得<sub>3</sub>佛<sub>乙</sub>③見<sub>白</sub>世尊<sub>乙</sub>離<sub>1</sub>不<sub>多</sub>常<sub>ソ</sub>常<sub>1</sub>妙法<sub>乙</sub>④聞<sub>白</sub>常<sub>1</sub>正法<sub>乙</sub>⑤聽<sub>白</sub>不退地<sub>3</sub>十<sub>1</sub>生<sub>ソ</sub>師子勝人<sub>乙</sub>而<sub>1</sub>得<sub>3</sub>⑥親近<sub>ソ</sub>相<sub>1</sub>遠離<sub>1</sub>不<sub>多</sub>常<sub>ソ</sub>(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다, 이와 같다(옳다, 옳다). 善男子여, 네가 말한 바와 같다. ... (중략)... 善男子여, 이 金光明經을 聽聞하고 受持하고 한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이 善男子니 善女人이니 하는 이는 一切 罪障을 다 능히 없애고 極히 清淨한 것을 얻을 것이며, 항상 능히 부처를 뵈고 世尊을 여의지 않고 하여 항상 妙法을 듣고 항상 正法을 듣고 할 것이며, 不退地에 나신 師子勝人을 능히 親近(히)하여 서로 멀리 여의지 않을 것이며, ...) <금광13:21~14:06-07>

(2가)는 김태우(2018:41)에서 객체가 주체보다 상위자인 경우인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sup>4)</sup> 김태우(2018:41)에서는 화자인 ‘어떤 사람(人)’이 청자인 전륜성왕에게 호격의 ‘-下’, 청자 높임의 선어말어미 ‘-로-’, 청자 높임의 청원형 선어말어미 ‘-로ハ<sub>ヲ</sub>’ 등의 높임법 요소를 사용한다는 것, 반면 이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인 부처는 전륜성왕의 행위를 언급할 때 ‘-<sub>ヲ</sub>’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서술어 ‘言<sub>白ナ</sub>’의 객체인 전륜성왕이 화자인 ‘佛’에 의해서는 상위자로 대우되는 인물이 아니지만, 주체인 ‘어떤 사람(人)’에 의해서는 상위자로 대우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나)에서 화자는 ‘佛’, 청자는 ‘善男子(大自在梵王 및 大衆)’이다. 밑줄 친 서술어 ①~⑥의 주체는 ‘是 善男子<sub>ニ</sub> 善女人<sub>ニ</sub>ノ<sub>1</sub>’이며 이들 서술어에는 모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즉 화자인 ‘佛’은 주체를 상위자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一切 罪障<sub>乙</sub>’을

3) 김태우(2018)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국어 자료에 나타난 ‘-白-’은 화자와 대비해서도 주체와 대비해서도 객체가 상위자인 경우에 나타나는 예가 가장 많다.

4) 김태우(2018)에서는 이러한 용법을 객관적 용법이라 하였다.

목적어로 하는 서술어 ‘①除滅ッロ’에는 선어말어미 ‘-白-’이 결합하지 않았으나 ‘佛, 妙法, 正法, 不退地ヲト生ッテ師子勝人乙’을 목적어로 하는 서술어 ‘見白ヲ, 聞白ヲ, 聽白ヲッヒテヲ, 親近ッ白ヲ’에는 제시한 바와 같이 서술어에 白이 결합되었다. 이는 주체보다 객체가 상위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자와 대비되어 객체가 상위자로 파악되는 경우는 확인하기 쉽지 않으나 다음 예문은 적어도 ‘-白-’의 쓰임이 주체에 대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爾ヒツテ時ト佛ト大衆ヲト告ソフ... (중략)... 吾ト今ツテ先ト諸ト菩薩{爲}ニ佛果乙護ノ今ヒ因縁ト地ト行乙護ノ今ヒ因縁ト乙説白ヲセテ諦ト聽ル諦ト聽ク善ク之乙思フ念フ法乙{如}ニ修行ツカフナッロハニ(그때에 佛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중략)... 나는 지금 우선 모든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縁이니 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잘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며 法대로 수행하며 하거라.” 하셨는데) <구인03:17-20>

(4)가. 大衆ト歡喜ッ各々各々量無ヒ神通乙現ヲハニ地ト及ハ虚空トノ大衆ト而住ッヒハニ(大衆은 歡喜하여 제각각 한량없는 神通을 나타내시는데 땅이니 및 허공이니 하는 곳에 대중이 머물러 계셨다.) <구인03:14-15>

나. 時ト波斯匿王ト言フ善ヲト大事乙因縁故ノソロトト(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되 “훌륭하구나. 큰 일의 인연으로 하신 것이구나.” 하고) <구인03:20>

(3가)는 백두현(1995:62)에서 “부처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겸양한 것”으로 본 예문이다. “‘吾 1’은 부처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자신의 행위를 서술한 서술어 ‘説白ヲセテ 1’에 겸양법의 ‘-白-’을 썼다.”고 하였다. 물론 석독구결 자료에서 이와 같은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때의 ‘-白-’은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가)의 화자는 ‘佛’이며 청자는 ‘大衆(波斯匿王이 포함됨)’이다. 밑줄친 서술어 ‘説白ヲセテ 1’의 주체는 화자인 ‘吾(=佛)’이며,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객체(=여격어) 역시 청자인 ‘大衆’이다. 화자인 ‘佛’은 청자인 ‘大衆’에게 청자높임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주체인 ‘佛’에 대비하여 객체인 ‘大衆’은 상위자로 대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텍스트 상의 화자인 ‘佛’에 대비해서도 객체가 상위자로 대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4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체인 ‘大衆’은 현토자에 의해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다. 또 (3)의 부처님 말씀을 들은 波斯匿王이 주체로 나타나는 (4나)의 ‘言フ’에서 볼 수 있듯이 현토자에 의해 상위자인 波斯匿王이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다. 따라서 ‘説白ヲセテ 1’의 ‘-白-’은 주체보다는 상위자라고 볼 수 없지만 현토자에 의해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기 때문이다.<sup>56)</sup>

아래 (5)는 기존의 논의에서 주체높임의 기능을 하는 ‘-白-’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

5) 백두현(1995)에서는 “佛의 동작에 대한 현토자의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佛의 행위를 묘사한 서술어에 ‘-白-’을 통합한 것”으로 보아 현토자가 관여한 것으로 본 것은 필자와 동일하다. 그러나 필자는 ‘-白-’이 객체인 ‘大衆(波斯匿王이 포함됨)’와 관련된 것으로 본 반면, 백두현(1995)에서는 화자이면서 주체인 ‘佛’과 관련된 것으로 본 데에 차이가 있다.

6) “大王ト菩薩摩訶薩ト{於}第一義ト中ト常ト二諦乙照ト衆生乙化ソントト(大王이시여, 菩薩摩訶薩은 第一義의 중에서 항상 二諦를 비추어 衆生을 교화하시니)<구인15:11-12>”는 부처가 波斯匿王에게 말하는 것인데 “부처의 발화이기는 하지만 청자인 波斯匿王을 어느 정도 대우해 준 것(박진호 1998:189)”으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화자인 ‘佛’가 波斯匿王을 어느 정도 대우하여 ‘-白-’이 결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듯하다.

나 이 예는 객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5)가. 佛<sub>1</sub> 卽<sub>3</sub> 時<sub>1</sub> 入<sub>3</sub> 乙 知<sub>2</sub> 分 衆生<sub>3</sub> 根<sub>2</sub> 得<sub>2</sub> 卽<sub>3</sub> 定<sub>2</sub> 從<sub>2</sub> 起<sub>2</sub> 方<sub>2</sub> 蓮花  
 師子座上<sub>3</sub> 坐<sub>2</sub> 白<sub>2</sub> 王 金剛山王 {如} 卽<sub>3</sub> 入<sub>3</sub> 卽<sub>3</sub> (부처는 바로 때인 줄을 아시며 중생  
 의 根을 얻으시고, 곧 定으로부터 일어나시어 비로소(바야흐로) 蓮花師子座 위에 앉으시되  
 金剛山王과 같으시니)<구인03:13-14>

나. 他方<sub>2</sub> 大衆<sub>3</sub> 及<sub>2</sub> 以<sub>2</sub> 化衆<sub>3</sub> {此} 卽<sub>3</sub> 三界<sub>2</sub> 中<sub>2</sub> 衆<sub>3</sub> 十二大衆<sub>1</sub> 皆<sub>2</sub> 來<sub>2</sub> 集會<sub>3</sub>  
 九劫 蓮花座<sub>3</sub> 坐<sub>2</sub> 白<sub>2</sub> 王 (他方의 大衆이니 化衆이니 이 三界 中에 있는 대중  
 이니 하는 十二大衆은 다 와서 集會하여 九劫 蓮花座에 坐定하였는데)<구인02:07-08>

(6)가. 그 城 안팎 사르미 불씨 匠人 브려 鉢<sub>2</sub> 金壇과 鉢<sub>2</sub> 師子座를 밍<sub>2</sub> 各<sub>2</sub> 七寶로 꾸미고  
 그 七寶壇을 師子座<sub>2</sub> 우회 ㅎ나콤 옆<sub>2</sub> 鉢<sub>2</sub> 師子座마다 설흔 두 力士<sub>1</sub> 드스<sub>2</sub> 釋詳  
 23:4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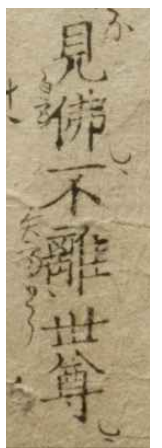
나. 그<sub>2</sub> 如來 三昧로서 나가시닐 忉利天王이 天衣로 師子座<sub>2</sub> 坐<sub>2</sub> 如來 즉재 올라 結加趺  
 坐<sub>2</sub> ㅎ시니 <月釋21:210a>

박진호(1997:131-132)와 박진호(1998: 151)에서는 (5가)를, 황선엽 외(2009)에서는 (5가)와  
 (5나) 모두를 주체 높임의 ‘-ㅁ-’으로 제시하였다. 서술어가 객체를 상정할 수 없는 자동사  
 ‘坐<sub>2</sub>’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의 예문은 모두 지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현토자  
 (=화자)에 의해 부처님이나 불보살이 앉는 자리인 ‘蓮花師子座上<sub>3</sub>’, ‘蓮花座<sub>3</sub>’가 상위자  
 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ㅁ-’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5가)에서 ‘蓮  
 花師子座上’은 주체인 ‘佛’이 앉는 자리이며 (5나)의 ‘蓮花座’는 주체인 ‘十二大衆’이 앉는 자  
 리다. 주체에 대비해서는 이들이 상위의 것으로 대우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현토자(=화자)  
 에 의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7)</sup> (6)에 제시한 15세기 자료에서도 ‘師子座’에 대해 선어  
 말어미 {-습-}을 쓴 예가 확인된다.<sup>8)</sup>

한편, 예상되는 자리에 선어말어미 ‘-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7)가. 佛<sub>1</sub> {言} 乃<sub>2</sub> 是 如<sub>2</sub> 支<sub>1</sub> 是 如<sub>2</sub> 支<sub>1</sub> 善男子<sub>3</sub> 汝<sub>3</sub> 說<sub>2</sub> 所 如<sub>2</sub> 支<sub>1</sub> ... (중략)... 善男  
 子<sub>3</sub> 是 金光明經<sub>2</sub> 聽聞<sub>2</sub> 受持<sub>2</sub> 卽<sub>3</sub> 入<sub>3</sub> 乙 {以} 卽<sub>3</sub> 入<sub>3</sub> 故<sub>2</sub> 是 善男子<sub>3</sub> 善女人<sub>3</sub>  
 一切 罪障<sub>2</sub> 悉 能<sub>2</sub> 除滅<sub>2</sub> 極 清淨<sub>2</sub> 得<sub>2</sub> 常<sub>2</sub> 得<sub>2</sub> 佛<sub>2</sub> ①見<sub>2</sub>  
 世尊<sub>2</sub> ②離 不<sub>2</sub> 常<sub>2</sub> 常<sub>2</sub> 妙法<sub>2</sub> ③聞<sub>2</sub> 常<sub>2</sub> 正法<sub>2</sub> ④聽<sub>2</sub> 不<sub>2</sub> 退<sub>2</sub> 地<sub>2</sub>  
 生<sub>2</sub> 卽<sub>3</sub> 師子勝人<sub>2</sub> 而<sub>2</sub> 得<sub>2</sub> 親近<sub>2</sub> 相<sub>2</sub> 遠離 不<sub>2</sub> 多<sub>2</sub> 不<sub>2</sub> 退<sub>2</sub> 地<sub>2</sub> (부처께서 말씀하  
 시기를 “이와 같다, 이와 같다(옳다, 옳다). 善男子여, 네가 말한 바와 같다. ...(중략)... 善  
 男子여, 이 金光明經을 聽聞하고 受持하고 한 것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이 善男子니 善女人  
 이니 하는 이는 一切 罪障을 다 능히 없애고 極히 清淨한 것을 얻을 것이며, 항상 능히 부  
 처를 뵈고 世尊을 여의지 않고 하여 항상 妙法을 듣고 항상 正法을 듣고 할 것이며, 不退地  
 에 나신 師子勝人을 능히 親近(히)하여 서로 멀리 여의지 않을 것이며, ...) <금광  
 13:21~14:06-07>

나. 一者 一切 諸佛<sub>3</sub> 菩薩<sub>3</sub> 聰慧大智<sub>1</sub> 卽<sub>3</sub> 入<sub>3</sub> 乙 供養<sub>2</sub> 親近<sub>2</sub> 卽<sub>3</sub> 入<sub>3</sub> 乙 心<sub>3</sub> 獸  
 足<sub>2</sub> 無<sub>2</sub> 分 (첫째, 一切 諸佛이니 菩薩이니 聰慧大智이신 이이니 하는 이를 공양하고 친근하



7) 이와 같이 본다면 이 또한 ‘-ㅁ-’의 쓰임이 화자에 대비된 경우로 볼 수 있다.

8) (5)의 예를 객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면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ㅁ-’이 목적어뿐 아니라 처소의 부사  
 어와 관련해서도 쓰인 예가 될 것이다.

고 하되 마음에 獸足함이 없으며,) <금광03:24-25>

(7가)는 위 (2)에서 살펴본 예문이다. 이 부분은 동사구가 나열되는 ‘-ᄃᆞ-ᄃᆞ-ᄃᆞ-’로 나타나는 구문인데 ‘妙法乙 ③聞白ᄃᆞ 常ᄃᆞ 正法乙 ④聽白ᄃᆞ ᄃᆞᄃᄃᄃᄃᄃ’와 같이 ‘-ᄃᆞ-’에 선행하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어미 ‘-白-’이 결합되었다. (7나)에서처럼 『금광명경』에 나타나는 동사구 나열의 ‘-ᄃᆞ-ᄃᆞ-ᄃᆞ-’에서는 아우름 동사 ‘-ᄃᆞ-’에 ‘-白-’이 결합된 것과 비교하면 이 또한 일반적인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ᄃᆞ-’로 연결되는 동사구 나열 구문에서 상위자인 ‘佛’를 목적어로 하는 선행 동사에는 ‘見白ᄃᆞ’처럼 ‘-白-’이 결합한 반면, ‘世尊’을 목적어로 하는 후행 동사 ‘離不ᄃᆞᄃᄃᄃ’에는 ‘-白-’이 결합하지 않은 것이다. 제시한 자료에서 보듯이 기입된 토 가운데 ‘-白-’으로 판독할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8)가. 爾<sup>7</sup><sub>1</sub>時<sup>+</sup>波斯匿王<sup>1</sup>言<sup>ニ</sup><sub>尸</sub>第一義<sup>七</sup>中<sup>}</sup>+世諦有<sup>七</sup><sub>丨ソロ今</sub>不<sup>矢</sup><sub>リ</sub>ろ<sup>七</sup>ヒ<sup>}</sup>  
若<sup>七</sup>言<sup>ニ</sup><sub>尸</sub>無<sup>七</sup><sub>丨ソロチ尸入</sub>{者}智<sup>1</sup>二<sup>リ</sup>カ應<sup>セ</sup><sub>ン</sub>1不<sup>矢</sup><sub>リ</sub>ロ乙<sup>分</sup>若<sup>七</sup>言<sup>ニ</sup><sub>尸</sub>有<sup>七</sup>  
<sub>丨ソロチ尸入</sub>{者}智<sup>1</sup>一<sup>リ</sup>カ應<sup>セ</sup><sub>ン</sub>1不<sup>矢</sup><sub>ろ</sub>一<sup>一</sup>分<sup>二</sup>ヒ<sup>七</sup>之<sup>之</sup>義<sup>1</sup>其<sup>事</sup>云何  
セ<sup>ン</sup>ロヒ<sup>ろ</sup>佛<sup>1</sup>大王<sup>ヨ</sup>+告<sup>ニ</sup><sub>尸</sub>....(그때에 波斯匿王은 이르시기를, “第一義의 가운데에 世  
諦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만일 이르시기를 없다고 하신다면 智는  
(마땅히) 둘임이 아닐 것이며, 만일 이르시기를 있다고 하신다면 智는 (마땅히) 하나임이 아  
닐 것입니다. 하나이며 둘인 뜻은 그 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부처는 대왕에게 이르시기를,  
...)<구인14:18~20>

나. 時+ 波斯匿王<sup>1</sup> 言ニ 善<sup>2</sup>ニ<sup>3</sup>トイ 大事<sup>4</sup>ニ 因緣<sup>5</sup>ニ 故<sup>6</sup>ノ<sup>7</sup>ニ<sup>8</sup>ロト<sup>9</sup>リ<sup>10</sup>ト<sup>11</sup>ン<sup>12</sup> 卽<sup>13</sup> 百億種  
色<sup>14</sup>ニ 花<sup>15</sup>乙 散<sup>16</sup>ソ<sup>17</sup>ハ<sup>18</sup>ニ<sup>19</sup> 變<sup>20</sup>ソ<sup>21</sup> 卽 百億 寶帳<sup>22</sup>ニ 成<sup>23</sup>ナ<sup>24</sup> 諸<sup>25</sup> 大衆<sup>26</sup>乙 蓋<sup>27</sup>ソ<sup>28</sup>ヒ<sup>29</sup> (때에 波斯匿  
王은 이르시되 “훌륭하구나. 큰 일의 인연으로 하신 것이구나.” 하고 곧 百億種 色の 꽃을  
뿌리시니 변화하여서 百億 寶帳이 되어 모든 大衆을 덮었다.) <구인03:20-21>

다. 爾<sup>7</sup> 時<sup>1</sup> 大王<sup>1</sup> 復<sup>1</sup> 起<sup>3</sup> 作禮<sup>3</sup> 白<sup>3</sup> 佛<sup>1</sup> 白<sup>3</sup> 言<sup>3</sup> 世尊<sup>1</sup> 下 一切 菩薩<sup>1</sup> 云何<sup>1</sup>  
 乙 佛果<sup>1</sup> 護<sup>3</sup> 云何<sup>1</sup> 乙 十地<sup>1</sup> 行<sup>3</sup> 護<sup>3</sup> 緣<sup>1</sup> (그때에 대  
 왕은 또한 일어나 禮를 갖추고 부처께 말씀드리기를 “世尊이시여, 一切 菩薩은 어떠한 것을  
 佛果를 지키며, 어떠한 것을 十地의 行을 지킬 因緣이라고 하겠습니까?”) <구인03:22-23>

다. 是時+ 大會<sub>七{之}</sub> 衆<sub>一</sub> 座<sub>乙</sub> 從<sub>七</sub> 而<sub>三</sub> 起<sub>二下</sub>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sub>〇白</sub> 舍<sub>三</sub> 頂<sub>三</sub> 佛足<sub>乙</sub> 禮<sub>白〇</sub> 而<sub>三</sub> 佛<sub>白</sub> 言<sub>白〇</sub> 尸<sub>九</sub>(이 때에 大會의 大衆은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오 오른쪽 어깨를 치우쳐 벗으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合掌恭敬하여서 정수리로 부처의 발에 禮數 하고 부처께 사죄어 말씀드리시기를,) <금광15:03-04>

(9)가. 爾、セツ 時<sup>1</sup> 智首菩薩<sup>1</sup> 文殊師利菩薩<sup>1</sup> 問<sup>1</sup> 言<sup>1</sup> (그때 智首菩薩이 文殊師利菩薩께 물으시기를,) <화엄01:04>

나. 爾時十文殊師利菩薩十智首菩薩乙告云; 言勿尸(그때 文殊師利菩薩이 智首菩薩에게 말하  
시기를) <화엄02:10>

(10) 或<sub>レ</sub>刀<sub>一</sub>有<sub>レ</sub>ナ<sub>一</sub>眼<sub>一</sub>無<sub>レ</sub>七<sub>一</sub>リ<sub>一</sub>、或<sub>レ</sub>刀<sub>一</sub>有<sub>レ</sub>ナ<sub>一</sub>耳<sub>一</sub>無<sub>レ</sub>七<sub>一</sub>リ<sub>一</sub>、或<sub>レ</sub>ナ<sub>一</sub>鼻<sub>一</sub>、舌<sub>一</sub>、及<sub>レ</sub>七<sub>一</sub>以<sub>一</sub>、手<sub>一</sub>、足<sub>一</sub>、  
ノ个<sub>一</sub>無<sub>レ</sub>七<sub>一</sub>リ<sub>一</sub>、來<sub>レ</sub>ソ<sub>一</sub>尔<sub>一</sub>其<sub>一</sub>所<sub>一</sub>十<sub>一</sub>至<sub>一</sub>、菩薩ノ十告<sub>レ</sub>ソ<sub>一</sub>、言白ナ尸丁(또 있다, 눈 없는 이가.  
또 있다. 귀 없는 이가. 또 있다. 코니 혀니 밧 손이니 발이니 혀는 것이 없는 이가. 와서는 그

9) 신라 각필구결 자료인 동대사 화엄경에서는 ‘余時[각필-良] 正念天子 白[각필-良] 法慧菩薩 言[각필-白]<709행>’와 같은 예가 확인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言<sub>言</sub>二尸’의 ‘<sub>言</sub>’을 동사어간 ‘<sub>言</sub>’으로 읽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곳에 이르러 보살께 고하여 사뢰기를) <화소15:18-20>

(8)의 밑줄친 서술어 ‘言尸’은 모두 波斯匿王이 부처에게 말하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이 중 (7다)와 관련하여 백두현(1995:58-59)에서는 “大王 스스로의 동작인 ‘起ッ’에는 존대의 ‘-’가 없으나 ‘佛’을 지향한 大王의 동작인 ‘言尸’에는 존대의 ‘-’가 들어가 있다. ‘作禮ッ白口 佛+’에서처럼 겸양법을 써서 ‘言白尸’으로 적어야 15세기의 경우와 일치하는 용법이 된다. ...(중략)...현토자가 ‘大王’에 대하여 갖고 있는 존경 의식이 작용하여 ‘大王’의 동작 ‘言’에도 ‘-’를 붙인 것...(중략)...선행절에 나온 大王의 동작 ‘起ッ’에 ‘-’가 쓰이지 않은 까닭은 상위문 우선의 원리(이현희 1994)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8)의 ‘言尸’은 ‘-’가 결합한 것을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기보다 객체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白-’이 쓰이지 않은 것을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8다)의 ‘言尸’에 ‘-白-’이 결합하지 않은 것은 선행 동사 ‘作禮ッ白口’에 ‘-白-’이 실현되었으므로 하위문 우선의 원리(이현희 1994)로 설명이 가능하고, 또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된 것은 ‘白ッ’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言尸’에 ‘-白-’이 결합하지 않은 것은 이해될만하다. 또 (8나)는 독백과 같은 부분이어서 특정 청자, 즉 ‘言’의 객체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8가)는 ‘佛’이 청자, 즉 ‘言’의 객체로 특정된 것임에도 ‘-白-’이 결합하지 않았다. ‘-白-’의 일반적인 용법을 생각한다면 (8라)에서처럼 ‘佛’이 객체인 서술어에 ‘-白-’이 결합하여 ‘言白尸’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9)는 智首菩薩과 文殊師利菩薩의 대화를 인용하는 지문 부분인데 ‘言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智首菩薩과 文殊師利菩薩은 현토자에 의해 모두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는 주체이다. 대화 상황에서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니 주체일 때 화자가 상위자로 대우한 인물이 객체가 되었다고 하여 상위자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9가)에서는 객체인 文殊師利菩薩에 존칭 체언에 결합하는 여격조사 ‘-尸+’가 결합했음에도 서술어 ‘問ッ 言尸’에는 모두 ‘-白-’이 결합하지 않았다.<sup>10)</sup> ‘-白-’이 결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sup>11)</sup>

## 2.2.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예

박진호(1997:131-132, 1998: 151)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白-’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아래 5개의 예를 들었다.

(11)가. 爾ッ時十号リテ 三明リテ 大滅諦リテ 金剛智リテソフ 釋迦牟尼佛 年乙 初七ッ  
ソ 月七 八日ッ 方七 十地ッ 坐ソテ 大寂室三昧ッ 入ソソ 緣乙 思ッ 糸 大

10) 가. 尔時[3] 文殊師利菩薩 問智首菩薩 言[白, 우측수직선] 《東大寺本 花嚴經 207행》

나. 尔時[3] 智首菩薩 問文殊師利菩薩 言[白] 《東大寺本 花嚴經 227행》

11) 다만 (10)의 ‘言白ナ尸’에서는 ‘-白-’이 결합하였는데 객체는 ‘菩薩尸+’이고 주체는 눈 없고 귀 없고 코 나 혀, 손, 발 등이 없는 중생으로 주체와 객체의 상하위가 분명한 반면, (8가)과 (9)는 주체와 객체를 모두 상위자로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하위가 덜 분명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주체를 상위자로 대우고 있는 것이 상위자인 객체에 대한 ‘-白-’을 저지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혹은 주체와 객체가 모두 상위자로 대우되는 경우 ‘-白-’이 주체를 높이는 것인지 객체를 높이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경우 ‘-白-’의 실현이 저지되는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좀더 분명해 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사실이 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光明乙 放<sub>ソ</sub> 三界七 中乙 照<sub>ソ</sub>ヒハ<sub>ソ</sub>ン<sub>カ</sub> 復<sub>ソ</sub> 〔於〕頂上<sub>ヲ</sub> 十<sub>ソ</sub> 千寶蓮花乙 出<sub>ソ</sub>白<sub>ソ</sub> 一<sub>ム</sub>  
其 花<sub>ヲ</sub> 上<sub>ソ</sub> 非想非非想天<sub>ヲ</sub> 至<sub>キ</sub> 光<sub>ヲ</sub> 亦<sub>ソ</sub> 復<sub>ル</sub> 爾<sub>ヲ</sub> 七<sub>キ</sub> 十<sub>ソ</sub> (그때에 十<sub>號</sub>이며  
三明이며 大滅諦이며 金剛智이신 釋迦牟尼佛은 (그) 해가 시작된 달 초팔일에 바로(비로소)  
十<sub>地</sub>에 앉으셔서 大寂室三昧에 드신 인연을 생각해서 大光明을 놓아서 三界의 가운데를 비  
추고 계시며 또한 정수리 위에서 千寶蓮花를 내었는데, 그 꽃 위는 非想非非想天에 이르고  
빛도 또한 그러하며) <구인02:10-13>

나. 法王<sub>ヲ</sub> 上 無<sub>キ</sub> 人 中<sub>ヲ</sub> 七 樹<sub>リ</sub> 下 大衆乙 覆蓋<sub>ソ</sub> 白<sub>ソ</sub> 尸<sub>ム</sub> 量 無<sub>キ</sub> 光<sub>ヲ</sub> 十<sub>ソ</sub> 口<sub>ヲ</sub> 十  
常<sub>ニ</sub> 說法<sub>ソ</sub> 白<sub>ソ</sub> 尸<sub>ム</sub> 無義<sub>ソ</sub> 十<sub>ヲ</sub> 入<sub>乙</sub> 尸<sub>ム</sub> 非<sub>多</sub> 十<sub>ソ</sub> (法王은 위가 없어 人中의 樹이시어 大衆  
을 覆蓋함에 있어 한량 없는 빛으로 하시며 입에 항상 說法하오되 無義한 것을 하지 아니하  
시며) <구인11:09-10>

다. 世尊<sub>ヲ</sub> 無邊身<sub>ヲ</sub> 一 言字<sub>ヲ</sub> 說<sub>ル</sub> 尸<sub>ム</sub> 不<sub>多</sub> 十<sub>ソ</sub> 尸<sub>ム</sub> 一切 弟子衆<sub>ヲ</sub> 十 法雨乙 飽滿<sub>ハ</sub> 尸<sub>ム</sub> 七<sub>ニ</sub> 尸<sub>ム</sub>  
尸<sub>ム</sub> 故<sub>ノ</sub> 十<sub>ソ</sub> 尸<sub>ム</sub> 衆生<sub>ヲ</sub> 相乙 思惟<sub>ソ</sub> 白<sub>ソ</sub> 尸<sub>ム</sub> 一切 種 皆<sub>ニ</sub> 無<sub>ソ</sub> 十<sub>リ</sub> 七<sub>ニ</sub> 尸<sub>ム</sub>  
困苦<sub>ソ</sub> 十<sub>ヲ</sub> 諸 衆生<sub>ヲ</sub> 十 世尊<sub>リ</sub> 十<sub>ニ</sub> 普<sub>ニ</sub> 救濟<sub>ソ</sub> 尸<sub>ム</sub> (世尊의 無邊身은 하나의 言字(만  
글)도 說하지 않으시나, 모든 弟子들에게 法雨를 飽滿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하시며, 衆  
生의 相을 思惟하시되 一切 種 모두 없다 하시나, 困苦的한 모든 중생에게 世尊이라야 널리 救  
濟하시며) <금광13:10-13>

라. 大王<sub>下</sub> 〔是〕<sub>ニ</sub> 故<sub>ハ</sub> 佛<sub>佛</sub> 〔於〕世<sub>十</sub> 出現<sub>ソ</sub> 下 衆生乙 爲<sub>ハ</sub> 尸<sub>ム</sub> 尸<sub>ム</sub> 故<sub>ノ</sub> 說<sub>ル</sub> 衆<sub>三</sub> 界<sub>三</sub>  
六道<sub>三</sub> 十<sub>ニ</sub> 名字乙 作<sub>ソ</sub> 白<sub>ソ</sub> 一<sub>乙</sub> 是<sub>乙</sub> 名<sub>三</sub> 無量名字<sub>三</sub> 十<sub>ヲ</sub> 〔大王이시여, 이런 까닭으  
로 부처들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중생을 위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말하여서 三界니 六道니  
하는 名字를 지으신 것을, 이를 일컬어 無量 名字라 하는 것이니,〕 <구인14:04-06>

마. 幻諦<sub>七</sub> 法<sub>ヲ</sub> 佛<sub>佛</sub> 出世<sub>ソ</sub> 白<sub>ソ</sub> 尸<sub>ム</sub> 無<sub>キ</sub> 十<sub>七</sub> 七<sub>七</sub> 前<sub>ヲ</sub> 十 名字 無<sub>キ</sub> 義<sub>七</sub> 名 無<sub>キ</sub> 十<sub>ソ</sub> (幻諦  
의 法은 부처께서 出世하심 없으신 전에 名字 없고 義의 이름도 없고 하며,) <구인  
14:02-03>

바. 謂<sub>テ</sub> 卽<sub>チ</sub> 彼 補特迦羅<sub>ニ</sub> 佛<sub>佛</sub> 出世<sub>ソ</sub> 白<sub>ソ</sub> 尸<sub>ム</sub> 入<sub>乙</sub> 值<sub>白</sub> (말하자면 곧 저 보특가라가 부처가  
세상에 나시는 것을 만나며,) <유가03:01>

(11가)~(11라)는 서술어가 모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타동사이지만, 객체인 목적어가 각  
각 ‘千寶蓮花<sub>乙</sub>’, ‘大衆’, ‘衆生<sub>ヲ</sub> 相<sub>乙</sub>, 名字<sub>乙</sub>’로 주체나 화자에 대비하여 상위자로 대우되는  
대상이 아니다. (11마)~(11바)는 서술어가 객체를 상정할 수 없는 자동사 ‘出世<sub>ソ</sub>’이다. 그  
럼에도 서술어에 모두 ‘-白-’이 결합하였다.

백두현(1999:135)에서는 “부처의 동작을 묘사한 서술어에 쓰인 ‘-白-’으로 분류하고 ‘-白-’로  
대치되어야 15세기 문법과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박진호(1997:131)에서는 이러한 ‘-白-’을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白-’으로  
명시하고 ‘-白<sub>ウ</sub> 一<sub>ム</sub>, -白<sub>ノ</sub> 尸<sub>ム</sub>, -白<sub>ウ</sub> 尸<sub>ム</sub>, -白<sub>ノ</sub> 尸<sub>ム</sub> 入<sub>乙</sub>’ 같은 몇몇 제한된 형태론적 구성에  
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 논의에서 다르게 해석한 예 중에는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白-’으로  
파악할 만한 것이 있어 여기에 언급하기로 한다.

(12) 善男子<sub>三</sub> 是 陀羅尼<sub>七</sub> 名<sub>ヲ</sub> 一 恒河沙數乙 過<sub>ソ</sub> 十<sub>ヲ</sub> 諸 佛<sub>佛</sub> 初地菩薩乙 救護<sub>ソ</sub> 〔爲〕<sub>ハ</sub> 尸<sub>ム</sub> 尸<sub>ム</sub>  
尸<sub>ム</sub> 此 陀羅尼<sub>乙</sub> 誦持<sub>ソ</sub> 白<sub>ソ</sub> 尸<sub>ム</sub> 入<sub>乙</sub> 得<sub>ル</sub> 衆<sub>一</sub> 切<sub>一</sub> 怖畏<sub>ニ</sub> 尸<sub>ム</sub> 一切 惡獸<sub>ニ</sub> 尸<sub>ム</sub> 一切 惡鬼<sub>ニ</sub>  
人非人 等<sub>ソ</sub> 尸<sub>ム</sub> 災橫<sub>ニ</sub> 諸惱<sub>ニ</sub> 尸<sub>ム</sub> 度脫<sub>ソ</sub> 五障<sub>乙</sub> 解脫<sub>ソ</sub> 初地<sub>乙</sub> 念<sub>ノ</sub> 尸<sub>ム</sub> 入<sub>乙</sub> 忘<sub>ル</sub>  
不<sub>多</sub> 十<sub>ソ</sub> 十<sub>ナ</sub> 〔善男子야, 이 陀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가 初地菩

薩을 救護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라 (初地菩薩이) 이 陀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이니 災橫이니 모든 煩惱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解脫하며 初地를 念하는 것을 마땅히 잊지 않으며 한다.) <금광09:07-10>

(12)는 백두현(1995: 57-58)에서 “문장 속의 객체를 존대하거나 객체에 대한 겸양을 표현한 것인데 15세기의 ‘-습-’과 그 기능이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백두현(1995)에서는 객체 ‘初地菩薩乙, 此 陀羅尼呪乙’을 높인 것으로 본 것이다. ‘此 陀羅尼呪’는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의 ‘陀羅尼呪’이므로 객체와 관련하여 ‘-白-’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初地菩薩’은 화자에 의해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初地菩薩’이 주체가 되는 서술어 ‘度脫ッ五障乙 解脫ッ初地乙 念ノ尸入乙 忘尸不冬ッカッテセ!’에는 주체 높임이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12)의 ‘救護ッ{爲}스ッ白ノナリニ四’ 경우도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414)에서 “주체 높임의 기능”으로 본 것처럼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비슷한 패턴의 문장에서 모두 동일하다.

(13)가. 此 所依<sub>117</sub> 所建立處<sub>乙</sub> 依止 {爲}<sub>117</sub> 入<sub>乙</sub> 由<sub>117</sub> 入<sub>3</sub> 故<sub>1</sub> 如來尸 諸 弟子衆<sub>3</sub> {有}<sub>4</sub> 4<sub>1</sub>  
 1<sub>1</sub> 所<sub>7</sub> 聖法<sub>乙</sub> 證得<sub>1</sub> 나<sub>7</sub> 1 (이 의지할 바{所依}인 소견립처를 의지로 삼은 것에 말미  
 았은 까닭으로, 여래의 여러 제자의 무리가 지니는 바 성스러운 법을 증득한다.) <유가  
 03:20-22>

나. 是 如<sup>ㄴ</sup>支<sup>ㄴ</sup> 聖法<sup>ㄴ</sup> 略<sup>ㄴ</sup> 二種 有<sup>ㄴ</sup> 一 有學法<sup>ㄴ</sup> 二 無學法<sup>ㄴ</sup> 今 此 義<sup>ㄴ</sup> 中<sup>ㄴ</sup> 十 意<sup>ㄴ</sup> 無學<sup>ㄴ</sup> 有<sup>ㄴ</sup> 所<sup>ㄴ</sup> 聖法<sup>ㄴ</sup> 取<sup>ㄴ</sup> 一 一 ... (중략) ... 諸 有學<sup>ㄴ</sup> 聖法<sup>ㄴ</sup> 有<sup>ㄴ</sup> 十 意<sup>ㄴ</sup> 雖<sup>ㄴ</sup> 而<sup>ㄴ</sup> 相續<sup>ㄴ</sup> 中<sup>ㄴ</sup> 十 非聖煩惱<sup>ㄴ</sup> 之<sup>ㄴ</sup> 隨逐<sup>ㄴ</sup> 所<sup>ㄴ</sup> 現<sup>ㄴ</sup> 得<sup>ㄴ</sup> 可<sup>ㄴ</sup> 得<sup>ㄴ</sup> 由<sup>ㄴ</sup> 故<sup>ㄴ</sup> 一 (이와 같은 성스러운 법에, 간략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학법과, 둘째는 무학법과이다. 지금 이 의미 가운데 뜻은 무학이 지닌 바 성스러운 법을 취한 것이다. ... (중략) ... 모든 유학은 비록 성스러운 법을 지니고 있더라도, 상속(相續)의 가운데 성스럽지 못한 번뇌가 뒤따르는 바가 나타나 (수행자가 그런 번뇌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말미암은 까닭에서이다.) <유가03:22-04:04>

다. 若 是 如 支<sub>1</sub> 最上無學<sub>2</sub> 諸 聖法<sub>3</sub> 得<sub>4</sub> 之<sub>5</sub> 者<sub>6</sub> (만약 이와 같은 가장 훌륭한 무학의 여러 성법을 얻는 자는,...) <유가31:11-12>

(14)가. 如來入弟子 | 이러드록 하시니 부터 보스본 듯하야이다 <月釋25:96a>

나. 四天王이 흔뻘 소리 내야 부터씩 술보디 우리들히 부터 弟子 | 드외스바 부터씩 法을 듣조  
 바 須陀洹을 일우스보니 <月釋10:12a>

(13가)는 황선엽·이전경·하귀너 외(2009:168)에서 객체 높임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아마도 ‘{有}+’의 목적어인 ‘聖法’을 높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유가사지론』에서 ‘聖法’이 목적어로 나오는 다른 예 (13나)~(13다)에서는 ‘-白-’이 결합한 예가 없다. 중세국어의 예이기는 하지만, (14)에서 ‘如來人 弟子’ 혹은 ‘부텃 弟子’가 상위자로 대우될 수도 있었음을 참조한다면 (13가)의 ‘-白-’은 ‘{有}+白+’의 의미상 주어인 ‘如來人 諸

12) 15세기 자료에서는 ‘陀羅尼呪’가 객체로 나타나도 ‘-습-’이 결합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二聖 二天 十神이 陀羅尼呪를 니르샤<法華7:106b>

世尊하 내 이제 받들기 說法호를 싸르밋게 陀羅尼呪를 주어 守護호리이다 하시고 <法華7:110b>

또 陀羅尼呪를 주리니 이 陀羅尼 得흔 전츠로<法華7:172a>

一心으로 勸화야 내 佛頂陀羅尼呪를 디니게 호라 <楞嚴10:74b>

弟子衆ヲ’을 높인 것은 아닌가 한다.

- (15) 爾<sub>7</sub>時<sub>7</sub> 佛<sub>7</sub> 大衆<sub>7</sub> 告<sub>7</sub> 十六 大國王<sub>7</sub> 意<sub>7</sub> 國土<sub>7</sub> 護<sub>7</sub> 因緣<sub>7</sub> 問<sub>7</sub> 白<sub>7</sub> {欲} 知<sub>7</sub> 白<sub>7</sub> 口<sub>7</sub> 乃<sub>7</sub> 吾<sub>7</sub> 今<sub>7</sub> 先<sub>7</sub> 諸<sub>7</sub> 菩薩 {爲} 佛<sub>7</sub> 果<sub>7</sub> 護<sub>7</sub> 因緣<sub>7</sub> 十地<sub>7</sub> 行<sub>7</sub> 護<sub>7</sub> 因緣<sub>7</sub> 說<sub>7</sub> 白<sub>7</sub> 云<sub>7</sub> 佛은 대중에게 말씀하기를 “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물으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선 모든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구인03:17-18>

위 (15)에 제시한 ‘問白{欲}스’의 ‘-白-’은 연구자마다 견해를 다소 달리하는 예문이다.<sup>13)</sup> 백두현(1995:63)에서는 “다른 인물이 부처에게 하는 행위를 부처 자신이 말하면서 겸양한 것”으로 분류하고 “상위문의 주어는 ‘佛 1’이고 그 서술어는 ‘告 7 尸’이다. 하위문의 주어는 ‘十六 大國王’이고 그 서술어는 ‘問白{欲}스 7 尸 1 入 乙’이다. 이 서술어에 ‘-白-’이 통합된 이유는 ‘問’이라는 행위가 ‘佛’을 지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佛에 대한 겸양을 표현하기 위해 ‘-白-’이 쓰인 것이다. 문제는 하위문의 발화 주체가 ‘佛’이라는 점이다. ...남이 佛에게 한 행위를 佛 자신이 말하면서 겸양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태우(2018:41)에서는 “『舊譯仁王經』 권상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 문장 역시 부처가 발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7 尸의 사용이 조금 특이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본다면, ‘問-’의 주체는 ‘십육 대국왕’이고 객체는 ‘화자=부처’가 된다. 15세기 한국어뿐 아니라 현대국어에서도 화자가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될 때 서술어에 자신을 높이는 표현은 결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예이다. 그러나 ‘-白-’이 객관적 관계에만 기반하여 사용된다면 객체가 화자이더라도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객관적인 상하 관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4나)의 ‘問白-’은 부처와 십육 대국왕의 객관적 관계에 기반한 객관적 용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우선 ‘問白{欲}스’가 결합되어 있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十六 大國王 7 意 7 國土 乙 護 7 尸 7 因緣 乙 問白{欲}스 7 尸 1 入 乙’이 목적어 내포문이며 이에 대한 서술어가 ‘知 白 7 口 7 乃 7 吾 7 今 7 先 7 諸 7 菩薩 {爲} 佛 7 果 7 護 7 因緣 乙 問白{欲}스 7 尸 1 入 乙’이 목적어, ‘問白{欲}스 7 尸 1 入 乙’이 서술어이며,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나 여격어는 화자인 ‘佛’이다. 이에 기존의 논의에서 모두 주체인 ‘十六 大國王’보다 상위자인 객체 ‘佛’에 대해 ‘-白-’이 쓰인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김태우(2018)에서는 이를 객관적 관계, 즉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만 고려된 객관적 용법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객관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문의 서술어 ‘知 白 7 口 7 乃 7 吾 7 今 7 先 7 諸 7 菩薩 {爲} 佛 7 果 7 護 7 因緣 乙 問白{欲}스 7 尸 1 入 乙’에 쓰인 ‘-白-’의 실현 상황과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모문의 서술어 ‘知 白 7 口 7 乃 7 吾 7 今 7 先 7 諸 7 菩薩 {爲} 佛 7 果 7 護 7 因緣 乙 問白{欲}스 7 尸 1 入 乙’이 목적어 내포문이므로 모문의 서술어에 ‘-白-’이 결합하여 ‘知 白 7 口 7 乃 7 吾 7 今 7 先 7 諸 7 菩薩 {爲} 佛 7 果 7 護 7 因緣 乙 問白{欲}스 7 尸 1 入 乙’로 실현된 것은 주체인 ‘佛’에 대비되어 목적어 내포문의

13) 최중호(2000: 134)에서는 “十六 大國王 7 意 7 國土 乙 護 7 尸 7 因緣 乙 問白{欲}스 7 尸 1 入 乙’의 부분은 인용문이 된다. 따라서 인연을 묻는 것은 부처가 되고 부처의 행동의 높이는 것이 된다. 즉 임자말과 부림말과 서술어와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가 자신이 말하고자하는 바를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 또한 특이한 경우이지만 현토자의 부처에 대한 높임의 결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문장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주어인 ‘十六 大國王’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十六 大國王’은 ‘-’의 결합을 통해 짐작되듯이 상위자로 대우되고 있다. 따라서 ‘問<sub>白</sub>{欲}스’의 ‘-白-’을 객체인 ‘佛’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포문의 주어 ‘十六 大國王’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주체 높임의 ‘-白-’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sup>14)</sup>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체 높임도 객체 높임도 쓰일 상황이 아닌데 ‘-白-’이 실현된 예가 보인다.

- (16) 佛<sub>1</sub> 大王<sub>2</sub> 告<sub>2</sub> 汝<sub>1</sub> {於}過去<sub>7</sub> 七佛<sub>1</sub> 已<sub>1</sub> 一<sub>1</sub> 義<sub>1</sub> 二<sub>1</sub> 義<sub>1</sub> 問<sub>白</sub> 汝<sub>1</sub> 今<sub>1</sub> 聽<sub>ノ</sub> 無<sub>7</sub> 我<sub>1</sub> 今<sub>1</sub> 說<sub>ノ</sub> 無<sub>7</sub> 白<sub>1</sub> (부처는 대왕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과거의 七佛께 이미 하나인 것의 義이니 둘인 것의 義이니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으므로, 그대는 지금 들을 것이 없으며 나는 지금 말할 것이 없다.) <구인14:20-21>

(16)은 백두현(1995:62)에서 “부처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겸양한 것”으로 분류한 예이다. 백두현(1995: 62)에서는 (16)과 관련하여 “발화 주체가 부처이다. 문장 속의 ‘我<sub>1</sub>’는 바로 부처 자신을 가리킨 말이다. ...(중략)... 부처가 스스로 자신의 동작을 표현한 ‘說<sub>ノ</sub> 無<sub>7</sub> 白<sub>1</sub>’에 ‘-白-’을 쓴 것이다. 최고위자인 부처가 스스로의 동작에 겸양법을 쓴다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190)에서는 “주체 높임의 기능”으로 풀이하였다. ‘-白-’이 주체 높임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라 하더라도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인 것은 매우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16)과 같이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 모두 쓰일 상황이 아닌데 ‘-白-’이 실현된 예가 더 확인된다.

- (17)가. 善男子<sub>3</sub> 其 說<sub>白</sub> 所<sub>7</sub> 十四 般若波羅蜜<sub>1</sub> 三忍<sub>1</sub> 地地<sub>3</sub> 上中下<sub>1</sub> 三十忍<sub>1</sub> 尸...(善男子야 그 이르신 바의 十四般若波羅蜜인 三忍이니 地地에 上中下씩 한 三十忍이니 하는....) <구인11:24-25>

나. 謂<sub>1</sub> 若 愛樂<sub>1</sub> 諸 在家<sub>1</sub> 及<sub>7</sub> 出家<sub>1</sub> 衆<sub>1</sub> 與<sub>7</sub> 雜 居住<sub>ノ</sub> 入<sub>1</sub> {者} 便<sub>1</sub> 種種<sub>7</sub> 世間 相應<sub>1</sub> 見聞 受用<sub>7</sub> 諸 散亂事<sub>1</sub> {有} 我<sub>1</sub> {於} 彼 正審觀察<sub>ノ</sub> 心<sub>1</sub> 一境位<sub>3</sub> 當<sub>1</sub> 障導<sub>1</sub> 作<sub>1</sub> 勿<sub>1</sub> 我<sub>1</sub> (즉, “만일 애락하여서 여러 재가와 출가와의 무리와 더불어 섞여 거주하는 경우에는(/거주하는 자는), 곧 갖가지 세간과 상응하는, 건문을 수용하는 여러 산란한 일을 지닐 것이라, 나로 하여금 저 바로 살피고 관찰하는 심일경위에서 반드시 장애를 짓게 하지 말 일이다” 할 것이다.) <유가08:22-09:02>

다. 廣<sub>1</sub> 說<sub>1</sub> 當<sub>1</sub> 知<sub>1</sub> 二十種 有<sub>7</sub> 菩薩地<sub>3</sub> 當<sub>1</sub> 說<sub>白</sub> 如<sub>1</sub> 支<sub>1</sub> 丁(자세히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스무 가지가 있으니 보살지에서 반드시 설할 것과 같은 것이다.) <유가04:09-10>

(17가)는 백두현(1995:62)에서 “부처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겸양한 것”으로 분류한 예이다. (17다)에 대해 장경준(2007:181, 2009:264)에서는 “위 문장은 출가자가 스스로 경계하여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밀줄친 서술어 ‘{有}+’의 주어는 자기자신(我)이고 목적어는 ‘諸

14) 이는 (11)에 제시한 주체 높임의 예 ‘善男子<sub>3</sub> 是 陀羅尼<sub>7</sub> 名<sub>1</sub> 一 恒河沙數<sub>1</sub> 過<sub>1</sub> 諸 佛<sub>1</sub> 初地菩薩<sub>1</sub> 救護<sub>1</sub> {爲} 入<sub>1</sub> 白<sub>1</sub> 我<sub>1</sub> 今<sub>1</sub> 聽<sub>ノ</sub> 無<sub>7</sub> 我<sub>1</sub> 今<sub>1</sub> 說<sub>ノ</sub> 無<sub>7</sub> 白<sub>1</sub> (善男子야, 이 陀羅尼의 이름은 一 恒河沙數를 넘으신 모든 부처가 初地菩薩을 救護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라)<금광09:07-08>’의 ‘-白-’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散亂事'이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모두 쓰일 환경이 아닌데 ‘-白-’이 사용된 것이다. 필자는 아직 이 용례의 설명 방안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황선엽·이진경·하귀녀 외(2009:82)에서도 ‘-白-’의 기능을 미상으로 보았다.

(17다)는 문현수(2015: 61)에서 언급된 것이다. 문현수(2015: 61)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菩薩地나 聲聞地 등에서 말할 것이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ㅁ-’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체는 ‘彌勒菩薩’이며 객체는 이 미륵보살이 菩薩地나 聲聞地 등에서 說할 ‘說法’이다. 여기서 미륵보살은 화자이자 주체이기도 하므로 ‘-ㅁ-’을 자신의 설법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다고도 보기 어렵고 주체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 첫째, ‘-ㅁ-’을 ‘說’의 전훈독 표기로 보아 이를 선어말어미가 아닌 본동사로 보는 것이다. 둘째, 화자를 구결의 현토자로 보아 위 문장을 미륵보살의 직접 화법이 아니라 현토자의 간접화법으로 여겨 ‘-ㅁ-’을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로 일관되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16)와 (17)의 예들에서는 공통점이 포착되기도 한다. (16)의 서술어 ‘無<sub>ㄴ</sub>’은 객체를 상징할 수 없는 형용사이며, (17가), (17나)는 객체가 높임을 사용할만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때의 ‘-白-’은 객체보다는 주체와 관련하여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이에 본고에서는 (16), (17)의 ‘-白-’이 경어법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된 예로 분류해 두기로 한다.

이와 같이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ㅁ-’을 해석하는 입장은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ㅁ-’과 관련해서는 동사어간 ‘ㅁ-’을 살펴봄으로써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기술할 것이다.

### 3. 고대국어 동사어간 ‘白[翁]-’

고대국어 시기는 동사어간 ‘白[畚]-’이 문법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고대국어 시기 동사 어간 ‘白[畚]-’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2장에서 언급한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ㅁ-’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어말어미 {-습-}이 동사어간 ‘白[畚]-’에서 문법화한 것이라는 언급은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나 정작 동사어간 ‘白[畚]-’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

15) 이러한 현상이 ‘-ㅁ-’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주체를 높이는 ‘-ㅂ-’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爾七<sub>レ</sub>時<sub>ニ</sub> 菩薩<sub>ハ</sub> 是<sub>レ</sub>ヲ 念言<sub>シテ</sub> 入<sub>リ</sub> 乙 作<sub>リ</sub> 身<sub>ヲ</sub> 財寶<sub>ヲ</sub> 及<sub>テ</sub> 以<sub>テ</sub> 王位<sub>ヲ</sub> 今<sub>レ</sub> 悉<sub>ス</sub>  
 是<sub>レ</sub>ヲ 無常<sub>ニ</sub> 敗壞<sub>ス</sub> 今<sub>レ</sub> 之<sub>ヲ</sub> 法<sub>リ</sub> 我<sub>ハ</sub> 今<sub>レ</sub> 盛壯<sub>ニ</sub> 富<sub>ム</sub> 天下<sub>ニ</sub> 有<sub>リ</sub> 乞<sub>フ</sub>  
 乞者<sub>ハ</sub> 現前<sub>ニ</sub> 當<sub>ハ</sub> 不堅<sub>ニ</sub> 以<sub>テ</sub> 而<sub>モ</sub> 堅<sub>ニ</sub> 法<sub>ヲ</sub> 求<sub>メ</sub> 乞者<sub>ハ</sub> 나타나며  
 하니 마땅히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써 견고한 법을 구하겠다.’ 하며) <화소11:20-12:03>

위 예문에 대해 장경준(2009: 264)은 “동사 ‘盛壯<sub>ㅅ</sub>-, {有}4-’의 주어인 ‘我’는 모두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도 ‘-ㅅ’가 쓰였다. …(중략)… 점토구결 자료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ㅅ’의 예외적 용법이 관찰된다. (주본 <화엄경>의 사례에서는) 1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에 ‘-ㅅ’가 쓰였다.”고 하면서 이런 사례가 단순히 현토자의 잘못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하였다. 황선엽·이진경·하귀녀 외(2009:504)에서도 주어가 1인칭임에도 주체높임의 ‘-ㅅ’가 쓰인 것이 특이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15), (16)의 ‘-ㅅ’은 위 예문에 제시한 ‘-ㅅ’과 함께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사어간 ‘白[畵]’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정리하며 따라가 보고자 한다.

‘白[畵]’의 기본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대략 다음 세 가지 논의가 있어 왔다.

첫째,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

둘째, 상위자인 주체가 말하는 행위와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

셋째, 높임의 의미가 없는 말하는 행위

대체적인 견해는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로 동사어간 ‘白[畵]’을 이해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예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박부자(2013)에서 신라 각필 구결 자료인 동대사 화엄경에서 동사어간 ‘白[畵]’이 객체가 상위자인 경우뿐 아니라 주체가 상위자인 경우에도 실현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동사어간 ‘白[畵]’에 높임의 의미가 없다는 견해는 정재영(2008)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이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白[畵]’이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견해들에서 이두, 향찰, 구결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어 본 발표문에서는 상론하지 않기로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대국어의 동사어간 ‘白’이 상위자인 객체와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위자인 주체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박부자(2013)에서 제기되었다. 해당 예를 옮겨 오면 다음과 같다.

(18)가. 余時 功德林菩薩承佛神力 入菩薩善思惟三昧 入是三昧已 十方各過萬佛刹微塵數世界外 有萬佛刹微塵數諸佛 皆號 功德林 而現其前 告功德林菩薩言[畵] 善哉 佛子 乃能入此善思惟三昧...(이 때 功德林菩薩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보살의 잘 생각하느[善思惟] 삼매에 들었다. 이 삼매에 드니, 시방으로 각각 1만 부처 세계의 티끌 수처럼 많은 세계 밖에 1만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니, 명호가 다 같이 공덕림불이라, 공덕림보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었다. “훌륭하다. 불자여, 그대가 능히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도다...)) 《東大寺本 花嚴經 1042행》

나. 佛子 菩薩摩訶薩成就如是精進行已 設有人言 汝頗能爲無數世界所有衆生 以一一衆生故 於阿鼻地獄 經無數劫 備受衆苦 令彼衆生一一得值無數諸佛出興於世 以見佛故 具受衆樂 乃至入於無餘涅槃 汝乃當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然亦 不邪 答言[畵] 我然 設復有人作如是言....(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이 이러한 정진행을 성취하고는,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가 능히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할 적에,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하여 아버지육에서 수없는 겁 동안에 모든 고통을 두루 받으면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낱알이 수없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만나게 하고, 부처님을 뵈은 연고로 여러 가지 낙을 받으며, 내지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야, 그대가 마땅히 아뇩다라삼박삼보리를 얻으리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東大寺本 花嚴經 1074~1077행》

(18)은 十行品の 일부이다. 十行品은 功德林菩薩이 善思惟三昧에 들었다가 깨어나 보살의 10가지 行을 말하는 내용이다. (18가)는 功德林菩薩이 善思惟三昧에 드니 무수한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이 부처님들의 名號가 다 같이 功德林佛이고 이 功德林佛이 功德林菩薩 앞에 나타나서 功德林菩薩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言[畵]’의 화자는 ‘功德林佛’, 청자이면서 객체인 인물은 ‘功德林菩薩’로, 주어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인 ‘功德林佛’이 상위자이다. 즉 (18가)의 [畵]은 객체가 주체보다 尊待의 인물이 아님에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18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8나)는 十行品 중 네 번째 行인 ‘굽힘이 없는

행(無屈撓行)’의 일부이다. 어떤 사람이 精進行을 성취한 菩薩에게 중생 하나하나를 위하여 阿鼻地獄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無餘涅槃에 들게 하고서야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물으니 보살이 질문을 던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答言[ㄷ]’의 주체(=화자)는 精進行을 성취한 ‘菩薩’이고 객체(=청자)는 질문을 던진 ‘어떤 사람(有人)’이다. 이와 같은 대화 상황에서는 菩薩이 존대의 인물이므로 주어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尊待의 인물인 경우에 [ㄷ]이 쓰인 것이다.

한편, 동사어간 ‘白-’이 높임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정재영(2008)에서 제기된 것이다. 해당 자료는 月城垓子 149호 木簡에 나오는 다음의 예문이다.

<제1면> 大鳥知郎足下万拜白<sup>1</sup>

(大鳥知郎 足下께 萬拜하고 사됩니다.)

<제2면> 經中入用思買白不踰紙一二々

(經에 들어 쓸 생각으로 白不踰紙 한두 마를 사라(고))

<제3면> 牒垂賜教在之 後事者命盡

(牒을 내리시어 敎(=명령)하셨다. 뒷일은 명령대로 다하였다.)

<제4면> 使<sup>2</sup>

(시킨 대로 처리함.) <月城垓子 149호 木簡 제4면><sup>16)</sup>



사진 8. 월성해자 149호 목간

사진 9. 滋賀縣 森ノ内 2號 木簡

정재영(2008: 101-103)에서는 제1면을 “大鳥知郎足下 万拜하야 ㄷ다/ 大鳥知郎足下(大鳥知郎에게) 万拜하며 말한다.”로<sup>17)</sup> 해석하고 ‘白<sup>1</sup>’만 우리말로 석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白-’은 존경법 등 경어법이 반영된 어휘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해당 자료가 이미 전에 牒으로 내려온 명령에 근거하여 사경 제작에 필요한 종이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보아 같은 부서 내에서나 또는 동급의 관련된 부서 간에 주고받은 문서로 추정한 것<sup>18)</sup>과 일본의 고대 목간 형식 중 ‘某足下(前)白’과 밀접한 관련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아직 목간에 대한 이해가 짧아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논의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다만 이런 저런 주장을 다 받아들이다고 하여도 원자료에 나타나는 ‘足下’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김영옥(2009: 183)에서는 ‘牒垂賜教在之’<sup>19)</sup>이란 구절로 이것이 牒에 해당하는 문서임을, 그리고 ‘大鳥知郎足下万拜白之’에서 이것이 상신 문서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권인한(2010:78)에서는 해당 부분을 “大鳥知郎 足下께 萬拜하고 사됩니다.”로 해석하였고 각주에서 ‘足下’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발 아래’라는 뜻으로 서신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쓰

16) 관독문과 현대어역은 권인한(2010)에 따른다. 제시한 해당 이미지 자료도 권인한(2010)에서 가져온 것이다.

17) 정재영(2011:383)에서는 이 부분의 해석을 “~ 사됩니다로 수정하였는데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부서 내에서나 또는 동급의 관련된 부서 간에 주고받은 문서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18) 이와 같은 추정을 하게 된 배경은 牒이 중국에서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상명하달하는 데에 쓰이는 문서이지만, 중국과 같이 제도와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일본에서는 上申할 때나 하달할 때 다 쓰였다는 것이다.

19) 김영옥(2014)에서는 해당 부분을 “牒垂賜教在之”를 ‘첩으로 내리신 지시[敎]가 있다.’로 해석하였다.

는 말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三上喜孝(2008: 205)는 사경에 필요한 종이의 구입을 청구하는 문서 목간이라고 하면서 ‘大鳥知郎’<sup>20)</sup>에 대해 ‘足下’라는 脇付<sup>21)</sup>가 보이므로 이 문서 목간이 상위자에 대한 상신 문서일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하였다.

‘足下’와 관련하여 『漢語大詞典』에서는 아래와 같이 풀이하고 있다.

【足下】1.古代下稱上或同輩相稱的敬詞.

(고대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또는 동년배인 사람들끼리 서로 지칭할 때 쓰였던 존대말이다.)

위 풀이를 참고하면 ‘足下’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뿐만 아니라 同輩에서도 서로 쓸 수 있었으나 ‘敬詞’라는 것이다. 따라서 ‘足下’와 함께 쓰인 점을 고려하면 월성해자 149호 목간에 나타난 ‘白’도 높임 표현이 반영된 어휘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목간에서 ‘白’이 ‘敬’과 함께 쓰여 ‘敬白’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첨언해 둔다.

#### 4. 문법화

동사 어간 ‘白[畵]’이 문법화하여 선어말어미 ‘-白-’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9)가. 객체 높임 동사 >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나. 주체와 객체 높임 동사 >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다. 평칭 동사 > 객체 높임 어미

동사 어간 ‘白[畵]’이 경어법이 반영된 어휘가 아니라는 기존의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문법화와 관련하여 (19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현재까지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견해는 (19가)이다. (19가)의 입장에서는 선어말어미 ‘-白-’이 주체 높임의 용법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견해로는 주체 높임의 용법을 보이는 선어말어미 ‘-白-’은 문법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모습이라고 본 박진호(1997, 1998)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과도기적 모습이 왜 주체 높임의 형태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나)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주체와 객체 높임 동사 > 주체와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될 것이다. 3장에서 언급한 동사어간 ‘白[畵]’이 상위자인 주체가 말하는 행위와 상위자인 객체에게 말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논의에 기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주체 높임의 용법을 보이는 ‘-白-’이 문법화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것이거나 혹은 박부자(2013)의 언급처럼 문법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화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어간 ‘白[畵]’이 10세기 정도에는 문법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sup>22)</sup> 이 시기를 고려한다면 문법화의 초기 단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고는

20) 三上喜孝(2008: 205)은 ‘大鳥知郎’으로 판독하였으나 권인한(2010)의 판독에 따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21) ‘脇付’란 (서간문에서)상대방 이름 밑에 붙여 써서 경의를 표하는 말을 가리킨다.

(19가)보다는 (19나)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상정할 때 설명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주체 높임의 용법을 보이는 선어말어미 ‘-ㅁ-’은 왜 사라졌는가이다. 이는 이미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ㄴ-’의 존재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자인 주체에 대해 ‘-ㅁ-’보다는 확고한 자격의 ‘-ㄴ-’이 우선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ㅁ-’과 ‘-ㄴ-’이 함께 쓰일 경우 ‘-ㅁ-’이 잉여적인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 문법화의 첫 단계에서는 화법동사에만 ‘-ㅁ[습]-’이 통합되고 둘째 단계에 들어서는 일반 동사에도 통합되기 시작하였다면(이승재 1998), ‘言’이나 ‘說’ 같은 화법동사에 결합한 ‘-ㅁ[습]-’ 가운데 상위자인 주체와 관련해서도 선어말어미 ‘-ㅁ-’이 결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가 존재하는가이다.

(17)에 제시한 ‘說ㅁ-’이 관련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5. 결론

## 참고문헌

- 高正儀(1987),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의 吏讀, 울산어문논집 3,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18
- 權仁瀚(2010), 목간을 통해서 본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문화-한·일 초기 목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간과문자 제6호, 69-92.
- 權仁瀚(2018), 신출토 함안 목간에 대한 언어문화사적 연구, 목간과문자 제21호, 99-134.
- 金永萬(2007), 迎日冷水里新羅碑文의 文章分析 試考-史讀的 要素는 얼마나 되는가, 口訣研究 第18輯, 67-106
- 金永旭(2011), 木簡에 보이는 古代國語 表記法, 口訣研究 26, 구결학회, 167-193.
- 김영옥(2011), 和化漢文의 趣源에 關한 一考察, 口訣研究 22, 구결학회, 179-195.
- 金永旭(2014), 木簡 資料와 語彙-月城垓字 149號 木簡을 中心으로, 口訣研究 33, 구결학회, 5-22.
- 김유범(2012), 고대국어 문법 연구의 회고, 한국어학 55, 41-64.
- 김유범(2013), 東海市 三和寺 鐵佛의 吏讀文, 口訣研究 31, 구결학회, 97-135.
- 김지오(2012), 「均如傳 鄉歌의 解讀과 文法」,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지오(2018), 「고려가요의 문법」, 『口訣研究』 40권, 口訣學會, pp29-67.
- 남풍현(1994), 고려 초기의 帖文과 그 吏讀에 대하여-醴泉鳴鳳寺 慈寂禪師碑의 陰記의 해독-,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5권, 1-19.
-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 南豐鉉(2010),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ㅁ/ㄴ-’의 發達에 대하여」, 『口訣學會 第40

22) 860년대 「東海市三和寺鐵佛造像銘」에 나타난 ‘成ㅁ’의 ‘ㅁ’을 선어말어미로 보는 입장에서는 9세기 경에 문법화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풍현(2010)과 김태우(2018) 등이 이와 같은 입장에 있다. ‘成ㅁ’의 ‘ㅁ’을 동사 어간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김유범 2013, 박성종 1997)

- 회 전국학술대회』, 口訣學會, pp154-161.
- 南豊鉉(2010), 韓國語史 研究에 있어 口訣資料의 寄與에 대하여, 口訣研究 第25輯, 5-20
- 南豊鉉(2011),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白/畚’과 ‘內/아’의 發達」, 『口訣研究』 26권, 口訣學會, pp131-166.
- 南豊鉉(2017), 「鄉歌와 釋讀口訣에 나타난 동사 ‘ハ/기’의 意味와 機能에 대하여」, 口訣學會 2017년도 제52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pp159-170.
- 渡辺晃宏(2018), 月城垓字 출토 木簡과 日本 古代木簡의 비교, 목간과문자 20호, 187-207.
- 문현수(2015), 「유가사지론 권 20 석독구결의 문법:어미」,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59-78.
- 박방룡(2011), 漆谷 淨兜寺址五層石塔 銘文과 形止記, 인간과 문화 연구 18, 동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73-88.
- 朴富子(2013), 「東大寺 所藏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記入된 角筆字 [畚]에 대한 연구」, 『口訣研究』 30권, 口訣學會, pp81-106.
- 朴盛鍾(1997), 三和寺 鐵佛 銘文에 대하여, 文化史學 第8號, 57-80
- 박양규(1991), 「국어 경어법의 변천」, 『새국어생활』 1권 3호, 국립국어연구원, pp23-39.
- 박용식(2010), 「향가 문법 형태의 표기에 반영된 고행(古形)과 개신형(改新形)」, 『동악어문학』 54권, 동악어문학회, pp181-208.
-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pp117-145.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121-205.
- 박진호(2016가), 「신라의 언어: 제4장 어휘」, 『신라의 언어와 문학』,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01-128.
- 박진호(2016나), 「신라의 언어: 제5장 문법」, 『신라의 언어와 문학』,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28-159.
- 배대은(1994), 「이두 선어말어미에 대하여」, 『배달말』 19권 1호, 배달말학회, 81-107.
- 백두현(1995), 「고려시대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 ‘-사옵비읍 [白]’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논총』 29권 1호, 경북어문학회, pp45-114.
- 백두현(1997) 「高麗 時對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口訣研究』 2권, 口訣學會, pp27-95.
- 백두현(1999),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경어법」, 『口訣研究』 5권, 口訣學會, pp127-145.
- 백두현(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문자 20호, 273-301.
- 三上喜孝(2008), 일본 고대 목간의 계보-한국 출토 목간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목간과문자 창간호, 187-212.
- 서정목(1997), 「경어법 선어말 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pp537-581.
- 徐鍾學(1987) 「古代國語의 敬語法에 대하여」, 『人文研究』 9권 1호, 嶺南大人文科學研究所, pp1-25.
- 서종학(1991), 吏讀의 文法形態 表記에 관한 歷史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송신지(2006),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어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병희(1967), 「한국어발달사 (중): 문법사」, 『한국문화사대계 V: 언어·문학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65-261.

- 윤선태(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문자 20호, 79-104.
- 이병기(2014), 구결 자료의 어휘, 2013년 겨울 구결학회·국어사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63-80.
-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이승재(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나 거’-」, 『李基文教授 停年 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pp517-556.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 고대 국어-』, 국립국어 연구원, pp41-75.
- 이승재(2001), 「고대(古代) 이두(吏讀)의 존경법(尊敬法) ‘-재(在)[거]-’에 대하여」, 『語文 研究』 29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53-70.
- 李丞宰(2008), 吏讀 해독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제44집, 241-267.
- 이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태환(2008), 「한국어 경어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신구문화사.
- 장경준(2006), 석독구결의 구결자 ‘火’과 ‘ㄴ」에 대하여, 國語學 47집, 265-286.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태학사.
- 장경준(2009), 단양적성비문의 재검토-국어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목간학회 제4회 국제 학술대회, 141-161
- 장경준(2009), 점토구결 자료의 문법 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56, 국어학회, 249-279.
- 장경준(2013), 「《유가사지론》 권20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장세경(1980), 「이두의 높임법(敬語法) 연구」, 『한국언어문화』 2권, 한국언어문화학회, pp41-62.
- 장윤희(201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口訣研究 12, 구결학회, 47-80.
- 장윤희(2015), 古代 韓國語 存在用言의 活用 樣相과 意味-釋讀口訣 資料를 中心으로-, 어문 연구 43권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6.
- 전경호(2018),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목서 목간 소개, 목간과문자 20호, 61-78.
- 鄭在永(2004),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난 文法形態에 대한 研究, 口訣研究 12, 99-132
- 鄭在永(2008), 月城垓子 149號 木簡에 나타나는 吏讀에 대하여-薛聰 當代의 吏讀 資料를 중심으로, 목간과문자, 93-110.
- 주영민(2017), 「이두자 ‘在’과 〈동석자〉존대」, 『口訣學會 2017년도 제53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pp169-183.
-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립어문학회, pp21-43.
- 최범영(2015), 「신라어에서의 외래 요소」, 『한국전통문화연구』 15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pp7-65.
- 최중호(2000), 석독 구결의 높임법 연구, 새얼어문학회 13권, 107-137.
- 홍고 테루오(2002), 「이두자료의 경어법에 관한 통시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홍고(2001a), 「이두‘白’의 기능 변화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2권, 국어사학회, pp115-144.

홍고(2001b), 「이두자료 『農圃集』의 경어법에 대하여」, 『口訣研究』 7권, 口訣學會, pp79-111.

홍종선(2017), 『국어문법사』 (대우학술총서 618), 아카넷.

황선엽(2006), 願往生歌의 해독에 대하여, 口訣研究 第17輯, 187-221

#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하정수(한국기술교육대)

목차

1. 서론
  2. 고대국어의 시대 구분과 시·상법 선어말어미
  3.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현황
  4.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과제
- 참고문헌

## 1. 서론

고대국어의 문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언어를 직접 기록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와 일부 금석문처럼 시기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는 당시의 언어사실을 반영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자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고대국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대국어 문법에 대한 기술은 현대국어보다는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을 그 출발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대국어는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 자료로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실마리로부터 우리말의 작은 모습이라도 밝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고대국어 문법 연구는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가정과 추정이 중심이 되는 연구에서 석독구결자료의 출현을 기점으로 하여 형태 분석과 통사적 구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고대국어 문법을 충분히 밝혀 그 전모를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고대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시·상법 선어말어미에 대한 문법 연구의 최근 현황을 정리하고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법은 시제, 상, 서법으로 불리기도 하고, 화자의 태도와 관련한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논의에 앞서 고대국어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와 시제, 상, 양태 등의 범주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범주 구분이 고대국어 문법 기술에 타당하고 유효한 방법인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 2. 고대국어의 시대 구분과 시·상법 선어말어미

### 2.1. 고대국어의 시대 구분과 대상 자료

고대국어는 이두, 향가, 석독구결, 음독구결 등과 같은 차자로 표기된 것이 대부분이다. 차자표기는 우리말의 형태를 파악해서 변환하는 단계를 하나 더 갖는다. 차자 자료와 비교해서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중세국어 자료는 해당 어형의 파악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차자표기로 표현된 언어 사실이 당시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의 언어가 차자표기로 고정된 시기를 추정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 정도 자료가 가지는 보수성에 기대어, 고대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어형을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고대국어 문법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고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국어사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이는 자료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학문적 성과를 이해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대국어 연구는 자료가 양적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자형의 관독 등 토대 연구의 뒷받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고대국어 문법 연구의 대상인 고대국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유범(2012: 55)은 고대국어 시대 구분에 대한 그동안의 대표적인 견해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고대국어 시대 구분

이기문(1967/1972 · 1998): 삼국시대-12세기 초 이전(계림유사 이전)/10세기 초 이전(고려 건국 이전)

박병채(1989): 삼국시대-훈민정음 창제 이전(전기: 삼국시대-1103, 후기: 1103-1443)

김동소(1998): 광개토대왕 비문(414)-몽고 지배(1274) 이전

남풍현(2003): 삼국시대-13세기 중엽(상고: 삼국시대, 중고: 통일신라시대, 근고: 고려 초-13세기 중엽)

김무림(2004): 삼국시대-13세기(전기: 삼국시대-10세기 이전, 후기: 10-13세기)

김유범(2012)은 선행 논의를 정리하고 당시까지의 연구가 13세기를 하한선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일반화된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 근거로 1975년을 기준으로 자료의 성격이 현재 고대국어 문법을 다루는 논문 특히 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반면 이승재(1998: 41-42)는 고대국어와 전기 중세국어 시기를 엄격히 구별하여 고려 건국기로부터 13세기 말엽(고려 중기)까지는 전기 중세국어 시기로서 고대국어 시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황선엽(2018: 19-21)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문법사만을 중심으로 행해질 수 없고 음운, 어휘, 형태, 통사, 의미 전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이기문(1972)에 바탕을 두고 통용되는 견해대로 14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를 나누고 석독구결 자료들이 보여 주는 문법사적 특징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본고는 문법사적 관점에 한정하여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이 15세기 한글로 고정된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문법 현상과 구분되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고대국어의 시기를 13세기 말까지 상정하는 의견에 따르고자 한다.

고대국어 문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로는 남풍현(2003, 2010)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 (2) 고대국어 문법 연구 자료

가.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 인명

- 나. 삼국유사와 균여전의 향가
- 다. 각종 금석문 및 이두
- 라. 향약구급방
- 마. 계림유사
- 바. 조선관역어
- 사. 석독구결<sup>1)</sup>
- 아.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발견과 연구는 그동안 자료의 부족으로 깊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고대국어 문법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고대국어에 대한 연구가 왕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국어 문법형태소인 조사와 어미를 집중적으로 표기한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등장은 고대국어 문장의 재구를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석독구결 자료는 불경에 달려 있고 불경의 내용은 지금도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는 까닭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내용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덜게 해 주었다. 자토석독구결자료는 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서술한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와 같은 자료와 직접 비교할 수 있고, 또 시가인 향가와도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고대국어 문법 연구의 정밀성을 높여 주었다. 여말선초의 음독구결 자료는 고대국어 연구의 직접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석독구결이 나타내는 언어사실과 후기 중세국어 한글 자료의 교량 역할을 하였다.

## 2.2. 시·상법 선어말어미

고대국어의 문법 요소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주 개념은 중세국어에 적용되는 것과 이를 또 현대국어에 적용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대국어의 문법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대국어에서 시제와 상의 개념을 박진호(2011: 290, 300)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시제와 상의 개념

시제: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state-of-affairs)가 발생한 시간적 위치(temporal position)를 문법적 수단(grammatical means)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의 위치를 나타내려면 기준점이 필요한데, 사태의 발생 時點을 나타낼 때에는 화자가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순간(발화시, speech time)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전자를 절대 시제(absolute tense), 후자를 상대 시제(relative tense)라고 한다. 절대 시제는 화시적 범주(deictic category)이다. 즉 어떤 화시의 중심(deictic center)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의 위치나 정체가 정해지고, 상황에 따라 화시의 중심이 달라지면 그 어떤 것의 위치나 정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시제는 상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상: 사태의 시간적 구조나 전개 양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문법 범주이다. 시제의 주된 기능이 사태를 시간 축 상의 특정 위치에 위치짓는 것인 데 비해, 상은 그러한 시간적 위치

1) 최근의 석독구결 자료로 2016년에 공개된 자토 석독구결자료인 “慈悲道場懺法 권4” 잔편(5장)과 2018년에 공개된 점토 석독구결자료인 “(초조대장경)瑜伽師地論 권66”이 있다.

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 사태의 발생 시점이나 시간 축 상의 위치보다는 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관건이 된다. 상을 논의할 때에는, 특정 언어의 특정 상 표시의 특정 센스에 해당하는 의미 명칭과 범언어적 상 범주(cross-linguistic aspectual category)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범언어적인 상 범주로서 [완료상(perfect aspect)]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완료상 표시는 과거 사태가 현재 관여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완료상과 더불어 범언어적인 상 범주로서 [진행상]을 설정할 수 있다.

한국어에 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정 문법 요소에 대해 해석론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거 사태를 표현할 때 과거 표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가를 표현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 관점에서 박진호(2011: 294)는 현대 한국어는 과거시제 표시인 ‘-었-’이 있으므로 한국어는 시제 언어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시·상법과 관련하여 서법과 양태의 개념 또한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임동훈(2008: 215)은 서법을 인구어에 기반을 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나 그중 하나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서설법, 서상법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고 가능성, 필연성 등과 관련된 개념적인 양태와 이것이 문법적 수단에 의해 실현된 것은 각기 양태성과 양태라는 용어를 쓰자고 하였다.<sup>2)</sup> 이병기(2018: 81 각주 2)는 ‘시상’을 시제, 상, 서법을 아우르는 TAM(Tense, Aspect, Mood) 범주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시상’은 시제와 상을 아우르는 좁은 의미와 서법 및 양태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 두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고대국어 한 특징이라 보고 용어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형태 분석에서 문법 요소의 분포는 그 결합 위치에 따라 체언에 붙는 조사와 술어부에 붙는 어미로 크게 구별된다.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고 어미는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다.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라는 형태 범주에 의존하는 형태로서 그 결합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선어말어미에 대한 판정은 후행하는 요소가 어말어미인지 또는 선어말어미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이는 대상 자료에 대한 형태 분석을 전제로 한다. 차자 표기는 이러한 선어말어미 형태를 일대일로 반영하거나 그 의미와 기능에서 일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이다. 고대국어 문법을 개관하여 서술한 논의한의 시제, 상, 서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목록을 살펴보자(박진호 1998: 165-176).

#### (4) 문법 범주 시제, 상, 서법 선어말어

‘-느-’, ‘-누-’, ‘-노-’, ‘-겨-’, ‘-거-’, ‘-아-’, ‘-고-’, ‘-ㅁ-’ 등

(4)는 고대국어 문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서 제시된 시·상법 관련 선어말어미 형태의 목록이다. 박진호(1998)의 연구는 고대국어 문법에 대한 기술이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연구자의 생각이 강하게 드러나 앞으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되었다(김유범 2012: 48). 차자 표기

2) 임동훈(2008: 213)은 서법(mood)은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을 가리키는 통사적 범주로 다루어져 왔고, 양태(modality)는 가능성, 필연성 등을 나타내는 개념적 범주로 이해되어 왔다고 보았다. 서법과 양태를 시제(tense)와 시간(time)의 구분처럼 통사적인 것이냐 개념적인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 구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이론 체계 내에서 서법은 문장 내용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attitudes of mind)가 동사의 굴절형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된다고 보았다.

자료를 통한 고대국어의 문법 연구가 중세 국어 이후의 연구 못지않게 치밀하고 통찰력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고는 (4)의 목록에 최근 논의된 시상 형태 ‘-더-’, ‘-리-’를 추가하여 다음의 (5)를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목록으로 제시하고 이들의 최근 연구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5)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목록

‘-거-’, ‘-아-’, ‘-겨-’, ‘-고-’, ‘-느-’, ‘-누-’, ‘-노-’, ‘-더-’, ‘-리-’, ‘-ㅁ-’

### 3.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현황

고대국어의 시·상법 선어말어미를 첫째 ‘-거-’와 ‘-아-’, 둘째 ‘-겨-’, 셋째 ‘-고-’, 넷째 ‘-느-’, ‘-누-’, ‘-노-’, 다섯째 ‘-더-’, 여섯째 ‘-리-’, 일곱째 ‘-ㅁ-’의 순서로 논의한다. 논의 목록 중 ‘-고-’는 이용(2018)에서 ‘-느-’는 문현수·허인영(2018)에서 ‘-더-’는 박부자(2018)에서, ‘-리-’는 이병기(2018)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sup>3)</sup>

#### 3.1. ‘-거-’, ‘-아-’

고대국어 자료에서 ‘-거-’와 ‘-아-’는 완료상 또는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세국어의 ‘-거/어-’와 같은 용법으로 논의되었다(박진호 1998: 168). ‘-거-’는 비타동사와 타동사에 모두 결합하지만 ‘-아-’는 타동사와만 결합하였다. 이러한 분포를 고려하여 중세국어와 같이 고대국어의 ‘-거-’와 ‘-아-’를 이형태 관계로 파악하였다. 김영옥(2000: 76)은 종결형에 나타나는 ‘-거-’는 확인법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종결에 나타나는 ‘-거-’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잠정적으로 분포가 다른 ‘-거-’를 동일한 형태소로 보았다. 이용(2018: 73-74)은 ‘ㅁ’의 문법범주를 추정하기 위해 ‘-거-’와 ‘-아-’의 결합 형태를 근거로 사용하며 ‘-ㅁ/ㅅ ㅁㅁ-’에서 ‘ㅁ’와 ‘-ㅁ-’를 분석하였다. 즉 ‘-ㅁ/ㅅ -’가 보이는 타동과 비타동의 교체는 ‘-ㅁ/ㅅ -’가 나타나는 다른 형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에 따라 ‘-ㅁ/ㅅ ㅁㅁ-’에서 ‘ㅁ’와 ‘ㅅ’는 선어말어미 ‘-ㅁ/ㅅ -’와 형태론적 특성이나 의미가 일치하고 있고 ‘ㅁ/ㅅ’와 ‘ㅁ’는 모두 선어말어미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썼다. 고대국어의 ‘-거/아-’는 완료상 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상법 선어말어미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아-’가 가지는 이러한 형태적 특성이 다른 형태의 기능과 범주를 밝히는 기준점이 되어 논의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론은 시·상법 선어말어미에 대한 문법 기능 판정이 형태적인 것 이외에 통합관계에서 존대법 선어말어미 또는 어말어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3.2. ‘-겨-’

3) 본고는 시상 선어말어미의 연구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이들 논의 중 고대국어 문법 형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형태 중 석독구결 자료와 향가와 이두 자료에서만 볼 수 있는 ‘-겨-’에 대한 견해는 크게 나뉜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나 서법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여 범주 자체를 달리 설정하기도 하며, 또는 환경에 따라 본동사, 보조동사, 선어말어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등 그 기능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김영옥(1999)에서는 ‘-겨-’를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다. ‘-느-’는 ‘-겨-’와 대립을 이룬다는 점을 중시하여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다. 이승재(1996)에서는 ‘-겨(ナ)-’를 ‘-시(ニ/ㄷ)-’보다는 등급이 낮은 대중불자류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로 보았다. 박진호(1998: 165-167)은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겨-’는 종결어미 ‘-다’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아’나 ‘-며’와 결합하였고, 동명사어미나 계사와 결합한 뒤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겨-’는 다양한 환경에 나타나 그 기능을 하나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서법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장윤희(2015: 19)는 석독구결에 나타난 모든 ‘-겨-’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문법화의 여러 과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겨’를 본동사, 보조동사, 선어말어미로 나누고 환경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이유를 문법화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박진호(2016)에서는 ‘-겨-’를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서법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다. 문현수·허인영(2018: 13)은 ‘-겨-’가 계사 ‘-이-’에 결합되는 예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완료를 나타내는 동작상 어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다. 선행하는 요소와 후행하는 요소의 문법적 성격이 판단될 때 ‘-겨-’의 문법적 지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로 이두에 나타난 ‘-겨-’의 예를 살펴보자.

- (6) 가. 佛 菩薩 華嚴經 等 供養爲內 以後中 坐中 昇 經寫在如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가’ 香水 用尔 沐浴令只但 作處中 進在之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나. 二塔 天寶十七年戊戌中 立在之 娣姊妹三人業以 成在之 <葛項寺造塔記>

(6)은 이두에 나타난 ‘-겨-’로 종결형 앞에 결합하는 선어말어미 위치에 나타난 예이다.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종결형뿐만 아니라 연결형 등 다양한 위치에 나타난다.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겨-’는 이두와 향가 구결 자료에는 나타나지만 중세 국어나 한글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 문법사의 연속성에 의한 해석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고대국어 ‘-겨-’의 일부 용법이 중세 국어의 ‘-겨-’와 유사한 점을 근거로 ‘-겨-’와 ‘-겨-’가 ‘-겨-’로 합류한 것으로 보려는 논의도 있다(박진호 1998: 168).

### 3.3. ‘-고-’

박진호(1998: 161)은 종결형에 나타나는 ‘-고-’가 명령형에 나타나는 상대 높임의 등급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고-’를 상대 높임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비종결형에 나타나는 ‘-고-’는 대체적으로 서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고-’가 종결과 비종결에서 문법 범주가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용(1999: 129)은 “바람이나 기원”의 의미를 ‘-코-’에서 온 것으로 보아 ‘-코-’를 원망의 의미와 연결하여 서법적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고, 이용(2018: 80)에서는 석독구결에서 명령형에 선행하는 ‘-코-’를 상대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고 있다.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고-’는 그 분포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인지 판

단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코나’의 ‘코’를 어말어미로 볼 것인지 선어말어미로 볼 것인지는 ‘ハ’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2018: 80 각주12)는 ‘-코/연결어미+-ハ/첨사+1/보조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겨-’와 직접 결합한 ‘-고-’의 예인 ‘-코나-’를 살펴보자.<sup>4)</sup>

(7) 가. 一切 衆生<sub>1</sub> {於}生死<sub>7</sub> 中<sub>3</sub> +<sub>3</sub> 多聞<sub>1</sub> 無<sub>코나</sub><sub>1</sub> {有} {此}<sub>1</sub> 一切 法<sub>乙</sub> 了知<sub>1</sub> 尸 不(ノ)能<sub>1</sub> 矢<sub>1</sub> 不<sub>1</sub> 得<sub>1</sub> 也 <D화소08:20-09:01>

[‘일체 중생은 생사의 가운데 있어 많이 들음이 없으니, 이 일체 법을 아는 것을 능히 못하는 이라서,]

나. {此}<sub>1</sub> 菩薩<sub>1</sub> 稟性<sub>1</sub> 仁慈<sub>1</sub> 好<sub>1</sub> 惠施<sub>乙</sub> 行<sub>1</sub> 코나<sub>1</sub> <D화소09:10>

[이 보살은 타고난 仁慈이어서 즐겨 惠施를 行하<sub>니</sub>]

다. 彼<sub>3</sub> {之} 功德<sub>1</sub> 邊際 無<sub>코나</sub><sub>1</sub> 稱量<sub>1</sub> 可<sub>1</sub> 與<sub>1</sub> 等<sub>1</sub> 乎 <D화엄09:05>

[저의 功德은 邊際 없으니 稱量할 수 없으며 함께 하여서 대적할 이 없다.]

라. 信<sub>1</sub> 道<sub>3</sub> 元<sub>1</sub> 支<sub>1</sub> 功<sub>1</sub> 德<sub>7</sub> 母<sub>1</sub> 爲<sub>1</sub> {爲} 入<sub>1</sub> 코나<sub>1</sub> 一切 諸<sub>1</sub> 善法<sub>乙</sub> 長養<sub>1</sub> 焉 <D화엄09:20>

[信은 道の 비릇함이며 功德의 어미가 되니 一切 모든 善法을 長養하고]

마. 或<sub>1</sub> 獄卒<sub>1</sub> 問<sub>1</sub> 衆生<sub>1</sub> 苦<sub>乙</sub> 受<sub>1</sub> 甚<sub>1</sub> 悲念<sub>1</sub> 可<sub>1</sub> 而<sub>1</sub> 汝<sub>1</sub> 常<sub>1</sub> 酷毒<sub>乙</sub> 懷<sub>1</sub> 慈愍<sub>1</sub> 心<sub>1</sub> 無<sub>코나</sub><sub>1</sub> <D자비21:02-04>

[누구는 옥졸에게 묻기를,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 것은 심히 슬퍼함 직하거늘 너는 항상 심한 독을 품어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 하<sub>니</sub>]

바. 此 陀羅尼呪<sub>乙</sub> 誦持<sub>1</sub> 코나<sub>1</sub> 得<sub>1</sub> 衆<sub>1</sub> 一切 怖畏<sub>1</sub> 一切 惡獸<sub>1</sub> 一切 惡鬼<sub>1</sub> 人非人 等<sub>1</sub> 怨賊<sub>1</sub> 災橫<sub>1</sub> 諸 惱<sub>1</sub> 度脫<sub>1</sub> 五障<sub>乙</sub> 解脫<sub>1</sub> <D금광09:16-18>

[이 陀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의 怨賊이니 災橫이니 모든 번뇌이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解脫하며]

사. 陀羅尼呪<sub>乙</sub> 誦持<sub>1</sub> 코나<sub>1</sub> 得<sub>1</sub> 衆<sub>1</sub> 一切 怖畏<sub>1</sub> 一切 惡獸 虎狼獅子 一切 惡鬼 人非人 等<sub>1</sub> 怨賊<sub>1</sub> 毒害<sub>1</sub> 災橫<sub>1</sub> 度脫<sub>1</sub> 五障<sub>乙</sub> 解脫<sub>1</sub> <D금광12:23-25>

[陀羅尼呪를 誦持하면 능히 一切 怖畏인, 一切 惡獸인 호랑이·이리·사자니 一切 惡鬼니 人非人 등의 怨賊이니 毒害니 災橫이니 하는 것을 度脫하여 五障을 解脫하며]

아. 善男子<sub>3</sub> 若 得<sub>1</sub> 是 金光明經<sub>乙</sub> 聽聞<sub>1</sub> 코나<sub>1</sub> 一切 菩薩<sub>1</sub> 阿耨多羅三藐三菩提<sub>3</sub> 退 不<sub>1</sub> 退<sub>1</sub> <D금광13:22-24>

[善男子여, 만약 능히 이 金光明經을 들으면, 모든 菩薩은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자. 若 有 處處<sub>3</sub> 此 金光明經<sub>乙</sub> 講宣<sub>1</sub> 코나<sub>1</sub> <D금광15:04-05>

4) 예문은 sktot\_2019\_01(번역본)에 따랐고, 각 예문의 해석은 구역인왕경의 것은 황선엽(2013)에서 가져왔고, 화엄경소의 것은 안대현(2013)에서 가져왔고, 금광명경의 것은 이용(2013)에서 가져왔으며, 유가사지론의 것은 장경준(2013)에서 가져왔고, 화엄경의 것은 김성주(2013)에서 가져왔고, 자비도량참법의 것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문현수(17~18장)·허인영(19~21장)의 번역이 반영된 sktot\_2019\_01(번역본)의 것을 가져왔다. 이하 같다.

[“만약 있다, 곳곳에서 이 金光明經을 講宣시키는 이가.]

(7)은 ‘ㄷ’과 ‘ㄴ’이 직접 결합한 예이다. (7가)~(7마)는 마지막 구성 요소인 ‘-ㄱ’이 연결어미로 해석되고 ‘-고겨-’에 대한 해석은 반영되지 않았다. ‘ㄴ’을 ‘존재’를 나타내는 어휘적 요소로 파악한다면 ‘-ㄷ’은 연결어미로 파악할 수 있다. ‘-고 있-’의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7마)~(7사)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7바)와 (7사)는 후행하는 ‘ㅅ’을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ㅅ’을 관형 기능을 하는 동명사어미로 파악할 수 있다. 앞의 어말어미에 쓰인 ‘ㄱ’을 연결 기능의 동명사어미로 파악하는 것과 대비된다. (7아)에서 ‘-ㄷㄴㄱ’을 연결어미로만 해석하면 문맥이 잘 통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구성 요소 ‘-ㄱ’의 기능이 아닌 ‘-ㄷㄴ-’에 조건의 의미와 관련된 서법적 기능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자)는 ‘-ㄱ’이 동명사어미로 후행하는 형식명사가 포함된 구성 요소를 수식하는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ㄷㄴㄱ’이 시·상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앞에 있는 ‘만약’이라는 가정의 의미를 전제하는 요소가 서법적 기능을 가지는 ‘-ㄷㄴ-’과 호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박진호(1998: 169-171)은 비종결형에 나타나는 ‘-고-’에 대한 논의에서 ‘-고-’도 넓게 보아 ‘-느-’와 ‘-겨-’처럼 서법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 서열이 달라 ‘-고겨-’와 ‘-느겨-’의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본 바 있다.

### 3.4. -느-, -누-, -노-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느-’와 ‘-누-’, ‘-노-’는 그 분포와 기능이 중세국어의 ‘-느-’와 다르거나 형태가 다르지만 기능은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의가 출발한다. 문현수·허인영(2018:11)은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느-’의 표기자를 ‘-느-’와 관련된 표기로 ‘飛’(𐏃), ‘臥’(卜), ‘內’, ‘奴’(奴)의 차자 표기자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그중 ‘內’는 추정 독법이 다양하며 [느], [누], [아/안], [예]로 읽거나 지정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어 독법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독법 중 [느]와 [누]로 추정한 경우에만 ‘內’를 선어말어미 ‘-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법을 [아]로 추정한 경우는 합당법의 조동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남풍현 2011).

(8) 가. 확인법 선어말어미: 이승재(1993), 이승재(1998)

나. 시·상법 선어말어미: 정재영(1996), 백두현(1997), 김영옥(1999)

다. 서법 선어말어미: 박진호(1998), 정재영(2000), 박진호(2010, ‘항상성’의 서법), 문현수·허인영(2018)<sup>5)</sup>

(8)은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느-’의 기능을 셋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문현수·허인영(2018: 11)의 최근 논의는 (8나)를 정재영(1996)과 백두현(1997)을 현재시제의 기능으로 김영옥(1999)을 미완료 동작상의 기능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서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둘을 묶어 시·상법으로 보았다.

(8가)와 (8나)는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느-’를 15세기의 확인법 선어말어미 ‘-겨/어/나-’의

5) 문현수·허인영(2018: 16)은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𐏃[느]-’는 확인법 선어말어미 또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𐏃[느]-’를 미완료의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려면 ‘-ㄴ[겨]-’의 기능이 분명해져야 한다고 보고, ‘항상성’을 나타내는 서법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파악하였다.

‘-나-’ 또는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느-’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재영(1996)은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느-’가 분포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기능은 15세기의 ‘-느-’와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느-’를 미완료 상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 김영옥(1999)은 [+완료]의 기능을 하는 ‘-거-’와 대립을 이루는 [-완료]의 기능을 하는 동작상 선어말어미로 분석하였다.

정재영(2000)은 ‘-느-’가 ‘-거-’, ‘-거-’와 대립하는 서법을 나타내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제나 확인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김영옥(1999)과 정재영(2000)은 ‘-느-’와 ‘-누-’가 합류하여 중세국어의 ‘-느-’가 된 것으로 보았다. 박진호(2010)에서는 고대국어의 ‘-느-’를 ‘항상성’을 나타내는 서법 형태소로 분석하고 이외의 서법적인 의미 기능은 ‘-느-’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현수·허인영(2018: 13)은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거/어-’는 발화시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거나 사건시 이전의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는 완료상적인 용법을 보이는데 반해, 선어말어미 ‘-느-’는 명백한 완료상적 용법을 보인 예가 없고,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거/어-’와 ‘-느-’는 배열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느-’가 확인법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또한 동사, 형용사, 계사, 동명사어미,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서 중세국어 다른 결합 양상을 보이는 점을 근거로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느-’는 박진호(2010)에서 제시한 ‘항상성’을 나타내는 서법 선어말어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으나 ‘항상성’과 반대되는 기능을 가진 ‘특정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 필요성을 덧붙였다.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누-’는 ‘𐏺’ 또는 ‘𐏼’로 표기되었다. 이 표기를 문현수·허인영(2018: 16)은 균여 향가와 고려 시대 이후의 이두, 그리고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대체로 고려 시대 이후에 등장한 차자표기자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고대국어 자료의 빈곤에서 비롯된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도 있다. 중세국어의 ‘-느-’와 형태가 다른 고대국어의 ‘-누-’가 중세국어의 ‘-느-’처럼 현재시제의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보여 준다. 박진호(1998: 164)에서는 ‘-누-’가 계사와 형용사에 쓰이는 일 없이 동사에만 쓰이며, 동명사형어미 ‘-ㄹ’이나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하는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느-’와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문현수(2018)에서는 ‘-누-’가 발화시 기준 현재시제를 나타낼 때와 사건시 기준 현재시제, 진행 동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현수·허인영(2018: 17)은 고대국어의 ‘-누-’는 중세국어의 ‘-느-’처럼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로 분석하고 있다. ‘-누-’는 ‘-거-’와 통합관계를 이룰 수 있어 이때 ‘-거-’를 ‘-느-’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느-’와 ‘-누-’를 별개의 형태소로 보았다.

고려 시대 이전 차자표기에 나타나는 ‘-內-’는 ‘-느-’와 ‘-누-’가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나타난다. 박진호(2010)는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느-’와 같이 항상성을 띠는 조건문에 쓰인 ‘-內-’의 예를 ‘-느-’로 파악할 수 있고, ‘-內-’가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누-’가 보이는 특징을 보이는 곳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건시 기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현수·허인영(2018: 19)에서 ‘-內-’의 분포와 기능상의 특징을 정리하여 (9)와 같이 그 독법과 선어말어미의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sup>6)</sup>

(9) 가. ‘[느]’ 현재시제: 양주동(1965), 최남희(1996), 배대온(1997)

나. ‘[느]’ 서법: 박진호(1998, 2010), 정재영(2000)

다. ‘[누]’ 현재시제와 ‘[느]’ 서법(항상성): 박진호(2018)

6) 문현수·허인영(2018: 19)의 예문 번호는 (5)이고, 여기에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內-’는 문법적인 대응 관계에 따라 후대의 ‘-느-’와 대응되는 예도 있고 후대의 ‘-누-’와 대응되는 예가 있다. 이러한 대응 현상에 대한 박진호(2018)과 허인영(2018)에서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을 가져와 보자.<sup>7)</sup>

<표 1> 박진호(2018)의 ‘-內-’, ‘-飛(𪔵)-’, ‘-臥(卜)-’

| 표기  |     |       | 전자              | 기능   | 결합 제약             |
|-----|-----|-------|-----------------|------|-------------------|
| 향찰  | 이두  | 구결    | ᄒ느다<br>(hʌnʌda) | 항상성  | 동사, 형용사, 계사 모두 가능 |
| 爲飛如 |     | ㄴ ㅌ ㅅ |                 |      |                   |
| 爲內如 | 爲內如 |       | ᄒ누다<br>(hʌnuda) | 현재시제 | 동사와만 결합 가능        |
| 爲臥如 | 爲內如 | ㄴ 卜 ㅅ |                 |      |                   |

<표 2> 허인영(2018)의 ‘-內-’, ‘-飛(𪔵)-’, ‘-臥(卜)-’

| 시대 | 표기   | 전자(轉字) | 기능       | 결합 제약             |
|----|------|--------|----------|-------------------|
| 신라 | 內    | 누 nu   | 현재시제     | 동사만 가능            |
|    |      |        | 항상성/의존명사 | 동사, 형용사, 계사 모두 가능 |
| 고려 | 臥(卜) | 누 nu   | 현재시제     | 동사만 가능            |
|    | 飛(𪔵) | 나 nʌ   | 항상성/의존명사 | 동사, 형용사, 계사 모두 가능 |

<표 1>은 박진호(2018)에서 고려 시대 이전에 별개의 형태소인 [항상성]을 나타내는 ‘-느-’와 [현재시제]을 나타내는 ‘-누-’가 있었는데 이들이 표기상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표기 ‘-內-’로 나타나다가 고려 시대 이후에 각각 ‘-느-’와 ‘-누-’로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표 2>는 허인영(2018)에서 고려 시대 이전에 선어말어미 ‘-느-’는 존재하지 않고 ‘-누-’ 하나만 존재하여 이것이 ‘항상성’과 ‘현재시제’의 기능을 모두 나타내다가, 고려 시대에 ‘항상성’을 나타내는 경우 ‘-누-’가 ‘-느-’로 감쇄되고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감쇄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로 남았다고 보는 견해이다.

문현수·허인영(2018: 19)은 현재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무엇이 더 타당성이 높은지 분명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신라 시대에 ‘內’로 표기되는 선어말어미 ‘-누-’와 ‘-느-’에서만 표기상의 변별이 안 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두 번째 논의에 대해서는 ‘항상성’의 ‘-느-’는 어떤 이유에서 음운론적 감쇄를 겪었으며 ‘현재시제’의 ‘-누-’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감쇄를 겪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노-’는 음가자 ‘奴’와 ‘𪔵’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노-’는 ‘-느--+오-’ 또는 ‘-누--+오-’로 분석된다. 이 분석 방법은 ‘-노-’는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느-’ 또는 ‘-누-’가 포함된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고대국어의 ‘-노-’의 문법 기능에 대하여 박진호(1998: 165)에서는 석독구결에 나타난 ‘-노-’를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누-’와 ‘-오-’의 결합으로 중세국어의 ‘-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재영(2000)에서는 현재시제의 선어말어미 ‘-느-’와 선어말어미 ‘-오-’의 축약으로 보았다. 문현수·허인영(2018: 21-22)에서는 ‘-노-’는 이두에서는 쓰이지 않았고 향가에서도 한 예만이 발견된 것으

7) <표 1>은 박진호(2018:10)의 표이고, <표 2>는 문현수·허인영(2018: 20)의 <표 2>를 가져온 것이다.

로 파악하였다(제망매가: 去奴隱處 毛冬乎丁). 이때 ‘-노-’는 자동사에 쓰여 사건시 기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누-’와 선어말어미 ‘-오-’의 축약형으로 보았다. 또한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노-’를 발화시 기준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누-’와 ‘-오-’의 축약형이나 ‘-늑-’과 ‘-오-’의 축약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에서 보이는 중의성을 선어말어미 ‘-늑-’과 ‘-누-’의 합류에 따른 결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 3.5. ‘-더-’

고대국어 시기 ‘-더-’ 차자표기자 ‘-如-’를 통해 선어말어미 ‘-더-’가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용례가 매우 적어 향가에서 2개 이두에서 1개 정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고대국어의 시·상법 선어말어미 ‘-더-’에 대한 연구는 차자표기자에 관한 것과, 그 차자표기가 ‘-더-’를 표기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박부자(2018: 65)는 시·상법 선어말어미 ‘-더-’에 대한 쟁점을 차자표기자와 그 차자표기자의 표기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고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더-’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해 온 것으로 차자 표기 ‘-如-’를 제시하였다.

(10) 가. 持以支如賜烏隱 <讚耆婆郎歌>

나. 懺爲如乎仁惡寸業置 <普皆廻向歌>

(10)는 향가에서 선어말어미로 파악되는 ‘如’이다. (11가)의 찬기파랑가에 나타난 ‘如’는 대체로 선어말어미로 혼독하여 시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음에 대해서는 [다], [더], [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sup>8)</sup> (11나)의 보개회향가에 나타난 ‘如’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선어말어미로 파악하여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다만 그 음에 있어서 [다], [더], [드], [릭]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 가. 太平二年丁丑七月廿九日 古石佛在如賜乙 重脩爲 <磨崖藥師坐像銘(977)>

나. 難苦亦 望白如乎事是去有等以<尙書都官貼 90>

다. 冬夏安居 緣化供衆 作法爲白如乎 時亦中 <白巖寺僧錄司貼文>

(11가)는 이승재(1992)에서 제시한 고려시대 이두 자료에 나타나는 ‘-더-’에 대응되는 예이다. ‘賜’의 위치는 중세국어 ‘-더시-’, ‘-시더-’의 결합순서와 관련하여 고형으로 판단되는 ‘-더시-’의 순서를 보여 준다. (11나)와 (11다)는 박진호(1998: 173)에서 중세국어 ‘-더-’에 대응되는 형태로 제시된 이두 자료이다. 각각 ‘뵤라숯다운’과 ‘헛숯다운’으로 해독하였다. 박부자(2018: 65)는 한글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자료의 시상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된 것으로 ‘頓[돈]’, ‘呑[드]’, ‘等[드]’, ‘置[두]’ 등을 언급하였다. 그 예를 가져와 보자.<sup>9)</sup>

8) ‘如’는 대체로 선어말어미로 혼독하나 그 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양주동(1987), 지현영(1947), 김준영(1979), 유창균(1994)에서는 ‘다’로 보았으나 김완진(1980)에서는 ‘더’로, 이탁(1958)에서는 ‘드’로 보았다. 음독하는 견해로 홍기문(1990)은 ‘답다’의 ‘답’으로 혼독하여 ‘적당하다’의 뜻을 가지는 형용사로 파악하였고, 류렬(2003)은 형용사 ‘답-’과 동사 ‘되-’의 고형으로 ‘다비’를 재구하였으며 정렬모(1965)는 ‘가다’의 뜻을 가지는 ‘녀-’로, 유창균(1994)는 ‘ㄹㅌ’로 보았다. 그리고 小倉進平(1974)는 어간 ‘괴-(支)’에 이어지는 어미 ‘-여’로 음독하였다.(박지용 외 편 2012: 52)

(12) 가.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怨歌>

4. 好尸曰沙也內乎吞尼 <遇賊歌>

다. 世呂中止以友白乎等耶 &lt;請佛住世歌&gt;

다. 舊留然叱爲事置耶 <普皆廻向歌>

(12가)의 ‘頓’은 김완진(1980), 박진호(1998), 남풍현(2011) 등에서 대체로 ‘울월턴’, ‘울월톤’ 등으로 읽고 ‘-더-’와 관련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小倉進平(1929)와 박재민(2009)은 뜻으로 읽어 ‘머리를 조아리다’로 해독하였다. ‘頓’을 회상의 ‘더’와 관련지어 해석한다면 ‘돈’으로 읽을 경우 ‘-더+오+ㄴ-’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은 앞의 ‘-노-’를 ‘-ㄴ-’+‘-오-’로 분석한 것과 관련하여 ‘-ㄴ-’와 ‘-더-’를 계열관계로 보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2나)의 ‘呑’은 음독하여 ‘ㄷ니, 다니’ 정도로 읽는 것에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선어말어미 ‘-더-’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감탄이나 의문 어미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시·상법 선어말어미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12가)와 (12나)는 박진호(1998: 173)에서 (12나)와 (12다)의 예와 함께 시상의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 것이다. (12다) ‘等耶’는 ‘-더라’, ‘-드라’, ‘-드야’, ‘-썩야’, ‘-썩녀’ 등으로 읽혔다. ‘等耶’는 종결형 ‘드야’로 읽는 것 보다는 대체로 ‘-더라, -드라, -드라’로 읽어 ‘等’을 ‘-더-’로 보는 견해가 많다. 최근에는 ‘等耶’를 ‘-썩녀’와 관련된 것으로 보거나 석독구결의 ‘-ㄷㅌ’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논의가 있다. 이때 ‘-썩녀’는 시상의 ‘-더-’로 분석되기보다는 형식명사 ‘드’의 기능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만(1985), 박진호(1998, 2008)에서는 음독구결의 ‘-ㄷㅌㅏㅏ/ㄷㅌㅏㅏ-’, 15세기의 ‘-이썩녀’와의 형태적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12라) ‘置耶’를 ‘置’를 선어말어미 ‘-더-’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고 ‘-더라, -두라’로 읽는 견해와 ‘-두야, -도야’ 정도로 읽고 감탄과 관련된 것으로 읽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頓’과 유사하게 ‘-더-+-오/우-’로 분석할 수 있으며, 후자는 명사 또는 속격조사 뒤에 결합하는 형식명사 ‘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토석독구결에 나타난 시상 선어말어미 ‘-더-’에 대해 살펴보자. 박부자(2018: 67)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더-’ 관련 형태는 ‘-ㅣ-’로 표기된 총 다섯 예뿐이라고 파악하였다. 그 예를 다시 가져와 살펴보자.<sup>10)</sup>

(13) 가. 善男子 } {是}ㄹ 月光王ㄱ 已 } {於}過去ㄷ 十千劫ㄷ 中 } 七 龍光王佛法ㄷ 中 } 十  
 ㄷ 四住ㄷ 開士ㄹ 尸 } {爲}入ㄷ 乙 ㄷ 나ㄱ 乙 <D구911:20-22>

〔善男子야, 이 月光王은 이미 過去의 十千劫 가운데 있는 龍光王佛法의 가운데에서 四住의 開土가 되었거늘〕

가' 我<sub>1</sub> 八住<sub>7</sub> 菩薩<sub>11</sub>尸<sub>1</sub>{爲}入乙<sub>2</sub>ソ<sub>1</sub>上<sub>1</sub>八白<sub>3</sub>ろ<sub>1</sub>入<sub>3</sub>今<sub>2</sub>ソ<sub>1</sub>{於}我<sub>3</sub>前<sub>3</sub>十<sub>2</sub>ソ<sub>1</sub>大師  
子<sub>1</sub>呪乙<sub>2</sub>ソ<sub>1</sub>ナト<sub>1</sub> <D구인11:22>

“나는 八住의 菩薩이 되어 있었사옵기로 지금 내 앞에서 大師子吼를 하였다.”

4. 善男子；云何<sub>レ</sub>（初地）而<sub>レ</sub>名<sub>二</sub>下<sub>一</sub>歡喜<sub>リ</sub>ハソ口今<sub>二</sub>口ソナ<sub>一</sub>ヲ入<sub>レ</sub> 出世心<sub>乙</sub>得<sub>レ</sub>分<sub>一</sub> 昔尸

9) 박부자(2018: 65)의 예문 번호는 (5)이다.

10) 박부자(2018: 67)의 예문 번호는 (6)이다. 예문의 해석은 sktot\_2019\_01(번역본)에 따라 수정하였고, (6가)에 ‘開士リ尸(爲)入乙ソ上ナリ乙’와 ‘菩薩リ尸(爲)入乙ソ上ハ白ろリ入ム’으로 ‘-リ-’가 두 번 나타나므로 이를 (13가)와 (13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得尸 未リソセトノ所リ乙 而ム 今ハリニ 始ノ 得ソカ 大事ム 大用ムノ尸乙  
意セ 願ノ所乙 如ハ 悉セ 皆 成就ソカニ <D금광06:22-24>

[선남자여, 어찌하여 初地를 일컬어 歡喜라고 하느냐 하면, ①出世心を 얻으며, 예전에 얻지 못한 바이거늘 지금에야 비로소 얻으며, 大事이니 大用이니 하는 것을 뜻에 원하는 대로 다 成就하며 하여,]

다. 昔尸 得尸 未リソセトノ所セ 勝利乙 得セ 入ム 故ノ 動踊ソトノ刀 無明乙 因  
ノソカ 聞持陀羅尼乙 具尸 不ハントノ刀 無明乙 因ノソチ四 是乙 三地 障ムノチカ  
<D금광07:18-20>

[③예전에 얻지 못한 바의 수승한 이익(勝利)을 얻은 까닭으로 動踊함도 無明을 인하여 聞持陀羅尼를 갖추지 못함도 無明을 인하는 것이라, 이를 三地의 障礙라고 하며,]

라. 請問乙 依ソト入ム 故ノ 昔尸 聞白尸 未リソセトノ所 甚深 法義乙 聞分 <D유가  
07:03-04>

[④청하여 물음을 의지한 까닭으로, 예전에 듣지 못하였던 깊고 깊은 법의 의미를 들으며,]

마. 閻羅大王ト 昔尸 毘沙國セ 王リ尸{爲}入ソトナト 維陀始王乙 與セソセ 共セ  
戰ソトム 兵セ カリ 如[及]セ 不モソセト 因ソ 誓願乙 立リナ尸丁 <D자비  
19:16-18>

[염라대왕은 옛날 비사국(毘沙國)의 왕이 되어 있었었는데, 유타시왕(維陀始王)을 더불어  
어서 함께 싸우되 병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서원을 세우기를,]

(13가)와 (13가')은 《舊譯仁王經》의 'ㄷ'이다. 박진호(1998: 173)에서 'ㅎ다견을'과 'ㅎ다기  
숭온다로'로 '-다-'로 해독하였고, 대부분의 논의에서 시상 선어말어미 '-더-'를 나타낸 것으  
로 보았다. 시상의 기능이 해석에 반영되어 현대어역에 모두 과거로 표현되어 있다. (13나),  
(13다), (13라)는 모두 능력 부정 구문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위치의 'ㄷ'이다. 이에 대해서는  
鄭在永(1998), 南豐鉉(1998, 1999), 조은주(2002)는 'ㄷ'를 종결어미 '-다'로 파악하여 '未リ  
ソセトノ'를 '未リ ソセト ノ' [아니 ㅎ잇다 혼]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박진호(1998:  
173)는 '아니 ㅎ잇다온'으로 보고 시상 선어말어미로 파악하고 있다. 문현수(2015: 68)에서는  
이 부분을 중세국어의 'ㅎ엿단' 구문과 관련지어서 'ソセト ノ' [ㅎ잇다온]으로 보고 시상  
의 선어말어미 '-ㄷ-'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13나)의 현대어역 '예전에 얻지 못한 바이거  
늘'과 (13다)의 현대어역에서 '예전에 얻지 못한 바의'는 시상 선어말어미 '-다-'의 기능을  
반영하여 박부자(2018: 67 각주 8)와 같이 '예전에 얻지 못하였던 바이거늘'과 '예전에 얻지  
못하였던 바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이는 (13라)에 나타난 동일 유형의 현대  
역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마)는 '-ㄷ-'에 후행하는 '-나-'의 성격에 따  
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예이다. '-나-'가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시상 선어말  
어미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예로 해석될 수 있고, '-나-'를 존대법 요소로 보았을 때는 '-더  
시-'와 유사한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를 '-즈-'와 이형태 관계나 합  
류 관계로 보는 경우에는 '-거-'와 '-더-'의 계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예가 될 수 있다. 추  
가 자료의 출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더-'의 독법과 관련하여 박부자(2018: 68)는 '-더-' 관련 차자표기로 이견이 없는 '-如-, -  
ㄷ-'는 [더]로 읽는 견해와 [다]로 읽는 견해로 구별하였다. 김완진(1980), 이승재(1992), 김성

주(2011), 김지오(2012) 등은 후기 중세 국어 ‘-더-’와의 동일성을 중시하여 [더]로 읽었다. 반면 오창명(1995)에서도 조선 전기 이두 자료에 나타난 ‘如’를 [다]로 읽었고, 박진호(1998), 장경준(2007), 황선엽(2013) 등은 본자인 ‘如’의 훈이나 음을 중시하여 ‘-如-’, ‘-ㄹ-’를 [다]로 읽었다. 이를 근거로 시상형태 ‘-더-’의 형태를 통시적으로 파악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한 바 있다.

<표 3> 박부자(2018: 70)의 {-더-} 관련 형태<sup>11)</sup>

| 고대국어 | 전기 중세국어 |        |         | 후기<br>중세국어 | 근대국어    |
|------|---------|--------|---------|------------|---------|
| 항가   | 이두      | 자토석독구결 | 음독구결    |            |         |
| 如, 頓 | 如       | ㄹ      | 入, 𐄂, 力 | 드, 드, 더    | 드, 드, 더 |

이들 차자표기자는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달리 해석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더-’와 관련된 선어말어미 위치의 ‘如’와 ‘-ㄹ-’의 예가 좀더 풍부해졌을 때 보다 정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 3.6. ‘-리-’

이병기(1998)에서는 시상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을 고대국어 동명사 어미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병기(2018)은 ‘-리-’에 대한 이후 연구를 종합하여 시상 선어말어미 ‘-리-’에 대한 전반적인 쟁점을 제시하였다. 고대국어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항가에 나타난 ‘-리-’는 차자표기 ‘理’, ‘里’, ‘呂’로 표현되어 있다. 자토석독구결의 구결자로는 ‘𐄂’라고 할 수 있다. 이승재(1995), 백두현(1997), 이병기(1998) 등은 이 ‘𐄂’를 ‘-ㄹ+이-(계사)’로 분석하고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리-’에 대응하는 형태로 파악하였다. 박진호(1998: 162)는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목록에 ‘-리-’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의존 명사 ‘이’를 설명하는 곳에서 구결자 ‘𐄂’와 ‘수’에 대한 설명에서 ‘𐄂’를 ‘-ㄹ+이(의존 명사)+이-(계사)’ 또는 ‘-ㄹ+이+이-(계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이병기 2018: 82-83). 고대국어 시상 선어말어미 ‘-리-’에 대한 핵심 쟁점은 형식명사의 개재 여부 및 형태적으로 선어말어미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병기(1998)에서는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적인 모습을 ‘-ㄹ+이(형식명사)+이-(계사)’보다는 ‘-ㄹ+이-(계사)’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동명사 어미의 쓰임은 고대국어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매우 활발하여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둘째 형식 명사의 쓰임은 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는 ‘것’과는 달리 관형어와의 결합에서 단어 경계를 보이지 않는다. 넷째 석독구결 자료에서 형식명사로 파악하는 ‘ㄹ’이 대부분 계사로도 파악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고대국어의 형식명사와 계사 주격조사의 형태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리-’에 관한 핵심 쟁점은 석독구결 자료 및 그 이전 차자표기 자료에 나타나는 ‘리’에 형식명사 ‘이’가 개재해 있느냐는 것과 형태적으로 선어말어미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병기(2018)에 제시한 항가의 예를 살펴보자.<sup>12)</sup>

11) 이 표에서는 전기중세국어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본고는 고대국어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였다.

12) 이 예문은 이병기(2018:83)에 예문 번호 (1)로 제시된 것이다. 예문에 해독은 신지 않고 본문에서 다루었으며 ‘-리-’에 해당하는 차자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 (14) 가. 花脢折叱可獻乎理音如 <獻花歌>  
 나. 奪叱良乙何如爲理古 <處容歌>  
 다. 西方念丁去賜里遣 <願往生歌>  
 라. 蓬次叱巷中宿尸夜音叱下是 <慕竹旨郎歌>  
 라'. 吾衣身伊波人有叱下呂 <普皆廻向歌>  
 라''. 佛影不冬應爲賜下里 <請佛住世歌>

항가에서 ‘-리-’는 ‘理’, ‘里’, ‘呂’로 나타난다. 이병기(2018: 83)은 (14가)를 ‘고졸 것거 바도림 다’로 해독하고 ‘-理音如’는 ‘-리--+음+-다’로 분석하거나 ‘-리--+음(읃)--+다’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리-’에 후행하는 요소 ‘음’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며 15세기 중세국어의 문법 현상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지시성을 가지는 형식 명사 ‘이’가 분석되지 않는다고 파악하였다. (14나)는 의문조사 ‘-고(古)’가 ‘理’에 후행하고 있어서 선어말어미의 출현 환경과는 다르지만 ‘스’이 생략된 의문 어미 ‘-스고(七口)’의 가능성을 상정하였다.<sup>13)</sup> 따라서 (14나)의 ‘理’는 선어말어미라기보다는 ‘-읃’과 형식 명사 ‘이’의 결합으로 보거나 석독 구결 자료의 ‘스’에 대응되는 동명사어미로 보았다. 이 견해에 따르면 (14나)의 해독 ‘아사놀 엇디 흐리고’는 ‘빼앗긴 것을 어찌할 것인가?’로 번역하여 동명사어미의 문법 기능을 반영하여 표현할 수 있다. (14다)의 ‘里’는 ‘遣’을 의문 조사 ‘-고’로 보느냐 연결어미 ‘-견’으로 보느냐에 따라 선어말어미와 ‘동명사어미+형식명사’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해석되는 의미에 기대어 ‘-견’을 석독구결의 ‘-ㄴㄱ’에 대응하는 선어말어미 ‘-겨-’를 포함한 연결어미로 보는 황선엽(2000)에 동의하여 ‘-겨-’를 ‘里’에 후행하는 선어말어미로 보고자 한다. (14라), (14라'), (14라'')는 ‘下’를 혼독하여 ‘리’를 추출해 낸 것이고 (14라', 라'')의 ‘里’와 ‘呂’는 ‘ㄹ’이 중복된 표기로 볼 수 있다. 이들 예는 어말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보거나, ‘-다’, ‘-고’ 등의 의문 조사와 계열 관계를 갖는 의문조사 ‘-이’ 또는 접미사를 상정하거나, 동명사어미 또는 형식명사 결합형으로 끝나는 명사문을 고려하거나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이병기 2018: 84). 항가에 나타나는 시·상법 선어말어미 ‘-리-’는 차자 ‘理’, ‘里’, ‘呂’로 표기되고 주로 그 결합 위치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져야 확실한 선어말어미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리-’의 문법적 기능은 동명사어미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미래성을 띠는 서법이나 양태를 나타내는 어미 구조체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병기(2018: 84-86)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선어말어미에 대응하는 ‘ㅍ’의 예와 ‘ㅍ’의 다양한 출현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예들을 제시하였다.<sup>14)</sup>

- (15) 가. 云何ㄴㄱ 乙 能熟解脫慧ㄴ{之} 成熟ㄴ ㄱ ㄴ 소 謂 毘鉢舍那支 成熟ㄴ ㄱ ㄴ 故 ㄴ  
 亦 名 下 慧成熟ㄴ 소 奢摩他支 成熟ㄴ ㄱ ㄴ 故 ㄴ 亦 名 下 慧成熟ㄴ 소 ㄴ ㄴ <D유>

13) 이병기(2018:84)는 (7나)의 예에서 한글 자료는 물론이고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ㅍ’에 ‘七口’가 직접 결합하는 예는 없으므로 표기된 형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은 생략 표기를 인정하는 관점과 서로 대치된다고 할 수 있다. (7가)의 ‘音如’를 ‘音叱如’의 생략 표기로 볼 때 유사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音叱如’와 ‘音如’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4) 예문(15)와 예문(16)은 이병기(2018: 84-86)의 예문 번호 (2)와 (3)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문(15)는 원문과 현대어역을 하나로 묶어 제시하였고, 예문 (16)은 현대어역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예문의 해석은 sktot\_2019\_01(번역본)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다. 能<sub>1</sub> 伏<sub>2</sub> 制<sub>3</sub> 伏<sub>4</sub> 令<sub>5</sub> 無<sub>6</sub> 量<sub>7</sub> 無<sub>8</sub> 盡<sub>9</sub> 無<sub>10</sub> 大<sub>11</sub> 威<sub>12</sub> 力<sub>13</sub> 具<sub>14</sub> 是<sub>15</sub> 佛<sub>16</sub> 境<sub>17</sub> 界<sub>18</sub>  
 唯<sub>19</sub> 佛<sub>20</sub> 心<sub>21</sub> 能<sub>22</sub> 支<sub>23</sub> 了<sub>24</sub> 了<sub>25</sub> 了<sub>26</sub> 了<sub>27</sub> 了<sub>28</sub> 了<sub>29</sub> 了<sub>30</sub> 了<sub>31</sub> 了<sub>32</sub> 了<sub>33</sub> 了<sub>34</sub> 了<sub>35</sub> 了<sub>36</sub> 了<sub>37</sub> 了<sub>38</sub> 了<sub>39</sub> 了<sub>40</sub> 了<sub>41</sub> 了<sub>42</sub> 了<sub>43</sub> 了<sub>44</sub> 了<sub>45</sub> 了<sub>46</sub> 了<sub>47</sub> 了<sub>48</sub> 了<sub>49</sub> 了<sub>50</sub> 了<sub>51</sub> 了<sub>52</sub> 了<sub>53</sub> 了<sub>54</sub> 了<sub>55</sub> 了<sub>56</sub> 了<sub>57</sub> 了<sub>58</sub> 了<sub>59</sub> 了<sub>60</sub> 了<sub>61</sub> 了<sub>62</sub> 了<sub>63</sub> 了<sub>64</sub> 了<sub>65</sub> 了<sub>66</sub> 了<sub>67</sub> 了<sub>68</sub> 了<sub>69</sub> 了<sub>70</sub> 了<sub>71</sub> 了<sub>72</sub> 了<sub>73</sub> 了<sub>74</sub> 了<sub>75</sub> 了<sub>76</sub> 了<sub>77</sub> 了<sub>78</sub> 了<sub>79</sub> 了<sub>80</sub> 了<sub>81</sub> 了<sub>82</sub> 了<sub>83</sub> 了<sub>84</sub> 了<sub>85</sub> 了<sub>86</sub> 了<sub>87</sub> 了<sub>88</sub> 了<sub>89</sub> 了<sub>90</sub> 了<sub>91</sub> 了<sub>92</sub> 了<sub>93</sub> 了<sub>94</sub> 了<sub>95</sub> 了<sub>96</sub> 了<sub>97</sub> 了<sub>98</sub> 了<sub>99</sub> 了<sub>100</sub> <D화소24:14-15>

[⑤ 능히 制伏시킬 수 있는 것이 없고 ⑥ 한량없고 ⑦ 다함이 없고 ⑧ 大威力을 갖추었고 ⑨ 이는 佛境界이고 ⑩ 오직 부처이시어야 능히 아시는 것이고 하다.]

다. 世尊下 希有難量<sub>1</sub> 是 金光明經<sub>2</sub> <D금광13:20>

[“세존이시여, 希有하여 헤아리기 어려우십니다, 이 金光明經은.]

라. 是乙 幻諦七 衆生<sub>1</sub> 是 金光明經<sub>2</sub> <D구인14:11>

[이것을 幻諦의 중생이라 하는 것이다.]

마. 一切 恩愛力 會[恨]<sub>1</sub> 當ハ 別離<sub>2</sub> 而<sub>3</sub> {於}衆生<sub>4</sub> 饒益<sub>5</sub> 所<sub>6</sub> 無<sub>7</sub> 七<sub>8</sub> 七<sub>9</sub> 七<sub>10</sub> 七<sub>11</sub> 七<sub>12</sub> 七<sub>13</sub> 七<sub>14</sub> 七<sub>15</sub> 七<sub>16</sub> 七<sub>17</sub> 七<sub>18</sub> 七<sub>19</sub> 七<sub>20</sub> 七<sub>21</sub> 七<sub>22</sub> 七<sub>23</sub> 七<sub>24</sub> 七<sub>25</sub> 七<sub>26</sub> 七<sub>27</sub> 七<sub>28</sub> 七<sub>29</sub> 七<sub>30</sub> 七<sub>31</sub> 七<sub>32</sub> 七<sub>33</sub> 七<sub>34</sub> 七<sub>35</sub> 七<sub>36</sub> 七<sub>37</sub> 七<sub>38</sub> 七<sub>39</sub> 七<sub>40</sub> 七<sub>41</sub> 七<sub>42</sub> 七<sub>43</sub> 七<sub>44</sub> 七<sub>45</sub> 七<sub>46</sub> 七<sub>47</sub> 七<sub>48</sub> 七<sub>49</sub> 七<sub>50</sub> 七<sub>51</sub> 七<sub>52</sub> 七<sub>53</sub> 七<sub>54</sub> 七<sub>55</sub> 七<sub>56</sub> 七<sub>57</sub> 七<sub>58</sub> 七<sub>59</sub> 七<sub>60</sub> 七<sub>61</sub> 七<sub>62</sub> 七<sub>63</sub> 七<sub>64</sub> 七<sub>65</sub> 七<sub>66</sub> 七<sub>67</sub> 七<sub>68</sub> 七<sub>69</sub> 七<sub>70</sub> 七<sub>71</sub> 七<sub>72</sub> 七<sub>73</sub> 七<sub>74</sub> 七<sub>75</sub> 七<sub>76</sub> 七<sub>77</sub> 七<sub>78</sub> 七<sub>79</sub> 七<sub>80</sub> 七<sub>81</sub> 七<sub>82</sub> 七<sub>83</sub> 七<sub>84</sub> 七<sub>85</sub> 七<sub>86</sub> 七<sub>87</sub> 七<sub>88</sub> 七<sub>89</sub> 七<sub>90</sub> 七<sub>91</sub> 七<sub>92</sub> 七<sub>93</sub> 七<sub>94</sub> 七<sub>95</sub> 七<sub>96</sub> 七<sub>97</sub> 七<sub>98</sub> 七<sub>99</sub> 七<sub>100</sub> <D화소12:15-16>

[‘모든 은혜와 애정도 만나나 (만남을) 하고서는 반드시 이별할 것이지만, 중생에게는 이롭게 할 바가 없을 것이다.]

마. 而<sub>1</sub> 我<sub>2</sub> 今<sub>3</sub> {者} {於}四種 苦<sub>4</sub> + 何<sub>5</sub> 等<sub>6</sub> 乙 {爲}脫<sub>7</sub> 了<sub>8</sub> 了<sub>9</sub> 了<sub>10</sub> 了<sub>11</sub> 了<sub>12</sub> 了<sub>13</sub> 了<sub>14</sub> 了<sub>15</sub> 了<sub>16</sub> 了<sub>17</sub> 了<sub>18</sub> 了<sub>19</sub> 了<sub>20</sub> 了<sub>21</sub> 了<sub>22</sub> 了<sub>23</sub> 了<sub>24</sub> 了<sub>25</sub> 了<sub>26</sub> 了<sub>27</sub> 了<sub>28</sub> 了<sub>29</sub> 了<sub>30</sub> 了<sub>31</sub> 了<sub>32</sub> 了<sub>33</sub> 了<sub>34</sub> 了<sub>35</sub> 了<sub>36</sub> 了<sub>37</sub> 了<sub>38</sub> 了<sub>39</sub> 了<sub>40</sub> 了<sub>41</sub> 了<sub>42</sub> 了<sub>43</sub> 了<sub>44</sub> 了<sub>45</sub> 了<sub>46</sub> 了<sub>47</sub> 了<sub>48</sub> 了<sub>49</sub> 了<sub>50</sub> 了<sub>51</sub> 了<sub>52</sub> 了<sub>53</sub> 了<sub>54</sub> 了<sub>55</sub> 了<sub>56</sub> 了<sub>57</sub> 了<sub>58</sub> 了<sub>59</sub> 了<sub>60</sub> 了<sub>61</sub> 了<sub>62</sub> 了<sub>63</sub> 了<sub>64</sub> 了<sub>65</sub> 了<sub>66</sub> 了<sub>67</sub> 了<sub>68</sub> 了<sub>69</sub> 了<sub>70</sub> 了<sub>71</sub> 了<sub>72</sub> 了<sub>73</sub> 了<sub>74</sub> 了<sub>75</sub> 了<sub>76</sub> 了<sub>77</sub> 了<sub>78</sub> 了<sub>79</sub> 了<sub>80</sub> 了<sub>81</sub> 了<sub>82</sub> 了<sub>83</sub> 了<sub>84</sub> 了<sub>85</sub> 了<sub>86</sub> 了<sub>87</sub> 了<sub>88</sub> 了<sub>89</sub> 了<sub>90</sub> 了<sub>91</sub> 了<sub>92</sub> 了<sub>93</sub> 了<sub>94</sub> 了<sub>95</sub> 了<sub>96</sub> 了<sub>97</sub> 了<sub>98</sub> 了<sub>99</sub> 了<sub>100</sub> <D유가18:13-14>

[나는 지금 네 가지의 괴로움에서 어떤 것들을 벗어나 있는 것인가?]

(16)의 예문은 ‘ㅈ’의 선후에 결합하는 선어말어미를 보인 것으로 ‘-나-’와 ‘-ㅈ-’가 많으며, ‘-ㄴ-’, ‘-ㅈ-’, ‘-ㅈ-’, ‘-ㅈ-’, ‘-ㅈ-’, ‘-ㅈ-’, ‘-ㅈ-’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합 양상은 향가와 비슷하지만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16마)는 (16마)의 ‘ㅈ’ 자리에 동명사 어미와 계사의 결합인 ‘ㄱ ㅈ’가 대응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 제시되었다. 이병기(2018)는 (16)에서 보여 주는 ‘ㅈ’의 이중적이고 다양한 결합 양상을 근거로 ‘-리-’를 하나의 선어말어미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석독구결의 ‘ㅈ’는 선어말 구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sup>15)</sup> (16나)의 ‘ㅈ’를 선어말어미가 아닌 일종의 기형적 명사문으로 파악하여 이 ‘ㅈ’는 중세 국어에서 ‘-거-’가 ‘-리-’의 앞뒤에 모두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16)</sup> 요약하면 이병기(2018)은 ‘-리-’를 시상을 나타내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를 선어말어미가 아닌 동명사어미와 형식명사가 결합하여 선어말 위치에 나타나는 선어말 구성으로 파악하여 고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연속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도 형식명사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 3.7. ‘-ㅈ-’

향가와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ㅈ-’는 시상 또는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17) 가.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安民歌>

나. 法界餘玉只出隱伊音叱如支 <懺悔業障歌>

15) 이병기(2018: 86)는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다양한 ‘ㅈ’를 형태적으로 구분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선어말어미와 선어말 구성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16) 이병기(2018: 90)는 여기에 제시된 석독구결 자료의 ‘-ㅈㅈ-’, ‘-ㅈㅈ-’를 중세국어 한글 자료 ‘-거리-’에 소급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여 이광호(2017)의 ‘-리-’를 구분하고 이를 ‘-ㅈ-’에 대응시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다.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 <常隨佛學歌>

斗. 花盼折叱可獻乎理音如 <獻花歌>

(17)은 향가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ㅁㅅ-’로 모두 ‘-ㅁㅅ다’의 형식으로 나타나 양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박진호(2008: 321-322)는 석독구결의 ‘-ㅁㅅㅣ(-ㅁㅅ다)’는 당위, 의무 또는 가능성, 능력, 의지 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향가에 나타나는 ‘ㅁㅅ’와 동일한 형태로 분석되는 석독구결에 나타난 ‘-ㅁㅅ-’의 예를 살펴보자.

(18) 가. {爲}[三]ㄴ 何ㄴ {等}| ㄴ 乙 說ㄴ ㄴ ㄴ ㄴ ㄴ ㄴ ㄴ 諸ㄴ 法ㄴ 壞ㄴ ㄴ ㄴ ㄴ ㄴ ㄴ ㄴ 不ㄴ 矢ㄴ 入  
乙 說ㄴ 矢ㄴ ㄴ 何ㄴ {等}| ㄴ ㄴ ㄴ 法ㄴ 壞ㄴ ㄴ ㄴ ㄴ ㄴ ㄴ ㄴ 不ㄴ 矢ㄴ ㄴ ㄴ ㄴ ㄴ ㄴ 色 壞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受想行識 壞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無明 壞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聲聞ㄴ  
法: 獨覺ㄴ 法: 菩薩ㄴ 法: ㄴ ㄴ ㄴ ㄴ ㄴ ㄴ 壞ㄴ ㄴ ㄴ ㄴ ㄴ ㄴ ㄴ 不ㄴ 矢ㄴ ㄴ ㄴ ㄴ ㄴ ㄴ <D화소  
18:19-19:02-03>

[(중생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말한다 하는가? 어떤 법들이 壞할 수 없다 하는가?  
色이 壞할 수 없으며, 受想行識이 壞할 수 없으며, 無明이 壞할 수 없으며, 聲聞의  
법이니 獨覺의 법이니 菩薩의 법이니 하는 것이 壞할 수 없는 것이다.]

나. 十方七 一切 諸ᄃ 如來ᄃ 悉ᄃ 共七 偈揚ᄃᄃᄃ乃 盡ᄃ 尸 不(ノ)能ᄃ 矢ᄃᄃᄃ口乙 立七  
 | <D화엄09:07>

[十方의 一切 모든 如來가 다 함께 稱揚하시나 다할 수 없습니다.]

다. 吾<sub>1</sub> 今<sub>1</sub> 先<sub>3</sub> 諸<sub>1</sub> 菩薩 {爲}<sub>3</sub> 卽<sub>3</sub> 佛果乙 護<sub>1</sub> 今<sub>7</sub> 因緣<sub>1</sub> 十地<sub>7</sub> 行<sub>2</sub> 護<sub>1</sub>  
 今<sub>7</sub> 因緣<sub>1</sub> 卽<sub>2</sub> 說<sub>1</sub> 白<sub>3</sub> 卽<sub>7</sub> 卽<sub>7</sub> | <D구<sup>91</sup>03:18-19>

[나는 지금 우선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라. 唯ハ 佛人 與七 佛人リニ<sub>1</sub> 乃<sub>1</sub> {斯}リ 事乙 知ニ<sub>1</sub> 亡七<sub>1</sub> | <D구인11:24>

[오직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이시어야 이에 이 일을 아실 수 있다.]

마. 云何セ、十方セ 諸ニテ 如來、一切 菩薩、ノチ 文字乙 離 不冬ソ、而ム 諸テ  
法相ヲ 行ソニヤセ、ソロウ今ウ <D구인15:21-22>

“어찌 十方의 모든 如來이니 一切 菩薩이니 하는 이가 文字를 여의지 않고 모든 法相에 行하신다 합니까?”

마. 敬禮<sup>ソ</sup>白口<sup>ノ</sup>立七<sup>上</sup> 譬喩<sup>ソ</sup>ノ尸入 無<sup>二</sup>下 深無相義<sup>乙</sup> 說<sup>二</sup>口ト<sup>一</sup>乙<sup>上</sup> <D금광  
13:04>

【敬禮합니다, 譬喩할 바 없으시어 深無相義를 說하신 것을.】

사. 諸 行法乙 說<sub>ヒ</sub>尸<sub>ニ</sub> 去來ノ尸 所 無<sub>ヒ</sub>立<sub>セ</sub> | <D금광14:21>

[여러 行法을 說하나 가거나 오는 바 없다.]

석독구결의 (18다)와 (18바)는 ‘ㄱㄷㅌ’ 앞에 각각 ‘ㄱ’와 ‘ㄴ’이 통합되어 있다. (18라)는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ㄴ’에 바로 ‘ㄱㄷㅌ’가 결합되어 있다. 화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 ‘-ㄷ다’의 앞에 ‘-오/우-’가 선행하는 ‘-옳다’로 나타난다. (18가)-(18라)의 ‘ㄱㄷㅌ’의 부분은 미래, 가능성, 당위, 의무, 능력,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18바), (18사)는 일반적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맥으로 볼 때 충분히 당위,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선언어말어미 ‘-ㄷ-’는 우연적 구성인 ‘-옳것흐-’ 구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8가)의 두 번째부

터 여섯 번 나타난 ‘ㄴᄃᆫᆫᆫ’가 우연적 구성에 해당한다. 박진호(1998: 171-173)는 ‘-ㅁ-’ 뒤에는 항상 종결어미 ‘-다’가 오며, ‘-ㅁ-’ 앞에는 ‘-겨-’, ‘-느-’, ‘-오-’가 올 수 있으며, ‘-겹ㅅ다’는 당위, 의무,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였다. ‘-늄ㅅ다’는 가능성,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양태적 의미는 시상과 관련지을 수 있는 ‘-겨-’, ‘-느-’보다는 ‘-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 4.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과제

고대국어 문법 연구는 선어말어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음운, 어휘, 통사 등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자료의 차이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각 자료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선학의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 숨어 있는 연구 방법과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점토석독구결자료를 문법 연구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양적으로 자토점토석독구결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점토석독구결자료는 전사와 해독 등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한 토대 연구가 완성되어 점토석독구결 자료를 고대국어 문법 연구 등 국어사 전반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 연구의 최근 현황을 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형태별로 제시된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겨-’와 ‘-아-’는 중세국어의 확인법어미로 형태적 이형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러한 부분에서 음운적으로 상관성이 먼 두 형태가 동일 기능을 가지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겨-’와 ‘-아-’가 별개의 형태소이고 그 기능이 유사한 면의 교집합에서 설명 가능한 문법 사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대국어에서 타동사와 비타동사의 구별의 유효성 문제는 향후 검토해 볼 과제이다.

둘째, ‘-겨-’는 그 범주 설정에서부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상대존대 기능과 시·상법 기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울 듯하다. ‘-겨-’는 이두와 향가 구결 자료에는 나타나지만 중세 국어나 한글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아 연속성에 의한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조선 후기 이두 자료에까지 그 표기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연관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고대국어 ‘-겨-’의 일부 용법에 의해 ‘-겨-’가 ‘-거-’로 합류한 것에 대한 연구도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겨’를 존재와 관련한 어휘적 요소 또는 보조 동사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겨-’의 문법화와 소멸 과정에 대한 연구도 국어의 상대높임법과 시·상법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과제이다.

셋째, ‘-고-’는 종결형에 결합하는 경우와 비종결형에 결합하는 경우의 기능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느-’, ‘-누-’, ‘-노-’는 ‘-느-’와 ‘-누-’로 분석되는 고대국어 문법 형태의 기능과 관련하여 [향상성]과 [현재시제]라는 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합류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는 유형론적인 관점과 언어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거나 상적 언어에서 시제 언어로 변화한다든지 명사문에서 동사문으로 변화한다든지 하는 언어 변화의 관점에서 고대국어

문법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시제, 상, 서법의 체계상 ‘-느-’의 위치와 범주 설정 시 예외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느-’와 대립하는 계열관계의 문법 형태는 무엇인지 밝혀 고대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시제, 상, 서법의 통시적 연구를 서로 교차하여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다섯째, 고대국어에 나타난 ‘-더-’에 대한 통시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그 범위를 계열관계 또는 통합관계에 있는 요소와의 비교를 통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더-’의 기능 변화와 결합 순서 및 비동일주어 제약 등에 관심을 가져 왔다. 형태, 기능, 문법화, 분포 등이 통시적 관점에서 보다 폭넓게 다루어져야 ‘-더-’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더-’의 어말어미화와 관련하여 ‘-드 -, -드-’ 등 ‘-더-’와 관련된 형태 간의 관계는 물론 향가 등의 고대국어 자료에서부터 자토석독구결, 음독구결 자료까지 일관된 기준으로 가지고 살필 연구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고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더-’의 연구는 존재 확인까지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고대국어의 ‘-리-’는 이를 동명사어미와 여타 요소의 결합이 유지된 상태로 볼 것인가와 문법화가 완성되어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문법화의 시기는 언제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이다.

일곱째, 고대국어의 선어말어미 ‘-ㅁ-’는 양태 의미와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양태 또는 서법의 의미와 시·상법 범주는 어떠한 통합관계와 계열관계에 있는지를 체계 내의 자리에 대한 연구가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고대국어 시·상법 선어말어미에 대한 최근의 연구 현황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각할 수 있었다. 차자 표기는 주로 대표 글자로 고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음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자음으로 나타나는 형태에 비해 변별력이 적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차자표기의 자음을 중심으로 형태를 논의해 보는 방법이다. 이 가설은 시상과 관련된 의미는 초성을 기준으로 ‘-거-’, ‘-겨-’, ‘-고-’로 나타나는 ‘ㄱ’류, ‘-느-’, ‘-노-’, ‘-누-’로 나타나는 ‘ㄴ’류, ‘-다-’, ‘-더-’, ‘-도-’로 나타나는 ‘ㄷ’류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가능성, 원망, 조건 등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성이나 마지막 구성 요소로서 계사 혹은 형식 명사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요소로 ‘-ㄴ-’, ‘-ㄷ-’, ‘-ㅁ-’을 제시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위치에 나타나는 초성 ‘ㄱ’류, ‘ㄴ’류, ‘ㄷ’류는 시제 혹은 상적 문법 기능에 관여하여 계열 관계를 이룬다. 마지막 구성 요소 ‘-ㄴ-’, ‘-ㄷ-’, ‘-ㅁ-’은 전제, 조건 등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며 미정, 기정, 유지를 문법 기능으로 하는 계열 관계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형식명사 등에 결합하는 동명사어미를 기원으로 하는 형태로 어미 구조체를 형성한다.

고대국어 문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박진호(1998)는 시·상법 선어말어미에 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고대국어에서 시제 내지 상과 관련된 요소는 ‘-누-’와 ‘-거/아-’가 있었고, 서법과 관련된 요소는 ‘-고-’, ‘-느-’, ‘-겨-’가 있었다. ‘-누-’는 현재 시제 내지 미완료상, ‘-거/아-’는 과거 시제 내지 완료상과 관련된 요소로 추정된다. ‘-느-’와 ‘-겨-’는 분포가 거의 동일하고 이 둘이 결합되는 일은 없으므로 계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 둘이 하나의 문법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의 문법 범주 내에서 이 둘이 어떤 방식으로 대립하고 있었는지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 시제 내지 상의 대립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현실 서법 대 비현실 서법의 대립으로 보기도 어렵다(박진호 1998: 171).

현재 위에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상법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해결되었는지, 고대국어의 시제 대립인지 상 대립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느-’와 ‘-누-’의 합류와 같은 개별 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세국어와 연결된 고리를 하나씩 늘려 국어의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다.

## 참고문헌

- 국립한글박물관(2018),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 김무림(1998), 고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7-239.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성주(2011), 균여향가 <普皆廻向歌>의 한 해석,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173-215.
- 김성주(2013), 주본화엄경 권제14의 현대역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87-139.
- 김영만(1991), 향가의 ‘善陵’과 ‘頓部叱’에 대하여, 동양학 2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31-56.
- 김영옥(1999), 전기 중세국어의 시제(時相)과 서법(敍法), 先淸語文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719-751.
- 김영옥(2000), 14세기 국어의 시상과 서법, 구결연구 6, 구결학회, 61-85.
- 김완진(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유범(2012), 고대국어 문법 연구의 회고,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41-64.
- 김준영(1979),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 김지오(2010), <懺悔業障歌>의 國語學的 解讀, 구결연구 24, 구결학회, 61-96.
- 김지오(2012), 均如傳 鄉歌의 解讀과 文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풍현(1998), 고대 국어 자료-국어학의 상대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207-241.
- 남풍현(1999), 口訣研究, 태학사.
- 남풍현(2000), 吏讀研究, 태학사.
- 남풍현(2003), 고대국어의 시대구분,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1-22.
- 남풍현(2010), 한국어사 연구에 있어 구결자료의 기여에 대하여, 구결연구 25, 구결학회, 5-20.
- 남풍현(2011a),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白/畚’과 ‘內/아’의 發達,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131-166.
- 남풍현(2011b), 中古韓國語의 文法 概觀,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5-25.
- 류 렬(2003), 향가연구(조선어학전서 13), 박이정출판사.
-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국어학총서 66), 태학사.
- 문현수(2015), 유가사지론 권 20 석독구결의 문법 : 어미,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59-78.

문현수(2018), 차자표기자 ‘飛(ㅿ)’로 표기된 선어말어미에 대하여, 2018년도 겨울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3-52.

문현수·허인영(2018), 문법 형태 ‘-느-’의 통시적 변화,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7-51.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박부자(2018), 시상형태 ‘-더-’의 쟁점과 전망,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53-78.

박성중(2007), 吏讀字 ‘內’의 讀法,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139-170.

박성중(2016), 朝鮮前期 吏讀 研究, 역락.

박재민(2009), 三國遺事所載 鄉歌의 原典批評과 借字·語彙 辨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8), 향가 해독과 국어 문법사, 국어학 51, 313-338.

박진호(2010), 선어말어미 ‘-느-’ 다시 보기, 간행위원회 편 (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 국어학 논총, 태학사, 763-778.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박진호(2016), 제5장 문법,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편, 신라의 언어와 문학(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연구 총서 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28-159.

박진호(2018), 선어말어미 ‘-느-’와 ‘-누-’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1.

백두현(1997), 高麗時代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2, 27-95.

서종학(1995), 吏讀의 歷史的 研究, 영남대학교 출판부.

안대현(2013), 華嚴經疏 卷35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제46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구결학회, 41-85.

양주동(1987),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오창명(1995), 朝鮮前期 史讀의 國語史的 研究：古文書 자료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이 탁(1958), 국어학논고, 정음사.

이광호(2017), 추측확인법과 확인추측법의 의미와 기원, 어문학 137, 한국어문학회, 59-78.

이기문(1967),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기문(1972), 개정판 국어사개설, 탐출판사.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이남순(1998), 時制·相·敍法, 월인.

이병기(1998), 선어말어미 ‘-리-’의 기원, 구결연구 4, 구결학회, 1-22.

이병기(2018), 시상 형태 ‘-(으)리-’의 쟁점과 전망,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79-106.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국어학총서 17), 태학사.

이승재(1993), 고려본 화엄경의 구결자에 대하여, 국어학 23, 국어학회, 325-379.

이승재(1995), 動名詞語尾의 歷史的變化- 舊譯仁王經 과 華嚴經 의 口訣을 중심으로, 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豐絃先生回甲紀念論叢, 태학사, 215-252.

- 이승재(1996), 高麗時代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나(겨)-’, 심재기 외 편, 李基文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517-556.
- 이승재(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 이 용(1999), 석독구결 선어말어미 ‘-ㄱ-’에 대하여, 형태론 1-1, 형태론, 115-132.
- 이 용(2007), <恒順衆生歌>의 解讀에 對하여,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173-205.
- 이 용(2013), 합부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학술대회, 141-225.
- 이 용(2018), 석독구결 문법으로 본 고려가요 해석의 몇 문제, 구결연구 40, 구결학회, 69-94.
- 이준환(2014), 「隨喜功德歌」(普賢十願歌 제5) 解讀,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311-359.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장경준(2007), 瑜伽師地論 點吐釋讀口訣의 解讀 方法 研究, 대학사.
- 장경준(2013), 유가사지론 권20 석독구결의 현대어역, 구결학회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227-337.
-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윤희(2002), 중세국어 終結語尾 연구, 대학사.
- 장윤희(2015), 古代 韓國語 存在用言의 活用 樣相과 意味: 釋讀口訣 資料를 中心으로, 語文研究 4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6.
- 정재영(1996), 終結語尾 ‘-立’에 대하여, 진단학보 81, 진단학회, 195-214.
- 정재영(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13-193.
- 정재영(2000), 고대국어 선어말어미 ‘-ㄴ-’와 그 변화: 선어말어미 ‘-內-’, ‘-飛(ㅌ)-’와 ‘-臥(ㅍ)-’를 중심으로, 형태론 2-1, 박이정, 73-106.
- 정진원(2008), 月明師의 <兜率歌> 해독에 대하여, 구결연구 20, 구결학회, 231-258.
- 조은주(2002), 前期 中世國語의 否定法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현영(1947), 향가여요신석, 정음사.
- 최남희(1996), 고대국어 형태론, 박이정.
- 최동주(1995), 國語 時相體系의 通時的 變化에 對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인영(2018), 차자표기에 사용된 문법요소 ‘內’의 독법과 기능에 대하여, 2018년도 겨울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13-32.
- 홍기문(1956), 향가해석, 과학원.
- 황선엽(2002), 향가에 나타나는 ‘遣’과 ‘古’에 대하여, 국어학 39, 3-25.
- 황선엽(2013), 《舊譯仁王經(上)》의 역주에 대하여, 구결학회 제46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0.
- 황선엽(2018), 국어사 연구와 석독구결,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국립한글박물관, 12-27.
- 황선엽·하귀녀·이진경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 小倉進平(1929), 郷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帝國大學.
- 장경준 편(2019), sktot\_2019\_01(2019년 배포).